제1호

韓國書院學會 2011. 12

창 간 사

한국서원학회가 출범하고 나서 만 6년에 걸친 준비 끝에 이제 『한국서원학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 발 때는 데는 시일이 걸렸지만, 한두걸음 내딛을 때마다 다리에 힘이 올라 앞으로는 힘차게 달릴 터이어서 곧 선발주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호를수록 망각의 늪은 깊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6,7년 전의 일이 가물가물 하는가하면, 앞뒤가 뒤섞여서 정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논리적 설명을 위해 일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순서를 맞추려다 보니까, 끊어진 연결부위를 잇거나 先後를 배열하는데 의도하지 않은 무리가가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한국서원학회 발족과정을 말씀드리려다 아무래도 양해부터 먼저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贅言을 붙였습니다.

한국서원학회에서 작성한 <휘보>에는 2006년 9월 5일에 창립준비위원회 1차 모임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식적 기록이고 그 이전에, 정확한 시일은 기억이 분명치 않습니다만, 2005년 5월 -6월 중에 김인걸 · 이해준 · 정순우 · 권오영 교수님들과 자리를 같이한적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서원문제 때문에 모임을 가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서원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들이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서원 쪽으로 흘러가서 그 연구가 최근 다소 침체되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같이했습니다. 여기서 서원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에서 관리하는, '국학연구진홍사업'의 2006년도 사업에 서원자료정리와 관련된 과제

를 신청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선시대 서원관련 문헌의 수집정리와 DB구축"이란 제목으로 저를 연구책임자로 해 4년간 진행된 '國振'사업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만, 바로 이 시점이 한국서원학회가 태동되던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학회 결성을 위한 논의는 이듬해 6월 '국진'과제의 1년간 실적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면서, 관련 연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여기에 토대해 2006년 9월 5일과 10월 10일의 두 차례에 걸친 학회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모임을 가진 끝에 서원연구자 58분의 발기인 동의를 받아, 마침 같은 해 11월 23일 국민대 한국학연구소(소장지두환 교수)가 개최한 "한중일 서원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 자리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으로 학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보>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어서 후일의 기록을 위해 다소 길게 말

씀을 드렸습니다만, 발족 이후의 활동은 <위보>에서 보듯이 중국 湖南大學의 岳麓書院 및 江蘇省의 白鹿洞서원, 福建省 武夷山市의 朱熹研究中心과의 국제학술회의를 통한 학문교류와,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 국민·공주·충북대학교, 한국서원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국내학술대회, 그리고 수십 회에 걸치는 연구발표와 워크숍·답사 등을 그 동안 수행해 왔고 현재 1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성과가 곧 우리 서원학회가 애초에 목표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창립취지문에서 밝힌 "참신한 연구방법의 모색과 자료의 발굴 및 공유를 통한 공동작업의 수행은 물론 연구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토론"은 아직도 선언 이상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식자층들의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수준 높은 지적욕구에 부응"하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이는 우리 회원 분들의 한 층의 분발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또 달리는 그동안 쌓은 성과를 문자로 정리하는 과정, 곧 '학보'의 발간이 늦어졌던 데에 기인하는 바도크다고 봅니다.

이제 '학보'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로써 새로운 연구추진의 동력이 점화되는 것이고, 과거 속에 묻혀 있던 서원이 일반 식자층들의품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확신합니다.

원래 창간사는 회장이 써야 맞는다고 봅니다. 전임이라는 명칭 때문에 저에게 그런 임무를 지워주신 현임회장 이해준 교수의 배려가 고맙기는 합니다만, 그에 앞서 『한국서원학보』를 창간해 주신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옥고를 보내주시어 창간호의 聲價를 빛내주신 필자 선생님들 께 진심어린 따뜻한 마음을 보냅니다.

> 2011년 12월 정만조(초대회장) 삼가 씀

目 次

논문

韓國 書院의 立地와 景觀에 대한 讀解 전	김덕현	/	9
조선시대 파주지역 사족과 서원 활동 7	정만조	/	47
조선중기 朱子祭享 書院의 사회사적 성격 ?	정현정	/	87
19세기 후반 武城書院의 講習禮에 관한 일 고찰	박종배	/	125
魯岡書院 資料의 類型과 性格 с	기해준	/	153
王陽明 書院講學의 理念과 實際 с	기우진	/	181
시평			
서원 연구의 현재적 의의와 향후 과제 7	김인걸	/	213
서원문서와 사회사 연구 7	정승모	/	221
희 부			237

Articles

Reading on the location and landscape of Korean Seowon
An Essay on the Literati in Paju(坡州) and their life at Seowon(the private Confucian Academy) in Jeosun Dynasty … Chung, Man-Jo
A Study on the Nature of Memorial Halls Holding Religious Service to Zhu Xi in Social History in Middle Joseon Jeong, Hyeon-Jeong
關于十九世紀末武城書院講習禮的一考察 朴鍾培
A Study on the Type and Nature of the Materials of Nogang Memorial HallLee, Hae-Jun
Wang Yang-ming's idea and practice of academy education. Lee, U-Jin

韓國 書院의 立地와 景觀에 대한 讀解

김 덕 현*

- 1. 한국 서원의 입지와 경관 연구의 의의
- 2. 신유학의 書院觀과 仁 그리고 風水地理
- 1) 신유학의 書院 立地觀
- 2) 新儒學의 仁
- 3) 풍수지리와 한국 서워의 자연지리적 특성
- 3. 한국 서워의 입지와 경관 사례
- 1) 소수서워 2) 옥산서워 3) 도동서워 4) 남계서원
- 5) 필암서워 6) 무성서워 7) 병산서워 8) 도산서워과 돈암서원
- 4. 맺음말

국문요약

이 글은 한국의 대표적 서원의 案對 景觀을 독해하고, 서원 경관에 再現된 天人合一에 대한 해석을 추구하였다. 서원을 발전시킨 신유학은 서원 입지에 大自然과 一體가 된다는 知覺을 얻을 수 있는 경관을 요구하였다. 서원 설립자들은 입지의 자연지리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안대 경관을 구성하고, 그 유교적 의미를 詩文과 記文으로 해석하였다. 한국의 서원 경관은 大自然과 一體感을 知覺할 수 있도록 自然性과 開放性을 중시하였다. 한국서원의 자연성과 개방성은 중국서원과 구별되는 한국서원의 固有

투고일: 2011년 11월 7일 심사일: 2011년 11월 7일 심사확정일: 2011년 11월 25일

^{*} 慶尙大學校 地理教育課 教授

性과 眞正性이라 할 수 있고, 이는 背山臨水・前低後高의 構造로 표현된다. 한국서원의 입지・경관에서 지각된 新儒學의 仁은 각 서원의 입지 특성에 따라 다양한 景觀으로 再現되었다. 사례연구의 대상인 7개 한국 서원의 案對 景觀을 입지유형에 따라 野景・山景・江景・溪景 등으로 분류하고, '天人合一의 仁'과 관련하여 解釋을 試圖했다.

주제어: 강경, 경관 독해, 계경, 산경, 신유학, 안대 경관, 야경, 천인합일

1. 한국 서워의 입지와 경관 연구의 의의

書院은 중국에서 起源하여 宋代에 크게 발전하였다. 16세기에 朝鮮에 도입된 서워은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부포하고 現代에까지 數百 개가 存在하다. '講學과 藏修'로 表現되는 書院敎育의 實踐的 性格은 서워을 鄕 村 유교문화의 대표적 공간으로 만들고, 儒學者 個人에게는 '天人合一'의 仁과 '天理 節文'의 禮를 실천하는 場所가 되었다. '講學과 藏修'를 本質로 하는 서원문화는 조선시대 韓國 書院에서 發展 深化되었다. 그 결과 한국 서워은 中國 書院의 單純한 模倣이 아니라. 固有性과 眞正性을 가졌다. 본 硏究는 그 固有性과 眞正性의 주요 측면이 書院의 立地와 景觀이라는 점 에 注目하여, 서원문화의 本質과 한국 書院의 立地・景觀의 關聯性을 찾 고자 했다.

이번 硏究에서는 書院의 立地와 案對 景觀, 즉 展望 景觀에 대한 讀解 를 통하여 新儒學이 추구하는 '天人合一의 仁'의 知覺에 寄與한 바를 考察 하고자 한다.¹⁾ 이를 위하여, 1) 韓·中 書院 創設 主導 人物들의 書院觀을 確認한다. 2) 國家 史蹟文化財로 지정된 대표적 한국 書院가운데, 案對 景 觀이 現存하고 新儒學的 概念을 통하여 解釋할 수 있는 資料가 있는 7개 서원의 입지와 경관을 重點 考察한다. 3) 儒學者들이 書院 案對 景觀을 仁 · 敬과 같은 儒敎的 槪念으로 解釋한 서원의 記文과 詩文을 分析한다. 4) 自然地理的 立地 特性에서 나타난 案對 類型과 이에 대한 儒教的 理解를

¹⁾ 본 연구에서 景觀이란 용어는 한눈에 보이는 시각적 대상을 칭한다. 風景 또는 風光이라는 말과 유사하지만, 경관에서는 視覺的 知覺이 강조된다. 11세기 이후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발전을 이룬 하나의 사상 체계에 대한 명칭으로서 性理學・ 程朱學・道學・宋明理學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의미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新 儒學(Neo-Confucianism)을 이 연구에서 사용하기로 한다.

綜合하여, 한국 서원의 固有性과 眞正性에 書院 立地・景觀이 寄與한 바를 考察한다.

2. 신유학의 書院觀과 仁 그리고 風水地理

신유학의 書院觀, 風水地理, 그리고 新儒學者들이 定義하는 仁의 概念 등이 한국 서원의 立地와 景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風水的 觀點이 新儒學의 서원관을 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실제로 適用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본다. 한국 서원 입지에서 신유학의 서원 입지관 뿐 아니라 풍수적 관점이 중요하게 작용함으로써, 한국의 서원은 중국의 서원과 분명히 차별화되는 입지・경관의 固有性을 가지게 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이러한한국 서원의 특징적 입지와 경관 구성이 新儒學의 仁을 再現한 것으로 解釋하고자 한다. 먼저 신유학의 書院觀과 仁 概念, 그리고 風水地理를 考察함으로써, 한국 서원의 입지와 경관을 讀解하는 기초로 삼고자 한다.

1) 신유학의 書院 立地觀

서원은 동아시아 전통시대의 성인교육 기관으로 서구의 대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서원은 중국 송나라 시대 鄕村에서 도학을 추구하는신유학 사대부 계층에 의해서 융성했다. 朝鮮에서는 16세기 士林들에 의해서 도입 발전되었다. 중국과 조선에서 新儒學을 정립하고 서원창설을주도한 대표적 인물이 南宋의 朱子와 朝鮮의 退溪이다.

중국의 주자는 아래 글에서 白鹿洞書院이 아름다운 산수로 둘러싸여

시끄러운 시내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隱遁하면서 학문을 논하고 저술을 하는 곳으로 정의한다.

"그 사면 산수를 보면 깨끗하고 깊은 것이 빙 둘러 합쳐지고, 저자거리 의 시끄러운 소리가 없으며, 시원한 샊과 돌이 아름다운 곳이니, 진실로 모 여 살면서 학문을 논하고 자취를 숨겨서 글을 쓰는 곳이다.(觀 其四面山水 清邃環合、無 市井之喧、有泉石之勝 群居講學遯迹著書之所"-『朱子大全』 권99、'白鹿洞牒')

퇴계는 감사에게 周世鵬이 창건한 白雲洞書院의 賜額을 조정에 上奏 할 것을 요청하였다. 퇴계는 서원이 향교와 달리 시내에서 떨어져 한적한 곳이 있어야 하고 선정의 자취가 남아 있는 연고지에 서원을 건립할 것을 주장했다.

"…무릇 왕궁과 수도로부터 지방의 고을에 이르기까지 서워이 없는 곳 이 없었으니 서원에서 취할 이점이 무엇이 길래 중국에서 저토록 숭상한단 말입니까? 은거하여 뜻을 구하는 선비와 도학을 강명하고 학업을 익히는 사람들이 흔히 세상에서 시끄럽게 다투는 것을 싫어하여 서책을 싸 짊어지 고 넓고 한적한 들판이나 고요한 물가로 도피하여 선왕의 도를 노래하고, 조용히 천하의 의리를 두루 살펴서 덕을 쌓고 인(仁)을 익혀 이것으로 낙을 삼을 생각으로 기꺼이 서원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국학이나 향교가 사 람이 많이 모이는 성곽 안에 있어서 한편으로 학령(學令)에 구애되고 한편 으로 과거(科學) 등의 일에 유혹되어 생각이 바뀌고 정신을 빼앗기는 것과 비교할 때 그 공효를 어찌 동일 선상에 놓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 점에서 말하자면 선비의 학문이 서원에서 역량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나 라에서 인재를 얻는 데도 틀림없이 서원이 국학이나 향교보다 나을 것입니 다. 옛날 밝은 군주는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사방에서 기뻐하고 사모하 여 다투어 본받아 진실로 선정(先正)의 자취가 남고 향기가 뿌려져 있는 곳, 예를 들어 최충(崔冲)・우탁(禹倬)・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김종

직(金宗直)·김광필(金宏弼) 등이 살던 곳에 모두 서원을 건립하되 혹은 조정의 명에 의하고 혹 사사로이 건립하여서 책을 읽고 학문을 닦는 곳이 되어 성조(聖朝)의 학문을 존중하는 교화와 태평한 세상의 교육의 융성을 빛내고 드높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장차 우리 동방 문교(文敎)가 크게 밝아져 추로(鄒魯)나 민월(閩越)과 더불어 훌륭함을 나란히 일컫게 될 것입니다."2)

中國의 朱子와 朝鮮의 退溪는 共通的으로 書院의 立地는 官學과 달리都市에서 떨어진 조용한 場所가 되어야 하며, 泉石之勝에서 自由로운 學問 研磨의 장소로 정의하였다. 여기에, 조선의 퇴계는 선현의 연고지를 입지에 추가하였다. 특정 유학자를 祭享하는 한국 서원의 전통은 결과적으로 선현의 유적지에 서원 건립을 주장한 퇴계의 견해와 관련이 있다. 講學과 祭享을 양대 요소로 하는 한국 서원의 전통은 한국의 자연지리적 특성과 결합되어 '前學後廟'라는 위계적 공간구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2) 新儒學의 仁

유교가 추구하는 근본 가치는 仁이며, 그 사회적 실천 규범은 禮이다. 공자는 "仁이라 자기(私慾)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克己

^{2) &}quot;夫自王宮國都。以及列郡。莫不有學。顧何取於書院。而中國之所尙如彼。何哉。隱居求志之士。講道肄業之倫。率多厭世之囂競。抱負墳策。思逃於寬閒之野。寂寞之濱。以歌詠先王之道。靜而閱天下之義理。以蓄其德。以熟其仁。以是爲樂。故樂就於書院。其視國學鄉校在朝市城郭之中。前有學令之拘礙。後有異物之遷奪者。其功效豈可同日而語哉。由是言之。非惟士之爲學。得力於書院。國家之得賢。亦必於此而優於彼也。古之明君知其然。…如是則四方欣慕。爭相效法。苟有先正遺廛播馥之地。若崔冲,禹倬,鄭夢周,吉再,金宗直,金宏弼之居。莫不立書院。或出於朝命。或作於私建。以爲藏修之所。以賁揚聖朝右文之化。明時樂 育之盛矣。如是則將見吾東方文敎之大明。可與鄒魯閩越。幷稱其美矣。"-『退溪先生文集』 권9(書),"上沈方伯通源"

復禮의 仁을 말하였다. 3) 心性論이 중심이 된 宋 時代 道學者는 仁을 "必 有知覺之謂仁"이라 하였다.4) '仁'에 대한 접근 방법을 '마음의 지각(覺)' 으로 이해한 것이다. 程子는 "仁者, 以天地萬物. 爲一體"하여 天人合一의 仁을 말했다. 더 나아가 朱子는 "仁者, 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 라 하여, 合一은 마음(心)의 合一이란 점을 밝혔다. 朱子의 學問을 추종하 는 조선의 유학자들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마음을 얻기(天地生物之心, 而 人之所得以爲心) 좋은 아름다운 山水景觀을 그들의 藏修處로 求했다. 精 舍와 書院이 그것이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天人合一의 仁'을 의미하는 마 음의 知覺과 境地를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生意)', '私心 없이 공정한 마음(廓然而大公)', '大自然과 일체가 되는 즐거움(浴平沂 風平舞雲 詠而 歸, -曾點之樂), '道와 하나가 되는 精神 境地(胸中洒樂 如光風霽月)' 등으 로 보았다. 이에 대한 신유학자의 주장을 나누어 고찰하면 아래와 같다.

(1)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生意)

"인이란 천지가 만물을 낳은 마음이요. 사람이 그것을 얻어 마음으로 삼 는 것이다.(仁者 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 - 朱子, 『朱子語類』下 권105, 仁說圖.

"천지가 만물을 낳는 기상을 보아라. 만물의 생의가 가장 볼만하니, 元 (봄)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 이것을 인이라 한다.(觀天地生物氣象, 萬 物之生意最可觀, 此元者善之長也 斯所謂仁也)" - 『近思錄』, 道體類.

(2) 사심 없이 공정한 마음(廓然而大公)

"인욕이 없으면 곧 천리이다.(無人慾無人慾則 皆天理)" - 『二程全書』 "천지의 상도는 그 마음이 만물에 두루 미치나 사사로움이 없고, 성인의

³⁾ 顏淵問仁、子曰"克己復禮爲仁.一日克己復禮、天下歸仁焉.爲仁由己、而由人乎 哉?"-『論語』'顔然'.

⁴⁾ 謝良佐, 『宋元學案』, 권24, '伯逢問答'; 陣來 著, 안재호 옮김, 『宋明性理學』, 예문 서원, 1997, pp.197~199에서 재인용.

상도는 그 정이 만물에 순응하나 사사로운 정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의 학문은 확 트여서 크게 공정하니, 사물이 와서 순응하지 않음이 없다.(夫天地之常, 以其心普萬物而無心. 聖人之常, 以其情順萬事而無情, 故君子之學 莫若 廓然而大公, 物來而順應)" - 程顥, 『定性書』.

"자기 마음을 확대하면 천하 만물과 하나가 될 수 있다.(大其心則體天下之萬物)" - 張載, 『張載集』, 『正蒙』, '大心'.

"공(公)이란 것은 인(仁)을 체득하는 방법이니, '자기를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면 인이 된다(克己復禮爲仁)'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대체로 공적이면 어질게 되고 어질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公者 所以體仁 猶言克己復禮爲仁也, 盖公則仁)" - 『朱子語類』下,卷105.

(3) 大自然과 일체가 되는 즐거움("浴平沂 風平舞雩 詠而歸", '曾點之樂')

"子路曾皙冉有公西華侍坐 子曰 以吾一日長乎爾 毋吾以也 居則曰不吾知也 如或知爾 則何以哉 子路率爾而對曰……曰 莫春者 春服旣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夫子喟然歎曰 吾與點也"-『論語』'先淮'.

"마음이 유연하여 곧바로 대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어 심오한 경지를 얻으니 이는 은연중 말로써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其胸次悠然 直與天地萬物,上下同流各得其所之妙,隱然自見於言外)"-『論語集註』,'先進'.

"음풍농월하며 돌아와 '나는 증점과 함께 하리라'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吟風弄月以歸、有吾與點也之意)" - 程顥、『二程全書』遺書.

(4) 道와 하나가 되는 精神 境地

"안자의 즐거움은 어떤 것입니까? ... 안연이 도를 즐긴 것이라고 말하면, 안연일 수 없을 것이다.("鮮于先問伊川曰: 顏子何以能不改其樂? 正叔曰 顏子所樂者何事? 先對曰 樂道而已'伊川曰 使顏子而樂道 不爲顏子矣" - 『二程集』程氏外書

"仁은 천지만물과 일체가 되는 것이다.(仁者, 以天地萬物爲一體)" - 『二程全書』, 권1.

"인품이 대단히 높고 마음속이 구속되는 바 없이 시원하여 비온 뒤 반짝 이는 바람결과 맑은 달과 같았다.(人品深高 胸中洒樂 如光風霽月)"-朱熹. 『周敦頤集』、周敦頤事狀.

"삼가 천년을 전해 온 군자의 마음, 가을 달 찬물 위에 비추네(恭惟千載 心, 秋月照寒水)"-『朱子全書』卷66, '齋居感興二十首'第10首.

3) 풍수지리와 한국 서워의 자연지리적 특성

전통시대 한국의 취락 입지와 건축에 풍수적 사고가 지대한 영향을 미 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현존하는 많은 서워의 입지와 공간구조에서 풍수 지리적 사고가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風 水와 儒家는 陰陽五行에 기초한 有機體적 世界觀을 공유하고, 이론적으로 모두 生氣를 중시하고 感應・感通을 인정한다. 傳統時代의 地理는 곧 風 水를 의미했고, 유학자에게 풍수 지식은 중요한 敎養이었다. 왕릉과 주요 공공기관의 입지 선정에는 풍수가 공식적으로 활용되었고, 유학자 가운데 는 상당한 풍수적 식견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風水의 生氣感應은 땅속을 돌아다니는 '기가 귀신에 감응하여 복이 산 사람에 미친다(氣感而應鬼. 福 及人)'5)는 因果的 禍福論이다. 그러나 儒家가 자연지형에서 느끼는 生氣 感應은 화창한 草木에서 느껴지는 자연계의 생명 의지(生意)와 일체감을 느낀다는 情感的 感通이다. 0 朱子는 自然界의 氣와 사람의 氣 사이의 연 결은 사람의 마음을 媒介로 하며, 氣와 道德은 마음을 매개로 感誦하다고 주장했다.7)

^{5) 『}錦囊經』第1 氣感篇.

^{6) &}quot;높이 솟은 정자에서 굽어보는 시내, 이른 새벽에 올라 저녁에 이르도록 보는구나. 아름답고 따뜻한 봄날에, 이 시내 건너편 나무들을 바라보도다. 잇달아 숲을 이루 어 아름다움을 뽐내니, 각각 생의가 드러난다. 위대한 조화는 본래 말이 없거늘 뉘라서 이 마음 함께 나눌고.(危亭俯淸川 登覽自晨暮 佳哉陽春節 看此隔溪樹 連林 爭秀發 生意各呈露 大化本無言 此心誰與晤)"-『朱子大全』卷6, '題林澤地之欣木 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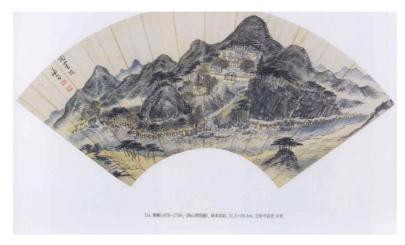
서원과 관련해서 풍수지리의 구체적 영향은 山脈과 背山을 중심으로 지형적으로 圍繞된 경관 구성, 그리고 서원의 前面 景觀 즉 案對 景觀에서 발견된다. 退溪는 陶山書院의 입지를 묘사한 아래 '陶山雜詠幷記'에서 陶山書院에 이르는 山脈에서부터 背山이 된 陶山, 그리고 좌우로 圍繞하는 산을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 <그림 1> 주거나 공공장소 등 陽宅 입지에서 이어진 山脈과 圍繞하는 山勢, 그리고 背山은 조선시대 각종 地理志에서도 필수 기술 항목이었다.

"靈芝山 한 줄기가 동쪽으로 나와 陶山이 되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산이 두 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산이라 이름하였다." 하고, 또 어떤 이는, "옛날 이 산중에 질그릇을 굽던 곳이 있었으므로 그 사실을 따라 도산이라한다." 하였다. 이 산은 그리 높거나 크지 않으며 그 골짜기가 넓고 형세가뛰어나며 치우침이 없이 높이 솟아, 사방의 산봉우리와 계곡들이 모두 손잡고 절하면서 이 산을 빙 둘러싼 것 같다. 왼쪽에 있는 산을 東翠屛이라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西翠屛이라한다. 동취병은 淸凉山에서 나와 이산 동쪽에 이르러서 벌려 선 품이 아런히 트였고, 서취병은 영지산에서 나와 이산 저쪽에 이르러 봉우리들이 우뚝우뚝 높이 솟았다. 동취병과 서취병이 마주 바라보면서 남쪽으로 구불구불 휘감아 8, 9리쯤 내려가다가, 동쪽에서 온 것은 서쪽으로 들고 서쪽에서 온 것은 동쪽으로 들어 남쪽의 넓고 넓은 들판 아득한 밖에서 합세하였다.8)

서원과 같은 陽宅 立地에서 전면에는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전망 경

^{7) &}quot;天地間無非氣。人之氣與天地之氣常相接,無間斷,人自不見。人心才動,必達於氣,便與這屈伸往來者相感通"-『朱子語類』上 권3 鬼神; "感於物者 心也" - 『朱子大全』上 권32, '答張敬夫'.

⁸⁾ 靈芝之一支東出。而爲陶山。或曰。以其山之再成。而命之曰陶山也。或云。山中舊有陶竈。故名之以其實也。爲 山不甚高大。宅曠而勢絶。占方位不偏。故其旁之峯巒溪壑。皆若拱揖環抱於此山然也。山之在左曰東翠屏。在右曰西翠屏。 東屏來自淸涼。至山之東。而列岫縹緲。西屏來自靈芝。至山之西。而聳峯巍峨。兩屏相望。南行迤邐。盤旋八九里許。則東者西。西者東。而合勢於南野莽蒼之外。水在山後曰退溪。在山南曰洛川。溪循山北。而入洛川於山之東。川自東屏而西趨。至山之趾。-『退溪先生文集』 23, '陶山雜詠幷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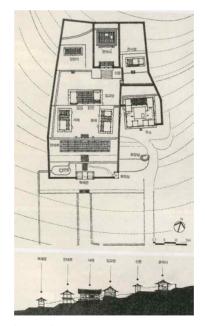


〈그림 1〉謙齋 鄭敾의 陶山書院圖

관이 있다. 한국의 서원은 대체로 背山臨水하고 전면에는 案(山)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案對 景觀'으로 定義한다. 한국서원은 대체로 경사지에 입지하여 前低後高 구조를 가지고 담장(牆垣)을 낮게 두 른다. 이는 서원 내부에서 외부 자연을 전망하기 좋은 開放的 구조를 형성 하기 위한 것이다. 서원에 따라서는 전망이 양호한 곳에 樓亭을 세워 遊息 장소로 활용한다. 다음 屛山書院의 立地와 景觀構成의 그림이 사례이다. (그림 2, 3).



〈그림 2〉 屛山書院의 背山臨水 立地



〈그림 3〉 屛山書院의 前低後高 構成

특히 樓亭 명칭에는 안대 경관의 특성이 반영되고, 이 명칭은 서원의 전망 경관에 대한 유교적 感受性을 含蓄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원의 안대 경관을 통하여 新儒學의 핵심 명제인 '天人合一의 仁'이 情感的으로 知覺 되는 사례를 考察하여, 景觀에 再現되는 仁의 類型을 탐구하고자 한다.

3. 항국 서원의 입지와 경관 사례

1) 소수서워

경상북도 순흥면 내죽리에 있는 紹修書院은 1543년 설립된 조선 최초 의 서원이며, 1550년(명종 5) 賜額書院이 되었다. 소수서원의 처음 이름은 白雲洞書院이고 退溪 李滉이 조정에 賜額을 요청하여 소수서원으로 바뀌 었다. 백운동서원은 周世鵬이 安珦이 독서하던 寺刹 '宿水寺' 터에 그의 사당을 세우고 그 앞에 선비들이 독서하는 서워을 세운데서 시작되었다.

숙수사라는 옛 절터에 세워진 소수서원(백운동서원)의 자연적 입지는 뒤로는 멀리 소백산이 있고, 전면에는 鶴駕山이 있다고 아래 시에 묘사되 었다. 실제는 서워의 遠景에 해당하는 소백산은 보이지만 朝山에 해당하 는 학가산은 보이지 않는다. 서원은 낮은 구릉성 산지 靈龜峰을 背山으로 한다. 前面의 案對 경관은 서원 앞의 竹溪과 그 건너편 蓮花峰 기슭의 翠 寒臺이다. 서원은 오래된 마을에 인접해 있다.

白雲洞賦9) 옛날 숙수사 절 터에

宿水古寺

⁹⁾ 곽진、『丹谷先生文集』 卷1、紹修書院、『紹修書院誌』、2007에서 재인용.

새롭게 새운 백운동서원白雲新院소백산 뒤에 있고小白在背앞에는 학가산이 있네鶴駕其面감싸고 흐르는 시내 이름은 죽계이고溪一帶兮名竹백리 고을 순흥이라 하네州百里兮號順태평리 마을 인접하여里接大平오랜 세월 평화로운 곳日月古兮長春

소수서원의 공간 구성은 한국 서원의 전형적 양식과 매우 다르다. 후대 서원의 건축물은 대체로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軸線에 따라, 門樓(혹은 대문)-講堂-祠堂이 위계적으로 배열된 정연한 구조를 보인다. 소수서원 역시 구릉성 산지와 계류가 있는 곳에 입지하고 있으나, 건축물들의 좌향과 배치는 이 지형에 순응하는 背山臨水의 坐向과 位階的 배열을 하지 않았다. 정문을 비롯하여 사당과 동·서재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건물이 南向이다. 반면, 講堂과 문루에 해당하는 景濂亭은 죽계를 바라보는 東向이다. 사당과 동서재가 남향하는 까닭은 남쪽으로 조성된 서원의 출입로에 응하기 위한 것이다. 경렴정과 강당이 동향한 것은 죽계와 그 건너편翠寒臺 숲을 展望하는 案對 景觀을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경렴정은 입지나 기능으로 볼 때 소수서원의 문루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정자에 오르면, 죽계와 그 너머 산의 생기가 눈을 가득 채운다. 이 서원을 창건한 주세붕의 시 '白雲洞書院' 註에 의하면, 경렴정은 숙수루 옛 터에 건립되었는데, 숙수루는 불교 사찰 숙수사의 누각이다.¹⁰⁾ 景濂亭에서 마주 보는 바위에 크게 각자한 '敬' 자가 있는데, 주세붕이 敬자를 새기게 된 내력을 아래와 같이 풀이하였다.

^{10) &}quot;홍주에 백운동 서원이 있으니 바로 숙수사 옛터이다. 숙수루 옛 시에 '차갑게 산 빛을 밀며 스님은 문을 닫고 싸늘한 물소리 밟으며 나그네는 정자에 오르네.' 하였다. 그 숙수루가 지금의 경렴정이 되었다(興州有白雲洞書院 則宿水寺舊址 宿 水樓舊題云 '寒推嶽色僧扃戶 冷踏溪聲客上樓' 樓今爲 景濂亨)." - 숙수루 시는 魯 璵의 '順興宿水寺樓'를 말한다, 앞의 『紹修書院誌』p.508에서 인용.

문성공(文成公)의 사당 앞 깎아지른 석벽에 '경(敬)'자를 새기려고 하니, 서원의 모든 벗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괴이하게 여김만 당할 뿐이라고 경계하고, 또 말하기를. "마땅히 스스로 마음속으로 공경하면 되지, 어찌 굳이이것을 돌에 새겨야만 하겠는가." 하기에, 나도 감히 강행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회옹(晦翁)의 이 말을 찾게 되어 벗들 앞에 보이고서. "선천(先天)의모든 그림도 새겼는데 유독 경(敬)자를 새기는 것만 안 된단 말인가? 일찍이 이르기를, '敬은 구차함의 반대이니 잠깐이라도 구차하면 이는 곧 불경(不敬)이다.' 하였다. 이는 실로 우리 회헌(晦軒)이 회옹(주자)과 부합되는 것이니 더욱 새기지 않을 수 없다. 묘원(廟院)은 비록 오래 보존되지 못하더라도 이 석각(石刻)이 마멸되지 않아 1천 년 후에 사람들이 이것을 일컬어 '경석(敬石)'이라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니 모두 좋다고 하여 드디어 새겼다. - 『竹溪志』卷5, 雜錄・『武陵雜稿』別集卷6, 白雲洞石壁敬字.11)

그러나 安珦의 사당을 세우면서 죽계에 敬자를 각자한 사연은 敬자가 邪惡한 기운을 막아준다는 의미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세조 3년에 錦城大君과 順興府使 李甫欽의 端宗復位 謀議가 발각되었다. 順興에서는 처참한 殺戮이 있었고 죽계는 희생자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한다. 폐지된 순흥을 병합한 풍기군수인 주세붕이 그 때의 원혼을 달래고 사악한 기운을 막아내고자 했다. 또 유학의 새로운 분위기를 일으키자는 염원으로 죽계천 바위에 '敬'자를 새기게 되었다 한다. 아래 詩에서, 조선말의 유학자 郭鍾錫은 바위에 새긴 敬의 의미를 여러 성인이 서로 전해 온 마음으로 잡귀를 항복시키고 마음에 참된 주재를 세우는 것으로 해석한다.12)

경석(敬石)

여러 성인이 서로 전한 한 조각의 마음, 千聖相傳一片腔13)

^{11) 『}紹修書院誌』에서 재인용.

^{12) &}quot;敬是閑邪之道 閑事存其誠 雖是兩事, 然亦只是一事 閑邪則誠自存矣", "所謂敬者 主一之謂敬 所謂一者 無適之謂一" - 『二程全書』.

¹³⁾ 덕성을 함양하려면 경을 지켜야 하고 학문의 정진은 산과 물을 살피면서 天地萬物

바위에 새겨도 온갖 잡귀가 항복하네. 鐫崖猶得百邪降 만약 자신의 참된 주재를 세운다면, 若待自家眞宰立 세간의 어떤 사물이 다시 소란을 피우리. 世間甚物更嬰撞

이 시의 註에서 곽종석은 "세상에 전하기를 이 동네에 귀신이 있었는데, 주선생이 바위 옆면에'敬'자를 쓰자, 그 뒤로는 요귀가 감히 나타나지 않았다(世傳 洞有鬼怪 周先生書敬字于石面 自是妖不敢作)."고 하였다.14)'敬'자 바위를 바라보는 경렴정에는 많은 시판이 걸려 있다. 대부분이 주세붕과 퇴계의 시를 차운한 시이다. 경렴정에 걸려 있는 주세붕의 시는아래와 같다.

경력정 景濂亭15)

산은 우뚝 서 있는데 공경한 빛깔, 山立祗祗色 시내는 졸졸 흐르는데 층층의 소리. 溪行亹亹聲 은거한 이 마음도 이를 앎이 있겠지, 幽人心有會 한 밤중에 나 홀로 정자에 기대 있네. 夜半倚孤亭

주세붕은 우뚝한 산색을 공경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시냇물 소리는 정자에 은거한 사람의 마음과 감통한다고 읊었다. 경렴정에서, 은거하여 본성을 함양하는 사람의 恭敬하는 자세가 산 빛깔·물소리와 感通한다는 所懷를 읊은 것이다.16) 경자 바위의 의미는 涵養의 방법에서 나아가, 성리학에서 말하는 仁의 개념으로 발전한다. 程子는 『周易』坤卦 文言傳의 '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에 대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敬으로써 內心을 바르게 하는 것을 곧 仁이라고 풀이한 바 있다.17) 퇴계 이황은

⁽自然)의 理致를 窮理한다는 '涵養須用敬; 進學則在致知-程氏遺書 권18'은 中國 宋代 新儒學의 先驅者들이 확립한 修養과 學問 方式이다.

¹⁴⁾ 郭鍾錫의 紹修十詠 : 『紹修書院誌』에서 재인용.

^{15) 『}武陵雜稿』 권2、別集、詩、『한국문집총간』.

^{16)&}quot;涵養須用敬 進學則在致知"-『近思錄』,爲學類.

주세붕의 恭敬에서 나아가 '草有一般意' 곧 生意로 의미 부여한다. 주세붕의 시를 차운한 아래 경렴정 시에서, 퇴계는 산에서 자라는 풀들도 생의를 가진 것으로 읊는다. 끝없이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그 생의를 함축한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경렴정(景濂亭)18)

풀도 우리 인간처럼 생의를 가졌으니, 草有一般意 흐르는 시내 끝없는 소리를 머금었네. 溪含不盡聲 유람객들 내 말 아직 믿지 못하는 듯, 遊人如未信 씻은 듯이 상쾌한 텅 빈 정자를 보게나. 蕭洒一虛亭

백운동서원을 소수서원으로 고쳐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만든 퇴계 이황은 나의 마음처럼 저 풀도 生意를 가지고 있으니, 끝없이 흐르는 시냇물소리에도 그 오묘한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程明道가 말하기를, 그의 스승 濂溪 周敦頤가 창 앞의 풀을 뽑지 않아 그 이유를 물었더니, "내 마음과 같기 때문이다(與自家意思一般)"라고 했다.19) '景濂亭'이란 이름은 염계 주돈이를 추존한다는 의미가 있다. 퇴계는 사람들이 경렴정 위에서 송림과 시냇물을 보며, 周濂溪처럼 천지에 가득한 生意로서 仁을 깨닫기 바라는 것이다. 퇴계는 경렴정에서 바라보는 案對 景觀 죽계와 취한대를 '천지가 물을 낳는 마음을 얻어 나의 마음으로 하는(仁者 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20) 곳으로 본다. 경렴정을 '천지만물과 하나가 되는 인(仁者 以天地萬物爲一體)"21)을 함양하는 장소로 읊는 것이다.

경럼정에서 작은 시내 竹溪와 松林으로 이루어진 翠寒臺가 전망되는데,이 안대 경관의 類型은 溪景으로 부룰 수 있다.이 경치는 규모가 크지

^{17)&}quot;敬以直內 義以方外 仁也"-『程氏遺書』 제11권.

^{18) 『}退溪集』別集, 권1, 詩, - 『한국문집총간』제031책 028a.

^{19) &}quot;明道先生日,周茂叔窓前草不除去 問之云"-『近思錄』14권, 觀聖賢.

²⁰⁾ 朱子, 『朱子語類』下 권105, '仁說圖'.

^{21) 『}二程全書』 권1.

않고 거리도 가까워서 친근하다. 경렴정에 오르는 사람들은 '敬' 자가 의미하는 바를 성찰해볼 수 있다. 邪惡함을 물리치고 人慾을 경계함으로써, 存心養性하는 恭敬한 마음이 있다. 더 나아가 취한대 숲이 전하는 生意를 知覺함으로써 자연과 일체화되는 情感, 곧 仁의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작은 시냇가에 입지한 溪景, 소수서원 경렴정에서 '敬으로써 涵養하고, 마침내 天地가 만물을 낳은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하는 仁'을 느낄수 있을 것이다.

2) 옥산서원

옥산서원은 현재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다. 1572년(선조5)에 경주 부윤 李濟閔과 儒林의 公儀로 晦齋 李彦迪을 향사하는 서원을 회재의 藏修之地 獨樂堂 아래 紫溪 계곡 변에 건립하였다. 1573년 경주西岳 鄕賢詞에서 位版을 옮겨와 서원에 奉安하였다. 같은 해 12월에 '玉山書院'이라는 賜額書院이 되었다. 이처럼 서원의 건립과 사액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官이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기 때문이다.22) 옥산서원은 초기의 서원임에도 가장 전형적인 서원 공간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또한 서원의 건립과정이 체계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옥산서원은 道德山 줄기에서 뻗어 내린 紫玉山을 바라보는 紫溪 계곡 가에 西向으로 立地한다. 그러나 자옥산보다 紫溪가 더 의미 있는 안대경관으로 지각되었음을 아래 許 曄의 '玉山書院記'에서 알 수 있다.

"경주 안강현의 양좌동은 선생이 살던 곳이었다. 양좌동의 서쪽 15리에 자옥산이 있는데 선생은 별장을 세워서 遊息 藏修하는 곳으로 삼았으니 濯纓臺·澄心臺·觀魚臺·洗心臺 등은 모두 선생이 이름 지은 것이며 일찍

²²⁾ 영남대학교 출판부, 『玉山書院誌』 12, 1973.

이 逍遙 自樂한 곳이었다. 지금의 서원은 꼭 洗心臺 위에 해당되니 위아래의 龍湫는 물이 맑아서 애호할만 하다."23)

옥산서원의 背山은 華蓋山으로 자옥산처럼 수목이 울창한 土山이 다.24) 案山에 해당하는 자옥산은 562m의 높은 산이지만 약 2km 떨어져 위압감이 덜하다. 그 대신 토산의 장중함과 울창함이 풍요한 생기를 느끼 게 한다. 비슷한 안산 유형인 屛山書院의 낙동강에 비하여 옥산서원 앞의 紫溪는 작다. 서워의 前低後高 지형도 병산서워에 비하여 경사가 완만하 며 서워 건물들의 배치도 조밀하기 때문에 서워 내부에서 자옥산 경치는 전망되지 않는다. 문루 無邊樓에 올라야 자옥산이 크게 드러난다. 그러나 무변루도 병산서워 만대루와 달리 전면에 창호를 두어 폐쇄적이고, 오히 려 반대 방향인 강당 쪽으로 개방하여 내부지향적 공간구조이다. 따라서 無邊樓 앞의 生氣는 멀리 있는 紫玉山보다 가까이 흐르는 紫溪와 그 一帶 의 숲에서 나온다. 下馬碑가 있는 紫溪 건너편 숲은 그리 두텁지는 않지만 암반 위에 폭포를 이루며 흐르는 작은 시내 자계와 어울려 생기를 깊게 한다. 옥산서워의 실질적 안대 경관은 이 숲이라 할 수 있다. 晦齋 자신도 옥산서원 앞의 이들 경관을 '玉山十四詠'과 '玉山十六詠'을 지어 노래했 다. 이러한 맥락에서 옥산서원의 안대경관의 유형은 자옥산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서원과 비슷한 溪景으로 보는 것이 옳다 하겠다.

옥산서원 문루의 처음 이름은 納淸樓였으나, 無邊樓로 개명되었다. 옥

²³⁾ 회재선생 탄신오백주년기념판, 『국역회재전서』, 1974; 회재가 옥산서원 자계 계곡 암반에 이름을 붙여 놓은 대는 觀魚臺, 詠歸臺, 濯瓔臺, 澄心臺, 洗心臺 등 다섯이 다. - '玉山十四詠', 『玉山書院誌』13.

²⁴⁾ 전통 지리학에서 산을 그 형상에 따라, 火山(石火山)과 土山으로 구분한다. 화산은 불꽃 모양의 산으로 금강산이 대표적이다. 토산은 흙무더기 모양의 산으로 지리산이 대표적이다. 화산이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 아름답다면, 토산은 풍요하고 덕스럽다. 특히 토산은 토양층이 두더워 식생이 울창하다. 『擇里志』에는 이러한 토산을 풍수가들이 '사람을 살리는 산이다.'한다고 하였다. 곧 生氣가 넘쳐흐른다는의미이다. 紫玉山은 전형적인 토산이다.

28

산서원 창건 때 許嘩이 지은 '玉山書院記'에 '납청루'에 대한 설명이 있고, '무변루'는 盧守愼이 지은 '書院堂額贊'에 설명이 있다. 허엽의 '玉山書院 記'에서, '납청루'의 "이름은 納淸인데 淸은 곧 氣이니, 氣는 곧 陽이다. 이 樓에 오르는 자는 淸 곧 氣와 陽을 받아들여 陽氣를 기를 것이다. 양기 를 기르는 것은 道를 凝縮하는 것이다. '납청루'는 이 陽氣 涵養과 道의 凝縮를 모두 갖춘 것이다."25) 하였다. 허엽은 '納淸樓'가 서원 앞에 풍만하 게 펼쳐진 자연의 양기 곧 생기를 받아 들여 도를 응축한다는 生意 體得의 장소임을 直說的으로 밝힌 것이다.

나중에 노수신이 개명한 無邊樓는 보다 우회적이고 함축적으로 生意를 말하고, 옥산서원의 제향인물 晦齋의 위상을 상징화한다. 無邊樓의 '無邊'은 濂溪 周敦頤의 인품을 "風月無邊 庭草交翠"로 찬양한 黃庭堅의 '濂溪先生 - 六先生畫像贊'에 나오는 말이다.26) 周濂溪의 인품을 風月無邊으로 부른 것은 濂溪가 光風霽月 같은 한 없이 넓고 밝은 마음으로 자연을 즐기는 흥취가 무궁무진하다는 의미이다. 또 '庭草交翠'라 한 것은 濂溪가 '與自家意思一般'이라 하여 정원의 풀을 제거하지 말라고 한 生意尊重 사상을 가리킨다. '意思一般'은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 '天人合一의 仁'을 지각하는 의미로 자주 인용된다. 濂溪는 『太極圖說』을 저술하여 新儒學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며 宋學・道學의 시조로 불러진다. 濂溪의 『太極圖說』 '無極而太極'에 대하여, 晦齋는 "道의 어디까지나 物的 形成이 있는 것이 아니면서도, 실제로는 萬物의 根底가 되는 것"이라고 논하였다.27) 회 재의 제자인 노수신은 옥산서원 '書院堂額贊'에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25)&}quot;樓曰納淸 淸者氣也. 氣者陽也。登斯樓者 納淸而養陽 養陽而凝道。斯其具也."

^{26) &}quot;염계 선생께서는, 도가 천년 동안 없어진 뒤에 나셨으니, 성인(공자)과 멀어져 그 말씀도 가물가물했네. 선생 같은 선각자 없으셨다면, 누가 우리 후인들을 열어주었으리. 『通書』에서도 말을 다하지 못하셨고, 太極圖說에서도 뜻을 다하지 못하셨네. 광풍제월 같은 마음 한없이 넓으셨으니, 뜰의 풀에 푸른 생기 짙어지는 것 어찌 말하리.(濂溪先生 道喪千載 聖遠言湮 不有先覺 孰開我人 書不盡言 圖不盡意風月無邊 庭草交翠)" - 黃庭堅, '六先生畫像贊', - 『性理大全』권39.

^{27) &#}x27;書忘齋忘機堂無極太極說後', 『국역회재전서』, pp.17~22

없으며, 처음도 없고 끝도 없구나. 마음이 광풍제월처럼 맑고 빛나 태허의 경지에서 노니네(靡欠靡餘 罔初罔終 光與霽與 遊于太虚)." 하였다. 지금 무변루 현판 왼편에 적혀 이 글은 '無邊'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즉 노수신이 無邊에 대하여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으며, 처음도 없고 끝도 없구나(靡欠靡餘 罔初罔終)."한 것은 '無極'을 말한 것이다.28) 또 "마음이 광풍제월처럼 맑고 빛나, 태허의 경지에서 노니네(光與霽與 遊于太虚)."라고 한 것은 『太極圖說』을 지은 濂溪 周敦頤의 人品을 말한 것이다. 결국 노수신은 무변루가 생기 충만한 자연 속에서 풍월을 즐기며 학문을 도야하는 즐거움을 뜻하고, 이러한 자연을 즐김이 곧 천인합일을 지각하는 방법이라고 말한 것이다. 동시에 濂溪의 光風霽月의 경지를 晦齋에 비유하는 隱喩도 내포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무변루는 晦齋 李彦迪의 人品과 玉山書院의 景觀을 함께 表象하고, '天人合一의 仁'을 함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무변루가 함축하는 仁은 옥산서원의 大門 亦樂門, 講堂 求仁堂, 祠堂 體仁廟 등에서 의미의 一體와 調和, 그리고 仁의 상승적 완성 과정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일체성과 조화성, 그리고 완성 과정이 玉山書院의 空間配置에서도 位階的으로 具顯되어 있음을 書院 現場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도동서원

道東書院은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에 있다. 寒暄堂 金 宏弼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낙동강 본류를 북쪽으로 바라보는 입지로 江

^{28) &#}x27;無極'이란 용어는 유가 經傳에는 애초에 없었다. 『道德經』 28장에 "다함이 없는 데로 들어간다." 『莊子』 '在有'의 "다함이 없는 문에 들어가 다함이 없는 들판에 노닌다.", 『列子』의 "사물의 시작과 끝은 애초에 다함이 없었다." 등의 無極은 모두 끝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주희는 무극은 이치는 있지만 형체는 없는 무형의 진리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 이광호 옮김, 『聖學十圖』, 홍익출판사, 31, 2001.

景으로 분류된다. 도동서원은 1568년(선조 1)에 현풍현 비슬산 기슭 쌍계동에 雙溪書院이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고, 1573년에 賜額을 받았다. 임진왜란에 불탄 후 1604년(선조 37)에 당시 '玄風縣 西 15里 烏舌面 松楸下'로 옮겨 지금의 자리에 甫老書院라는 이름으로 중건되었다. 이곳은 김굉필의 묘소 아래이다. 1607년(선조 40)에 道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사액되었다.29) 서원의 중건은 寒暄堂의 外曾孫인 寒岡 鄭逑가 주도하였다 한다. 정구는 도동서원에 한훤당 김선생을 봉안하는 글에서, 서원이 戴尼山을 背山으로 하고 낙동강을 전망한다고 하고, 서원 移設의 의미를 아래와같이 밝힌다.30)

대니산 높디높고 낙동강은 넘실넘실 그 가운데 서원 사당모습 업숙하네 전의 쌍계 터는 시끄러운 저자거리 여기 옮긴 자리는 은거지와 가깝다네 戴尼崇崇 清洛沄沄 中有精廬 廟貌攸尊 昔日雙溪 城市湫喧 茲焉移卜 密邇丘園

1677년(숙종 3)에 寒岡을 도동서원에 從享하였다. 2007년 사적 제488호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서원의 강당·사당 그리고 담장이 1963년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道東書院講堂祠堂附牆垣)'이라는 이름으로 보물 제350호로 지정되었다.

도동서원의 坐向은 드물게 北向하는 산기슭이다. 현풍 읍치 서쪽의 대 니산이 서북방향으로 뻗어 그 밖을 흐르는 낙동강을 S자 모양으로 곡류하 도록 하여, 북서향으로 돌출한 半島를 만들었다. 조선시대 이곳의 지명 '烏舌面'은 까마귀 혀(舌)를 뜻하는데, 이는 지형을 形象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반도 모양의 산기슭에 북향한 서원 전면에 낙동강이 서쪽으로 흐르고, 서원 가까운 강 속에 개구리 모양의 작은 섬이 있어 매우 인상적이다. 서

²⁹⁾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道東書院誌』, 1997, p.6.

^{30) &}quot;道東書院奉安寒喧堂金先牛文"-『寒崗先牛文集』刊11.

원 동쪽의 '다람재'는 이 강변 섬과 원래 연속하였는데 물길로 잘린 듯가깝다. 현지 사람들은 물가로 내리뻗은 이 산을 다람쥐 모양으로 보고 '다람재'라 부르고, 작은 산을 '개구리산'으로 부른다.31) 서원에서 좀더 시야를 넓혀 전망하면, 도동서원 정면의 '개구리산'을 중심으로 모든 방향에서 산줄기가 모여 드는 모습이다. 도동서원의 가까운 案對는 이 '개구리산'이며, 보다 먼 안대 경관은 낙동강과 개구리 산을 향해 달려드는 듯 느껴지는 彼岸의 산이 된다. 도동서원의 입지와 좌향이 만든 풍수형국은 '長蛇追蛙形'으로 볼 수 있다. 즉 강 가까이 내려온 다람재가 강 건너 편 물가의 낮은 구릉과 마주보는 형국은 배암이 개구리를 노리거나, 강 건너 산들이 개구리 산을 노리는 국면에 비유된다. 쫓는 뱀과 쫒기는 개구리의 緊張이 가득한 待對的 形局은 緊張과 生氣를 느끼게 한다. 도동서원이 北向한것도 생기 충만한 풍수형국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동서원 안대경관에 대한 풍수적 해석과는 다른 차원에서, 도동서원 문루 水月樓의 '水月'의 의미 함축은 도동서원의 안대경관 해석에 매우 중요하다. 수월루는 1849년에 처음 건립되었고, 소실된 후 1863년(철종 14)에 중건되었다. 다시 1888년(고종 25)에 다시 소실된 후 오랫동안 빈터로 남았다가 1974년에 다시 중건되었다. 재차 중건된 현존 수월루는 지나치게 지붕이 높아 강당에서의 전망을 가리고 건축양식도 격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32) 현재 水月樓의 건축 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水月'에 대한 자료가 다양하여 텍스트 해석의 여지가 많다. 텍스트로서 '水月'에 대한 신유학적 독해 자료는 도동서원의 제향 인물인 한흰당 김굉필이남긴 시문, 도동서원의 현 移設을 주도하고 나중에 이 서원에 배향된 鄭逑의 기록, 그리고 수월루 기문 등이다.

^{31) &}lt;한겨레신문> 2010년 4월 1일자, 3면,

^{32) &}quot;많은 건축가들은 이 수월루는 불필요한 건축적 과장이라며 도동서원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도동서원의 높은 건축적 격조에 큰 손상을 주었다고 불만을 말하고 한다." - 유홍준, 『나의문화유산답사기』 6, 창비, 2011, p.216.

수월루 상량문에 강의 경치를 '차가운 강물에 비치는 달(寒水照月)'에 비유하였다. 도동서원의 안대 경관을 전망하는 水月樓 이름은 여기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차가운 물과 달의 이미지는 김광필이 남긴 시문에 많이 보인다. 그는 19세에 장가들었는데, 妻家 근처 조그만 서재를 짓고 '寒暄堂'이란 당호를 부친다. 이 시기에 지은 아래 시 '회포를 씀(書懷)'에는 세상과 떨어져 홀로 살면서, 자신을 밝은 달에 투영시키고 앞 강물과산을 벗한다는 회포를 읊는 것이다. 고고한 도학자가 지향하는 삶을 달과 강 그리고 산을 통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회포를 씀 書懷33) 홀로 한가롭게 사니 오가는 이 없고 處獨居閒絶往還, 다만 밝은 달 불러 외롭고 찬 사람을 비추려네. 只呼明月照孤寒. 그대여 번거로이 내 생애 묻지 말게 煩君莫問生涯事, 아지랑이 낀 두어 가닥 물결과 몇 겹 산 뿐이니. 數頃烟派數疊山.

김광필은 '船上'이라는 詩에서, "배는 하늘 위에 앉는 듯 물고기는 거울 속에 노는듯, 술 마신 후 거문고 끼고 돌아가니 강 가운데 달빛이 배하나 가득하구나.(船如天上左, 魚似鏡中遊. 飮罷休琴去, 江心月一舟)" 하였다. '江心月一舟'는 그림으로 그려져 도동서원 사당에 게시되어 있다. 李源祚가 작성한 아래 수월루 上樑文에서 '寒水照月'의 의미는 분명해진다. '안개 낀 달밤에 작은 배를 타고 노닐며 武夷悼歌를 부를 수 있다(裝烟月於小艇, 擬續武夷之棹歌).'하고, '차가운 정자를 비추는 밝은 달과 통하는 신령스러운 마음(照寒亭畔月明夜, 須將方寸證靈通)'을 말한다.

유생들을 모아 성현이 전한 지결(旨訣)을 강하니, 集靑衿而講衣鉢之傳 차가운 강물에 비친 달처럼 밝고, 寒水照月

^{33) &#}x27;金宏弼書懷詩'(『國譯景賢錄』 寒暄堂先生記念事業會, 2004, p.470).

비취빛 물을 바라보다 높다란 서원 우러르니, 控翠渚而仰門牆之卓 단청 칠한 동량이 구름처럼 높구나.

書棟連雲

허공의 누각에서 바람을 쏘이면. 거의 소강절의 가슴속처럼 활달할 것이며. 작은 배를 타고 안개 낀 달밤에 노닐면, 주자의 무이도가를 이어 부를 수 있으리.

駕風霆於空樓 庶豁堯夫之胸次 装烟月於小艇 擬續武夷之棹歌

…들보를 서쪽을 들어 올리세. 푸르른 여러 봉우리들이 난간 아래로 보이네. 열 겹의 구름 병풍 살아 있는 그림처럼 펼쳐졌고, 十疊雲屛開活畵 유건 쓰고 단정히 앉아 서책을 보는 듯하네.

拁樑西 蒼翠群戀入檻低 幅巾端坐簡編稽

…들보를 아래로 들어 올리세, 차가운 정자 가 달밤에 명월이 비추네. 모름지기 마음이 신령스럽게 통함을 증명하리, 須將方寸證靈通

拋樑下 照寒亭畔月明夜

도동서원의 案對 경관 이미지는 찬물과 밝은 달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주자의 시 "삼가 천년을 전해 온 군자의 마음, 가을 달 찬물 위에 비추네(恭惟千載心, 秋月照寒水)"34)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秋月 照寒水'의 道東書院은 洛東江을 전망하면서, 가을 달이 찬 강물을 비추는 것처럼, 無私公正한 道學者의 정신세계를 떠올리게 하는 경관이다. 도동 서원은 김굉필 자신이 현재의 입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도학자적 정신세계를 "只呼明月照孤寒", "江心月一舟" 등으로 형 상화한 바 있다. 北向하여 큰 강과 산을 바라보는 도동서원의 案對 경관 유형은 江景으로 부를 수 있다. 江景 도동서워의 立地와 坐向은 강이 주는 '寒水照月'의 이미지와 山勢가 주는 生氣를 통해 '天人合一'을 知覺하는

^{34) 『}朱子全書』 卷66、'齋居感興二十首' 第10首의 1句.

경관이다.

4) 남계서원

灆溪書院은 현재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에 있다. 이 서원은 1552년(명종 7)에 개암 介菴 姜翼이 함양군수의 지원을 받아 一蠹 鄭汝昌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창건되었다. 1566년(명종 21)에 서원 앞의 시내이름을 따서 灆溪書院으로 賜額되었다. 조선의 두 번째 사액서원이다. 1597년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어 1605년(선조 38)에 羅村으로 옮겼다가, 1612년 옛 터인 현 위치에 다시 중건되었다. 1675년(숙종 원년) 鄭蘊, 1689년(숙종 15)에 姜翼을 각각 배향하였다.

강익의 '灆溪書院記'에 "남계서원이 남계 위에 있다(灆溪書院在灆溪之上也)."하였다. 남계서원은 蓮花山의 끝 줄기에 해당하는 언덕 경사면에서향하여 앞들을 흐르는 남계와 먼 산으로 白巖山을 바라본다. 주변에 산이 높지 않고 평야가 펼쳐 있어 視界가 개방되어 편안하고 즐거운 느낌이다. 따라서 案對 경관은 경사지에서 들판을 전망하는 野景이 된다. 안대경관을 전망하는 서원 문루 風詠樓는 '灆溪書院記'에 收錄되지 않았으므로 후대에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남계서원의 안대경관은 '風詠樓記'에 잘 묘사되어 있다. 정여창의 후손이 쓴 기문에는 "사방으로 바라보이는 경치가 들판이 평평하게 넓고, 냇물이 감돌아 얽히듯 했는데, 먼 숲은 푸르고 저녁노을이 아름답다(臨有四望之攸同郊垌平曠川澤縈洄遙林蒨晚靄)."하였다. 또 "이 다락에 오르면 넓어지는 마음과 편안한 정신이 자연 속에 자맥질하여서 유연(攸然)히 스스로 얻은 것이 있는 뜻이 있다. 頭流山의 만첩 봉우리와 花林川 아홉 구비의 흐름에서 거의 선생의 風標를 보고 선생의 氣像을 우러러 볼 수 있음이니, 흡사 선생이 계신 자리에 뫼시고 서서 曾點이 젱그렁하고 비파를

밀쳐놓던 뜻이 있는 듯하여 風詠樓라 이름 하였다(登斯樓也則心廣神怡涵 泳灑落攸然有自得這意矧乎頭流萬疊之峰花林九曲之流庶可以覽先生之淸 風抑先生之氣象恰若列侍函筳有點也鏗爾舍瑟之趣故因名之風)."고 밝힌다.

당대의 대표적 老論系 유학자 奇正鎭의 風詠樓 기문에는 정여창의 기상을 曾點에 비유한다. "정여창 선생 심오하신 학문과 독실했던 행실이어떠하였던가. 또한 '외로운 배로 큰 강을 내려간다.' 라는 글귀를 음미하니, 은연중에 舞雩에 바람 쏘이고 沂水에서 목욕하겠다던 기상이 있다. 이는 어찌 멀리 사모하고 바람으로써 얻어진 것이라오. 지킴이 오래되면 절로 이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一蠹先生淵源實學。雖非後生之所蠡測。集諸先生之尚論而想像之。蓋所謂不動而敬。不言而信者。其深厚篤實何如也。及味孤舟下江數句。則隱然有風浴氣像。此豈懸慕企望而得之哉)." 하였다.

남계서원의 안대 경관은 灆溪를 앞에 두고, 멀리 白巖山을 바라보는 野景이다. 남계서원의 野景은 높지 않은 산을 案對로 하고 柔軟하면서도 生氣가 가득한 평야를 편안하게 바라보며 風詠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경관이다. 이는 곧 大自然과 일체가 되는 曾點之樂(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을 의미한다. 曾點의 氣像은 이 서원이 祭享하는 鄭汝昌과도 통하는 것이다.

5) 필암서워

筆巖書院은 현재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에 있다. 1590년(선조 23)에 卞成溫 등이 河西 金麟厚를 제향하기 위해 장성읍 서쪽 10리 岐山里에 창건하였다. 丁酉再亂에 소실되어 黃龍 甑山마을로 이건하고 1662년 (현종 3) 筆巖書院으로 賜額되었다. '筆巖'은 기산 마을 洞口의 붓 형상의바위 이름이다. 1672년(현종 13)에 甑山의 수해로 현재 위치 秋山으로 다

시 이건하였다. 현 위치는 背山하였으나 서원은 평지 지형에 속한다. 평지에 입지하는 까닭에 門樓가 없었다면, 필암서원은 展望 景觀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문루 廓然樓는 필암서원에 꼭 필요한 건축물이다.

확연루에 올라서면 앞에 펼쳐진 평야의 모습에서 '廓然樓'가 의미하는 '廓然大公'을 知覺할 수 있다. 곧 탁 트인 경관처럼, "私心이 없다면 크게 公正할 수 있고, 外在 사물 세계에 대해서도 義理에 맞게 잘 처리할 수 있다(廓然而大公 物來而順應)."는 정신세계가 느껴진다. 이는 "대체로 천지의 상도는 그 마음이 만물에 두루 미쳐서 사심이 없는 것이며, 성인의 상도는 그 정이 만사에 순응하여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고로 군자의 학문은 확연히 공정하여 만사 사물이 왔을 때 그대로 받아들여 따를 뿐이다(夫天地之常 以其心普萬物而無心, 聖人之常 以其情順萬事而無情 故君子之學 莫若廓然而大公 物來而順應)."35)하는 明道 程顥의 말에서 취한 것이다. 지금 필암서원 확연루에 揭板된 河西의 후손 金時粲의 '廓然樓記'에 풀이된 확연루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아, 내 삼가 우암의 은미한 뜻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편리하게 생각한적이 있다. 程子의 말에 "군자의 학문은 확 트이게 넓혀 크게 공정하게 하고서, 사물이 다가오면 의리에 맞게 순응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주자가 연역하기를 "확 트이게 넓혀 크게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仁이 體가되는 것이고, 사물이 다가오면 의리에 맞게 순응한다는 것은 義가 用이 되는 것이다. 仁이 확립되고 義가 행해지면 본성이 고요해져서 이 세상의 움직임이 한결같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개 사람의 한 치 마음이 담박하여텅 비고 밝아서 사사로운 생각이나 잔꾀에 얽매임이 없게 되면, 거울처럼텅 비고 저울대처럼 평평하여 치우치지도 기대지도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中에 늘 마음을 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마음이 확 트이게되어 밖에서 비추는 것들이 그에 순응하지 않음이 없게 될 것이다.(嗚呼竊

^{35) 『}二程文集』 권3, 明道文集 3,「答横渠先生定性書」;『近思錄』 권2,「爲學」.

嘗妥意,尤翁之微旨居可知矣.程夫子之言曰,君子之學莫若廓然而大公物來順應.朱子演之曰,廓然而大公者,仁之所以爲軆也.物來而順應者,義之所以爲用也. 仁立而義行,則性靜而天下之動一矣.蓋人方寸之地,湛然虛明而無私智之爲累,則鑑空衡平存諸中者.自然廓然而見於外者無不應矣).

확연루 이름은 尤庵 宋時烈이 짓고 懸板도 직접 썼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암 자신이 廓然樓의 의미를 분명히 밝힌 것은 아니다. 확연루기의 작자 金時粲은 黃庭堅이 주염계의 기상을 '光風霽月'로 형용한 것처럼, 尤庵도 河西를 尊崇하는 마음을 "나타난 것을 미묘하게 하고 깊숙한 것을 드러낸다(微顯闡幽)"36)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추측한다. 필암서원은 齋舍가 강당 뒤 사당 앞에 위치한다. 前低後高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는 平地 입지 서원에서 祠堂을 尊崇하기 위하여 강당에서 사당이 잘 보이도록 하는 공간구성 방법으로 생각된다.

필암서원은 구릉성 산지로 背山構造를 취하고 있으나, 서원은 평지에 입지하고 전면 경관도 평야이다. 따라서 한국 서원 일반의 前低後高 지형을 통한 전망 경관을 얻을 수 없다. 이 점에서 문루가 전망 경관을 얻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案對가 되는 산이 뚜렷하지 않는 野景이 전개된다. 문루 廓然樓는 이러한 유형의 경관에 매우 적절한 유교적 의미를 부여하였다고 본다. 평야의 개방적 視野는 곧 公正無私한 군자의 정신세계를 연상하도록 함으로써 천지만물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37) 다만 현재는 문루 앞에 키 큰 소나무를 조경하여 확연루의 전망을 막아 버렸다.

6) 무성서원

武城書院은 현재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있다. 무성서원은

^{36) 『}周易』 「繋辭傳」.

^{37) &}quot;大其心則體天下之萬物" - 張載, 『張載集』, 『正蒙』, '大心'.

신라 말의 인물인 崔致遠을 제향하기 위해 고려시대에 건립된 泰山祠에 기원한다. 원래 流觴臺에 있던 태산사를 1484년(성종 14) 丁克仁의 鄕學堂 자리로 이건한 것이다. 1544년 태인 현감을 지낸 申潛을 추향하였다. 1696년(숙종 22)에 사액서원이 되었다. 한국의 서원은 대체로 이름난 道學者를 제향하고 마을에서 격리된 곳에 입지한다. 그러나 무성서원은 도학자가 아닌 선정을 배푼 지방관을 제향하고, 입지도 옛 마을 한가운데 있다. 무성서원은 제향 인물과 입지에서 특별한 서원이다. 이러한 무성서원의 특성은 서원의 背山과 문루 이름, 그리고 전면의 안대 경관에도 반영되었다. 배산은 城隍山이다. 성황산이란 군현에서 제사하는 산이고, 읍치의 鎭山을 의미한다. 서원의 이름 '武城'은 공자의 제자인 子游가 다스리던 邑이다. 문루 絃歌樓는 '絃歌之聲'을 의미하는데, 아래 인용문처럼, 읍이 크던 작던 간에 다스림은 반드시 禮樂으로 해야 한다는 공자의 敎化 思想을 나타낸다.

공자께서 武城에 가서 음악 소리()를 들으셨다. 선생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는가." 하고 말씀하셨다. (이에 무성의 수령으로 있는) 子游가 대답했다. "예전에 선생님께서 군자가 예약을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고 백성이 예약을 배우면 부리기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그대들이여 자유의 말이 옳다. 앞에서 한 말은 농담이었다." - 『論語』陽貨 4.

지형적으로 평지에 입지하고 마을 가운데 있다는 있으며, 지방관을 제향하는 서원이라는 점이 무성서원의 특성이다. 이는 산줄기에 이어진 경사지에 입지하고 마을과 격리된 산수 승경지에 있으며, 도학자를 제향하는 한국 서원 일반과 매우 다르다. 무성서원의 案對 경관 역시 다른 서원과 달리 산수 경치가 아니라 民家가 가득한 마을이다. 백성을 禮樂으로 다스린다는 의미의 '絃歌之聲'을 의미하는 문루 絃歌樓의 전망 경관 역시

自然的 山水가 아니라 社會的 民家이다. 무성서원의 이러한 입지 특성은 상대적으로 서원 경관의 외부 지향적 개방성을 협소하게 한다. 무성서원은 다른 서원에 비하여 건물 규모가 작고 간략하다. 특히 강당의 대청마루 3간이 모두 문이 없어 개방적이다. 강당에서 사당과 문루를 막힘없이 탁 트인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개방적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평지에 입지하고 민가에 둘러싸인 외향적 폐쇄성을 서원 내부 공간에서 시각적 개방성 확대를 통해 극복하는 공간 구성의 지혜가 주목된다.

무성서원의 입지 및 경관 특성은 서원의 기능적 성격과 일치하며, 문루 絃歌樓는 무성서원의 기능적 경관적 특성을 압축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무성서원은 隱遁하여 山水경치를 즐기며 道學的 內聖을 추구하는 한국 서원 일반과 다르고, 經世的 外王을 추구하는 서원이다. 무성서원은 野景에 속한다. 그러나 무성서원의 野景은 新儒學의 仁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다. 문루 絃歌樓의 '絃歌之聲'이 함축하는 바는 前漢 儒學의 經世的 敎化와 관련된다.

7) 병산서원

屏山書院은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에 있다. 본래 풍산현에 있던 豊岳書堂을 西厓 柳成龍이 1572년(선조 5)에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1607년 서애의 제자 鄭經世 등이 유성룡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1613년 尊德祠를 창건하고 1614년 병산서원으로 개칭하였다. 1620년 안동에 퇴계를 모시는 廬江書院(후에 虎溪書院으로 개칭)으로 위폐를 옮긴 적도 있다. 1863년(철종 14)에 賜額書院이 되었다.

병산서원은 화산을 등지고 남남동 방향으로 낙동강을 내려보고, 강 건 너 屛山을 案山으로 마주한다. 서원은 전형적인 前低後高의 경사지형에 입지하여 매우 개방적인 안대 경관을 가졌다. 강당과 문루에서 낙동강과 병산 등 자연경관을 막힌데 없이 전망할 수 있다. 병산서원 전면의 낙동강은 폭이 300m이상의 큰 강이고, 병산 역시 300m급의 높은 산이다. 서원은 이처럼 큰 강과 높은 산을 불과 500m정도의 근접거리에서 마주한다. 따라서 서원에서 바라보는 산과 강은 매우 압도적 경관이다. 특히 이 안대 경관의 전망 장소인 晩對樓는 창호 없이 모두 개방된 7간 규모의 대형 누각이다. 전면을 두르며 흐르는 큰 강과 그 배경으로 병풍처럼 솟은 높은 산이 만들어낸 대자연의 파노라마를 만대루는 7폭 병풍처럼 담아서 전해준다. 만대루 덕분에 병산서원의 거대하고 압도적 안대 경관은 부담 없이편안한 감상이 가능하다.

만대루의 晩對는 杜甫의 시 '白帝城樓'의 "푸른 절벽은 해질녘에 마주 하기 마땅하고(翠屏官晩對 白谷會深遊)"에서 연유한 '翠屏晚對'의 의미이 다. 주자 역시 武夷精舍의 경치를 그린 武夷雜詠의 '晩對亭' 시에서 "지팡 이에 의지해 남산 머리에 오르니, 멀찍이 만대봉이 있네, 푸르고 가파른 모습 차가운 하늘에 우뚝한데, 지는 해는 푸른 절벽을 밝게 비추네(倚笻南 山巓 卻立有晚對 蒼峭矗寒空 落日明影翠)"하였다. 저녁 해가 병풍처럼 펼쳐진 절벽을 비스듬하게 비추는 모습에서, 杜甫와 朱子는 산의 生氣를 더 선명하게 느낀 것이었다. 병산서원 앞에서 낙동강은 서쪽으로 흐르는 데, 서쪽으로 기운 해는 높은 산 사이로 흐르는 강을 거슬러 빛을 뿌린다. 비스듬하게 비치는 이 햇살에 낙동강과 병산의 푸름은 비취빛으로 더욱 황홀하게 반짝인다. 이 때 빛나는 산과 물의 생기가 보는 이의 눈으로 전 해지고 가슴으로 젖어들면서, "천지의 만물을 낳은 마음이 지금 나의 마 음과 다르지 않다(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는 느낌도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산과 물이 생기가 내 마음 속으로 전해진다는 것은 안대 경 과의 山色과 주체의 마음이 生意라는 하나의 意味로 知覺되다는 것이다. 이것이 도학자들에게 天人合一의 느낌, 곧 仁의 감성적 知覺이 될 것이다.

큰 산과 큰 강을 가까이 마주하는 병산서원의 案對 경관은 석양이 푸른 山壁을 밝게 비치는 山景이다. 이 경치는 보는 이에게 더욱 분명하게

生意를 느끼게 한다는 의미에서 '翠屛宜晩對'는 적실한 표현이다. 거기에 더하여 문루 晩對樓가 있어 대자연과 일체감을 더욱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다.

8) 도산서워과 돈암서원

한국에서 史蹟 文化財로 지정된 조선시대 9개 서원 가운데 陶山書院 과 遯巖書院은 안대경관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하기 어렵다. 도산서원의 전 신인 도산서당에 대하여, 退溪 李滉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입지・경관・ 장소를 '陶山雜詠倂記'에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따라서 도산서워의 거의 모든 장소에 儒敎的 道學的 의미 함축이 있다. 그러나 다른 서원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 안대 경관은 설정하기 어렵다. 원래 도산서원의 입구 谷口 巖은 급경사의 지형으로 문루 건립에도 부적당하다. 다만 퇴계가 서워 전 면에서 俯瞰했던 대표적 장소로 天淵臺와 天光雲影臺가 있다.38) '天淵'이 라 자연스러운 天理의 發現으로 人爲가 없는 자연의 긍정을 통하 떳떳하 즐거움을 의미하고, '天光雲影'이란 고요한 물에 天理가 비취짐을 省察하 는 의미이다.39) 도산서워의 天光雲影臺는 후대에 서워 경내에 蓮池를 조 성하여 '天光雲影'을 살피는 전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遯巖書院에는 최근에 세운 문루 山仰樓가 있다. 산앙루는 서원이 제향 하는 沙溪 金長生의 '養生樓記'에 나오는 "仰而樂山。俯而觀水 觸物悟

^{38) &}quot;커다란 바위가 마치 깎아 세운 듯 서서 여러 층으로 포개진 것이 10여 길은 될 것이다. 그 위를 쌓아 대를 만들었더니, 우거진 소나무는 해를 가리며, 위에는 하늘 아래에는 물이어서 새는 날고 고기는 뛰며 물에 비친 좌우 취병산의 그림자가 흔들거려 강산의 훌륭한 경치를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 이름을 '천연대'라 하였 다. 그 서쪽 기슭 역시 이것을 본떠서 대를 쌓고 이름을 '천광운영'이라 하였으니, 그 훌륭한 경치는 천연대에 못지않다." - '陶山雜詠倂記'.

^{39) &#}x27;詩云、鳶飛戾天、魚躍于淵''-『中庸』12公;"半畝方塘一鑑開 天光雲影共徘徊 問渠 那得清如許 爲有源頭活水來"-'觀書有感'『朱子大全』.

42 韓國書院學報 1

理。涵泳優游"의 '仰而樂山'에서 취한 것으로 보인다.40) 遯巖書院은 1634년에 창립되었는데, 1980년에 현재의 장소로 移建되었다. "仰而樂山 俯而觀水"이라는 서원 입지와 경관 특성은 현재 서원이 아닌 과거 서원의 입지 경관이다. '仰而樂山'은 과거 서원 자리에서 멀리 남으로 大屯山과 북으로 鷄龍山을 바라보는 경관이다. 또 '山仰'은 "높은 산을 우러르고 큰길을 따라간다(高山仰止 景行行止 - 『詩經』)."하는 孔子의 仁에 대한 志向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경관 이미지가 현재 서원에서는 지각하기 어렵기때문에 현재로는 안대 경관을 논하기 적절하지 못하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 서원의 案對 景觀을 고찰하였다. 안대 경관의 의미 해독을 통하여 한국의 서원에 경관으로 再現된 신유학의 天人合一 사상에 대한 해석을 추구하였다. 서원은 중국 宋代에 정립된 新儒學의 '講學과 藏修'을 향촌에서 실천하는 교육공간이었다. 신유학의 실천적 성격은 서원 입지 선정에 大自然과 一體가 된다는 情感을 얻을 수 있는 경관을 요구하고, 서원 설립자들은 서원 입지의 자연지리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안대 경관을 구성하고 이를 詩文과 記文으로 해석하였다. 한국의 서원 경관은 大自然과 一體感을 지각할 수 있도록 自然性과 開放性을 중시하였다. 背山臨水・前低後高의 構造로 요약되는 한국서원의 자연성과 개방성은 중국서원과 구별되는 한국서원의 固有性과 眞正性이라 할 수 있다. 한국서원의 입지・경관에서 지각된 '天地萬物爲一體'의 仁・'天地生

⁴⁰⁾ "若早尋初服 仰而樂山。俯而觀水 觸物悟理。涵泳優游。則未必無助於心地上工 夫"-『沙溪先生遺稿』卷**5**, 記、養性堂記.

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의 仁은 각 서원의 입지와 경과 특성에 따라 다 양하게 표현되었는데, 이는 서원의 기문과 시문을 통하여 해독할 수 있다. 연구 대상이 된 7개의 대표적 한국 서원의 案對 景觀은 입지유형에 따라 野景・山景・江景・溪景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안대 경관은 涵養以須 敬・草有一般意・風月無邊・寒水照月・吟諷詠而歸・廓然而大公・絃歌 之聲・翠屏宜晩對 등에서 의미를 취한 것으로 보고, 이를 '天人合一의 仁' 과 관련하여 解釋했다. 해독된 주요 서원의 안대 경관에 대한 유교적 의미 해석은 아래와 같이 要約될 수 있다.

〈표〉案對와 景觀 讀解

案對	書院	樓門・亭・臺	景觀 讀解	資料
野景	筆巖	廓然樓	廓然而大公	廓然樓記
	灆溪	風詠樓	吟諷詠而歸	風詠樓記
	武城	絃歌樓	絃歌之聲	『論語』,絃歌樓記
山景	屛山	晚對樓	翠屏宜晚對	杜甫, 朱子 詩
	玉山	無邊樓	風月無邊	濂溪先生贊
江景	道東	水月樓	寒水照月	朱子 詩
溪景	紹修	景濂亭	涵養以須敬, 草有一般意	敬字巖, 退溪 詩

44 韓國書院學報 1

참고문헌

『周易』,『論語』,『錦囊經』,『周敦頤集』,『二程文集』,『朱子大全』,『朱子語類』,『論語集註』,『張載集』,『近思錄』『性理大全』,『國譯晦齋全書』,『退溪先生文集』,『沙溪先生遺稿』,

紹修書院、『紹修書院誌』、2007.

嶺南大學校 출판부、『玉山書院誌』、1973.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道東書院誌』, 1997.

이광호 옮김, 『聖學十圖』, 홍익출판사, 2001.

李澤厚,『己卯五說』,三聯書店,2008.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6, 창비, 2011.

이상해, 『書院』, 열화당, 1998.

寒暄堂先生記念事業會,『國譯景賢錄』, 2004.

陣來 著, 안재호 옮김, 『宋明性理學』, 예문서원, 1997.

Abstract

Reading on the location and landscape of Korean Seowon

Kim, Duk-Hyun*

This article deals with reading opposite landscape of representative Korean Seowon(書院) and interpreting representation of ren(仁) thought in Seowon landscape. The Neo-Confucianism, developing Seowon culture, demanded the landscapes, which allow commanding view for perception of 'Being Oneness All things in the Universe(自然合一)'. The establishers of Korean Seowon constructed various opposite landscapes according with characteristics of natural geography, and interpreted Confucian meaning with poem and documents. The neutrality and open structure were very important features of Korean Seowon. They are the uniqueness and authenticity of Korean Seowon distinguished from Chinese. topographical character of Korean Seowon could be expressed 'Back hill and front stream(背山臨水)' and 'Low front and high back(前低後高)'. The perceived 'Heaven and human beings in harmony as one(天人合一)' from each Korean Seowon was represented in various opposite landscapes. The opposite landscapes of seven Korean Seowons could be classified such as open field landscape, mountain landscape, river landscape, stream landscape in

^{*} Dept. of Geography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46 韓國書院學報 1

accordance with locational type. The Confucian meaning of each opposite landscapes of seven Korean Seowons were sought understanding as various expressions of ren(仁).

Key Words: Heaven and human beings in harmony as one, mountain landscape, Neo-Confucianism, open field landscape, opposite landscape, reading landscape, river landscape, stream landscape

조선시대 파주 士族과 서원활동

정 만 조*

- 1. 사대부 可居處로서의 坡州
- 2. 파주사족의 鄕約 제정과 서원건립
- 3. 서원 合享 및 位次 논란
- 4. 老論・少論의 대결장, 紫・坡院

국문요약

이 글은 조선시대 서울의 근교에 위치한 파주지역의 사족활동을 서원 을 통해 살펴보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대체로 파주사족은 16세기 중반에 이 지역의 지배층으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향약의 보급과 서원건립을 통해 이 지역의 學風과 향촌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 출신의 儒賢인 栗谷 李珥와 牛溪 成渾 서원의 合享과 位次 설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문인들 사이의 갈등과 집권세력의 관여는 서원 鄕戰을 유발하였다. 그 결과 파주사족은 노론지지세력(紫雲서원)과 소론지지세력(坡山서원)으로 갈라져 심한 대립 상을 나타내었다. 18세기 후반에 들어가 조정의 탕평책 수행과 더불어 이런 대립도 봉합된다. 이후 유통경제의 발달에 따른 파주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新鄕세력이 성장해 사족화 한다. 이런 과정에서 서원에 근거했던 파

^{*} 국민대 국사학과 교수

투고일: 2011년 11월 7일

심사일: 2011년 11월 7일

심사확정일: 2011년 11월 25일

48 韓國書院學報 1

주사족의 활동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파주 士族, 紫雲서원, 坡山서원, 宋時烈, 朴世采

1. 시대부 可居處로서의 坡州

선비 '士'라 글자는 여러 가지 뜻을 지녔다. 성년 남자를 통칭하여 '사' 라 부르기도 하고. 무사나 兵士처럼 병졸의 통솔자란 뜻과 文士에서 보듯 글하는 선비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 벼슬자리로서 大夫아래의 벼슬을 가 리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기는 독서인 또는 지식인 이라 의미이다.

그런데 중국의 『漢書』 食貨志에서 民人을 그 하는 일에 따라 사・농 · 공·상으로 구분하면서 "글을 배워서 벼슬하는 자를 일러 '사'라고 한 다[學以居位曰士]"고 한 이래, '사'는 단순한 독서인만 아니라 '독서인 출 신의 관인'이란 뜻까지 갖게 되었다. 이렇게 '사'와 '士大夫'가 큰 구별 없 이 사용되면서 그들의 혈연과 혼인관계에 의한 족속을 아우르는 용어로 '사족'이 나오게 된다. 원래는 종사하는 일의 구분에 불과하던 사의 직업 이 자손에게 세습되는 과정에서 사족이란 신분적 개념으로 전환되고 다 른 여러 의미도 이쪽으로 모여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족과 관련된 세력이 등장하는 시기는 대개 고려 후기로 말해진다. 무인정권하에서 문장과 행정사무에 능한[能文能吏] 문 인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그 중 일부는 원나라에서 새로 도입되는 주자학 으로 사상적 무장을 하여 舊家世族에 맞서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한다. 바 로 이들을 역사는 新興士大夫라 부르며, 조선이란 새로운 국가는 이성계 라 무장을 앞세운 이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사대부가 조선사회의 지배세력으로서 사족이란 사회신분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은

¹⁾ 閻步克、『士大夫政治演生史稿』의 제2장, 제1절 '士'字的初形如初義, 제2절 封建士 大夫階層的出現 补조(北京大學出版部, 1998).

건국 후 근 1세기를 지난 16세기 중종 때쯤이었다고 말해진다. 의 이렇게 볼 때 양반과 사족의 차이는 어떠한가가 문제되겠는데, 양반이 문·무반을 다 아우르거나 그 일족을 가리키는 의미라면, 사족은 위에서 독서인을 의미한다고 밝혔듯이 문관 내지 문인의 족속을 가리키는 한정된 신분개념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16세기 이후에는 벼슬하는 집안사람이란 뜻으로, 흔히 양반사족 또는 사족양반으로 붙여 별다른 구별없이 사용되었다.

그러면 파주지역에 사족의 존재는 언제부터 드러나며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갔을까? 이를 살피기에 앞서 우선 파주지역이 과연 사족이살기에 적합한 곳인지의 여부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

조선후기 『擇里志』라는 우수한 인문지리서를 남긴 李重煥(1690-1752) 의 저술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사대부들이 살만한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 제시하려는데 있었다. 그에 의하면 사대부들이 살만한 곳의 조건으로는 첫째 地理, 둘째 生利, 셋째 人心, 넷째 山水가 좋아야 한다는 네 가지를 꼽았다. 여기서 말하는 지리는 오늘날의 지리 개념과는 조금 다른 풍수적 의미까지 곁들인다. "지리를 논하려면 먼저 물 나가는 입구[水口]를 보고 다음 들판의 형세[野勢]를, 다음은 산의 모양[山形]을, 다음 흙빛[土色]을, 다음 물의 흐름[水利]를, 끝으로 앞쪽의 산과 물[朝山朝水]을 보아야 한다" 고 하면서 "무릇 수구가 이지러지고 넓기만 한 곳은 비록 좋은 밭 만 이랑 과 넓은 천 칸짜리 집이 있다 하드라도 다음 세대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저절로 흩어져 없어진다."고 하거나 "사방에 산이 멀리 있으면서 평탄하 고 넓으며 산맥이 평지에 뻗어 내렸다가 물가에 그쳐서 들판 터를 만든 곳이 (최상은 아니나마) 그 다음이 된다."3)고 말한 부분은 파주의 지리와 도 관련 있는 듯하므로, 조선의 사족들이 파주가 과연 가히 살만한 곳인가 를 따질 때 그 조건으로서 한번 고려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제시해 보았 다.

²⁾ 김성우, 『조선증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3) 『}택리지』, 복거총론, 지리, 산수.

파주를 타고 흐르는 하천은 열서너 곳 남짓하지만, 그 중 공륭천 한곳을 제외하고는 길이가 대개 4~8km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파주의 지형이 변성암으로 구성되어서 풍화작용을 쉽게 받기에 하천이 대개 모래들로 되어 있다. 그래서 비가 와도 물은 바로 지하로 스며들어 버린다. 거기에다가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기운 침식된 골짜기에 따라 난 하천이므로 미처 하천물이 고이거나 천천히 흘러내릴 여유가 없었다. 수구조차임진강을 향해 열려있는 형세이다. 그래서 고려 말에 安牧이란 인물에 의해 크게 개간되었으나 『택리지』의 말처럼 후손에게로 오래 전해지지 못했나보다.4) 『택리지』에서 파주를 위시한 고양・적성・교하로 된 西郊가모두 땅이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하여서 사대부로서 권세를 잃고 혹 교외로 나가 살게 되면 한 두세대를 내려가 품관이나 평민으로까지 몰락해 버린다고 하면서 사대부가 살만한 곳이 못된다고 한 것은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다.

파주가 사대부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살만한 곳이 되기 위해

⁴⁾ 성종 때의 인물인 成俔(1439-1504)의 『용재총화』에 보면 "安牧이 파주지역의 황무 지를 크게 개가하여 넓은 농토를 두고 큰 저택을 지었으며 그 자손 埈에 이르러서 는 안팎으로 차지한 땅이 수만 경에 이르고 노비가 100여 호나 되며 오랜 나무 수천그루가 서 있는 그늘이 10리에 뻗칠 정도이고, 그 사이에 거위 오리가 시끄러 이 소리치며 노닐고 있다. (성현이 살던 15세기 말에는) 그 땅을 100여인이 나누어 차지하고 있는데 대개 그 자손들이다."(『傭齋叢話』坡州西郊)고 기록하고 있다. 안목은 고려말의 인물로 문과에 급제, 충숙왕 때 판전교시사를 거쳐 공민왕 워년 서연관을 지내고 공민왕 9년 죽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가 파주지역을 개척한 것은 아마도 만년인 공민왕 때일 것이다. 그런데 이 안목은 문성공 안향의 손자이며 그 집안이 안향 때 개경에서 벼슬하기 시작했으므로 애초에 파주와는 별 관련이 없었고 안목 때 들어와 비로소 파주에 개간을 통해 농장을 마련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족보의 항렬로 보아 파주일대에 수만경을 마련했다는 안준은 대체로 조선 초기의 인물로 추정된다. 이 안목의 후손 중에 중종 때 좌의정을 지내고 조광조를 변호하다가 파직된 安瑭과 그 종형으로 판서를 지낸 安琛이 있다. 그런데 안당과 그 아들들이 중종 16년(1521) 친가 쪽으로 얽히는 서얼 宋祀連의 모함으로 역적으 로 몰려 멸문의 화를 당하면서 그 집안의 재산도 적몰되었는데 이 때 파주지역의 농토가 다수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 때 받은 타격 때문인지 순흥안씨로 안향 후손 들은 대개 선조 이후 현관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현재 주내면 부곡동에 안씨의 후손이 살고 있다.

서는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할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였다. 다시 말해 生理가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했다. 『택리지』에 의하면 그것은 땅을 기름지게 하거나, 아니면 배와 수레와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어서 서로 남고 부족한 물자를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대체로 보아 조선의 사족들은 16세기 중반 이후 향약이나 사창제 등의 방식을 통해 향촌사회 운영을 주도하면서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위한 영농기술의 개량과 川防과 같은 수리시설의 확보에 주력하였다고 한다.5)

파주지역에도 여말선초 이래 세거하여온 향촌세력이 있었고, 또 16세기 이후 파주와의 연고를 찾아 서울에서 낙향한 사대부들에 의해 새로운 사족세력이 형성되며, 흔히 牛栗學派로 불리는 초창기 기호사림의 중요한 근거지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 사족들이, 서울의 서쪽 교외에 위치하여서 편리한 교통도 그렇지만 사대부의 정서함양을 위한 임진강변의 뛰어난 경승까지 갖춰 사대부의 살만한 곳이라 할 만한 파주를, 땅이 메마르다는 생리 부족 때문에 젖혀 놓을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리시설이 마련되고 개량된 농법이 도입되었을 것이다.

효종초 인평대군 房의 농장개설이이나 19세기 말인 광무연간에, 땅이메말라 잡초만 무성하던 교하의 洛河坪(현 단현면 낙하리)과 葛峴坪(현 단현면 갈현리)의 수십리 버려진 들판을 吉仁洙・朴昌勳 같은 유력자가중심이 되어 民人들과 함께 제방을 쌓고 저수지를 설치해 관개를 함으로써 기름진 옥답의 들판으로 바꾼 것기이 그 하나의 예가 된다. 후일 20세기초에 새로 郡誌를 편찬하면서 "파주의 토지가 비옥해서 쌀과 콩 등을 경

⁵⁾ 이태진, 「16세기 川防灌漑의 발달」(『한우근정년기념 사학논총』), 1981. 염정섭, 『조선시대 농업발달연구』, 태학사, 2002.

⁶⁾ 송준길, 『동춘집』권1, 疏箚 應旨兼辭執義疏 己丑 11月, 이 상소에서는 大君房의 농장 개설이 파주의 피폐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대군방의 농장임으 로 인해 수리시설이 축조될 것이며 또 최신농법이 적용될 것임으로 인해 오히려 파주지역의 개간과 농업생산력의 제고를 가져오게 하는 이점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7) 『}파주군지』, 경기도 파주군, 1923.

작하기에 알맞다[土地肥沃 米大斗等 耕作適宜]"고 자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척박한 토지를 힘써 개간하고 개량해 옥토로 만들었던 파주 사족 과 농민의 각고의 결과였다.

뿐 아니라 江商을 위시한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평양을 거쳐 중국과 맞닿고 뱃길을 따라 국내 어디와도 연결되는 교통상의 요지에 위 치한 파주의 생리가 크게 증가했을 터임은 말할 것도 없다.8)

18세기 이후에 파주가 한강 임진강을 주된 유통망으로 하는 강상들의 주요거점으로서 상업지역으로 성장하고, 서울 사대부들에게 종전의 墓山 정도로 인식되던 단계에서 벗어나 鄕第・別墅를 건립하여 가히 살만한 배후 거주 지역으로 새삼 주목을 받았던 것과 함께, 서울 사대부와 직접적 관련을 갖지 않으면서도 주로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다른 지역에서 흔 히 新鄕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던, 새로운 세력이 파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하는 사례 등이 이런 추측을 뒷받침해주는 사실이 아닐까. 다음에서 파주지역 사족의 이러한 성장과 활동과정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2. 파주시족의 향약제정과 서원건립

여말선초의 시기에 파주지역의 향촌사정을 알려주는 자료는 많지 않 다. 그나마 찾아지는 것도, 예컨대 尹坤・尹璠 등 파평윤씨나, 成達生의 창녕성씨, 황희와 그 후손의 장수황씨 등 顯官을 지낸 京中士大夫의 墓所 에 관한 기록이 대부분이다. 그러는 중에서도 파주와 관련된 사족의 움직 임을 전해주는 자료로는 순흥안씨 安牧의 농지 개간과 덕수이씨 李明晨

⁸⁾ 최완기, 『한양』, 제3장 「한양의 상업도시화와 주변요인」(교학사, 1997).

의 花石亭이 찾아진다.

성현의『慵齋叢話』에 보면 고려말에 안목이 파주에 농토를 크게 개척했고 그 후손대에 이르러 농지 수만경에 노비 100여 호를 둘 정도로 크게 번창했으며 15세기말쯤에는 후손 100여 명이 땅을 나누어 살고 있었다고한다. 아래에서 다시 말해지지만, 안씨집안의 이러한 재지적 기반은 16세기에 들어와 안씨 후손의 중앙 정계 진출은 물론 京中士大夫의 파주 입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 작용하였다.

이에 비해 화석정은 조금 다르다. 세종연간 공주·홍주목사를 역임했던 이명신(1368-1435)이 파주 율곡리에 別墅를 마련하고 정자를 세웠는데 그 손자 이의석이 황폐된 정자를 중수하며 화석정이라 이름 했다고 한다. 9) 물론 이 화석정 근처에 약간의 田土도 장만해 놓고 집안의 노비로하여금 이를 경작하며 정자를 관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덕수이씨 집안 사람들은 후일 이의석의 증손자되는 율곡 이이가 그랬던 것처럼, 벼슬에 나가기 전에는 몇 년간씩 여기서 머물며 학문적 온축을 쌓는가 하면, 벼슬하는 도중에도 틈을 내어 화석정을 찾고 혹 벼슬이 떨어져 불우해지면 이곳에 와서 만년을 보내는 장소로 활용되고는 하였다.

그러나 화석정이 있는 파주 율곡 일대를 위의 安氏 집안처럼 생활기반자체를 여기에 두고 世居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덕수이씨 집안에 있어서 이곳은 집안의 별서가 있는 곳이며 京第를 떠나 잠시 머물 수 있는 휴식 겸 학문연마의 장소인 鄕第였을 뿐이다. 아마도 위에서 든 파평윤씨·창녕성씨·장수황씨·청송심씨 등 묘산을 둔 경우도 이와 같다고 생각된다.10) 이런 사정은 이곳에 분묘를 가졌던 成俔의 『傭齋叢話』가 잘 전해

⁹⁾ 이하의 서술은 李宜茂(중종 명종때 영의정 우의정을 지낸 李芑·李荇의 부친이며 율곡의 증조부되는 李宜碩의 아우)의 花石亭賦竝序(『蓮軒雜稿』권1) 및 李淑城의 花石亭記, 송시열의 (『송자대전』권145), 박세채의 坡州花石亭記(『남계집』권67) 에 의거하였다.

^{10) 『}중종실록』권65, 24년 4월 26일 신묘, 京畿道事 朴光弼에 의하면 파주에 京中士大 夫家의 墳墓가 多在한다고 한다.

주고 있다. 요컨대 15세기 내내 파주는 서울 근교로서 경중사대부의 후방 기지 역할을 다하였던 것이다.

물론 파주지역에 世居하는 향촌세력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사족 신분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한 존재들은 아니었고 그래서 기 록 자체가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고 본다.

이런 파주지역의 향촌사회에 변화가 온 것은 16세기에 들어와 成守琛 · 白仁傑 등의 인물들이 입향하여 자리를 잡게 되면서였다. 이들은 당시에 새로이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대두하던 사람의 영수 조광조의 문인들이었다. 왕실과의 결탁을 통해 온갖 비리와 부정을 자행해 온 집권세력을 비판하며, 현실에서의 도학정치 구현을 목표로 사회전반의 개혁을 주장하여 온 사람은 그러나, 조광조 등 개혁 주체가 실각하고 죄를 입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중앙에 머물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향리로 낙향하거나 연고지를 찾아 은둔하며 修己와 학문에 힘쓰게 된다. 서경덕・이황・조식・이항 등 조선성리학을 수립한 대가들이 혹은 개성에서, 또는 안동의 예안, 진주의 덕산, 전라도 태인을 근거로 하였던 것이 이를 말한다. 성수침과 백인걸이 파주를 찾은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 중 성수침은 이미 그 先代에서부터 파주에 墳山을 두기도 하였지만 妻鄉(尹士元의 女)이 바로 파주읍 향양리의 牛溪여서 1541년(중종 36) 아예 서울 白岳山 아래 聽松堂의 살림을 거두어 이곳으로 옮기고 竹雨堂을 지어 정착하였다.¹¹⁾ 이후 조선말까지 그 후손들은 이곳을 근거로 수백년을 세거하게 된다.

한편 백인걸의 경우 그 어머니가 고려말의 名臣이던 禹玄寶의 후손 禹 從殷의 딸로 교하 萬隅里가 친정이었고, 또 後妻(順興 安璨의 女)가 앞서 파주・교하일대에 수만경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安牧 후손 집안사람이 어서 일찍부터 월롱산 아래에 寓居하여 왔다.12)

^{11) 『}율곡전서』 권18, 聽松成先生行狀.

¹²⁾ 백인걸의 생애에 대해서는 그 문하에 30년을 출입한 우계 성혼이 지은 '議政府右參

56 韓國書院學報 1

성수침과 백인걸의 파주 거주는 그동안 집권세력이던 훈척의 墳山・別墅 등으로서 서울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던 파주 향촌사회의 변화를 예고하였다. 당장은 사화의 여파 때문에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으나, 이 시기 사림의 향촌활동을 특징짓는 향약이 이미 명종 15년 시행된 것이라든가 무엇보다도 그들의 훈도하에 장차 선조 이후의 사림정치와 성리학을 이끌어 갈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이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후일 파주지방의 대표적 인물을 수록한 파주향선생안[鄕案]을 작성하면서 그 이전에 인물이 없지는 않았으련마는 이 성수침・백인걸로서 첫머리로 삼았던 것¹³⁾은 파주의 사림사회가 두 사람의 入鄕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조선시대에 사림사이에는 영남지방을 일러 흔히 鄒魯之鄕이라 하였다. 추로란 맹자와 공자가 태어난 지방을 이르는 곳인 만큼 정몽주 이하이황·조식에 이르는 뛰어난 유학자를 배출한 영남이 조선유학의 본고장이란 뜻을 담고 있다. 그런데 영남만 그런 것이 아니고 파주도 식자 간에조선의 추로라고 불리었다. 성혼의 문인으로 후일 임진왜란 때 왜군에 잡혀일본에 압송되었다가 돌아와 『看羊錄』이란 포로 생활 당시의 기록을남긴 姜沆이, 광해군 연간에 지은 파산 四賢書院(파산서원 재건당시의 임시 명칭, 후술 참조)의 察倫堂 上樑文에서 "파산 한 고을은 마치 노나라처럼 어진사람이 많았으니[坡山一邑 似魯國之多賢]"라고 하여 이미 파주를 공자 고향인 노나라에 비유했던 것이라든가나, 숙종 39년에 파주유학 曺 翊周 등이 올린 상소나 숙종말에 학자로 이름있던 厚齋 金榦의 글에서 "파주 고을은 평소에 우리나라의 추로라고 불리었다.[坡州一邑 素號我東鄒魯]"고 한 말15)이 그 예가 된다.

贊白公行狀'(『牛溪集』권6, 雜著)에 자세하다.

¹³⁾ 坡州鄉射堂重修記(平內 黃昇源 纂), 鄉先生案(『坡州郡誌』所收),

¹⁴⁾ 姜沆、『睡隱集』 권2、坡山四賢書院察倫堂上樑文.

^{15) 『}숙종실록』 권53, 39년 5월 28일 坡州幼學 曺翊周 등 상소 및 金榦, 厚齋集 권7 書. 答坡州院儒(丁亥).

추로라고 하려면 훌륭한 학자가 배출되었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성수 침과 백인걸도 거론되지만 파주로 하여금 조선의 추로라는 이름을 얻게 한 학자는 바로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이었다. 두 사람은 살아서는 도학을 함께 논하고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同志였고 죽어서도 牛栗 또는 栗牛 로 불리면서 文廟 從祀는 물론 毀譽를 함께 하는 同傳이었다. 퇴계・남명 에 의해 영남학파가 형성되었다면 그에 맞서서 기호지방의 유학을 대변 하는 기호학파는 바로 "珥・渾", 또는 "栗・牛"로도 별칭되는 두 사람을 스승으로 하는 그 문인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우율이 같은 시기에 함께 살았던 곳이었기에 파주를 조선의 추로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이와 파주의 인연은 앞에서 잠시 언급한대로 그 5대조 이명신이 마 련하고 증조부인 李宣碩이 재건한 花石亭과 파평면 자운산 아래의 율곡 리에 있는 世業(田土・奴婢・農舍)에서 맺어졌다. 강릉 外家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6살 때 서울로 온 이이가 이미 8살 때 화석정 시를 지었다고 하므로 소년시절부터 서울 본가와 파주 田舍를 왕래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49세로 서울에서 작고하여 자운산 기슭에 묻힐 때까지 율곡 의 활동은 파주를 주된 근거로 하여 전개되었다.16) 물론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선 이후는 서울에서 머물고, 또 35세 되던 해에 살림집을 처가 인 海州 野豆村으로 옮기며 亡兄의 큰 집 식솔까지 다 불러 모아 아예 생 활 기반을 해주에 마련하였으므로 인해 율곡을 파주사람이라고 하는 데 는 혹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학문적 성숙과 저술이 이 파주에 서 이루어졌고 무엇보다도 그의 아호인 율곡이 바로 파주 자운산 아래의 田舍가 있던 지명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이 율곡을 파주사람으로 간주하게 하는 유력한 근거이다. 사실에 있어서도 그는 금강산으로 입산했다가 돌 아온 19세 이후, 때로 省親을 위해 서울과 강릉(외조모)을 찾는 외는 과거 에 급제한 29세 때까지 파주에 머물렀다. 여기서 평생의 지기였던 우계

¹⁶⁾ 이하는 '율곡연보'(『율곡전서』 권33・34 부록)와 金長生이 지은 '율곡선생가장' (『沙溪遺稿』권7, 行狀)에 의거하였다.

성혼과 교의를 나누며, 특히 인근에 살던 성수침과 백인걸로부터 정암 조 광조의 도학과 정치적 경륜을 듣고 배웠다. 氣一元論的 성리철학과 경장론 위주의 율곡정치론은 바로 이 파주의 율곡리 田舍에서 기초가 구축되었던 것이다.

뿐 아니라 율곡은 서울에서 벼슬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잠시 물러날 때에도 파주를 찾았다. 그의 연보에 보면 선조 9년 개혁에 소극적인임금에 실망하여 은퇴를 결심하고 서울살림을 정리하여 해주의 석담에옮겨가 일년여를 머물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선조 17년 작고할 때까지, 벼슬에서 물러나면 으레 파주의 율곡 田숨에서 병을 다스리고 휴식한 것으로 나온다. 선조 7년 聖節使의 서장관으로 명을 다녀온 허봉의 사행일기인『朝天錄』에 보면 파주를 지나면서 율곡을 찾았는데 파리한 병색의 율곡이 마침『성학집요』를 편찬하고 있어서 이를 놓고 함께 토론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성학집요』는 三代의 至治를 이루기 위해 임금이 해야 할修근와 治國의 방향을 조목조목 논한 제왕학의 대표적인 저술로 손꼽힌다. 이『성학집요』 뿐만 아니라 율곡의 경장론을 담은 疏章이나『격몽요결』,『학교모범』,『경연일기』와 같은 문자 역시 대개 이 파주에서 머무는기간 구상되고 편찬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파주는 "율곡학"이라고 이름하여도 좋을 율곡 학문의 産室이었다고 할 것이다.

율곡과 함께 파주를 대표하는 유학자는 성혼이었다. 성수침의 아들로 서울의 順和坊에서 태어나 10살 때 부친을 따라 파주 향양리로 옮겨온 그 는 율곡처럼 거주지 앞을 흐르는 개천 이름인 牛溪로서 자신의 호를 삼았 지만, 그러나 율곡이 그 생활기반을 해주 석담으로 옮겼던 것과 달리 64세 로 작고할 때까지 파주의 우계를 떠나지 않았으며 그 후손들도 향리를 지 키며 조선말까지 세거하였다.17) 부친으로부터의 가정 교육과 아예 백인결 의 문인으로 수학하였던 관계로 학통상으로 본다면 그는 율곡보다도 조

^{17) 『}우계집』, 부록, 연보.

광조로 대표되는 조선조 도학의 정통을 계승한 선상에 위치하였다. 그래서인지 서울과 인근 고양의 尹斗壽·尹根壽, 鄭澈, 沈義謙같은 인물이나저 멀리 영남의 南冥 曺植의 제자인 崔永慶, 鄭仁弘과 梁弘澍같은 선비들까지 그의 집을 출입하는 등 일찍부터 명망을 얻고 있었다.

지명으로서 자운산 아래의 율곡과 명학산 자락의 우계의 거리는 두어 마장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율곡이 금강산에서 돌아와 성리학에 뜻을 두게 되는 19세 되던 해, 20세이던 우계와 서로 朋友의 의리를 맺어 이후 生同志死同傳하는 학문과 인격의 결속체를 이루게 된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재분껏 한 사람은 窮理格致하여 經世官僚의 길을, 또 다른 사람은 反躬實踐하는 山林學者의 길을 걸었지만, 四端七情人心道心說의 논난을 통해 앞선 사람들 주장의 미심쩍은 부분을 밝혀 조선성리학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당시 정국의 운영방향이라든가 현안 타개방법에 대한 상호간의의는 조율을 통해 수준높은 사림정치론을 수립하였다. 양인의 학덕이 깊어지고 명망이 드러나면서 경향 각처로부터 問業하려는 선비들이 이들을 찾아 꾀이게 된다.

율곡이 서울서 벼슬하고 파주에서 학문을 닦으며 해주에 생활터전을 두었기에 세 곳에 그 문인들이 분포했다면, 우계는 파주를 본거지로 움직이지 않아서 파주 한 곳에만 문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런데 율곡이 실제로 서당을 열어 강학을 한 곳은 해주였다. 그래서 隱屛精舍를 세우고 학규를 정했으며, 社倉契約束, 海州一鄉約束 등을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파주지역과 관련된 이런 내용은 鄕約序文을 지은 것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비해 성혼은 자신을 찾아오는 학도를 가르치기 위해 자기 거처인 파주 우계에 書室을 열고 22조목으로 된 書室儀를 지었다고 한다.

그리고 율곡의 경우 세 곳에 문인들이 있었다 하나 그 학문적 기반을 파주에 두었던 관계로 서울과 해주의 문인까지 파주로 출입하였고, 우계와 동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대개 그 문인들이 율곡·우계의 兩門을 같이 출입하였다. 바로 여기서 퇴계와 남명의 문인을 주축으로 하는 영남

학파 내지 영남사림에 비견되는, 牛·栗門人을 주력으로 하는 기호학파 내지 기호사림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 인물을 꼽아보자면 金長生・李貴・趙憲, 吳允謙・尹煌・ 黃愼・申應榘, 鄭燁, 金權, 金集, 金瑬, 金尚容, 申欽, 姜沆・李廷龜・金堉 등 인조이후 명인으로 드러나는 인물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물론 파주출 신은 아니다. 그들의 거주지는 경기도는 물론 충청도 연산, 심지어는 전라 도 綾州(安邦俊)에까지 걸친다. 이렇게 먼 지방의 사람들까지도 牛・栗을 좇아 모였고 그 중심지는 파주였다. 더구나 1594년(선조 17) 율곡이 작고 하고서는 우계만 남은 상태이고 그 우계가 파주에만 기반을 두고 있었기 에 파주는, 특히 그 형성기에 있어서 기호사람의 본거지였다고 하겠다. 앞 서 잠시 나왔지만 파주가 조선의 鄒魯라고 불리어진 까닭은 이러한데 있 었다.

聚牛의 학자적 명성과 파주에서의 강학활동 및 그 문도들의 결집으로 인한 기호학파의 형성은 후일 그 기반으로서 파주의 이름을 조선의 추로 라고 불릴 정도로 널리 알리게 하였다. 따라서 파주지역 사족의 분위기 또한 종래의 훈척적인 데서 사림적인 방향으로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없었 다.

앞서 명종 3년 파주백성들이 벼슬이 갈리어 돌아가는 목사의 행렬을 가로 막고 그 행장을 빼앗은 일이 있었다. 백성은 굶어 죽는 판에 진휼은 하지 않고 官物을 싣고 어디로 가느냐는 항의 과정에서 일어난 사단이었다. 조정은 이를 난민으로 보아 엄한 처벌을 내렸지만¹⁸⁾ 한편으로는 유교적 교화를 통해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순치시켜야 하였다. 주자가 상부상조의 물질적 기초 위에서 유교 윤리에 의한 향촌질서수립을 목적으로 재정한 향약은 여기에 합당한 하나의 방안이었다. 그리하여 퇴계의 예안향약처럼 뜻있는 유학자가 향촌별로 시행하는가하면 국가는 수령들에게 이

^{18) 『}명종실록』 권7, 3년 2월 4일 신해.

의 시행을 권유하였다. 그래서 파주에도 1560년(명종 15) 목사 변협이 관 내의 두세 명의 유덕자[長子]와 의논하여 향약의 내용을 실정에 맞게끔 제정하고 율곡에게 그 서문을 부탁하였던 것 같다. 현재 향약의 내용은 전하지 않으나 율곡이 지은 파주향약서문19)은 남아있다.

목사 변협은 몇 년 후 제주목사로 있으면서 문정왕후를 믿고 발호하다 가 제주로 귀양 온 승려 보우를 매 때려죽인 사릮계 인물이었다. 그리고 율곡 서문에 보이는 두세 명의 어른도 아마 성수침 • 백인걸 • 성수종 같 은 사람계 인사였다고 보인다. 불과 25세밖에 안된 율곡이 서문을 쓴 것도 놀랍거니와 이를 통해 율곡이 파주지역의 유교유리보급과 교화에 앞장서 고 있음과, 다른 지역에 비해 파주에 사림적 향촌질서수립 움직임이 비교 적 이른 시기에 선구적으로 시도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牛・栗을 중심으로 한 파주사족의 동향을 찾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는 파산서워의 건립이다. 퇴계 이황에 의해 도학이념의 확립과 특히 土林양성기구로서 성격을 가지고 보급되기 시작한 서원은 명종말까지만 하여도 전국의 10여 곳에 세워진 데 불과하였다. 이들 지역은 대개 사림계 인물의 활동이 활발하거나 사림세가 강한 곳이었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 서워이 들어선다는 것은 그 서워을 중심으로 하여 사림세가 확산되고 그 지역이 사림적 분위기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하는 의미를 지녔다. 이런 의 미를 지닌 서원의 건립이 선조원년 이율곡의 주동에 의해 파주지역에서 추진된다.

『청송집』에 실린 월사 이정구의 "坡山書院 奉安祭文"20)을 설명한 머 리글 의하면 1568년(선조 원년) 율곡이 사림 간에 통문을 내어 청송을 제 향하는 서원건립을 발의하고 이어 영건에 들어갔으나 공사가 늦어져 미 처 位板을 봉안하기도 전에 임진왜란을 만나서 병화에 불타 버렸다고 한 다. 여기서 말하는 통문이 『율곡문집』에 실려 있지 않아 그 구체적인 내용

^{19) 『}율곡전서』 권13, 坡州鄕約序(경신) 및 『남계집』 속집 권20, 跋坡州鄕約.

^{20) 『}聽松集』 권2.

62 韓國書院學報 1

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서원 건립을 알리는 일반적인 통문의 예로 보아 대체로 "坡州聽松先生書院營建通士林文"하는 정도의 제목으로 청송의 學德을 들어 서원에 제향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고, 서원건립에 따르는 물심양면의 지원을 바란다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 정랑벼슬에 있던 淸江 李濟臣이 청송의 아들인 성혼에게 청송뿐만 아니라 절의로서 이름 높던 그 아우 成守琮까지 함께 제향할 것을 제안하는 편지를 보낸 것21)을 보면, 이 통문에 대한 관료를 포함한 사람들간의 반향은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러나 반향이 큰데 비해서 물질적 지원은 여의치 못했던 것 같다. 임진왜란 발발이 1592년(선조 25)이니까 발의에서부터 25년이 지나도록 위판 봉안마저 못할 정도로 공사가 지지부진했다는 사실22)이 이를 말한다.

이렇게 청송서원의 건립이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서원건립의 일반적인 예로 본다면 지방관의 인적·물적 지원이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서원 건립과정이 지지부진했다는 것은 이때의 파주목사 역임자들이 서원 에 관심이 적었거나, 지원할 만큼 파주의 재정이 넉넉지 못했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조 초에 생겨난 동인·서인의 붕당명목에서 율곡 과 우계가 숫적으로 크게 열세인 서인쪽에 속하였던 것도, 일반관료의 보 다 많은 지지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이유는 파주지역의 사림세가 아직 향촌을 주도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데 있지 않았을까 한다. 비록 청송·휴암이 사림적가치와 생활의 모범을 보였고 율곡과 우계가 목사와 협력하여 향약을 실시하며 학문 활동을 통하여 문인집단을 양성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원래조선 초 이래 중앙관리의 墳山과 別墅 등을 통하여 구축되어 온 훈척적기반과 정서가 강하게 남아있어, 파주향촌의 분위기가 반드시 율곡·우계가 추구하는 사림적 질서와 방식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던 것이고, 그래

^{21) 『}清江集』 권2、 聽松書院營建創始 與成牛溪書.

²²⁾ 앞의 李廷龜, '坡山書院奉安祭文'.

서 사람양성기구인 서원건립이 지지부진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파주지역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선조대에 들어와 사람이 비록 정권을 장악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완전치 못하였음으로 해 서 향촌에까지 사림집권의 효과가 미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퇴 계를 위시한 학자들이 향약의 실시를 주장하고 서워의 보급에 앞장섰던 것이다. 율곡과 우계 등이 주동한 파주 청송서원 건립추진도 이런 일련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20여 년이 넘도록 서원 영건 사업은 끝나지 않았고 위판 봉안마저 하지 못했다. 그것도 율곡 우계 등에 의해 주자학이 강론되 고 성리학적 향촌질서의 수립에서 다른 곳보다 선진적이라고 할 파주에 서 말이다.

이것은 무려 반세기 이상 걸린 4차례의 사화를 겪으면서 비로소 정권 을 쥘 수 있었던 집권과정과 마찬가지로, 향촌사회의 사림화가 우여곡절 을 거치면서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 이다. 파주향촌 사회의 사림화와 사족활동의 활성화는 율곡 • 우계의 다음 세대가 활동하는 시기인 17세기를 기다려야 하였다.

3. 서원 合享 및 位次 논란

임진왜란이 조선사회에 끼친 영향은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다. 백성이 유리하고 국토가 황폐화된 것은 물론 국가지배체제마저 무너져 내렸다. 한마디로 국가의 운명이 끝에까지 간 것이다. 그러나 어찌하였던 조선은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자가 당면하였던 가장 큰 과제는 국가의 재건이었 다. 그리고 그 임무는 임진왜란에서의 전란 극복과 의병활동을 통해 그 존재를 확고히 하면서 가장 유력한 사회세력이 된 사림과 그 모집단인 사 족이 맡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해법은 중앙에서 사림정치의 구현과 향촌에서의 지주제·자치제의 구축으로 전개되지만,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그들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그리하여 사림정치의 붕당적 구도 속에서도 상대당의 존재를 용인하고 정권에 함께 참여시키는 조제론이 힘을 얻었다. 일당의 독점지배를 추구하던 광해조의 북인정권이 연합된 사림의 힘에 의해 축출된 것이 그 예이다. 향촌사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사족 간에 결속을 강화해주는 鄕案・鄕規나 사족과 향촌민 사이의 유대를 연결하는 향약・社倉制 등이 조직되고 시행되었다.23)

이런 속에서 모든 활동의 주축인 사림을 양성하고, 그 결속과 활동에 기반을 제공하는 서원이 향촌사족의 중심기구로 등장하게 됨은 당연하였다. 4년의 근교여서 중앙정치의 여파가 직접 미치는 특성을 갖기는 하지만 파주지역이라고 하여 이런 추세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개별적인 서원 건립이 추진되면서 동시에 사림결속의 형태로서 서원통합의 논의가진행된다. 이런 까닭으로 17-18세기 파주의 사림동향을 서원합향론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이이・성혼이 배출되었기에 조선의 추로지향으로 자부하는 만큼 그들의 학문을 계승하고 학풍을 유지하기 위한 서원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후의 서원 건립은 금방 추진될수 없었다. 왜란의 피해로 물력은 물론 인력마저 크게 부족하기도 했거니와 북인이 정국주도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栗・牛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고한 율곡도 그렇지만, 특히 우계는 정여립옥사를 뒤에서 조종한 원흉이며, 왜란 때 신하의 절의를 다하지 못한데다가 일본과의화의론을 주장했다하여 간신으로 몰려 罪案에 들어가 있었다.25)

상황은 광해군이 즉위하고서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도학적 기준

²³⁾ 이에 관한 연구는 『한국사』31(국사편찬위원회, 1998)의 Ⅱ. 사족중심 향촌지배체 제의 재확립을 참조하였다.

²⁴⁾ 정만조, 「조선조 서원의 정치사회적 역할」(『조선시대 서원연구』, 1997).

^{25) 『}광해군일기』권10, 즉위년 11월 22일 을사, 廣州牧使 申應榘上疏.

이 당론을 공론으로 파정하는 요소가 강화되면서 各黨마다 자기당의 도 학적 정통성을 담보하는 유학자를 현양하는 경향이 이미 현저해진 상황 이었다. 남인계의 이황이 포함된 5현의 문묘종사 요구에 대해 북인계 또 한 그 학문계보인 남명 조식과 화담 서경덕의 문묘종사 추진과 곳곳에 서 원건립을 도모하고 있었다.

남인의 5현종사에 동조하던 서인계 역시 이에 대처해야 하였다. 1610 년(광해군 2) 5현종사가 실현된 단계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그 학적연원인 율곡과 우계를 현양해야 한다는 소리는 이런 속에서 나왔다. 그래서 1615 년(광해군 7) 율곡을 제향하는 서원이 파주 자운산의 율곡 묘소아래(현재 의 법원읍 동문리) 먼저 세워지게 된다.

율곡제향의 초기 자운서워 건립관계를 전하는 자료는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그나마 자운서원 관련 자료를 모았다는 자운서원지(1999년 간행)에 는 처음 세운 위치를 후일 이전한 虎鳴山 泉站(현재의 천현면 가야리)이라 고 잘못 적고 있기까지 하다.

임진왜란 당시 외교문서 작성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문장가로 이름 높았고, 후일 인조 때 율곡의 諡狀을 지었던 月沙 李廷龜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자운서원은 1615(광해군 7) 모월 15일에 율곡 위판을 봉안하였다 는데 서울에서 내려 온 참석자는 金塗등 관인 3명과 유생 몇 명이었고, 황해도에서 온 유생 수십명에 파주 본읍의 유생 40명 정도, 그리고 尹都 事, 趙佐郞과 백발의 노인이 모두였다고 한다.26)

위판 봉안이란 경사가 있는 당일의 이런 쓸쓸한 모습을 전하면서, 이 는 서울 사대부들이 사고가 많은데다가 '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 고는, 그러나 "한줄기 斯文을 부지할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야지, 흉한 무리에게까지 알려서 그들 마음대로 일을 망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 (一脈斯文 猶足扶持 不必使兇徒與聞而任其壞了也)"하여, 불리하 정세 속

²⁶⁾ 李廷龜、『月沙集』 刊35 答鄭時晦曄、刊36 與申子方應榘兼示尹可晦昉.

에 율곡서원의 건립이 쉽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로 말하면 이때는 영창대군 추대설과 연관된 계축옥사27)의 여파로 많은 서인이 박해를 받고, 북인의 폐모론이 그 마각을 보이던 시점이었다.

벼슬하는 관인들이 눈치 보느라 봉안식에 참석을 꺼릴 정도였다면, 백면서생인 파주 사람이 받았을 유·무형의 압력이 어떠하였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이 간다. 그러나 그런 위협 속에서도 참석 유생이 40여인이나되었다는 데서, '기력'이 부족하다는 관인에 비해 파주 사람의 '용기'가 돋보이기도 하려니와, 그만큼 파주지역 사람의 활동이 활성화되었다는 증거를 찾게 되는 것이다.

파주에 율곡서원이 세워졌다면 당연히 우계서원도 함께 건립되었어야 하였다. 아니 오히려 파주와의 연고를 고려하고 십몇 년을 더 살아서 그만 큼 파주에 더 많은 문인을 두었던 사정을 생각한다면 율곡보다 우계서원이 먼저 세워져야 하였다. 사실 율곡서원이 세워지기 전인 광해 3년에 이미 우계를 제향하려는 서워건립 움직임이 있었다.

우계문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에서 포착되는 이런 움직임은 파산서원의 재건을 통해서였다. 선조 초 율곡의 주동으로 시작된 청송제향의 파산서원은 결국 준공을 보지 못하고 전란을 만나 불타고 말았는데, 그 재건 논의가 우계제향 문제를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다. 다만 이때의 논의는 청송・우계의 부자간만 아니라 휴암 백인걸과 율곡까지 포함하여 추로지향으로서의 파주를 대표하는 이른바 "坡山四賢"을 함께 제향하자는 방향이었다.

1618년(광해군 10)에 죽은 우계문인 姜沆이 지은 "坡山四賢書院察倫堂上樑文"이 그의 문집에 실려 있고,28) 李植 역시 파산서원상량문에서 "4현이 한 나라의 우러러 보는 바 되고 끼친 큰 덕업이 향촌 간에 가깝지않은 바 없도다"29)라고 하면서 청송・휴암・우계・율곡의 덕업을 차례

²⁷⁾ 광해군일기 권65, 5년 4월 25일 계축, 6년 2월 22일 기유(권67).

²⁸⁾ 姜沆、『睡隱集』、 권2.

로 거론한 것을 보면, 적어도 1618년 이전에 "파산4현서원"이란 임시명칭 으로 찰류당과 같은 강당이 지어질 만큼 4현제향을 목표로 한 파산서원 중건작업이 구체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파주고을이 추로지향임을 내외에 표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一邑一院"이라는 원칙도 지킬 수 있 어서 당시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뒤따랐다. 우선 우계를 주화오국의 간신으로 매도하는 집권당의 편향된 시각 속에 우계제향을 밀어 붙일 수 는 없었다. 중건을 알리는 回文의 머리글(頭辭)에 단지 청송이름만 넣자는 궁여지책을 놓고 논난을 벌인 것이 그런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30)

다음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서 聽松・休庵・牛溪 3인과 栗谷을 함께 제향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거론되었다. 단순히 鄕賢을 봉안하는 祠字가 아니고 사림을 양성하는 道學의 장소이니 만큼 우계라면 몰라도 청송・ 휴암과는 서원에 함께 제향하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사 함 께 위패를 봉안한다 하더라도 位次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논난거리였다. 그저 쉽게 世代順으로 정하는 것은 이미 도학위주의 서원으로 이름한 이 상 명실이 어긋난다. 다만 우계는 청송과 부자간이고 휴암과는 사제 간이 니 만큼 함께 봉안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끝에 결국 율곡을 위해 별도의 서원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정엽 등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31) 율곡만을 제향하는 자운서워의 건립이 파산서워 중건추진세 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김장생 중심의 율곡직계문인의 주동에 의해 파 산서원의 중건보다 먼저 이루어진 사정은 이러한데 있었다.

율곡서원의 독립으로 난제가 해소되고 그에 따라 우계의 서원제향 또 한 급해졌으나, 그렇다고 파산서원의 중건이 바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파 산서워이 중건되어 우계의 위패가 봉안된 것은 10여 년 뒤인 1628년(인조

²⁹⁾ 李植、『擇堂別集』 刊12.

^{30) 『}月沙集』 236, 書牘下, 與申子方(應榘)兼示尹可晦(昉).

³¹⁾ 鄭曄、『守夢集』 권8、答申子方(應榘), 坡山祠字坐次 恐不可以栗谷處於聽松白參贊 之下 此卽鄙意只今如此 別建書院 果出於不得已也.

6)이었다.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함으로써 우계의 죄도 신원32)되고 더이상의 제약이나 장애적 요소가 없어진 다음이었다. 그런데 중건된 파산서원에는 청송·우계 부자의 위패만 봉안되었지 휴암의 자리는 없었다.33) 율곡이 빠져 나감으로써 파주4현의 명분이 없어지기도 했거니와 우계문인과 그 집안 후손 쪽으로 보아서는 율곡의 자운서원에 비견되는 우계의독립적인 서원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때의 휴암 제향론은 파산서원 중건의 명분을 보강해 주는 선에서 일단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 논의는 후일 효종말에 다시 제기되어 한때는 자운서원에 別祠를 두는 것으로 낙착되었다가 끝내는 파산서원으로 옮겨 봉안되고, 후일 성수종의 추향에따른 위차시비에 휘말려 그 후손 문파 간에 분기를 가져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효종 원년 국가의 사액34)을 받는 등 자운과 파산서원은 각기 그 제향인물의 학통을 계승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일대에 생활기반을 가진 후손과 문인을 주축으로 서원을 운영하며 우계학맥을 지켜오는 파산 쪽과 달리 자운서원 쪽은 날로 피폐해짐을 면치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율곡에게 적손이 없기도 했으려니와 그나마 있는 서자의 후손마저 해주 석담에 거주하고 있어 서원을 관리할 주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두 서원 간의 이러한 차이는 같은 우율문인이라 하면서도 율곡의 적전임을 자처하면서, 우계후손과는 다소 껄끄러운 관계에 있던 김장생과 그문인들인 율곡직계 사람들의 불만을 불러왔다. 송시열이 "파산 쪽은 그후손이 번성해 돌보기 때문에 더 보탤 것이 없이 잘 갖추어 있으나, 자운쪽은 무덤마저 황폐하여 처량하기 짝이 없다. 입만 열면 선생을 높인다고

^{32) 『}인조실록』 권1, 워년 3월 25일, 常參을 행한 자리.

^{33) 『}우계집』 연보1, 무진(인조6년, 1628) 10월 坡山書院成 奉安位版 行釋菜禮 先是 諸生議並享聽松休庵栗谷牛溪四先生于同堂 移設院址于別處 役久未完 既而諸生 有休庵栗谷位次上下之論 未能歸一 故還設于舊址 只享聽松及先生.

^{34) 『}효종실록』 권2, 원년 11월 23일.

하면서 이런 일은 나 몰라라 하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라"고 탄식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35)

어떤 형태로든 자운서원과 율곡묘소 쪽의 재건과 정비가 있어야 하였 다. 아래에서 말하겠지만, 효종 말년 자운서원의 泉站(현재의 천현면 가야 리) 虎鳴山 아래로의 移建을 통한 중수와 휴암 백인걸의 제향이 함께 이루 어지면서, 청송・휴암・율곡・우계의 4현을 한곳에 合享해야 한다는 의 논이 다시 일어나고 그에 따라 파산서원까지 이곳 천참으로 옮겨야 한다 는 서원통합론이 한창 논난되다가 결국 성사되지 못하여 자운서원은 원 위치하며 휴암 위패는 파산서원 쪽으로 옮겨지는 변화를 겪고,36) 그러는 속에서 자운서원 묘정비를 세움과 함께 율곡 庶孫을 해주에서 이곳으로 옮겨 살게 해 관리를 맡게 하는 등 이삼십년간에 걸쳐 파주에서 진행된 일련의 과정은 이런 배경 위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의 중심에는 우암 송시열이 자리하고 있었다.

낡은 자운서원의 중수는 묘소 부근에서 천참의 호명산 아래로 이건하 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겸하여 이건된 서원에는 雙廟를 두어 율곡 이외에 휴암 백인걸도 제향하게 하였다. 그 시기는 대개 효종 말년경인 1658년 전후였고 파주목사가 발의해 추진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管內의 서원에 큰 영향권을 가진 혐직의 목사라 하더라도 자운서원의 이건과 휴암제향 이란 유림의 중대사를 독자적으로 추진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과연 박세채가 송시열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 보낸 편지에 보면 송시열이 파주 목사에게 이를 권유했음이 드러난다.37)

서원의 건립에는 막대한 물력과 사람의 힘이 들어간다. 그러나 뜻있는

³⁵⁾ 宋時烈, 『宋子大全』 권44, 與洪遠伯重普, 무신 10월 28일.

^{36)『} 冬み 대 전』 권 151、 坡山 書院 休庵 白 先生 合 享時 告 文、 「 拾遺」 권 8、 祝 文、 紫雲 書院 告 白休庵文

^{37) 『}남계집』 권25, 書 答宋尤齋別紙.(현종9년) 及聞某人爲坡州倅 謀移紫雲院舍 而仍將休庵白公 遂享雙廟之西位 私心慨然…及 至此月之初 因到紫院 爲檢其舊蹟 而得函丈遺坡倅一書…始知其論之定 出於台旨 然則向來妄說 不惟得罪於魯丈 而其在閤下 實有倍蓰焉者.

수령이라면 다소 무리하더라도 이를 추진할 수는 있다. 마침 백인걸집안쪽에서 그의 옛 자취가 남아있는 月籠山의 休巖 아래 서원을 세우고자 모아 놓은 재물이 있었다. 우암으로서는 자운서원을 증수할 좋은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파주목사를 통해38) 이를 밀어 붙였다고 본다. 이 때 천참에 세워진 자운서원에 대해서는 이경석이 紫雲書院栗谷先生移奉祝文을 남겼다.39) 여기 보면 "(전날의 서원은) 땅의 형세가 좁고 답답하며 쉽게 무너질 염려가 있었는데 이 천참은 가까우면서도동네가 탁 트여 넓었다. 그래서 많은 선비들이 뜻을 같이해 재물을 모아사우를 세우고 … 좋은 날을 골라서 위패를 옮겨 모신다. 또한 휴암도 서쪽편에 모셨는데 평소의 관계를 고려해 따로 위패를 두게 한 것이다. 서원이름은 옛 명칭대로 하되 규모를 늘리고 새로 수축하였다."고 되어 있다. 옮길 당시의 정경을 잘 전해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건하게 된 이유를 옛터가 좁아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고 있다.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이를 뒤에서 지휘한 송시열에게는 보다 큰 뜻이 있었다고 본다. 그것은 앞서 광해 초에 시도하다가 중단된 청송·휴암·율곡·우계의 파주를 대표하는 4현을 합향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栗牛의 문묘종사와 함께 명분상으로 조선의 추로지향으로서 파주의 위상을 확실히 드러나게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율곡을 홀로 제향하는 자운서원 건립에서 오는 운영상의 애로나 관리상의 문제점을 바로 해결해 주는 현실적 방안이기도 하였다. 뿐 아니라 그동안 백인걸 측의 불만이었던 휴암의 서원향사를 실현할 수 있어 향촌명문집안간의 갈등해소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고, 1653년(효종 4) 충청감사 徐必遠의 서원폐단소에

³⁸⁾ 이때의 파주목사가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효종 9년 여름에 金光燦이 파주목사에 제수되었고 (文谷集 권21, 先府君行狀), 또 尤庵이 同春에게 효종 9년 10월에 보낸 편지에 "金坡州文字護受(송자대전 권30, 答宋明甫, 戊戌)"라고 하고 있어 淸陰 金尙憲의 아들이고 金壽恒・壽興의 부친으로 우암과 가까웠던 김광찬이 아닐까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³⁹⁾ 李景奭, 『白軒集』 권34.

서 비롯된 "한 고을 여러 서원(一邑多院)"에 대한 세간의 비난에서 벗어나 며, "한 고을 한 서원(一邑一院)"이란 국가시책에 파주가 모범을 보인다는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자운서원의 천참이전에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해도 결과마저 좋기는 어려운 법이다. 하 물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 실현마저 불투명해지기 마련이다. 바로 파 주4현 합향문제가 그러하였다. 합향은 파주에 있던 기존서원인 자운과 파 산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전제하였다. 자운서원이야 천참으로 옮기면서 휴악까지 받아들인 통합의 주체이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을 터였다. 문제 는 파산서원 쪽이었다. 청송의 파주입향이래 이미 3·4대를 지나면서 친 손은 물론이고 외손・外 裔와 우계학파라 이름 할만한 문인 후손의 집단 이 파주 전 지역에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파산서원은 바로 이들 의 구심체며 학문 및 향촌활동의 기반이었다. 우계의 외손으로 충청도 魯 城에 본가를 둔 윤선거가 파산서원에 머물며 우계의 「書室儀」를 걸어놓 고 파주사림들과 강학했다는 것은 작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파산서원 이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선뜻 통합론에 그러자고 동의하고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통합론을 주도하던 송시열은 당시 파산 쪽의 실질적인 대표인 유선거와 의논하였다. 유선거도 통합의 원칙에는 동의하였다. 그러나 다 음으로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4현의 위차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지극 히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송시열ㆍ송준길ㆍ유계ㆍ이 유태・윤선거의 이른바 湖西5賢은 물론 박세채・윤증 사이에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절충하는 말과 편지가 수없이 오갔다.

윤선거가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송준길에게 보낸 "與宋明甫論坡山位 次之議"에 의하면 논의는 모두 5가지였다.40) 첫째는 세대에 기준해 위차

⁴⁰⁾ 尹宣擧, 『魯西遺稿』 권11.

를 정하자는 안(世代序享)으로 김집의 주장이고, 둘째는 현재와 같은 3廟, 즉 파산의 청송·우계 1묘와 자운서원의 율곡 1묘, 휴암 1묘로 두는 안이며, 셋째는 서원을 통합하되 雙廟로 나누어 西廟는 청송·휴암, 東廟는 율곡·우계를 제향하자는 안으로 송시열이 지지하고 송준길은 유보적이었다. 네 번째는 합해서 1묘만 두고 동서로 나누어 서쪽에는 청송·휴암, 동쪽에는 율곡·우계를 배치하자는 파주사림의 안이며 다섯째는 3안, 4안을약간 수정하여 정암 조광조와 퇴계 이황을 각기 가운데 주향으로 하고 정암쪽에 그 문인인 청송·휴암을, 퇴계쪽에는 율곡·우계를 배향하자는 孤雲회의에서 나온 주장인데 우암(송시열)·동춘(송준길)·초려(이유태)가 모두 불가하다고 했다 한다.

이 다섯 가지 안중에서 윤선거 자신은 세 번째 合設雙廟分享을 지지하나 다만 송준길이 東廟가 높다 하므로 그에 따라 동묘에 청송·휴암, 서묘에 율곡·우계의 위패를 봉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결국 송시열· 송준길·윤선거의 의견은 자운과 파산의 두 서원을 합하여 4현을 각기 두 분씩 분향하는 쌍묘를 두되, 강당과 동서재 그리고 서원 소속의 토지나노비를 모두 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면 서원재정의 부족이나 관리의 부실과 같은 폐단을 막고 추로지향으로서 파주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율곡의 적통인 兩宋(송시열·송준길)이 주장하고 우계의외손인 美村(윤선거)이 적극적으로 동의한 만큼, 송시열의 처음 의도대로 泉站에 옮겨 세워진 자운서원에 파산까지 옮겨와 하나의 서원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이 방안도 끝내 실현되지는 못했다. 박세채가 조목조목 따져서 合設雙廟分享의 문제점을 지적하자41) 윤선거가 뒤로 물러나 버리고, 우계 의 자손들 또한 파산서원은 청송·우계의 체취가 깊은 곳이니만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한 것이다. 박세채가 지적한 문제점은

^{41) 『}남계집』 권26, 書, 答尹魯西別紙(현종 9년 5월 晦日).

① 서원의 제향에는 반드시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쌍묘는 이를 둘로 나누 므로 부적절하다. ② 국가가 자운서원에 사액할 때는 율곡보고 한 것인데 쌍묘에서는 휴암이 도리어 높은 자리에 가니 불가 ③ 서원은 도학이 위주 인데 나이로 따져 율곡을 아래에 두니 불가 ④ 主祀를 栗牛로 하자는 것 이 공론인데 雙廟는 여기에 어긋남 ⑤ 서워을 道學위주로 하지 않는 것은 불가 ⑥ 쌍묘를 합리화하기 위해 끌어온 퇴계의 迎鳳書院記나 宋代의 南 康兩祠의 예가 맞지 않는다는 6가지였다. 한마디로 서원이 道學강습을 위 한 곳이니만큼 제향인물도 도학을 우선해 율곡ㆍ우계 위주로 해야 하는 데, 그런 기준을 무시하고 사소한 편리를 위해 수십 년 잘 유지되어 온 파산서원을 옮겨 사람의 실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런 반론 끝에 박세채는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책으로서, 자운서원은 옛 날 있던 곳으로 다시 이건하고, 파산서원은 움직이지 말 것이며 휴암의 위패는 파산서원으로 옮기되 성수종(성수침의 동생)과 함께 우계의 위패 오른쪽에 봉안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세채의 논리적 반박과 수십 년 존속해 온 파산서원을 헐고 옮겨야 한다는 부담으로 파산 쪽이 거부해 4현합향과 서원통합론은 결국 한바탕 의 헛된 논의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리고 뒤이어 유선거의 묘비문 문제로 송시열과 윤증 사이의 틈이 벌어지고 이것이 懷尼시비로 확대되어 노론 •소론 분립의 당론이 되며 파주에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됨에 다시는 더 이상 거론되지 못하였다.

4. 老論・少論의 대결장. 紫・坡院

송시열은 자신이 추진하던 4현합향론과 서원통합 시도가 실패로 돌아

가자 천참으로부터 율곡묘하로 자운서원이 돌아갈 것을 예상하고 그 사전 정지작업을 다음으로 착수했다. 그것은 자신이 지은 율곡 신도비문을 자운서원 묘정비로 삼아 서원 뜰에 세우는 것과 율곡庶孫을 불러들여 묘소일대와 서원관리를 주재하게 하는 일이었다.

율곡신도비문은 앞서 김장생의 부탁으로 이항복이 찬술하였으나 율곡의 학덕을 잘 드러내지 못했고 異端의 문자가 들어가 있다하여 그 문인들사이에 改撰의 말이 일찍부터 있어 왔는데, 이 때 송시열이 다시 지으면서 명칭을 묘정비라고 한 것이다.42) 1678년(숙종 4) 대신벼슬에 있던 김수항형제 및 민정중형제 등의 도움을 받아 (비석의 篆額은 김수항이, 글씨는그 형인 김수증이 썼다) 비석에 새기고 1683년(숙종 9) 율곡 묘아래 있는 옛 자운서원의 묘정에 세웠다. 그 뒤 3년 만인 1686년(숙종 12)에 천참으로부터 이곳으로 자운서원이 옮겨 온 것을 보면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묘소와 서원관리를 위해서는 1673년(현종 14)해주에 살고 있던 율곡의 종증손 李厚址와 李厚芳 등을 이주시켰다.43)

자운서원에 대한 천참이전과 합향통합론의 추진, 그 후의 묘정비 건립과 서원의 묘하 재이건 및 율곡후손의 이주정착 등 수십 년간에 걸친 송시열의 깊은 관여는 자연히 자운서원을 거점으로 하는 파주사림에 대한 송시열의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그 문인과 지지 세력이 형성된 것이다. 특히숙종 때 들어가 성혼의 외증손인 윤증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노·소론으로 갈라서게 되면서, 파산서원이 윤증을 지지하는 소론적 색채를 지닌 것에 반하여 자운서원은 송시열의 노론을 지지하는 파주사림의 여론을 모으는 거점으로 역합하게 된다.

그런데 윤증과 가까워 소론의 영수로 손꼽히던 박세채가 1687년(숙종

⁴²⁾ 宋時烈, 『宋子大全』 부록 권6 年譜 5(현종 13년, 66세).

^{43) 『}송자대전』 권44 與洪遠伯重普, 권59 與閔大受(숙종 4년 12월), 권60 與閔大受(숙종 7년 5월 28일).

[『]남계집』 권28 答尹自仁,「外集」 권4 答閱大受(숙종4년 10월 29일).

[『]壺谷集』 권14 紫雲書院移建上樑文 등 참조.

13) 廣灘의 南溪에 寓居하게 된다.44) 원래 장단에 선영이 있어 별서를 두 고 왕래하던 그가, 파주에 만년의 거처를 정한 것은 아마도 율곡의 계승자 임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젊은 나이에 학자로서의 명성을 쌓아 온 그는 율곡문집을 자신의 기준으로 재 편찬함을 통해, 율곡학문의 완전한 이해자임과 함께, 스스로 율곡학맥의 정통이라고 자부해왔다. 그리고 산림으로 징소되어 벼슬자리 에 나와서도 송시열에 맞서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폈다. 훈척을 감싸는 송시열을 비판한 젊은 선비들을 지지하여 그 영수로 지목된 것도 이런 이 유에서였다. 특히 숙종 10년을 전후하여 남인에 대한 처리를 놓고 노·소 론 간의 대립이 심화되자, 남인에 대한 강경책에 반대하고 그들을 정치에 일정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황극탕평설을 그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송시열 의 군자소인론과는 상반되는 정치론이었고 노론측의 반발을 받았음은 물 론이다. 그는 이 황극탕평설이 율곡의 조제보합론에 근거하였음을 주장하 며 자신이 학문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율곡의 충실한 계승자임을 천명하였다.

박세채가 파주에 자리 잡던 1687년(숙종 13)은 바로 이러한 시점이었 다. 송시열과 한창 대립각을 세우던 정치상황에서, 송시열이 화양동을 택 했던 것과는 달리, 율곡의 묘소와 체취가 가득한 파주의 자운서원 부근에 자리했다는 사실이 자신의 입지를 확실히 해 주기 때문이었다. 그는 남계 에 서당을 짓고 문도를 양성하며 때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자운서원을 찾아 파주일대의 사릮들에게 강학을 베풀었다. 이런 그의 활동은 자운서 원에 대한 수십 년간 공력을 들인 송시열의 노력을 상쇄하면서 자운서원 으로 하여금 순전히 송시열계의 노론서원만으로 되지는 못하게 하였다.

박세채의 문집인 남계선생집에는 자운서원의 학사와 제반운영사항을

^{44) 『}厚齋集』 권44, 文純公南溪先生行狀.

丁卯(숙종 13년) 三月 自楊州移居于坡州廣灘晚醒亭 亭前大溪泓渟 廣可方舟 先生 樂而逍遙 遂寓南溪之號 遠近摳衣之士日益進 相與築室于溪上 以爲肄業之所.

76 韓國書院學報 1

규정한 원규가 있다. 참고로 모두 21개조로 된 이 원규를 요약 정리해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운서원원규(1693년(숙종 19) 제정)⁴⁵⁾

1) 取士之法 - 신입원유를 선발하는 규정

원유를 새로 받아들일 때는 서원의 원유가 모여 의논하여 결정한다. 모인 자가 10명이 되지 않으면 회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생원진사는 심의 없이 들어오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원유는 서원에 출입하는 유생으로 院籍에 이름이 올라 간다. 서원에서 독서·장수함은 물론 서원의 임원이 되고 의사결정에 참 여한다. 이 원유는 흔히 말하는 원생과는 다르다. 원생은 서원에 소속되어 군역을 면제 받는 대신에 매년 일정한 양의 포나 쌀을 바치는 자를 말한 다. 그 신분은 대개 상민이다. 국가에서는 영세한 서원재정을 보조해 주는 방안으로 사액서원 30명, 미사액서원 20명씩 정원을 정하여 허용해 주었 다. 그러나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 군역을 모면하려는 자들이 다투어 투탁하고 서원은 이를 통해 재정을 늘리려 해서 조선후기에 가면 서원이 피역의 소굴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요인이 된다. 자운서원의 경우도 원 생이 있었을 것이나 이 원규에는 언급이 없다. 이 원유의 신분이 사족임은 물론이다.

2) 조 직 - 서원의 강학과 관리를 위한 인적 조직

(원장 1인) …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유사·장의·색장을 임명한다는 규정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堂長 1인 … 강학 등 학사관련 책임자인데 서워 임원 중 老成人을 임

⁴⁵⁾ 朴世采、『南溪先生續集』 권19、紫院院規.

워회의에서 추대한다.

키다

有事 1인 ... 서원의 재정 노비 등 운영을 맡는데 임원 중 연장자 중에 서 원장이 임명한다.

掌議 2인 … 서원에서의 제반논의를 주관하는데 諸生가운데서 원장이 임명하다

色堂 2인 … 장의의 보조자인데 연소자 가운데서 원장이 임명한다. 院監 1인 … 재물의 출납과 유생에 대한 식사제공 등 말단사무의 집행 을 맡는데 품관으로서 부지런하고 일을 잘 아는 자로 시

위의 조직규정은 다른 서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원장이 규정 에는 보이지 않으나 이는 기호지역 특히 서울근교의 유력한 서원의 경우 중앙의 고위관리가 원장을 겸임하므로 규정 속에 넣기가 곤란한 점이 있 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원감이란 칭호는 일반서원에서는 잘 보이지 않 는데 지방에 따라서는 院貳라 하여 부원장 정도의 지위를 갖는다. 여기서 는 서원의 下典들에 대한 감독의 일을 맡고 사족도 아닌 품관 중에서 부지 런하고 일을 잘 아는 자(勤幹者)로 삼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3) 講學과 參拜 - 서원에서 머무는 원유의 日課

- 매월 朔望에 제생은 정례적으로 廟祠로 가서 中門을 열고 분향 재배
- 평일 아침에 廟庭에서 재배하고 동·서재로 돌아와 독서·제술·의 리를 강론하며 틈이 나면 밖에 나가 심신을 단련함
- ●四孟月(一・四・七・十월)에 장의가 제생을 불러 학규를 읽고 경서 를 돌아가며 강론하고 질의한다.
- ●사표가 될 만한 인물을 서워에 초빙해서 스승의 예로 대우하고 隱屛 精舍學規(율곡이 제정했음)대로 강의를 듣는다.
- 독서는 聖賢의 책(오경・사서・소학・가례・심경・근사록・주자절

78 韓國書院學報 1

요·성학집요와 같은 종류)과 성리학에 관한 책(성리대전·程朱 및 我東先儒문집), 史書(강목 속강목) 등으로 국한하며 이단 및 잡서는 금한다.

• 과거공부는 다른 곳에서 하거나 부득이하면 서재 혹은 유사방에서 할 것.

이상의 강학 참배에 관한 규정 역시 다른 서원의 예와 다르지 않다. 다만 읽어야 할 성현의 책에 성학집요가 들어간 것이 눈에 뜨이는데 율곡서원이므로 당연하다 하겠다. 그런데 중국서원을 보면 대학자가 와서 서원에 머물며 수천명의 수강생을 모아놓고 講會(symposium)를 열어 자신의학설을 강론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朱子가 陸象山을 불러 백운동서원에서 강연케 한 것이라든가, 王陽明의 龍溪서원 강회가 그것이다. 또 鵝湖서원에서 주자와 육상산 간에 朱陸논변이 벌어진 것도 유명하다.46)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강회는 찾아지지 않는다. 兩宋과 이유태 윤선거 등의 호서사림 대표자가 黃山서원 등에서 회동한 적은 있으나 대개 명분과 의리에 관한 논의에 불과했을 뿐 학설논쟁이나 토론을 벌인 적은 없었다. 그 대신서원에서 강독(lesson)은 기간을 정해 놓고 실시하였다. 위의 강학규정이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서원재정의 부족으로 유생의 居齋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이마저 제대로 시행하는 서원은 많지 않았다. 자운서원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4) 기타 규정 - 유생예절 서원운영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

- 유생의 서원에서의 일상생활 수칙(居齋예절 食無求飽爲心 등)
- 書不得出門, 色不得入門, 酒不得醸, 刑不得用 등의 금지사항
- 학규 어긴 자의 點座 出院 削籍 등의 규정

⁴⁶⁾ 盛郎西, 『中國書院制度』(上海中華書局, 1934) 참조.

이상이 박세채가 규정한 자운서원 원규로서 위에서 언급한 약간의 특성 외에 다른 서원의 그것과 특별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자운서원 원규가 실제로 적용되었는가를 알려주는 자료, 예컨대 考往錄이나 傳與記·都錄과 같은 자료가 아직까지 찾아지지 않는다는점이다. 만약 이런 자료가 발견된다면 자운서원의 運營相은 물론이고 파주유림의 동향과 자운서원을 놓고 벌어진 노론·소론간의 대립의 구체적실상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기사환국 후 파주에 머물던 박세채는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으로 앞서 쫓겨났던 민비가 복위되고 서인이 다시 집권하자 좌의정으로 조정에 복귀하였다. 그는 다시 황극탕평설을 제창하여 임금의 신임을 받으면서, 이번에는 오히려 송시열 김수항 등의 영수를 잃고 약화된 노론을 지원하며, 남구만으로 대표되는 소론을 견제하고 윤증과도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죽었고 鄭綏夏로 대표되는 파주유생들의상소와 조정의 허락으로 숙종 21년 5월에 자운서원에 합향된다.47) 그런데그 합향의 형태가 율곡의 위패와 나란히 하는 並享이었던 점이 훗날 분쟁을 불러오는 불씨가 된다.

이 시점에서 파주사림의 성향을 구분해 본다면 파산서원의 경우 성혼이 소론 윤증의 외증조가 되므로 성혼문인의 후손들과 윤증을 지지하는 소론세가 우세하였고, 자운서원은 송시열의 관여로 인해 노론계 인물인 李畬가 원장으로 있었고 그 지지세력의 일부가 발을 붙이고 있기는 했으나, 박세채의 병향에서 보듯이 그 문인들이 서원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었다. 적어도 파주의 경우 노론세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송시열이 수십년 공을 들였고, 성혼이 소론계의 학연으로 분리되어 나간 상태에서 노론학맥의 연원으로 받들어진 율곡의 자운서원을, 노론계가박세채문인들 손에 그대로 둘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박세채가 병

^{47) 『}숙종실록』 권28, 21년 5월 20일.

향 된지 13년이 지난 1707년(숙종 33)에 감히 율곡과 병향한 데 대한 비판과 함께 配享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의가 노론계 유생 쪽에서 나왔다.48)이에 박세채의 문인이던 金榦은 파주서원 원유에게 편지를 보내어 몇몇 유생의 선동으로 박세채의 병향이 흔들릴 수 없음을 말하고, 만약 위차를 옮기게 된다면 차라리 박세채를 제향하는 서원을 그가 강학하던 파주의 남계에 따로 세워 홀로 제향하겠다고 까지 말하였다.

이런 강경한 반대에 부딪히자 노론계는 다시 김장생 追配論을 들고 나왔다. 김장생이 율곡의 嫡傳이니만큼 율곡서원을 대표하는 자운서원에 합향함이 마땅하고, 그렇게 한다면 제자의 도리로 병향은 할 수 없고 배향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아득한 후생인 박세채를 율곡과 병향하는 자리에 두고 김장생은 배향하는 모양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율곡을 주향으로 하고 김장생과 박세채를 좌우에 배향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박세채의 위차를 병향에서 배향으로 내려야한다는 것이 노론의 주장이었다. 말은 그럴 듯하나 김장생 추배론의 목적이 박세채 降配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였음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박세채문인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그에 따라 노론계 유생과 사이에, 앞서 원장을 지냈던 이여가이로 인해 서원이 유생의 싸움터가 되었다.(學宮爲鬪鬨之場)고 할 정도로까지 갈등이 심하여져, 서로 院籍에 누른 종이를 붙여 이름을 가리는 벌인 付黃을 가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자운서원문제로 파주사림이 노론 소론을 각기 지지하는 쪽으로 분열해 큰 분쟁으로까지 나간 것이다.

이에 파주유학 曺翊周 등 수십명의 유생이 1713년(숙종 39) 4월 연명 상소해서 김장생 추배와 박세채 강배를 요청하고 조정에서 이를 허락함 으로써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하였다.49) 그러나 한달 후 이번에는 박세채

⁴⁸⁾ 이하의 紫雲書院에서의 朴世采享祀문제를 놓고 벌어진 논란은 李畬의 睡谷集 권 19의 與紫雲書院儒書(갑오), 金榦의 『厚齋集』권7, 答坡州院儒(정해), 李縡의 『陶庵集』권12, 答閔伯繩(울축), 尹鳳九의 『屛溪集』권14, 答權亨叔(울유), 권22 答李 幼成(경진) 등에 의거하였다.

^{49) 『}숙종실록』 권53 39년 5월 28일, 『承政院日記』 숙종 39년 4월 20일.

지지세력인 역시 파주유학 文後昌 등 수십명이 노론계가 박세채를 끌어 내리기 위해 자운서원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김장생을 끌어 온 그간의 경위를 밝히고 박세채를 강배하라고 한 처분의 재고를 청하면서, 그것이 불가하다면 앞서 김간이 주장했던 대로 남계에다가 박세채 제향서원의 건립을 허용해 주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조정은 소론 우위에서 노론의 일당전제로 정국이 변환되던 시점이어서 조정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는 박세채 문인들이 갈라져서 그동안 노론의 강배론에 맞서 오던 김간 등으로 대표되는 세력이 노론쪽으로 전향하면서 더 이상 이를 문제삼지 않았던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 그리하여 파주지역은 영조 이후 노론계 사람의 본거로서 자운서원과, 소론계의 근거지로서 파산서원이 공존하는 형세를 보였다.

그런 공존상태에서 또 하나의 충돌이 1790년(정조 14)의 파산서원 成守琮 追配事50)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성수종은 선조때 파산서원을 세울때부터 입향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는데 1740년(영조 16) 추배하도록 조정의 허락까지 받았지만 이듬해의 서원금령에 걸려 실행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1785년(정조 9) 파주유학 趙重吉 鄭在簡 등 58명의 연명상소에 의해 추향이 허락되었는데 位次를 휴암 윗자리에 설치했다가 휴암쪽의 반발로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휴암쪽은 구차스러이 우계집안 서원에 있느니 차라리 독립하겠다고 하여 월롱산의옛날 휴암서원을 세우려 했던 자리에 서원을 건립하도록 해 달라고 조정에 요구하였다. 이에 임금은 금령을 앞세워 新建을 허용치 않고 신건론을 주장한 수창유생을 죄 주도록 하며 위차는 옛날처럼 청송ㆍ휴암을 마주하게 하고 성수종의 위패는 청송아래 두게 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자운과파산서원의 위차를 둘러싼 논쟁은 이로써 종식되었다.

이외에도 파주에는 풍계사우(박태보 오두인 이세화 제향), 新谷서원

^{50) 『}정조실록』 권4 원년 10월 27일, 권12 5년 7월 5일, 권18 8년 8월 17일, 권39 14년 2월 13일.

(윤선거 제향) 등의 서원이 있으나 파주 사족사회에 큰 영향은 미치지는 못하였기에 생략한다.

끝으로 사족세력의 쇠퇴로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던 19세기에 파주지역의 사정을 알려주는 사례를 제시하겠다. 1923년에 나온 坡州郡誌에는 1803년(순조 3년) 형조판서로 있던 黃昇源이 지은 '坡州鄕射堂重修記"가실려 있다. 여기 보면 옛날에 율곡향약을 시행하면서 鄕大夫以下題名帖곧 鄕案을 작성해 향사당에 보관해 왔는데 200여년이 지나는 동안 퇴락하여 무너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비용마련이 여의치 않아 손을 못대고있었는데 파주 紫谷里에 사는 史應攝・史處與 등이 집안의 족인들에게한집마다 몇 낭씩 돈을 내게 해서 수백 냥을 모아 기부함으로써 향사당을 중건하고 제명첩을 다시 봉안하게 되었다. 이에 파주목사인 趙義鎭은 향중의 어른들과 의논해서 史氏집안이 부담해온 烟戶役을 면제하고, 향교・서원에 져야하였던 所任(앞서 박세채의 자운서원 원규에 나오는 품관이한다는 院監 등의 임무)을 삭제하여 영구히 이런 부과대상에 넣지 않겠다는 完文을 작성해 주었다고 한다.

위의 사례가 주목되는 것은 연호역과 향교·서원의 소임을 맡아오던 집안의 임무를 없애주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향역을 지는 집안이라면 사족은 아니었다. 월롱면 葦田里에 세워진 史氏壇의 기록에 의하면 명나라가 망할 즈음에 史繇라는 명의 遺民이 난을 피해 이곳으로 들어 왔다고한다. 따라서 그 후손인 사씨 집안이 파주의 사족집단에 들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연호역을 지면서도 상민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가하는 鄕任과 흡사한 향교 서원의 임무를 맡지 않았나 한다. 그런데 향사당수리에 드는 수백냥의 돈을 희사한 대가로 그런 의무에서 영구히 벗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그 집안이 이제 사족집단의 일원으로 파주사회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사씨 집안의 예는 파주의 사족사회에도 경제적 변화에 따른 사회 신분의 변동이 개인보다도 하나의 문중단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 하겠다.(이 글은 파주시지 권2에 발표했던 것을 논문체제로 수정 보완 한 것이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 『擇里志』,姜沆,『睡隱集』,朴世采,『南溪先生續集』 成俔,『傭齋叢話』,宋時烈,『宋子大全』,宋浚吉,『同春堂集』 尹宣擧,『魯西遺稿』,李景奭,『白軒集』,李植,『擇堂別集』 경기도 파주군,『파주군지』,1923. 김성우,『조선증기 국가와 사족』,역사비평사,2001. 염정섭,『조선시대 농업발달연구』,태학사,2002. 정만조,『조선시대 서원연구』,집문당,1997.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 31·32. Abstract

An Essay on the Literati in Paju(坡州) and their life at Seowon(the private Confucian Academy) in Jeosun Dynasty

Chung, Man-Jo

Based on the private Confusion Academy in the Jeoson Dynasty, this paper aims to look at the activities of Literati in the Paju region located in a suburb of Seoul. Becoming the ruling class in the middle of the 16th century, Literari in Paju distributed Hyangyak(鄉約, an agreement among countrymen) and built Seowon.

However, a conflict was created among the Literary Men in the process of merging the Seowon which was in charge of a religious service for Lee-yi (李珥) and Seong-hon(成渾), prominent Confucian scholars in the region. In addition, the ruling power were adding their voice based on their political interests.

As a result, it brought about polarity among Local Literati, which is called a quarrel around the Initiative of Local Society.

Less meddling in politics and vitalized local economy since late 18th century brought the emergence of the new power with literatization along with resolving the conflict.

Key Words: P'aju sajok, chaunsŏwŏn, p'asansŏwŏn, pak sech'ae, song shiyŏl

조선중기 朱子祭享 書院의 사회사적 성격

정현정*

- 1. 머리말
- 2. 조선시대 주자인식의 확산
- 3. 주자제향 서원의 건립 추이
- 4. 주자제향 서원의 건립 유서
 - 1) 주자의 행적관련 地名
 - 2) 특별한 사건의 활용
- 5. 건립 주도세력과 배향인물
 - 1) 건립 주도세력
 - 2) 배향인물과 서워의 성격
- 6. 맺유말

국문요약

본고는 16세기 사람파 학자들의 대두 이후 17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朱子를 제향 한 서원을 통해 당시의 사회사적 성격을 고찰 한 것이다. 조 선시대 서원에 있어서 제향인물은 서원의 특성을 규정지을 만한 결정적 요소였다. 서원의 제향인물은 연고지를 따라 선택되는 경우가 일반인데, 그러므로 지역적 연고가 전혀 없는 주자를 제향인물로 선택한 서원은 매

투고일: 2011년 11월 7일 심사일: 2011년 11월 7일 심사확정일: 2011년 11월 25일

^{*} 공주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88 韓國書院學報 1

우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창기 주자제향 서원의 특수성과 사회사적 성격을 검 토하였는데, 특히 주자가 특정시기서원에 제향인물로 선택되는 이유를 중 점적으로 추론하고, 이것이 향촌사회사 혹은 서원발전과 관련하여 내포하 고 있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했다.

주제어: 주자, 서원,사회사, 주자제향서원, 주자성리학

1. 머리말

祭享人物은 서원의 건립목적과 특성을 규정짓는 결정적 요소이다. 그러므로 동일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들의 건립기반과 由緒, 주도세력의 성격과 목적을 비교하는 것은 각 서원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물론, 해당지역의 사회사적 특성을 유기적으로 설명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朱子는 12C에 활동한 南宋의 유학자로, 조선시대 서원의 다양한 제향인물 중에서도 통상적인 전형을 벗어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 있는 서원 중 상당수가 주자를 제향인물로 선택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있다. 그동안 주자와 관련한 역사적 연구는 그의 학설과 철학적 논리에 편중되어 있거나, 다른 주요제향인물에 비해 간과되어 구체적인 사회사적성격을 규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서원연구가 다각적인접근 방식의 필요성에 부합하듯 세분화 되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개별서원과 관련 인물에 관한 연구도 집중 재검토되고 있다.

본 연구는 16세기 사람파 학자들의 대두 이후 17세기 전반까지, 주자라를 제향하는 서원만을 대상으로 그 사회사적 성격을 검토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서원에 주자가 제향되는 이유를 추론하고, 이것이 조선후기 향촌사회사 혹은 서원발전과 관련하여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했다.

2. 조선시대 주자인식의 확산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朱子尊崇은 절대적이었다. 특히 士林의 성장과함께 주자성리학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당면한 정치·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원리가 되었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에게 주자의 학문방법과 세계관은 궁극의 목표였으며, 저술과 논설은 金科玉條였다.

조선전기만 하더라도 朱子에 대한 認識은 朱子書의 전래나 『朱子家禮』가 보급되기 시작 하는 과도기적 단계였다. 1427년(세종 9)에 왕이 처음으로 경상감사에게 『朱子大全』을 보내며 목판에 새길 것을 명하였는가하면,1) 1476년(성종 7)에는 謝恩使로 중국에 다녀온 鄭孝常이 『朱子語類』 와 『朱子大全』을 왕에게 전했다.2) 1518년(중종 13)에는 司諫 金希壽가 사대부가의 冠禮나 祭禮가 각자 달라 法式이 정착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자가례』의 올바른 시행을 청하기도 하였다.3) 이는 초창기 『주자가례』의 보급과 체제의 정비과정을 보여주는데, '옛 薰習이남아있어 미처 관례나 제례가 완전하게 격식화 되지 못했다'고 표현 되었던 만큼 여전히 미숙한 상태였다.

그러나 16세기 朱子學으로 무장한 사림파 학자들이 대거 중앙정계에 진출 하면서 주자성리학의 수용과 확대는 심화되었다. 주자학에 대한 이해수준도 점차 높아져 주자의 文集과 語錄, 특히 書簡까지도 중요한 텍스트로 파악되었다. 주자를 통해 유학의 본질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자라는 인물 자체마저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의 반영이었다.4)

^{1) 『}世宗實錄』 9년 9월 3일조.

^{2) 『}成宗實錄』 7년 5월 13일조, 12년 4월 25일조.

^{3) 『}中宗實錄』 13년 7월 27일조.

주자인식은 양란 이후 국가지배이념의 강화와 특정 政派의 사상적 배경으로도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17세기 후반의 畿湖學派, 특히 宋時烈이그 중심에 있었는데, 그는 주자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道統을 가장 적극적으로 계승하였다.5) 송시열의 철저하고 일관된 태도는 마침내 주자를 聖人으로까지 여기게 하였는데, 反朱子的 경향에 대한 대대적인 공박과 斯文 徽賊 지칭, 朱子尊崇과 中華意識, 권상하의 湖洛論爭이나 兩賢傳心을 강조한 正祖의 정책, 그리고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살핀 朱子祭享 書院의 건립 등이 구체적 사례들이다.

이러한 정치·사상적인 부면 외에 주자에 대한 각별한 인식을 특별한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주목사 李楨이 주자의 글씨를 板刻하 여 보관한 일이라든지이 주자의 影幀을 개인적으로 분향한 徐起의 사례, 정조가 朱子書 연구에 전심하는 자를 보고받은 일 등이 그러하다.7)

주자에 대한 특별한 존숭은 주자제향 서원의 훼철논란에서도 살펴진다. 1741년(영조 17) 영조가 대대적 서원훼철을 감행하자, 주자를 제향하는 서원 상당수가 특별한 예우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예컨대 예조판서 李秉常이 朱子書院을 마땅히 다른 서원들과 구별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幼學 徐宗億 등도 철폐의 부당함을 강하게 상소하였다.8)

⁴⁾ 김준석, 「조선후기 기호사림의 주자인식」, 『백제연구』18,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1987.

⁵⁾ 김준석, 「17세기 기호주자학의 동향 - 송시열의 도통계승운동-」, 『손보기교수정년 기념 한국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8.

⁶⁾ 宣祖가 주자의 筆札 10건을 찍어 올리도록 명하고 있는데, 이때 청주목사 李楨이 주자의 글씨「學求聖賢鳶飛魚躍」8字를 板子에 새겨 두었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宣祖實錄』7년 2월 4일조).

^{7) 1799}년(정조 23) 정조의 지시로 의정부에서 朱子書를 전심으로 연구하는 자를 別單으로 올렸는데, 驪州 幼學 金日柱와 牧使 任焴, 瑞山 幼學 李東允, 星州 進士 姜始煥, 定山 生員 尹斗基, 安東 幼學 姜必孝 등이었다(『正祖實錄』 23년 10월 24일조).

⁸⁾ 서종억은 상소에 '중국이 멸망하고 衣冠·文物이 유독 조선에만 남아 있으니, 周나라의 禮儀가 魯나라에 남아 있고 斯文이 이곳 조선에 있다'고 하며 주자제향 서원의 훼철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다. 한편 같은 해 8월 朴弼周도 箕子·朱子의 사당은 사례가 절대로 다르므로 일률적인 관례로 훼철하는 것은 무리라고 상소

92 韓國書院學報 1

한편 주자 欽仰의 여러 형태 중 武夷九曲의 모방은 매우 특징적이다. 무이구곡은 주자가 은거하였던 중국 복건성 무이산 계곡의 빼어난 아홉 절경을 말하며, 주자학의 發祥地로 여겨지는 곳이다.》 그러므로 무이구곡 은 조선의 성리학자들에게 '이상적 공간' 그 자체였다. 그들은 九曲의 武 夷精舍에서 서원의 모범을 찾았고, 武夷九曲歌를 읊으며 주자를 흠모했 다. 이러한 무이구곡은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조선의 성리학자들에 의해 새로운 형태로 표현되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자신들의 공간에 새로운 九 曲을 설정하고 직접 경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주자의 道統 을 더욱 적극적으로 계승하는 방식이라 여겼다.

구곡의 운영 중 대표적인 사례로 李珥는 海州 石潭 野頭村에 石潭九曲 설정하고 隱屏精舍를 지었으며, 高山九曲歌를 노래했다. 또 鄭逑는 가야산 대가천 일대의 명승 아홉 곳을 선정하여 武屹九曲이라 이름 하였고, 宋時烈 역시 華陽溪谷에 은거하며 九曲을 경영하였다. 金壽增의 花陰洞精舍와 谷雲九曲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이다. 그런데 조선의 성리학자 중그 누군가가 실제로 무이구곡을 다녀왔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다만그들은 그 '이상적 공간'을 이야기 하는 데에 관련 서적을 참조하거나 상상력을 동원할 뿐이었다.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武夷九曲圖」가 '주자의 공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圖像學的 이해를 도왔다. 그 밖에도 구곡은 九曲歌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송시열이 문인들에게 이이의 「高山九曲歌」를 보급했던 사례가 있다.10)

하였다(『英祖實錄』 17년 6월 10일조).

⁹⁾ 주자는 무이산에 경관이 좋은 9곳을 특별한 공간으로 지정하고 강학과 장수처로 삼았다. 주자의 九曲은 승진동, 옥녀봉, 선기암, 금계암, 은병봉, 선유봉, 석담, 쌍유 봉, 평천 순이다.

¹⁰⁾ 윤진영,「九曲圖와 書院圖로 본 서원의 표상」(『서원학회발표집』, 한국서원학회 2009); 송시열은 1688년(숙종 14) 이이가 지은「高山九曲歌」를 문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次韻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權尚夏를 중심으로 한 畿湖學派 인사들에 의해「高山九曲圖」의 제작이 추진되었는데, 의도는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역시 이이의 石潭九曲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서인-노론계 文士들의 學統이 이이에게서 비롯된다는 정통성의 강조와, 견고한 결속력 도모에 목적이 있었다고 볼수 있다.

이처럼 다양하고 총체적인 주자인식은 곧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 는 주자제향 서원의 건립활동으로 이어졌다. 주자는 관직에 진출했던 9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을 講學을 통한 후학양성과 저술활동에 전 념하였다. 이러한 행적은 곧 조선의 성리학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져, 서워 운영의 역할모델이 되었다. 아래 표는 조선시대 주요 제향인물의 제향 빈 도수를 지역별로 정리한 것으로, 주자제향 서원이 차지하는 위상을 再考 할 수 있는 자료이다.11) 주자는 宋時烈과 李滉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 중을 차지하며, 지역별로도 고른 분포를 보인다.

〈표 1〉 서원의 주요제향인물과 지역별 분포

* ()는 사액 수

인물별	경상	전라	충청	경기	황해	강원	평안	함경	합계
송시열	5(1)	6(4)	20(9)	5(3)	3(1)	2	-	3(2)	44(20)
이 황	15(8)	2(1)	5(1)	_	4(4)	1(1)	1	1(1)	29(16)
주 자	1	2	7(3)	1(1)	9(8)	2	2(2)	1	25(14)
이이	1(1)	1(1)	1(1)	2(2)	12(11)	1(1)	1(1)	1(1)	20(19)
정 구	10(3)	1(1)	2(2)	-	_	2	1(1)	-	16(7)
조광조	_	3(1)	2	2(2)	4(4)	_	2(2)	2(2)	15(11)

송시열의 이러한 의도는 고산구곡가를 次韻 할 인물선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 도록 하였고, 이이의 학설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사람은 제외되었다.

¹¹⁾ 정만조, 위의 논문, p.273; 표에 제시 된 주자제향서원의 수는 25개로 본고에서 논하고 있는 28개와 차이가 있다. 이것은 조사 대상으로 삼은 관차 자료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3. 주자제향 서워의 거립 추이

조선시대 官撰記錄에 등재 된 주자제향 서원은 모두 28개소에 이른다. <표 2>는 서원의 건립과 사액에 관한 일람에 주자제향 서원을 덧붙여 비 교한 것이며, <표 3>은 18세기 후반부터 전국 서원의 목록화 과정을 통해 각종 관차기록에 등재 된 주자제향 서원의 현황이다.12)

〈표 2〉 시기별 서원·사우의 건립과 주자제향 서원 현황

시 기	건 립 수(사액)	주자제향서원
중종이전	13(1)	_
중 종(1506-1544)	1	_
인 종(1545)	-	_
명 종(1546-1567)	17(3)	2
선 조(1568-1608)	82(21)	8
광해군(1609-1622)	38(15)	1
인 조(1623-1649)	55(5)	1
효 종(1650-1659)	37(10)	2
현 종(1660-1674)	72(44)	2
숙 종(1675-1720)	327(131)	8
경 종(1721-1724)	29(-)	_
영 조(1725-1776)	159(13)	3
정 조(1777-1800)	7(13)	_
순 조(1801-1834)	1(1)	_
헌 종(1835-1849)	1(1)	_
철 종(1850-1863)	1(1)	_
고 종(대원군 1864-1873)	1(1)	_
연대미상	62(-)	1
 합 계	903(270)	28

¹²⁾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집문당, 1997, p.141)에서 정리한 표에 주자제향 서원 의 현황을 덧붙여 비교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룬 주자제향 서원의 건립 시기는

〈표 3〉 주자제향 서원의 관찬기록 등재 현황

지역	서 원 명	연려실기술 (1770년경)	서원가고 (1790년경)	조 두 록 (1795년경)	동국원우록 (1902년)	증보문헌비고 (1908년)	동유서원총록 (1925년)
경기	漣川 臨漳書院	0	0	0	0	0	0
	忠州 雲谷書院	0	0	0	0	0	0
	公州 忠賢書院	0	0	0	0	0	0
	懐徳 宗 晦 祠	0	0	0	0	0	0
충청	木川 道東書院	0	0	0	0	0	0
	禮山 集 成 祠	0	0	0	0	0	0
	德山 晦庵書院	0	0	0	0	0	0
	鎭岑 集 成 祠	0	-	0	0	0	0
경상	星州 川谷書院	0	0	0	0	0	0
	盈德 新安影堂	0	0	0	0	0	0
	龍潭 三川書院	0	0	0	0	0	0
전라	咸平 紫陽書院	-	-	0	-	0	-
5.51	南原 龍湖影堂	0	-	-	-	-	0
	茂朱 朱溪影堂	0	-	-	_	-	0
강원	江陵 五峯書院	-	0	-	_	-	-
	海州 紹賢書院	0	0	0	0	0	0
	黃州 白麓洞書院	0	0	0	0	0	0
	延安 飛鳳書院	0	0	0	0	0	0
	長淵 龍巖書院	0	0	0	0	0	0
황해	信川 正院書院	0	0	0	0	0	0
0 5 11	安岳 鷲峯書院	0	0	0	0	0	0
	載寧 景賢書院	0	0	0	0	0	0
	文化 鳳崗書院	0	0	0	0	0	0
	松禾 道東書院	0	0	0	0	0	0
	恩栗 栗谷書院	0	0	0	0	0	0
평안	定州 新安書院	0	0	0	0	0	0
014	宣川 朱子書院	0	-	0	0	0	0
함경	德源 滄洲影堂	0	-	-	0	-	0

기록마다 편차가 있어 정확한 연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각 종 관찬사료 중 서원의 건립연대가 가장 충실히 기록된 『俎豆錄』을 기준으로 삼 고, 주변자료를 참고하였다.

96 韓國書院學報 1

<표 2>와 같이 조선 전시기 총 903개의 서원·사우 중 주자제향 서원은 28개소로 약 3.1%에 불과하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명종-선조 대에 집중 건립 된 주자제향 서원 10개소의 존재이다. 그리고 <표 3>에서는 주자제향 서원의 지역별 분포양상과 각종 관찬기록에 등재 된 현황을 알 수있다. 지역적으로 황해도와 충청도에 편중되었는데 황해도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충청도는 7개소가 있다. 다음으로 전라도가 4개소로 뒤를 잇고있으나, 경상도를 비롯한 이외 지역은 1-2개소만이 건립되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성리학의 不毛地이자, 사족활동이 매우 미약했던 평안·함경도에 3개소가 건립되는 것도 염두 할 특징이다.

이처럼 주자제향 서원은 서원발달 초창기에 해당하는 16세기에 매우 선도적으로 건립되었으며, 특정지역에 편중 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특 히 비교적 사족세가 약하다고 평가 되는 황해도에 집중 건립 된 점은 특별 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황해도의 주자제향 서원 10개소는 모든 관찬기 록에 단 한차례의 변화도 없이 안정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충청도의 주자제향 서원 7곳도 기록마다 큰 변화 없이 수록되어 있는데, 충주의 雲谷書院을 제외하고는 모두 忠淸右道에 속한다.이 중 서인노론세력의 근거지인 懷德과 鎭岑에 宗晦祠와 集成祠가, 충청우도에서도 公州牧과 洪州牧의 접경인 禮山과 德山에 集成祠와 晦庵書院이 건립되었다. 또 한편으로 비교적 南人의 강세지역으로 판단되는 忠州와 木川에 각각 雲谷書院과 道東書院이 건립 된 점은 서원별 주도세력과 운영과정의차이를 예견하게 한다. 전라도의 주자제향 서원은 4곳 중 3곳이 지금의전북 지역에 분포하는데, 기록마다 그 수록여부의 편차가 심한 편이다.이는 결국 전라도 주자제향 서원의 복잡한 置廢過程이 반영 된 것이다.

〈표 4〉주자제향서원의 시기별・지역별 분포(건립연대)

지역	16세기 후반	17×	17]	 전반	17/	세기 후반		182	세기 전반	18세フ	후반
경기	, , .							 처	임장(1710)	-	
	공주 충현(1581)	목천	도동	(1649)							
					충주	운곡(166	1)				
충청					회덕	종회(169	7)				
							덕	산	회암(1709)		
							예	산	집성(1709)		
							진	잠	집성(1712)		
					용담	삼천(166	7)				
전라							무	주	주계(1725)		
[센터							함	평	자양(1726)		
							남	원	용호(1744)		
 경상	성주 천곡(1558)										
							영	덕	신안(1708)	.i	
강원	강릉 오봉(1556)				-	>			오봉서원	주자제형	₹(1782)
	해주 소현(1578)										
	황주 백록동(1588)										
	변폭종(1588) [신천 정원(1588)										
	인선 정권(1589) 안악 취봉(1589)										
황해	장연 용암(1589)										
광대	연안 비봉(1596)										
		소하	도동	(1605)							
		- '		(1613)							
			<u>-</u> 1	(1010)	재령	경현(165	5)				
						봉강(165					
						주자(169					
평안								주	신안(1712)		
함경										덕 창주(-

<표 4>에서와 같이 주자제향 서원은 지역에 따라 건립시기에도 뚜렷한 경향성을 보인다. 우선 朱子는 1578년(선조 11) 해주 소현서원에서 최초로 제향되었는데, 이는 1570년(선조 3) 이이가 지병으로 처가에 은거하면서 비롯되었다. 이이는 1575년(선조 8) 聽溪堂을 지어 제자들을 가르쳤고, 3년 후 은병정사를 건립한 후 비로소 주자의 影幀을 모셨다. 이후 황해도에서는 17C 중엽까지 소현서원을 모방한 비슷한 유형의 서원 10개소가 잇달아 건립되었다.13)

경상도에서는 1558년(명종 13)에 천곡서원이 성주목사 盧慶麟(1516-1568)의 주도로 건립 되었다. 노경린은 李珥의 장인으로 더 알려졌는데, 6년간 성주목사로서 서원건립과 유학의 장려를 주도한 인물이다. 당시 약관 무렵의 이이도 장인과 함께 성주관아에 머무르며 일련의 과정을 모두지켜보았다. 그리고 이때 겪은 서원 건립에 관한 경험은 그가 20여 년 후소현서원을 통해 황해도 일대에 주자학과 서원 건립의 붐을 일으키는데 그대로 반영되었다.

황해도에서는 소현서원 이후 17세기 중엽까지 주자제향 서원 10개소의 건립이 모두 완료되었다. 심지어 1588년부터 이듬해까지 2년 동안에는 황주 백록동서원을 비롯한 4개소의 서원이 한꺼번에 집중 건립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 소현서원을 중심으로 일대에 주자학이 고취되고, 점차 소양을 갖춘 문인들이 배출되면서 파급력을 갖추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1589년(선조 22) 鄭汝立이 황해도 안악에서 亂을 일으켜 己 丑獄事가 발발하고, 임진왜란 등 국가적 위기를 겪으면서 서원의 건립은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곧 1596년(선조 29)에 연안비봉서원과 1605년(선조 38)에 송화 도동서원 등이 건립되면서, 주자제향서원의 명맥을 계속해 이어나갈 수 있었다. 한편 1655년(효종 6)부터 이듬

¹³⁾ 건립시기가 가장 빠른 오봉서원은 1782년(정조 6)에서야 주자가 제향 됨으로 논의를 미루었고, 1558년에 건립 한 천곡서원의 경우도 1606년(선조 39)에 주자의 제향이 이루어졌다.

해까지 연이어 건립된 재령 경현서원과 문화 봉강서원은 시기가 다소 늦지만, 주자를 主享으로 이이를 배향하고 있는 황해도 주자제향 서원의 일 반적인 특징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충청도의 경우에는 1581년(선조 14) 공주 충현서원에 처음으로 주자가 제향되었다. 충현서원의 건립은 徐起¹⁴⁾와 제자들이 주도하고, 당시 공주목사 權文海가 재정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건립 시 주자를 主壁으로 하였고, 특히 서기는 南京에서 직접 眞像을 모셔올 정도로 尊崇하였다. 그러나충현서원의 경우 소현서원과 그 건립시기가 비슷하고, 16세기 충청도의유일한 주자제향 서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황해도에서와 같은 파급력을보이지는 않았다.

황해도의 10개소와 일부 초창기 주자제향 서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대체로 17세기 중엽 이후에 건립되었다. 주지하듯이 17세기 후반부터는 정치사의 커다란 변화와 당파간의 갈등이 점철된 혼돈의 시기였다. 중앙정계의 정치적 혼란은 향촌사회에도 다각적인 영향을 끼쳤고,15) 이 시기 충청도와 전라도에 집중 건립 된 주자제향 서원도 이러한 정세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기 건립 된 주자제향 서원이라 할지라도 그 성격이 상당부분 변질되었다.16) 심지어 중앙 정계의 정치 주도권의 변화에 따라 서원의 위판을 훼손하거나, 극단적으로 서원을 훼철을 감행하는 등 부침을 겪기도 했다. 본고에는 16-17C에 이르는 주자제향 서원의 발단과정에 집중하였지만, 이후 시기 주자제향 서원의 성격 변화의 구체적인 사항을 추후별도의 논문에서도 거론하고자 한다.

¹⁴⁾ 이천인으로 字는 大可, 號는 孤靑이다. 徐敬德・李仲虎・李之函의 문하에서 수학 하였으며 제자백가는 물론 기술의 이론까지 통달하였다. 홍천과 지리산, 계룡산 등지로 다니며 오로지 학문과 강학에만 전념하였고 충현서원에 別賜되었다.

¹⁵⁾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p.5, 2007.

¹⁶⁾ 서원의 운영 주도세력이 교체되거나, 당파성이 뚜렷한 인물을 추배하는 일이 빈번 해졌다.

4. 주자제향 서워의 건립유서

1) 주자의 행적관련 地名

서원의 건립과 특정 인물의 제향은 분명한 명분과 필요가 충족되어야 했다. 그러나 朱子의 경우 인물과 지역을 직접 관련지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건이 필요했는데, 가장 흔한 수단이 주자와 관련 된 中國의 地名을 우리나라의 그것에 상관시키는 것이었다. <표 5>는 주자와 관련 된 중국의 주요지명이다. 대부분 精舍나 書院 등 강학과 저술공간인데, 이러한 명칭들은 조선의 성리학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져 서원건립의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표 5〉 주자의 행적과 관련된 주요지명

명 칭	나이	주 요 내 용
紫陽	-	주자의 先代가 전란을 피해 歙縣城으로 이거 자양산이 있어 紫陽朱氏라 부름
新安	_	자양산은 新安江 유역으로 新安朱氏라고도 함
寒泉精舍	40	모친의 묘소를 마련하고, 묘소 옆에 한천정사를 지음
晦庵草堂(雲谷)	46	近思錄 완성 후 雲谷에 晦菴草堂을 지음 주자학의 전성기, 四書三經註釋, 近思錄, 資治通鑑綱目 등 저술
紫陽書堂	47	敬義二齋를 두고 강학
白鹿洞書院 南康	50	중국의 4대 서원 중 한 곳, 주자가 白雲洞書院揭示를 정함 南康軍에 知事로 부임한 후 원장이 되어 書院 재건, 강학활동
武夷精舍	54	무이구곡 중 5曲(은병봉)에 정사 건립, 紫陽書院으로도 불림
考亭[建陽]	62	建陽에 아버지 주송의 墓所가 있음 주자가 만년에 머무르며 本貫으로 칭함 절경으로 계곡의 모래섬을 創州라고도 부름
竹林(滄洲)精舍	65	建陽에 건립, 세상을 떠날 때 까지 머물며 저술과 강학 활동 藏書, 敎學, 奉祀 등 서원제도의 전형 제시 1244년 考亭書院이라 賜額, 유학의 聖地로 추앙

조선시대 朱子崇仰은 학문과 사상의 수용과 동시에, 관련 있는 遺蹟과 지명을 借用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것은 자신의 삶속에 주자의 그것 을 대입시킴으로서 유교적 이상향을 추구했던 조선 성리학자들의 관념적 표현이었다. 주자제향 서원의 경우 新安, 紫陽, 雲谷, 滄洲, 朱溪, 武夷 등 의 지명을 받아들여 창건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이는 朱子尊崇의 대표 적인 사회사적 현상 중 하나이다. 이러한 지명들은 특히 講學空間에 집중 도가 높은데, 역시 서원의 교육기능을 우선시 한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이가 소현서원 일대에 高山九曲을 道學空間으로 경영한 것 이나, 鄭逑가 천곡서원 주변에 武屹九曲과 武屹精舍를 마련하고 훈학한 사례는 주자숭앙의 전형이다.

한편 천곡서원은 원래 영봉서원이라 했던 것이 鄭逑에 의해 개칭되었 다. 당시 서원은 '川谷'이라 부르던 곳에 건립 되었는데, 이는 주자에게 크게 영향을 준 程頤의 號 伊川과, 주자의 雲谷老人이 부합한다 하여 명분 으로 삼은 것이다. 1623년(인조 1)에 정구를 서워에 從享할 때 썼던 祝文 에도 '地名興思 別崇院學'라 하여 그 유서를 알 수 있다.17) 아래 <표 6>은 주자와 관련 된 지명이나 명칭을 실제 서원건립에 사용한 구체적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지역	서 원 명	건립연대	지 명 활 용 사 례
황해	해주 소현서원	1578년(선조 11)	石潭,隱屛[高山九曲],武夷山
황해	황주 백록동서원	1588년(선조 21)	白鹿洞, 寒泉院, 雲谷, 勉庵
황해	장연 용암서원	1589년(선조 22)	武夷山,石潭
경상	성주 천곡서원	1558년(명종 13)	武夷九曲[武屹九曲],雲谷
경상	영덕 신안영당	1708년(현종 34)	朱山, 新安洞

〈표 6〉 서원건립 시 주자관련 지명의 활용사례

^{17) 『}旅軒集』 刊11, 「從享寒岡川谷時告程朱二先生文」.

충청	충주 운곡서원	1661년(현종 2)	雲谷
충청	덕산 회암서원	1709년(숙종 35)	晦庵洞, 雲谷, 竹林, 西林, 考亭峯
평안	선천 주자서원	1691년(숙종 17)	白鹿,石潭,九曲
평안	정주 신안서원	1712년(숙종 38)	新安
경기	연천 임장서원	1710년(숙종 36)	滄州,九曲,華陽曲,後武夷
전라	함평 자양서원	1726년(영조 2)	雲谷, 紫陽
전라	용담 삼천서원	1667년(현종 8)	朱子川,龍潭,臥龍岩,三聖臺,南康
전라	무주 주계영당	1725년(영조 1)	朱溪

이처럼 지명을 활용한 서원건립의 사례는 다양하게 확인된다. 1588년 (선조 21) 황주목사 李玄培와 고을진사 姜德燐, 李心得의 주도로 건립 된 백록동서원은,

이곳은 天柱山이 높이 솟아 험준한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어 경관이 수려하고 산수가 좋을 뿐 아니라, 洞名이 주자가 살던 白鹿이라 아름다움을 한층 더해준다. 또한 백록동의 남쪽에는 勉庵, 서쪽에는 寒泉院, 북쪽에는 雲谷이 있다.18)

하여 곳곳의 주자관련 지명을 원용하였음을 밝혔다. 이듬해 장연에서도 龍巖書院이 건립되었는데19) 西堂 李德壽가 찬하「龍巖書院記文」에,

서해 장연부 유생 金兌珽 등이 입궐하여 문성공 이이가 西海를 按察하고 석담에 卜居했던 것을 상소하였으니 석담은 이이가 자취를 남긴 곳이다. 이이가 본디 살던 곳의 남쪽에 武夷山이 있었는데 마치 龍巖과 같아 사람들에 의해 아낌과 사랑을 받아 왔다. 무이산은 그 이름이 송나라 주자가

^{18) 『}黃海道誌』, 黃海道誌編纂委員會, 1982.

¹⁹⁾ 용암서원의 건립연대는 기록마다 차이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연려실기술』의 기록 을 따랐다.

터를 잡았던 곳과 같아 주자와 함께 배향하게 되었다.20)

라고 하여 이이가 황해도관찰사를 지낸 것과, 石潭이나 武夷山 등의 지명 읔 특히 강조하였다.

충청도에서는 충주 雲谷書院과 덕산 晦庵書院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곡서워은 洪宇遠이 쓴「雲谷書院配享事儒疏同啓禮曹判書時」에 '雲谷 의 지명이 주자가 거처했던 곳과 들어맞아 감흥하여 제생들과 더불어 서 워을 건립하고 주자를 主享으로 삼았다'고 하여 그 유서를 분명하게 전해 준다.21) 회암서원은 1709년(숙종 35)에 건립 되었는데, 이 곳 역시 蘆峯과 晦菴洞, 考亭峯, 雲谷, 竹林, 西林 등 다양한 관련 지명이 전하는 곳이다.

이처럼 지명의 활용은 關西의 변방에서도 이루어졌다. 1701년(숙종 27)에 건립 된 평안도 선천의 朱子書院에 관해 趙顯命은,

관서지방 선천은 변방인데, 말 타기 좋아하고 활쏘기를 잘하는 處土 桂 君이 있었다. 그는 魯川에 살았고 그 마을을 '白鹿'이라 하였으며, 潭을 '石 潭'이라 하였다. 사방으로 큰 호수가 흐르고 아름다운 '九曲'이 있었는데, 계군이 여기에 朱子書院을 세우고 율곡을 함께 배향하였다.22)

고 하여, 역시 주자관련 지명을 적절히 활용한 사례와 주도 인물까지 구체 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경기도의 유일한 주자제향 서원인 連川 臨璋書院 은 任繼重이 세운 武夷精舍를 기반으로 1710년(숙종 36)에 건립되었다. 서 워은 원래 朱子書院으로 사액 받았다가. 1713년(숙종 39)에 '臨潼'이라 다 시 사액받았다. 1778년(정조 6) 경기유생 鄭善述 등이 송시열의 추배를 위 해 연명으로 올린 상소 중,

^{20) 『}西堂私載』 권4, 「龍巖書院記文」.

^{21)『}南坡集』 210,「雲谷書院配享事儒疏回啓禮曹判書時...

^{22) 『}歸鹿集』 刊17, 「桂處士行狀」.

104 韓國書院學報 1

임장서원은 곧 朱夫子를 右享 한 곳인데, 시내의 이름이 滄州이고 물의이름도 九曲이며, 또 이른바 後武夷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연천의 선비들이 주부자의 眞像을 얻어 서원에 진설하여 봉안하고 있습니다. 武夷의곁에 華陽谷이 있고 그 왼쪽에 九龍墟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여,²³⁾ 임장서원 역시 滄州, 九曲, 後武夷 등 다양한 地名이 연관되었음을 언급하였다. 또 李夏坤이 撰한「臨漳書院通文」에도 연천의 옛 이름이 본래 漳州였고 마을이름은 後武夷였으며, '무이'는 주자가 살던 곳과이름이 같아 서원의 이름을 지었다는 유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²⁴⁾

주자의 이름이나 고향, 本貫의 명칭도 서원건립의 좋은 명분이 되어주었다. 우선 1712년(숙종 38) 평안도 정주에 세워진 新安書院은 李海應의 『薊山紀程』에,25)

定州를 옛날에는 新安이라 칭했다. 康熙 壬辰年(1712, 숙종 38) 읍의 선비들이 州號가 주자의 '新安'과 같다하여 주자의 서원을 세우기를 의논한 후, 臨漳臺에 경건하게 걸었던 影幀을 옮겨다 묘사해 놓았다.

라 하였고, 朴思浩가 수행원으로 청나라에 다녀오면서 작성 한『心田稿』 의「燕薊紀程」중 1828년(순조 28) 11월 12일의 기록에,

定州에서 60리를 가 新安館에서 잤다 …… 新安書院이 東門 안에 있으니, '新安'도 定州의 옛 이름이다. 고을 이름이 서로 일치하여 고을 사람들이 의논한 후 朱子의 院宇를 세웠다.

라고 하여 주자의 本貫과 고을의 이름이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서원을 건

^{23) 『}正祖實錄』 권6. 2년 7월 13일조.

^{24)『}頭陀草』冊13, 雜著「臨漳書院通文」;而漣之古號是漳州 其地又有里名復武夷 其命名之義。

^{25) 『}薊山紀程』 권1, 出城 ○11月, 「新安書院」.

립한 사례를 확인해 주고 있다. 1730년(영조 6) 영덕 新安影堂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신안 영당에 송시열의 추배 시 道儒 尹海가 撰한 「院記」에 의하면

영덕현의 서쪽에 朱山이 있고 그 아래에 新安洞이, 주산의 좌우에는 주 정동과 성조동이, 신안동의 앞에는 화야리 · 군자리 등이 있어 新安이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고 정리 하였다. 역시 주자가 삼았던 곳의 명칭이 그대로 활용 된 사례이 다

용담 삼천서원은 1666년(현종 7) 현령 洪錫이 지방 유림들과 함께 顔 回를 主壁으로 程頤、程顥、朱子、諸葛亮을 배향하였다. 1695년(숙종 21)에 '三川'이라 사액 받았는데, 三川은 바로 서원 주변의 朱子川, 程子川(伊 川), 顔子川을 일컫는 말이다. 이 같은 사실은 1732년(영조 8)에 세운 「三 川書院廟庭碑, 에.

현의 북쪽을 顔子洞이라 하고 남쪽엔 程子川이 있고 서쪽에는 朱子川, 그리고 龍潭이 그 가운에 있다. …… 山, 川, 巖, 洞 모두 옛 현인들의 姓字 의 號를 부합한 것이니 진실로 기이하다... 1666년(현종 7) 丙午年에 洪錫이 縣令이 되어 옛 선비들음 돈독히 하고자 朱子의 남강고사를 모방하여 혐의 龍淵 위에 사당을 세웠다.

라고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26) 한편 삼천서원과 인접한 무주에서도 府使 蔡彭胤이 유학의 장려 차 서워건립을 추진하였고, 마침 무주의 옛 이름이 朱溪인데다 강당 앞의 赤城浦의 다른 이름도 朱溪임을 강조하였다. 이 또 한 주자의 이름과 해당 지역의 地名이 합치되는 것을 서워의 건립에 적절

²⁶⁾ 또한 삼천서원이 세워진 곳을 三聖臺라고 하는데 '三聖'은 곧 顔子와 程子, 그리고 朱子를 일컫는 말이다.

히 활용한 것이다. 그밖에 전라도 咸平의 紫陽書院은 1726년(영조 2)에 건립되어 주자와 송시열을 제향하였는데, 서원이 입지한 일대가 주자의 후손이라고 전해지는 新安朱氏들이 다수 거주하는 집성촌을 이루었다. 또한역시 雲谷과 紫陽 등의 지명이 있다.

2) 특별한 사건의 활용

주자제향 서원건립의 성사를 위해서는 관련 地名만으로 명분을 마련한 것 외에, 주자의 이름이나 號, 고향이나 本質의 명칭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 매우 드물지만 특수한 사건을 실마리로 서원건립의 단초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흔히 발생하기 어려운 사건들이었으므로, 한편으론 단순한 지명의 일치보다 더 확고한 서원건립의 當爲性을 부여 하였던 것이다.

			_
지역	서 원 명	건립연대	주요사건
충청	진잠 집 성 사	1712년(숙종 38)	송시열이 초년에 은거하며 후학 양성
충청	회덕 종 회 사	1697년(숙종 23)	송시열이 만년에 은거하며 후학 양성
충청	목천 도동서원	1649년(효종 원)	땅 속에서'竹林'이라 쓰인 石刻을 구함
경기	연천 임장서원	1710년(숙종 36)	參判 崔公이 바닷가에서 朱子畵像을 얻음
전라	강진 남 강 사	1803년(순조 3)	朱子의 渴筆이 바다에서 떠내려 옴

〈표 7〉 특수한 사건을 활용한 서원사례

鎭岑의 集成祠와 懷德 宗晦祠는 서로 인접한데다, 宋時烈의 은거와 관련하여 건립 된 공통점이 있다. 진잠의 집성사는 老論의 영수이자 주자학의 宗匠으로 일컬어지는 송시열이 42세가 되던 1648년(인조 26)부터 書齋를 마련하여 5년간 강학한 곳이다. 한편 만년의 송시열은 회덕현 興農으

로 내려와 能仁庵 아래에 南澗精舍를 짓고 머물렀는데, '南澗'이라는 명칭 도 주자의 詩句에서 따온 것이다.27)

충청도 목천의 번자울은 정구의 만년 隱居地로 그는 은거기간 동안 도 동서원의 건립을 주도하였다. 도동서원의 건립에는 여느 서원보다 특별한 사연이 전해져 오는데, 정구가 講舍를 세우고자 문인들과 터를 닦다가 우 연히 땅 속에서 '竹林'이라 쓰여 진 一石鐘을 얻게 된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宋穉圭의 『剛齋集』에28)

公이 일찍이 반계의 남쪽에 집을 짓고자 막 공사를 시작할 때, 竹林이라 는 두 글자가 새겨진 石鐘 하나를 얻었다. 공이 '이것은 晦翁精舍의 이름 이다. 지금 이것을 얻었으니 이는 진실로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 로 인해 주자의 祠堂을 세우고 濯纓先生을 배향하였으니 지금의 도동서원 이다.

라고 하여, 우연히 얻은 특별한 물건이 또 하나의 주자제향 서원 건립에 중요한 명분이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연천의 임장서원은 앞서 지명을 활용하여 건립명분을 마련함과 동시 에 특별한 사건도 이어졌다. 연천의 儒生이라고만 전해지는 崔公이 명나 라로 가던 중 바닷가의 어느 집에서 주자의 영정을 얻은 것이었다. 이 사 건은 결국 연천의 유생들에게 서원건립에 대한 더욱 확고한 명분을 더해 주었다.29)

한편 康津 南康祠도 신묘한 사건으로 알려진 주자제향 서원 중 대표적 인 곳이다.30) 1689년(숙종 15) 己巳換局으로 결국 송시열이 제주로 유배되

^{27) 『}守宗齋集』, 권5, 「南澗祠重修記」.

^{28) 『}剛齋集』 권6, 「松巖二韓公實蹟後」.

^{29) 『}頭陀草』冊13、「臨漳書院通文」.

³⁰⁾ 강진 남강사는 비록 관찬기록에는 등재되지 않아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서원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 주자제향 서원의 건립에 성공한 사례 중 대표적 으로 알려져 있어 소개한다.

었는데, 강진 성자포는 귀양 가는 송시열의 배가 마지막으로 육지를 떠나는 곳이었다. 그런데 제주도로 떠나는 날, 갑작스런 폭풍으로 송시열은 부득이 근처 萬德山 白蓮寺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이 때 儒生들에게 짧은 시간이나마 講論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결국 이것이 계기가 되어 1804년(순조 4) 송시열을 제향한 남강사가 건립 되었다.

그런데 건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809년(순조 9) 어느 날, 송시열이 제주로로 떠났던 성자포 나루터에 심상치 않은 나무 궤짝이 潮水를 따라 떠밀려 왔다. 그리고 이것을 건져 올려 자세히 보니 그 궤 속에는 朱子敬 齋箴 목판 20매와 大禹手篆 8매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당시 강진현감은 이를 보고받고 監營으로 궤를 옮기고자 수례를 준비하였다. 그런데 목판을 싣고 서울로 향하던 말과 수레가 남강사 앞에서 그만 중심을 잃고 갑자기 전복하고 만 것이다. 결국 주자의 渴筆이 쓰여 진 목판들은 남강사에서 소장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1836년(현종 2)부터 이곳에 주자의 영정을 제향하게 된 것이라고 전한다. 당시 주자를 새롭게 모셨다 하여 서원 명칭도 '南江祠'에서 '南康祠'로 바꾸었다.31)

5. 건립 주도세력과 배향인물

서원은 무엇보다 敎化와 文風의 振作을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주자성 리학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이 사상으로 무장한 士林派 학자들이 중앙 정계와 지방 곳곳에 배치되면서 그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주자성리학 을 가장 완벽한 유학으로 선택했던 성리학자들에게 주자제향 서원의 건

³¹⁾ 南康은 주자가 관직을 지냈던 곳의 地名이다.

립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서원건립의 태동기 주자 제향 서원의 건립주체와 성격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사회사적인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거립 주도세력

(1) 地方官의 教學 振興

16세기 이후 몇 차례의 士禍에도 명맥을 유지한 士林勢力은 道學政治 를 지방통치에 구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특히 사람들이 점차 지방 의 관리로 임명되면서, 오랫동안 재야에서 익혀왔던 修己治人을 향촌사회 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강골한 鄕吏들이 土豪 勢力으로서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이 수렁권과 대립할 경우 治民에도 많 은 제약을 받았다. 그러므로 수령들이라도 부득이 향촌 내의 기존 세력의 요구를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본고에서는 비교적 黨爭이 격화되기 이전 시기의 주자제향 서원을 집 중 검토하였는데, 대상은 12개소 정도로 파악된다.32) 그 중 주자를 가장 먼저 제향 한 서원은 해주의 소현서원으로 1578년(선조 11)에 건립되었다.

지역	서 원 명	건립연대	건 립 주 체
경상	성주 천곡서원	1558년(명종 13)	성주목사 盧慶麟등 지방유림 鄭逑와 金宇顯의 문인
충청	공주 충현서원	1581년(선조 14)	徐起와 문인 공주목사 權文海의 협조
황해	해주 소현서원	1578년(선조 11)	李珥와 문인집단(박여룡, 조광현 등) 임난 중 소실, 관찰사 鄭賜湖·목사 金尙雋이 복원

〈표 8〉16-17세기 전반 주자제향 서원의 건립주체

^{32) 1556}년(명종 11)에 건립 된 강릉 오봉서원은 1782년(정조 6)에 이르러서야 주자화상 을 제향 함으로 논외로 하였다.

황주 백록동서원	1588년(선조 21)	황주목사 李玄培의 주도 고을 진사 姜德燐, 李心得의 협조
신천 정원서원	1588년(선조 21)	_
안악 취봉서원	1589년(선조 22)	지방유림의 공의
장연 용암서원	1589년(선조 22)	유생 金兌珽 등 주도
연안 비봉서원	1596년(선조 29)	지방유림의 공의
송화 도동서원	1605년(선조 38)	지방유림의 공의
은율 율곡서원	1613년(광해군5)	_
재령 경현서원	1655년(효종 6)	-
문화 봉강서원	1656년(효종 7)	지방유림의 공의

천곡서원과 충현서원을 제외한 10개소의 서원은 모두 황해도 서남부 연안에 입지하는데 이는 초창기 주자제향 서원의 가장 큰 특징이다. <표 8>에 제시 된 서원들은 주자제향 서원 중에서도 16세기 중반-17세기 전반 까지 비교적 이른 시기에 건립된 서원들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와 같은 주자제향 서원 건립의 성공요인은 이이와 같은 大儒賢의 등장으로 인한 儒風의 진작과, 사림적 성향을 가진 地方官의 적극적인 협조가 결정적이었다.

우선 천곡서원과 소현서원의 경우, 당시 星州牧使 盧慶麟은 향촌의 사림들과 오랜 논의를 거쳐 천곡서원을 건립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을 지켜본 사위 이이도 황해도관찰사에 부임한 후 海州 石潭에 소현서원을 건립하였다.33) 또한 소현서원이 건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자 觀察使 鄭賜湖34)와 牧使 金尚雋가 복원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공주 충현서원은 徐起35)가 자신의 문인들과 함께 세운 것인데, 당시

³³⁾ 이이 자신도 1574년(선조 7) 황해도관찰사로 부임하여 民弊改革을 위해 상소한 적이 있다.

^{34) 1607}년 황해도관찰사로 나갔다가 소현서원을 복원했다. 진주 창렬사의 건립에도 관여했으며, 『선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청주 壽樂書院에 제향되었다.

공주목사 權文海36가 쌀과 콩 50여 휘를 지원하여 서원의 건립을 도왔다. 이 외에도 황주 백록동서원은 황주목사 李玄培37)가 고을의 淮土 姜德燦, 李心得과 의논하여 건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지금까지 언급 된 노 경린, 정사호, 김상준, 권문해, 이현배 등은 조선중기 사림적 성향을 갖춘 지방관의 전형으로, 당시 각자의 부임지에서 서워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등 성리학적 향촌교화에 앞장섰던 인물들이다.

한편 1661년(현종 21)에서야 건립이 성사되는 충주의 운곡서원도, 그 기반을 1602년(선조 35) 충주목사 鄭逑가 雲谷의 지명이 있는 곳에 白雲書 堂을 확장하여 강학한 데 두었으므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비록 건립 시기는 늦지만 전라도 일대에서 가장 偏僻한 곳으로 알 려진 용담현에서도 1666년(현종 7) 縣令 洪錫이 서원건립을 발의하였다. 홍석은 龍潭鄕校를 재건하고 太古亭을 중수하는 등 용담일대의 사족 활 동을 주도한 지방관이다. 또한 용담과 인접한 무주에서도 1725년(영조 1) 부사 蔡彭胤이 부임 후 한 달 여 만에, 무주의 유학이 흥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朱溪影堂을 건립하였다.

(2) 鄕人들에 의한 필요성 대두

앞서 조선중기 황해도 서남부 일대에 10개소의 주자제향 서원이 주도 적으로 건립된 것은 이이의 은거 이후 급격히 촉진 된 文風의 진작으로 설명하였다. 당시 황해도 지역에서는 노경린과 같은 신진사림세력을 배출

³⁵⁾ 당시 서기는 南京에서 직접 공수한 주자영정을 書室에 모시고 매일 분향・배알을 했을 정도로 주자존승과 주자학 연구에 심취한 인물이었다.

³⁶⁾ 李滉의 문인으로 柳成龍・金誠一 등과도 친교가 있었다. 인문・지리・문학・동물 ・식물・예술을 망라한 최초의 백과사전『大東韻府群玉』(20권)을 저술한 특이한 경력이 있다. 1582년에 고향 예천에 세운 草澗亭이 유명하며 鳳山書院에 제향되었 다.

³⁷⁾ 성주인으로 1581년(선조 14)에 성주목사로 부임하여 안산영당을 중수하였다. 안산 영당은 성주 천곡서원의 건립 당시 제향인물에서 배제 된 이조년을 비롯한 성주이 씨 일가를 제향 한 서원이다.

하고, 종래에는 이이와 같은 大儒賢이 강학하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더욱이 1576년(선조 9) 이이가 해주 처가에 은거하며 聽溪堂을 짓고 강학을 시작한 이래로, 金長生을 비롯한 기라성 같은 후학들이 석담으로 모여들었다.

이이의 은거와 고산구곡의 경영, 그리고 은병정사를 중심으로 하는 道 學의 전파는 이 일대에 주자존숭의식이 고취되고 서원 건립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문풍을 진작시키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서원건립의 필요성을 크게 절감하게 된 것이다. 1777년(정조 1) 송화 유생 安宗冕 등이 도동서원에 宋時烈과 權尙夏의 추배를 청하면서,

송화의 도동서원이 해주의 소현서원과 매우 가까워 이이의 풍모를 薫襲하였기에, 역시 서원을 세워 朱子를 正位로 모시고, 문정공과 문순공, 문성 공을 동서쪽에 배향하기를 석담의 소현서원과 똑같이 하였습니다.38)

라 한 것도 당시 이이의 활동과 소현서원의 건립이 황해도 일대의 識者들에게 미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이다. 장연부 유생 김태정이 용암서원의 건립을 상소하면서 '이이가 西海를 按察하고 석담에 卜居'했음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황해도가 역시 비교적 사족세가 약하다고 평가되고 있었던 만큼, 당시로서는 서원에 제향 할 만한 대표성이 있는 인물을 지역별로 다양하게 배출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황주 백록동서원의 請建疏에, '국가의右文政治의 혜택으로 원사가 널리 보급되었지만 海西一道는 거의 없어사림이 크게 부끄러워하여, 유화를 펴고 사림의 藏修處를 두기 위해서는 원사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과도 상통한다.39) 결국 주자는 이 같

^{38) 『}日省錄』, 1777년(정조 1) 10월 16일조.

^{39) 『}列邑院宇事蹟』 권4, 白鹿洞書院「請額上疏」.

은 결여를 충족시킬 최적의 인물로 선택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건립 된 신천 정원서원과 안악 취봉서원, 장연 용암서원 등도 유사한 건립과정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공주의 충현서원은 忠淸右道에서 최초로 건립 된 서원이었던 만 큼, 주자는 성리학의 종장으로서 대표성을 지닌 제향인물 이었다. 또한 서 원 건립을 주도한 徐起에 의해 일찍부터 주자가 숭앙되었던 만큼, 충현서 원의 주자제향은 다른 어느 곳 보다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 외에 龍膽과 같은 僻村에서도 해당 지역의 유생, 鄕中父老 등이 그 지방 양반들의 集會所를 갖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 성인의 이름을 빌어 원 사를 건립 했다. 당시 서원의 운영은 향촌사회 내 주도권 장악의 필수 요 소였으므로 향인들은 건립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적합한 제 향인물을 선정하기조차 어려웠던 지역에서는, 오히려 가장 대표성을 강조 하기 수월한 주자 제향이 적극 추진되었던 것이다.40) 다만 성주 천곡서원 은 예외적으로 제향인물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복잡한 갈등을 해결할 만 한 대안으로 불가피하게 주자를 내세웠던 특수한 사례이다.

이처럼 조선시대 서원건립의 초창기에 집중 된 주자제향 서원은 ① 지역 내 주자와 주자성리학을 존숭하는 성리학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② 해당지역의 향촌지배구조가 사림층의 주도로 재정립 되었으며, ③ 동시에 이를 지워 가능 영향력 있는 지방관의 적절한 투입과 협조가 밑받침되면 서 약 50여 년 동안 10개소 이상이 연속 건립 될 수 있었다.

2) 배향인물과 서워의 성격

주자제향 서원에는 주자 외에 다양한 인물들을 合享 하는 경우가 많은

⁴⁰⁾ 정만조, 위의 논문, p.252; 그러나 황주 백록동서원과 용담 삼천서원은 건립 시기와 건립주체의 성격, 목적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향촌사회 내에서 서원 건립의 의도 역시 일괄 설명하기 보다는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 이는 주자제향 서원의 또 다른 성격을 특징지을 중요한 요소이다. 서원은 무엇보다 祠賢이 중시되었던 만큼 제향인물의 선택은 당시 가장 중대한 사안이었고, 때문에 이를 놓고 사림간의 분쟁도 적지 않았다. <표 9>는 주자와 합향 된 인물의 현황이다.

〈표 9〉 주자와 합향 된 인물

지역	서 원 명	건립연대	제향인물		
	공주 충현서원	1581년(선조 14)	李存吾,李穆,成悌元,趙憲,金長生,宋浚吉, 宋時烈,徐起		
	목천 도동서원	1649년(인조 27)	金馹孫, 鄭逑, 黃宗海		
	충주 운곡서원	1661년(현종 2)	鄭逑		
충청	회덕 종 회 사	1697년(숙종 23)	宋時烈		
	예산 집 성 사	1709년(숙종 35)	宋時烈		
	덕산 회암서원	1709년(숙종 35)	宋時烈,權尙夏		
	진잠 집 성 사	1712년(숙종 38)	李湛, 安敏學, 趙克善		
	용담 삼천서원	1667년(현종 8)	顏子, 伯程子, 叔程子, 諸葛亮		
 전라	무주 주계영당	1725년(영조 1)	獨享		
	함평 자양서원	1726년(영조 2)	宋時烈		
	남원 용호영당	1744년(영조 20)	呂大鈞		
경기	연천 임장서원	1710년(숙종 36)	宋時烈		
경상	성주 천곡서원	1558년(명종 13)	程子, 金宏弼, 鄭逑, 李彦迪, 張顯光		
7878	영덕 신안서원	1708년(숙종 34)	宋時烈		
강원	강릉 오봉서원	1556년(명종 11)	孔子, 宋時烈, 咸軒		
	해주 소현서원	1578년(선조 11)	趙光祖, 李滉, 李珥, 成渾, 金長生, 宋時烈		
	황주 백록동서원	1588년(선조 21)	金宏弼, 李珥		
황해	신천 정원서원	1588년(선조 21)	趙光祖,李滉,李珥		
	안악 취봉서원	1589년(선조 22)	李珥		

	장연 용암서원	1589년(선조 22)	李珥
	연안 비봉서원	1596년(선조 29)	崔冲, 金宏弼, 成渾, 李珥, 朴世采
	송화 도동서원	1605년(선조 38)	趙光祖, 李滉, 李珥
	은율 율곡서원	1613년(광해군 5)	金宏弼, 李珥
	재령 경현서원	1655년(효종 6)	李珥
	문화 봉강서원	1656년(효종 7)	趙光祖, 李滉, 李珥
평안	선천 주자서원	1691년(숙종 17)	李珥
31	정주 신안서원	1712년(숙종 38)	獨享
함경	덕원 창주영각	미상	獨享

28개소 주자제향 서워 중 주자가 獨享 된 경우는 3개소뿐이다. 합향 인물이 1인일 경우는 송시열과 이이가 각각 5개소와 4개소로 단연 앞서 며, 2-5명인 경우에는 대체로 金宏弼, 趙光祖, 李滉, 李珥 등 조선성리학의 상징적 인물들이 두루 제향되고 있다.

다시 합향 인물별로 추이를 살펴보면, 이이가 11개소로 가장 많다. 역 시 이이의 만년 은거지였던 황해도에 비슷한 성격의 서워이 집중되어 있 기 때문이다. 다음은 주자-송시열을 동시에 제향하는 서워 9개신가 확인 되는데, 이 중 4개소41)가 충청우도에 건립 되어 집중도를 보인다.42) 또 주 자-이이의 제향서원이 황해도에만 밀집된 것에 비해, 주자-송시열의 제향 서원이 전라, 경기, 경상, 강원에 각각 1개소씩 고루 건립 된 것도 특징적 이다.

⁴¹⁾ 고수연의 연구에 의하면 충청도의 주자제향 서원 중 송시열의 학맥과 직접 연계 된 곳은 모두 6개소이다. 이 중에는 관찬기록에 누락된 藍浦 新安祠와 魯城 闕里祠 도 포함되어 있다(고수연, 「18세기 초 호서지역 서워의 당파적 성격」, 『호서사학』 29. 호서사학회, 2000).

⁴²⁾ 대체로 이들은 ① 18세기 초에 집중되며, ② 송시열의 嫡統으로 자부하는 권상하의 주도 하에 ③ 송시열의 문인들과 재지세력과의 긴밀한 연대로 건립이 성사되는 공통점을 지닌다.(이해준, 「호서지역 서워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국학연 구』11, 한국국학진흥원. 2007, p.39).

초창기 주자제향 서원 중 건립 당시 주자를 獨享 한 소현서원과 백록 동서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자와 道學的 淵源을 같이하는 金宏弼, 趙光祖, 李滉, 李珥 등을 합향하고 있다. 소현서원도 이이의 사후 2년 만에 조광조와 이황, 그리고 이이를 追配하였고, 백록동서원도 1687년 김광필과 이이의 추배가 성사되었으므로 결국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황해도 일대에 건립 된 초창기 주자제향 서원들의 배향인물은 주자학을 정통성리학으로 삼고 사람층의 기반을 다진 성리학의 宗匠들로, 學脈이나 黨色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서원의 건립이 당과적 이해관계보다 敎化와 文風振作에 주목적이 있었으므로, 도통상 가장 대표성을 인정받을 만한 인물들을 배향하여 그 권위를 보강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었던 것이다.43)

그런데 배향인물은 건립 이후 필요에 따라 추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서원의 성격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다. 초창기 주자제 향 서원 10개소의 건립 시 제향인물과 건립 후 추배인물은 다음 <표 10>과 같다.

제향인물의 변화를 보면 특징적으로 건립과정에서 공주 충현서원, 성주 천곡서원, 그리고 연안 비봉서원과 같이 각 지역의 鄕人들이 배향 된경우가 있다. 먼저 충현서원은 1581년(선조 14) 徐起와 문인들에 의해 충청우도 최초의 서원으로 건립되었고, 창건 당시 주자와 함께 石灘 李存吾44), 寒齋 李穆(45) 東洲 成悌元46)이 배향되었다. 이들은 모두 공주의 鄕

⁴³⁾ 정만조,「17-18세기의 書院・祠宇에 대한 試論」,『한국사론』2, 서울대 국사학과, p.252.

⁴⁴⁾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辛旽을 탄핵하다가 공주 석탄에서 은둔하였다. 성균관대사 성으로 추배되었고 여주 고산서원 등에 제향되었다.

⁴⁵⁾ 김종직의 문하로 1490년(성종 21) 대비의 음사설치를 논척하여 탄핵되었다. 또 재 상 尹弼商을 격렬히 비판하다가 공주 씨악섬에 유배되었다. 한편 공주는 이목의 妻鄕이기도 하다.

⁴⁶⁾ 공주출신으로 성리학은 물론 의학·지리학·복술 등에도 두루 능했다. 유일로 관직에 나갔다가 만년에 공주 옛집으로 돌아와 향리에 은거했다.

	서 원 명	건립연대	건립 시 제향인물	추배현황	
경 상	성주 천곡서원	1558(명종 13)	金宏弼(1560년 제향) 朱子,程子(1606년 제향)	이조년, 이인복, 이숭인(건립 시 논란) 1623년, 鄭逑 이언적 추배 1642년 張顯光 추배	
충청	공주 충현서원	1581(선조 14)	朱子,李存吾,李穆,成悌元	1624년 徐起 별사 1650년경 趙憲 추배 1674년 金長生 추배 1686년 宋浚吉 추배 1713년 宋時烈 추배 박희성, 권시, 李惟泰, 성희(논의)	
	해주 소현서원	1578(선조 11)	朱子	1586년 趙光祖, 李滉, 추배 1596년 李珥 1661년 成渾 1716년 金長生 추배 1763년 宋時烈・宋浚吉 추배실패 1776년 宋時烈 추배	
	황주백록동 서원	1588(선조 21)	朱子	1687년 金宏弼, 李珥 추배	
	신천 정원서원	1588(선조 21)	朱子, 趙光祖, 李滉	1606년 李珥 추배	
황 해	안악 취봉서원	1589(선조 22)	朱子, 李珥		
्री	장연 용암서원	1589(선조 22)	朱子, 李珥		
	연안 비봉서원	1596(선조 29)	朱子, 崔沖, 金宏弼, 李珥	1696년 成渾, 朴世采 추배	
	송화 도동서원	1605(선조 38)	朱子, 趙光祖, 李滉, 李珥	1725년 宋時烈, 權尙夏 화상 봉안 1777년 宋時烈, 權尙夏 추배 시도	
	은율 율곡서원	1613(광해군5)	朱子, 金宏弼, 李珥		

〈표 10〉 초창기 주자제향 서원의 제향인물 변화

賢들로 公論을 통해 배향이 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포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주 천곡서원의 경우에는 제향인물의 선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1558년(명종 13) 성주목사 노경린이 건립을 시도할 당시만 하더라도 서원의 제향인물은 성주 출신의 고려 충신이자 유학자인 李兆 年과 李仁復이었다. 그런데 이들의 佛敎的 성향에 대한 시비가 유림들 사이에서 계속되자, 미봉책으로 기왕에 성주를 妻鄕으로 연고가 있는 金宏 弼을 제향인물로 끌어들여 상황은 더욱 복잡해 졌다. 곧 제향인물의 位次問題와 性向에 관한 시비가 다시 불거지게 된 것이다. 당시 星州李氏一族과 유생들의 극명한 대립, 그리고 노경린의 중재 실패는 결국 訟事로까지확대되어 영남일대의 사림이 떠들썩하였다.47)

당시 천곡서원의 복잡한 문제를 일단락 시킨 것은 한강 정구에 의해서 였다. 정구는 이황과 재논의를 거쳐 서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일신하였는데, 아마도 주자가 제향된 것도 이 무렵으로 추측된다. 결국 제향인물 선정이라는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주자와 같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징적 존재를 내세움으로서 상황을 좀 더 쉽게 정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초창기 주자제향 서원의 건립은 사림적 성향의 지방관들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일편 해당지역의 향촌 유림과 토착세력의 요구를 배제할 수는 없었다. 이들은 서원의 건립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관여하였고, 또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확고한 노력도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내 주도권 경쟁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그 결과는 제각각 이었다. 같은 시기 연안 비봉서원에 海州를 貫鄉으로 하는 고려 무신 崔沖을 제향 한 경우도 비슷한 사례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17세기 중반 이후 극심한 黨色의 여파로 배향인물의 성격에 큰 변화가 왔다. 이 때 부터는 그동안 당색과 무관하였던 초창기 주자제향 서원도 각기 다른 명분과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질되어 갔다. 이것은 초창기의 배향인물이 대체로 조광조·이황·이이·성혼 이라는 큰 규칙을 지켜나가던 것이, 송시열·송준길이나 박세채와 같이 당색이

⁴⁷⁾ 노경린은 이 문제를 이황과 의논하여 명분과 타협점을 모색 하였으나, 이 또한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결국 지방관으로서 토착세력과 유림들의 요구 를 아우르려는 정치적 노력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뚜렷한 인물들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변모과정을 예측할 수 있 다.

6. 맺음말

조선시대 서원에서 朱子와 같이 외국의 선현을 제향인물로 삼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이다. 때문에 주자제향 서워의 건립은 다양한 地名의 일 치나 특수한 사건을 통해 적합한 명분을 만들어 내는 등 갖가지 노력이 수반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중기 주자가 특정서원에 제향인물로 선택 되는 과정과 내재 된 목적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증해 보고, 이것이 향촌사회사와 연관 된 의미를 추론하고자 했다.

주자의 사상과 학문적 성과는 조선 전시기에 총체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는 서원의 건립과 운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서원발달 초창 기에 창건비중이 높은 것이나, 황해도와 같이 특정 지역에 건립이 집중되 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이다. 16세기부터 등장한 사람세력은 그들이 이상으로 여기는 道學政治를 지방통치에 구현하고자 했다. 그런데 수령의 지방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지사족의 지위를 현양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서워의 건립은 鄕風을 진작하고 士族의 결집을 도모하 여 도학정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다. 이처럼 서원의 운영이 무엇보다 요구되던 시기에 주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존승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원에 제향 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 을 갖춘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朱子와 관련한 서원 연구는 특정 부분에 편중되거나 당파적 성 향이 분명한 배향인물에 더 역점을 두어, 주자제향 서원만의 구체적인 성

격을 규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서원의 연구가 세분화 되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개별서원과 관련 인물에 관한 연구도 재검토되는 경향이다. 본고에서는 당파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이전 17세기 전반까지를 주자제향 서원의 초창기로 설정하고, 당시 서원의 성격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참고로 17세기 이후 주자제향 서원의 당파적 성격과 네트워크에 관한 논의는 별도의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 , 「조선후기의 향촌교학진흥론에 대한 검토」, 『한국학논총』 10, 국 민대한국학연구소, 1987.
- 윤희면,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연구』, 경인문화사, 2008.
- , 「조선후기 서원연구와 향촌사회사」, 『한국사론』21. 국사편찬위 원회, 1991.
- , 「호서지역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국학연구』11, 한 국국학진흥원, 2007.
- 김준석, 「17세기 정통주자학파의 정치사회론」, 『동방학지』 67, 연세대국 학연구. 1990.
- , 「조선시기의 주자학과 양반정치」, 『실학사상연구』17・8. 모악실 학회. 2000.
- 박양자, 「주자의 서원관」, 『동방학지』 88, 연세대국학연구원, 1995.
- 정해득, 「조선후기 합경도유림의 형성과 동향」, 단국대석사학위논문, 1996.
- 고수연, 「18세기 초 호서지역 서워의 당파적 성격」, 공주대석사학위논문, 1998
- 김항수, 「주자성리학과 주자유적」, 『한국사상과문화』 12. 한국사상문화학 회. 2001.
- 김현영, 「16세기 한 양반의 일상과 재지사족」, 『조선시대사학보』 18, 조선 시대사학회, 2001.
- 전용우, 「16-17세기 충북지역 사림과 서원」, 『호서사학연구』, 충북사학연 구소, 2002.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정책과 서원의 설립실태」, 『역사학보』 181, 역사

학회, 2004.

- 이병훈, 『경상도 서원·사우의 건립추이와 제향인물성격』, 영남대석사학 위논문, 2005.
- 안민엽, 「서원발흥기 조선사림의 서원인식」, 국민대석사학위논문, 2007.
- 이영호, 「동강 김우옹의 주자학 수용양상」, 『남명학연구』 24, 경상대남명학연구소, 2007.
- 윤진영, 「구곡도와 서원도로 본 서원의 표상」, 『서원학회발표집』, 한국서 원학회,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Nature of Memorial Halls Holding Religious Service to Zhu Xi in Social History in Middle Joseon

Jeong, Hyeon-Jeong*

It is a very extreme case in Joseon to hold religious service to foreign sages such as Zhu Xi at memorial halls. This study set out to empirically examine the process and innate purpose of selecting Zhu Xi to hold religious service to at some memorial halls in middle Joseon through specific cases and infer its meanings associated with the social history of the country.

The ideology and academic achievements of Zhu Xi had overall impacts on Joseon throughout its existence, and those impacts are particularly apparent i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 memorial hall. It is highly noteworthy that the percentage of founding was high in the early days of memorial halls and that their constructions were concentrated in certain areas such as Hwanghae Province. The Sarim power, which emerged in the 16th century, tried to implement the policies of Dohak, which was their ideal, in local governance. Construction of memorial halls was the most important policy for them to promote the Hyangpung and the concentration of the Sajok and to fulfill the ideology of Dohak politics. In that period,

^{*}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e doctor's course

Zhu Xi was the subject of respect and worship that no one could deny and the ideal figure armed with all the optimal conditions to deserve religious service at memorial halls.

The figure for a memorial hall to hold religious service to was a determinant that defined the purpose and characteristics of its construction, which makes comparing the memorial halls that held religious service to the same figure in terms of foundation for construction, history, and the nature and goal of the leading force a means of organically explaining the universality and peculiarity of each memorial hall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areas in social history.

The previous studies on memorial halls related to Zhu Xi either heavily focused on certain aspects or delved into figures whose partisan nature was apparent, thus presenting limitations to the examination of the specific nature of the memorial halls that held religious service to Zhu Xi. Fortunately, there is a recent trend of segmenting researches on memorial halls and revisiting the studies on the individual memorial halls and figures from a microscopic perspective. The study defined the period until the former half of the 17th century, when the partisan tendency was in full bloom, as the early days of the memorial halls holding memorial service to Zhu Xi and empirically investigated the nature of the memorial halls those days.

Key Words: Middle Joseon, Zhu Xi, lecture hall, The figure for a memorial hall, the social history of the country

19세기 후반 武城書院의 講習禮에 관한 일 고찰*

박종배**

- 1. 머리말
- 2. 서원지 수록 강습례 관련 자료
- 3. 무성서원의 강습례에 관한 몇 가지 검토
 - 1) 강습례 시작 시점: 왜 1872년인가?
 - 2) 강습례 시행 일자: 왜 '3월 3일과 9월 9일'인가?
 - 3) 강습례의 명칭과 의식절차: 왜 '강습례'인가?
- 4. 맺음말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武城書院誌』에 수록되어 있는 <甲乙記事>, <講習禮節目>, <講習禮執事>, <笏記>, <講習禮圖> 등의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19세기 후반 무성서원에서 개최된 講習禮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873년부터 1880년까지 무성서원에서는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강습례를 개최하였으며, 1891년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강습례를 개최해 나갔다. 무성서원의 강습례는 기본적으로 鄕飮酒義의 예법에 따라 반차를 정하였으며, 크게

심사확정일: 2011년 11월 25일

^{*} 본 논문은 2009년 한국서원학회 하계세미나(무성서원, 6. 19)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동국대-서울, 교육학과 교수 투고일: 2011년 11월 7일 심사일: 2011년 11월 7일

陳設-瞻拜-相揖-升堂-讀規-拜讀-進講-禮畢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무성서원에서 강습례를 개최하기 시작한 1873년은 1871년의 전국적인 서원 철폐조치와 신미양요라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하여 그 시기적 의미가 해석될수 있다. 그리고 무성서원의 강습례는 조선시대 서원 講會의 일종이라 할수 있지만, '3월 3'일과 '9월 9일'이라는 개최 시기, '강습례'라는 명칭, 虛位의 진설과 허위를 향한 瞻拜, 허위 앞에서의 拜讀 등 몇 가지 의식절차상에서 여타 조선시대 서원 강회와 다른 독특한 면을 갖고 있다. 무성서원의 강습례는 경서 강독을 위주로 전개된 집단적 강학 활동이라는 강회의일반적 의미와 함께 古禮 習禮라는 특별한 禮敎的 意味를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무성서원의 강습례는 서원 철폐와 쇄국에서 개항으로 전환, 전통교육의 해체 등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해서도 그 특징과 의의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주제어: 무성서원, 강습례, 강회, 강습례절목, 집사, 홀기, 강습례도

1. 머리말

본 논문에서는 『武城書院誌』(1884년, 1936년 간행본)에 실려 있는 <甲 乙記事>. <講習禮節目>. <講習禮執事>. <笏記>. <講習禮圖> 등의 관련 자 료를 중심으로 19세기 후반 무성서원에서 개최된 講習禮에 대하여 고찰 하였다. 위의 자료 중 <갑을기사>에는 강습례 개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데, 이에 따르면 무성서원에서는 1872년에 당시 원장이었던 현감 趙中植 등이 매년 3월3일과 9월9일에 강습례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고, 실지로 이듬해인 1873년부터 1880년까지 매년 강습례를 개최하였다.1) 1881년부 터 1890년까지는 강습례가 개최되지 않았으나. 1891년과 1896년 두 해의 3월3일과 9월9일에 다시 강습례가 개최되었다.2) 1873년부터 19세기말까 지 무성서원에서는 총 20회(향음주례 2회 포함)의 강습례가 개최된 것이 다.

이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무성서워의 강습례는 講會의 일 종으로서, 강회는 18세기 이후 조선 서워의 가장 중요한 강학 활동의 한 형태이다.3) 하지만, 무성서워의 강습례는 그 명칭은 물론 의식절차와 설 행 일자 등에서 여타의 서원 강회와는 상당히 다른 특이성을 갖고 있다. 아울러 강습례의 개최 시기가 서워 철폐기에서 개항 및 국권상실기에 걸 쳐 있다는 점도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본 논문에서 검토한 것이 서원지에 수록된 몇몇 관련 자료에 국한되어 있어

¹⁾ 이 기간 중 1875년과 1880년 3월3일에는 강습례 대신 향음주례를 개최하였다.

^{2) 1905}년의 3월 3일과 9월 9일, 1909년 3월 3일, 1919년 9월 9일, 1922년 3월 3일에도 각각 강습례가 개최되었다.

³⁾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5 참조.

무성서원의 강습례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상세히 논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은 일단 19세기말 무성서원에서 개최한 강습례라는 특이한 성격 의 강회에 대한 실체적 이해에 집중하고, 그에 관한 보다 자세하고 다각적 인 논의는 차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2. 서원지 수록 강습례 관련 자료

우선 『무성서원지』에 수록되어 있는 강습례 관련 주요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갑을기사>는 강습례 개최 연도와 일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성서원지』(1936)의 <갑을기사>에는 1675년(乙卯) 2월 2일의 賢字重修부터 1929년(己巳) 2월 仲丁日의 春享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1675년부터 1868년까지는 서원 修葺이나 제향 관련 기사가 院任 명단과 함께 드문드문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총 기사 수도 30건이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1871년(辛末) 이후부터는 춘추 제향에서부터 원임, 강습례(향음주례 포함), 주요 인사의 奉審, 원우 수줍 등의 기사가 매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 <갑을기사>를 통해 볼 때, 강습례는 1873년부터 1880년까지 집중적으로 거행되며, 이후에는 한동안 행해지지 않다 1891년 이후 1922년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간헐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다음으로, <강습례절목>은 班次 등 강습례 거행시의 수칙을 다섯 개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그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講習禮節目》

一。學任卽齋中之主也. 講長卽齋中之客也. 固當以禮相敬, 故一依鄕飲酒

義, 主人坐於東南, 賓坐於西北之禮, 以爲班次,

학입은 서원의 주인이고, 강장은 서원의 손님이다. 마땅히 예로써 서로 공경해야 하므로 하나같이 향음주의의 주인은 동남쪽에 앉고 빈객은 서북쪽에 앉는 예법에 따르고 이로써 반차를 삼는다.

一。長幼之序卽五敎之一, 況令齡讓之席尤當明辨其序. 諸執事諸生各從 齒次立坐, 無或錯亂失序.

장유의 차서는 오교, 즉 오류의 하나인데, 하물며 연령에 따른 예양 을 강조하는 [향음주의의] 자리에서는 더욱 마땅히 그 차서를 분명 히 변별해야 한다. 여러 집사와 유생은 각기 나이 순서에 따라 서고 앉되, 혹 어지럽게 섞이어 질서를 잃어서는 안 된다.

- 一。訓長一面之主管, 立於學任之次, 拜揖一依學任. 훈장은 한 면[의 교육]을 주관하는 사람이니 학임 다음에 서서 하나 같이 학임을 따라 절하고 읍한다.
- 一。四十以上來觀之員別設聽講一位以待之. 나이 40 이상으로 와서 참관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로 청강하는 자리 를 두어 대우한다.
- 一。不着道袍之人勿許升座, 而童蒙勿拘此例. 도포를 입지 않은 사람은 [당 위의] 좌석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되, 동몽은 이 규정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강습례는 기본적으로 鄕飮酒義의 예법에 따라 반차를 정하 는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자리 배정시 특별히 序齒의 원칙을 강조 하고 있다. 아울러, 面訓長 및 40세 이상 聽講者에 대하 예우와 참석자들 의 복장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강습례집사>라는 제목의 자료에서는 강습례의 진행을 돕 는 '都執禮, 唱執禮, 直月, 直日, 典栍, 典簿, 曹司, 典書' 등 여러 집사를 나열하고 있다. <강습례집사>에는 명칭만 나열되어 있고 그 임무에 대한 설명은 없다. 다만, 다음 자료인 <홀기>에 각 집사들의 임무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도집례'는 여러 집사를 통솔하며 학임·강장 이하 여러 집사 및 유생들이 강습례 圖式에 따라 차례대로 서도록 지휘하고, '창집례'는 강습례의 의식절차마다 笏記를 외쳐 참석자들의 행례를 이끈다. '직월'은 승당하여 좌정한 다음 참석자들을 향해 "공경히 듣되 떠들어선 안 된다."고 외친 다음 꿇어앉아 큰 소리로 <백록동규>를 읽는다. '직일'은 진강이 이루어지는 동안 書案 앞에 꿇어앉아 講生의 성명과 강한책의 이름, 문답한 문의를 차례대로 적는 등 講案을 작성한다. '전생'은 강생이 강할 부분이 적힌 찌를 준비하고, '전부'는 <홀기>에는 등장하지않으나 명칭으로 보아 講案과 圖式, 笏記 등의 문서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서안 왼쪽에 꿇어앉아 강생이 강해야 할 부분이 적힌 찌를 뽑아 강생에게 보여주고, '전서'는 (강회에 쓰일 서안과 서책을 준비하고) 진강할 유생의 명단을 적은 講單을 관리한다. 이상과 같은 집사들의 임무와 함께 강습례의 의식절차가 비교적 소상히 제시되어 있는 <홀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笏記》

- 學任命齋直鋪筵設幕, 學任設虛位於堂北壁下南向. 학임은 재직에게 명하여 자리를 깔고 막을 치도록 하고, 학임은 당의 북벽 아래에 남향으로 허위를 설치한다.
- 執禮立中庭位唱笏, 講長學任諸執事諸生各具道袍黑巾入就瞻拜位. 집레가 중정위에 서서 홀기를 외치면, 강장과 학임, 여러 집사와 유생 이 각기 도포에 검은 두건을 갖추고 들어와 첨배위로 간다.
- 執禮指揮學任諸執事諸生一從圖式序立, 執禮退復位. 집례는 학임과 여러 집사 및 유생이 하나같이 도식에 따라 차례대로 서도록 지휘한다.
- 執禮退復位.집례가 물러나 자리로 돌아간다.
- 講長以下皆再拜.강장 이하 모두 재배한다.

- 訖執禮進立唱笏, 講長就西階位, 學任就東階位, 諸執事諸生各就位. 마치면 집례가 나아가 서서 홐기를 외치고, 강장은 서계위로 가고 학 임은 동계위로 가며, 여러 집사와 유생은 각기 자리로 간다.
- 學任向講長拜, 講長答拜, 諸執事諸生向講長拜, 講長答拜, 學任諸執事 相向拜, 諸執事諸生向學任拜, 學任答拜. 諸執事諸生相向拜. 학임이 강장을 향해 절하고, 강장이 답하여 절하며, 여러 집사와 유생 이 강장을 향해 절하고, 강장이 답하여 절한다. 학임과 여러 집사가 서로를 향해 절하고, 여러 집사와 유생이 학임을 향해 절하면, 학임이 답배한다. 여러 집사와 유생이 서로를 향해 절한다.
- 執禮先升中廳位立唱笏、講長升西壁下位、諸執事從升各就位、學任升東 壁下位、諸生次升各就位. 집례가 먼저 중청위로 올라가 서서 홀기를 외치면, 강장이 서벽 아래 의 자리로 올라가고, 여러 집사가 따라 올라 각기 자리로 가며, 학임 이 동벽 아래의 자리로 올라가고, 여러 유생이 차례로 올라가 각기 자 리로 간다.
- 講長以下皆跪、典書取諸生講單合成一軸、直月進立執禮之左、顧左右曰 敬恭聽無譁. 直月回進跪讀規位抗聲讀白鹿洞規, 讀畢拜退復位. 강장 이하 모두 꿇어앉으면 전서가 여러 유생의 강단을 모아 한 축으 로 만들고, 직월이 집례의 왼편으로 나아가 서서 좌우를 돌아보며 "공 경히 듣되 떠들어선 안 된다."고 말한다. 직월이 뒤돌아 독규위에 꿇 어앉아 큰 소리로 <백록동규>를 읽고, 읽기를 마치면 절하고 물러나 자리로 돌아간다.
- 講長進詣虚位前拜跪讀一書, 讀畢拜退復位. 강장이 허위 앞으로 나아가 절하고 꿇어앉아 한 책을 읽고, 읽기를 마 치면 절하고 물러나 자리로 돌아간다.
- 學任進詣虛位前拜跪讀一書, 讀畢拜退復位. 학임이 허위 앞으로 나아가 절하고 꿇어앉아 한 책을 읽고, 읽기를 마 치면 절하고 물러나 자리로 돌아간다.
- 曹司進跪書案左抽件以示當講生。 조사가 나아가 서안 왼쪽에 꿇어앉아 찌를 뽑아 강해야 할 유생에게

보여준다.

○ 講生執卷進詣書案前拜跪, 講長拈一章以示, 講生受讀. 讀畢講長問義, 講生敬對. 講生質疑, 講長詳言.

강생이 책을 들고 서안 앞으로 나아가 절하고 꿇어앉으면 강장이 한 장을 손으로 짚어 보여주고, 강생이 받아 읽는다. 읽기를 마치면 강장 이 뜻을 묻고 강생이 정중하게 대답한다. 강생이 의심나는 부분을 질 문하면 강장이 자세히 말해준다.

- 直日進跪書案前, 次書講生姓名及所講書名問答文義. 직일이 나아가 서안 앞에 꿇어앉아 강생의 성명과 강한 책의 이름, 문 답한 문의를 차례대로 적는다.
- 講生拜退復位, 諸生次次進講, 諸執事依禮進講. 강생이 절하고 물러나 자리로 돌아간다. 여러 유생이 차례차례 진강하고, 여러 집사도 예에 따라 진강한다.
- 讀畢修整講案圖式笏記, 禮畢以次拜退. 강을 마치면 강안과 도식, 홀기를 정리하고, 예를 마치면 차례대로 절 하고 물러난다.
- 學任先除虛位,次命齋直撤筵撤幕. 학임이 먼저 허위를 치우고, 다음으로 재직에게 명하여 자리와 막을 거두게 한다.

이처럼 강습례는 陳設-瞻拜-相揖-升堂-讀規-拜讀-進講-禮畢의 순서로 진행된다. 뒤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진설과 첨배, 배독 등의 의식절차는 무성서원의 강습례를 여타의 서원 강회와 차별화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강습례도>4)에는 학임·강장 이하 여러 집사 및 유생들의 앉고 서는 위치가 그려져 있다. 여타 서원 강회 관련 도식의 경우, 뜰에서의 행례에 필요한 <相揖禮圖> 또는 <庭揖禮圖>와 강당에서의 진강에 관련된 <講席圖> 등이 별도로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무성서원의

⁴⁾ 다른 자료는 1884년과 1936년 간행 서원지에 모두 실려 있으나 <강습례도>는 1884 년 가행 서워지에만 실려 있다.

<강습례도>는 뜰과 강당에서 진행되는 강습례의 전 의식절차 중의 班次 가 한 장에 모두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강습례도>는 다음과 같다.

〈講習禮圖〉

The state of the s	堂北		
1821年 開始 東京 東京 東京 東京 東京 東京 東京 東京 東京 東京	虚位執禮唱笏位廳	月讀現住學住職員以繼續	壁東東
神養	階 瞻拜位 座拜指位 南	副長 鄉 學任 華 學任 華	階東

3. 무성서원의 강습례에 관한 몇 가지 검토

이하에서는 무성서원의 강습례 시행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즉 '1872 년'이라는 강습례 개최 결의 시기, '3월 3일과 9월 9일'이라는 강습례 거행 일자, 그리고 '강습례'라는 명칭과 강습례의 의식절차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강습례 시작 시점: 왜 1872년인가?

1872년(고종 9)에 무성서원 원장인 현감 趙中植과 安學律, 金永朝 등은 매년 봄(3월 3일)과 가을(9월 9일)에 講習禮을 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갑을기사> 등의 자료를 통해 볼 때, 무성서원에서는 그 이전에 강습례를 행한 전례가 없다. 그렇다면, 왜 이 시기에 전례가 없던 강습례라는 강학활동을 시작하기로 결의한 것일까?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흥선대원군 집정기의 서원 철폐 정책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865년(고종 2) 3월에 단행된 만동묘 철폐를 시작으로 1868년(고종 5) 8월에는 未賜額 서원의 철폐가 이루어졌으며, 1871년 (고종 8) 3월에는 전국에 47개의 서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사액서원까지 철폐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무성서원은 장성의 筆巖書院, 광주의 褒忠 祠와 함께 존치된 전라도 지역의 세 서원 중 하나였다. 그러나 살아남은 서원에도 서원전에 대한 면세 혜택 박탈, 院生・院保의 군역 충당 등의조치가 취해졌고, 실제 무성서원의 경우에도 1868년(고종 5)의 서원 철폐조치 단행시 復戶와 保奴에 대한 박탈이 가해졌다. 이는 서원의 물질적・경제적 기반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으로서, 복호와 보노의 회복은 서원

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현안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무성서원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활로를 모색해야만 하였고, 그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되는 것이 바로 1871년과 1872년이다.

먼저, 1871년(辛未, 고종 8)에는 무성서원의 원임 구성에 중요한 변화 가 있었다.5) 즉, 이전까지는 齋長, 掌議, 色掌 체제가 유지되어 오다 1871 년에 서원철폐령에 따라 처음으로 지방관을 원장으로 추대한 것이다. 그 해의 원장은 태인 현감 金印根이었고, 이듬해 1872년에는 현감 趙中植이 원장을 맡는다. 이후 기본적으로 고을 수령이 원장을 맡는 체제가 유지되 며, 1887년(丁亥) 이후에는 관찰사가 院長을 맡고, 현감 또는 현령이 院貳 가 되는 체제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무성서원에서는 1871년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지방관을 원장으로 추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무성서원 이 存置 서원의 하나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872년(壬申, 고종 9)부터는 서원 철폐령과 함께 박탈되었던 서원의 물질적·경제적 조치를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시작된다. 예컨대, 1872년 3월에 金必欽, 金廷勳, 邊大容, 金永璐이이 城主에게 복호 와 보노의 복원에 관하여 稟申한 것을 시작으로, 이와 유사한 노력들이 다방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7) 결국, '강습례'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은 1872년은, 지방관을 원장으로 추대하기 시작한 다음 해이자 복호와 보노의 복원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된 첫 해로서, 무성서원의 입장에서 볼 때 내・외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뚫어야 하는 중요한 시 점이었던 것이다.

강습례는 무성서원이 내ㆍ외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전진 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그

⁵⁾ 이하 『무성서원지』(1936) 권1(하) <갑을기사> 참조.

^{6) 1872}년 당시 김정훈은 무성서원의 掌議, 김영로는 色掌, 김필흠은 別庫掌議였으며, 당시 원장은 현감 趙中植이었다. 변대용은 1873년(계유)의 色掌이다.

^{7) 『}무성서원지』(1936) 권1(중) <復戶保奴事實>, <復戶保奴還復記> 참조.

개최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도, 무성서원이 당시 최대 현안 과제였던 복호와 보노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을 다시 받을 만한 서원 자체의 자구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유력한 자구책의 하나는 역시 그동안 지적되었던 서원의 폐단을 극복하고 서원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873년(고종 10) 11월 3일에 올린 최익현의 상소문이 주목을 끈다. 이 글에서 최익현은 서원 철폐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서원의 존치 및 증설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이른바 서원은 흥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신이 삼가 생각건대, 옛날의 교육은 집에는 훨을 두고 마을에는 庠을 두며 州에는 序를 두고 나라에는 學을 두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배움에 있어서는 정밀하지 않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위로는 윤리가 밝아지고 아래로는 백성들이화목하게 지냈다고 봅니다. 지금 我朝의 成均館이 옛날의 국학이며 鄕校도옛날의 州序이고 서원은 옛날의 蟄庠입니다. 500家에 한 개 '상'이 있은 뜻을 미루어 보면 만호나 되는 고을에 겨우 한두 개의 서원을 둔 것은 소략이 매우 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둔 기본 뜻은 학문을 강론하여 도를 밝히는 것이 사실 주된 것(設院之本意, 講學明道, 實爲之主)이며 시골의 鄕先生의 덕을 높이고 공에 보답하려는 일은 그 나머지 일이었습니다. 모의하지 않았는데도 널리 설치하게 되자 겹쳐서 제사지내는 것을 혐의쩍게 생각하여 이미 세운 것까지 함께 폐지하고 천이나 백에 열이나 하나만 남겨둔다면 학교에 관한 옛 제도와는 크게 어그러지며 창건한 본래의 뜻을 크게 잃게 될 것이니, 교육이 해이되고 풍속이 퇴폐해진 것을 이웃 나라에서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8)

비록 상소문에 나타난 최익현의 이러한 인식이 무성서원 원유들에게 사전에 공유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9 무성서원의 원유들 또한 이러한

^{8) 『}고종실록』고종 10년(1873) 11월 3일자. 김대식(2008), "조선후기 화서학파의 문인 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에서 재인용.

인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결국 1873년부 터 무성서원에서 개최하기 시작한 강습례는 다행히 화를 면하고 존치된 47개 서원의 하나인 무성서원이 서원 설립의 본뜻이자 서원의 본질적 기 능인 '講學明道'의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그 시행이 결의되었을 가능성 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서워의 물질적 •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는 시점에 서 이의 극복을 위하여 서워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외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태인 芝山의 處 十 安在護가 1872년의 南學堂 중건과 이듬해부터 거행된 무성서원의 강습 례를 보고 집안에 소장하던 서책 수백권을 무성서원에 기증하여 講習과 藏修의 밑천으로 활용하도록 한 사실10)은 강습례의 시행이 무성서원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동력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 례의 하나이다.

한편, 1871년(辛未) 미국이 무력으로 강화도를 침략한 이른바 '신미양 요'도 무성서원의 강습례 시행에 모종의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 미양요 이후 대원군은 서울과 전국 각지에 斥和碑를 세우게 되는데, 이는 조선 민중들에게 민족적 위기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무성서원에서 1872년에 강습례(향 음주례 포함)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것은 '신미양요'의 충격 속에 전통적 인 유교 이념으로의 무장을 강화하고 유림 내부는 물론 향촌사회의 유교 공동체적 결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儒風을 진작하고 鄕俗을 변화시키며 網常倫理를 확립하기 위한 講 會의 개설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西學의 확산을 막고 正學을 수호하기

^{9) &}lt;갑을기사>에 따르면, 최익현(최치원의 27세손)이 제주 유배에서 풀려나 무성서원 을 방문한 것은 1875년 4월 23일이 처음이다. 그 이전에 무성서워 원유들과 최익현 사이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제주 유배 방환 길에 태인 의 무성서원을 찾았다는 것은 이전에도 양자 사이에 직 · 간접적인 소통이 이루어 지고 있었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10) 『}무성서원지』상, <芝山處士安在護藏書記> 참조.

위한 강회가 서원 철폐를 전후로 한 시기는 물론 개항 이후에도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1] 1906년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최익현이 무성서원을 거점으로 起義할 수 있었던 기반도 1872년의 강습례 시행 결의에서부터 다져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강습례 시행 일자: 왜 '3월 3일과 9월 9일'인가?

무성서원의 강습례는, 그 의식절차가 여타의 서원 講會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서를 강독하는 모임, 즉 강회라 할 수 있는데, 그 시행 일자를 3월 3일과 9월 9일로 잡은 것이 특이하다. 일반적으로 서원 강회는 춘추의 享禮에 연하여 거행하거나 매 月朔 또는 朔望, 四 孟朔 등에 거행한다. 무성서원의 강습례처럼 춘추로 3월 3일과 9월 9일에 강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인 것이다. 그렇다면, 무성서원에서는 왜 3월 3일과 9월 9일을 강습례 개최일로 정하였던 것일까? 먼저, 조선시대의 서원 학규 또는 강규에 나타난 여타 서원의 강회 일자에 대하여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러 서원의 강회 일자>

- 매월 초하루
- 이이(1536-1584), <隱屏精舍約束>: "매월 초하루에 정사(精舍)에 모두 모여 (그동안의 학문적) 소득에 관하여 서로 강론한다(每月朔, 齊會精舍. 相講所得)."
- 이재(1680-1746), <道基書院學規>: "매월 초하루[초하루에 일이 있으면 보름]에 여러 유생은 모두 모여 읽은 책을 서로 강한다(每月朔, [朔日有故則望] 諸生齊會, 相講所讀之書)."

¹¹⁾ 윤희면, 앞의 책, 2005, pp.381~383 참조.

- 이재. <深谷書院學規>: "매월 초하루 분향 후에는 장의와 직월이 거 재 유생과 더불어 설강(設講)한다. 명단에 들어 있는 사람은 비록 상시 거 재할 수는 없다 해도 또한 기일에 맞추어 와서 강회에 참여할 수 있다(每 月朔日焚香後、掌議與直月、與居齋儒生設講、錄中之人、雖不能常時居齋、 亦可診期來會)."

○ 매월 초이틀

- 안정복(1712-1791), <德谷書齋月朔講會約>(1786년)"월조약회 의식 [초하루마다 참알의 예식이 있으므로 초이틀을 정일로 한다. 비가 오면 반 드시 다 알릴 필요는 없고 각자 비가 그친 날 와서 모임을 연다.](月朝約會 儀[朔日各有參謁之禮, 故以初二日爲定日. 有雨則不必遍告, 各以雨止日來 會]).

○ 매월 보름

- 정구(1543-1620), <講法>: "강회는 매월 보름에 개최한다(講會, 以每 月望日爲期)."

○ 매월 16일

- 김원행(1702-1772), <石室書院講規>: "매월 강회하는 날짜는 16일로 정한다. 만약 일이 있어 날짜를 미룰 경우 원임이 사전에 응강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문서로 통고한다(每月講會, 定以十六日. 若有故退日, 則院任 前期發文通告於應講諸人)."

○ 매월 순삭

- 김동진(1867-?), <紹修書院居齋節目>(1908년): "순삭(旬朔) 강회 때에 는 모임 중의 연로자와 다른 데서 온 여러 유생은 서워에서 공궤하고, 거 재 유생은 일절 조석(朝夕)처럼 한다(旬朔講會時, 會中老成及外來諸生自

院中供進、居齋儒生一如朝夕事)."

○ 매월 삭망

- 박세채(1631-1695), <文會書院院規>: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 분향하고 ... 물러나 다시 정읍례(庭揖禮)를 행한 다음 강당에 올라가 좌정하여 <백록동서원 교조>와 <학교모범> 및『소학』, <4서>, 『근사록』, 『성학집요』 등의 책 약간 판을 통독한다(每月朔望, ··· 焚香 ··· 退又行庭揖禮. 仍升講堂坐定, 通讀白鹿洞敎條,學校模範及小學四書,近思錄,聖學輯要等書若干板)".
- 윤증(1629-1714), <魯岡書院齋規>(1675년): "각 면마다 직월(直月) 2 인을 내 명적(名籍)을 주관하게 한다. 삭망의 강회(講會)에 각자 관장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오도록 한다. 만약 독서(讀書)와 송습(誦習)을 부지런히 하지 않거나 강회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모두 직월을 책벌한다(各 面各出直月二人, 使之主管名籍. 朔望之會, 各率所掌以來. 如有讀誦不勤, 來會不齊者, 則並責直月)."
- 신익황(1672-1722), <觀善齋學規>(1709년): "매월 초하루와 보름의 이른 아침에 관선재에 모인다(每月朔望, 早朝會于觀善齋)."
- 이광정(1674-1756), <三溪書院居齋節目>(1746년):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 서원의 사당을 참배하고 ··· 뜰로 돌아와 상읍례(相揖禮)를 행한다음 차례차례 진강(進講)한다(每朔望 ··· 因謁院廟, 還庭行相揖禮, 次次進講)."
- 윤봉구(1681-1767), <老江書院講學規目>: "한 달에 한 번 또는 초하루와 보름에 회장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는다(一月一次, 或朔望定式 爲宜)."

○ 사맹삭

- 박세채, <紫雲書院學規>: "4계절의 첫 달(즉, 음력 1 · 4 · 7 · 10월)에

장의가 여러 유생들을 서원에 모아 학규를 강의하고 (이 밖에 여러 책도 강의한다. 서로 순차적으로 통독(通讀)하며, 의의(疑義)를 강론하고 마친 다.) 유생들의 잘잘못을 검찰한다(四孟之月, 掌議會諸生于院, 講議學規, 此外更就諸書、相與循次通讀、講論疑義而罷. 檢察諸生得失)."

- 이재, <道基書院學規>: "매 사맹삭(1월, 4월, 7월, 10월)의 장의(掌議) 와 회강(會講), 검찰(檢察) 등의 일은 하나같이 원규에 따른다(每四孟月, 掌議會講檢察等事, 一依院規)."
- 윤증(1629-1714), <노강서원 재규>(1675년): "사맹삭(四孟朔)에는 하 루를 택하여 면(面)을 합쳐 모두 모이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한다(四孟朔 則擇一日, 合面俱會, 著爲恒式)."

○ 춘추 향례

- <知川書院院規>: "서원에서 공부하는 여러 유생은 석강과 순강 이외 에 또한 춘추의 제사 이후에 반드시 인하여 회강한다(院學諸生席講句講 外, 又於春秋享禮後必因會講),"
- <道溪書院講會儀節>: "향사례가 끝나면 중당에 강석을 설치하고 강 장[경명행수하여 뭇사람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강장을 삼는다.] 세워 강 회를 주관하게 한다(享祀禮畢, 設講席于中堂, 立講長以主之[明經行修衆所 推服者爲之]."
- <長淵書院院中節目>: "춘추의 강회는 서워의 아름다운 규정이니. 먼 저 상읍례를 행하고 바로 강석을 설치하여 『소학』과 <칠서>를 돌아가며 **ひ하고 토론한다(春秋講會乃是院中美規, 先行相揖禮, 乃設講席, 而小學七** 書輪回講討)."
- <長淵書院儀節>: "향약(鄕約) 강학회(講學會)를 개최하는 날짜는 매 년 춘추의 정제(丁祭) 다음날로 정하고, 이 날에는 먼저 장연사의 오선생 을 배알한 다음 향음주례를 행하고, 인하여 강연(講筵)을 설치한다(鄕約講 學會期,以每歲春秋丁享翌日定,而是日先行謁長淵祠五先生,後行鄉飮禮,

因設講筵)."

- <東竹書院講會儀節>: "향사례가 끝나면 중당에 강석을 설치하고 강장을 세워 강회를 주관하게 한다[경전에 밝고 행실을 닦아 뭇사람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강장을 삼는다](享祀禮畢, 設講席于中堂, 立講長以主之[明經行修衆所推服者爲之]."
- <德峯書院講會規例>: "매년 2월과 8월의 중정일에 석채를 거행한 다음 인하여 강회를 연다(每年二八中丁釋菜後, 因設講會)."

이와 같이, 조선시대 서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월 삭망 분향을 전후한 시기나 2월과 8월의 춘추 향례에 연하여 강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강습례를 개최한 무성서원의 경우는 매우 특이한 사례에 속하는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범위 내에서 보면, 매년 3월과 9월에 강회를 개최하는 것과 유사한 사례는 愈聚(1607-1644)의 <竹林書院節目>이 유일하다.

춘추의 향사와 삭망의 분향 제도는 이미 전례가 있으므로 별도로 다시 논하지 않겠으나, 봄옷이 이미 완성된 날과 가을볕이 따가워지기 시작하는 때에 많은 선비들이 선생의 예법을 강구하는 자리에 예회하여 희롱하고 한 담이나 하고 있으니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정재하는 날에는 직월이 입재한 여러 유생을 이끌고 『소학』이나 『효경』, 정자・주자의 책을 강하고, 문의에 의문점이 있으면 우암 선생이 가까운 곳에 머물고 있으니 가서 질문하도록 하라. 파재하는 날에는 헌관이 빈・개가 되어 향사례와 향음주례를행하여 신진과 연소자들로 하여금 고례를 익히도록 해야 마땅하다(春秋享祀朔望焚香之節, 既有前例, 別無更論, 而春服既成之日, 秋陽始曝之時, 濟濟多士, 禮會於先生禮法之場, 諧謔閑談, 亦甚可惜. 正齋之日, 直月率入齋諸生, 小學或孝經, 程朱之書, 惟意講究, 文義疑晦處, 尤庵杖屨, 方住邇地, 問目就質. 罷齋之日, 獻官爲賓爲介, 鄕射飮禮, 惟意行之, 使新進年少, 習熟古禮爲宜).

위의 <절목>에 따르면, 죽림서워에서는 暮春과 暮秋, 즉 3월과 9월에 각각 서원에 禮會하여 사당에 제사하며, 正齋하는 날에 강독하고 罷齋하 는 날에는 향사례와 향음주례 등 古禮를 익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시기 가 3월과 9월(3월 15일과 9월 15일)인 것이 특이하기는 하지만, 춘추 향사 에 맞추어 강회 및 향사·향음례 등을 거행하는 것은 여타의 서원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사례이다. 무성서워의 경우, 강습례는 3월과 9월에 개최하 였지만, 춘추 향사의 경우 2월과 8월의 仲丁日에 거행했기 때문에 죽림서 원의 3월과 9월 강회 및 향사·향음례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무성서원에서 1873년부터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개최하기 시작한 강습례는 그 개최 시기가 매우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12) 그렇다면, 3월 3일과 9월 9일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된 것일까? 이 의문을 풀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 에, 여기에서는 일단 3월 3일과 9월 9일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 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3월 3일은 上巳, 9월 9일은 重陽으로 불리는 春秋 의 대표적인 節日이다. 조선시대의 성균관에서는 人日, 三日, 七日, 九日, 즉 1. 3. 7. 9월의 절일에 製減 시험을 치르는 節日製 제도가 시행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삼일과 구일이 바로 3월 3일과 9월 9일이다. 성균관 의 절일제가 무성서워에서 3월 3일과 9월 9일에 강습례를 거행하기로 결 정한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양일이 춘추의 대 표적인 절일로서, 조선의 최고 학부인 성균관에서 이 때에 절일제라는 중 요한 교육 행사를 치른다는 사실은 3월 3일과 9월 9일을 강습례 개최 일자 로 정하는 데 좋은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었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¹²⁾ 특이한 시기에 강회를 개최한 사례의 하나는 <덕양서원절목(德陽書院節目)>에 나타난 있는데, 이에 따르면 매년 4월과 10월에 날을 골라 향음주례의 형식으로 연음(宴飮)하며 강론(講論)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무성서원의 강습례가 때때로 鄕飲酒禮로 대체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3월 3일과 9월 9일이라는 일자는 전통적인 三九射禮의 전통과 유관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일찍이 중국에서는 北齊 시기 이후 '삼구사례', 즉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射禮를 개최하는 전통이 있었고, 이러한 삼구사례 제도를 본뜬 조선시대의 鄕射禮 또한 매년 3월 3일 또는 9월 9일에 그 예를 행하도록 禮典인 『국조오례의』에 규정되어 있었다.13) 물론 예전에서는 향음주례의 경우 매년 孟冬, 즉 10월에 吉日을 골라 거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향사례 이후 연이어 향음주례를 거행하는 사례가 많던 조선시대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3월 3일 또는 9월 9일에 향음주례를 개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무성서원에서 강습례 또는 향음주례를 3월 3일과 9월 9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에는 삼구사례 이래의 이러한 오랜 전통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강습례의 명칭과 의식절차: 왜 '강습례'인가?

『무성서원지』에 실려 있는 관련 기록, 즉 <강습례절목>, <강습례집사>, <홀기>를 통해 볼 때, 講習禮는 분명 조선시대 서원 講會의 한 형태이다. 강회는 때때로 會講, 通讀, 會讀 등으로도 불리고, 구체적 의식절차에서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명칭이나 의식절차는 다를지라도 서원의 유생들이 함께 모여 어느 정도의 형식성을 갖춘가운데 경서를 강독하며 논의를 전개하는 강학 모임은 모두 '강회'로 통칭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1873년부터 거행하기 시작한 무성서원의 강습례 또한 분명 강회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무성서원의 강습례는 여타의 서원 강회와 차이가 있다.

우선, '강습례'라는 용어 자체가 이전에 사용된 전례가 없다. 과문한

¹³⁾ 박종배, "조선시대 학교의례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참조.

탓일 수도 있으나, 필자는 1872년 무성서원에서 '강습례'를 개최하기로 결 정하기 전까지 '강습례'라는 이름으로 강회를 개최한 사례를 보지 못하였 다. 무성서원의 강습례 이후에는 華西의 문인 유인석이 1895년 乙未變服 令이 내려진 직후 紫陽書舍에서 문인·사우들을 모아 대규모의 강습례와 향음주례를 개최한 사례가 있고, 그 전말이 <長潭講錄>에 기록되어 전해 지고 있다. 하지만, 1872년 이전에는 '강습례'라는 이름의 강회가 존재한 적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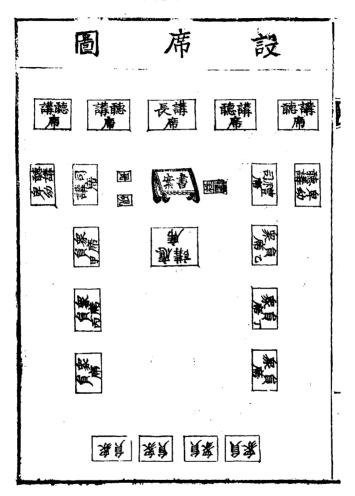
그렇다면, 무성서원에서는 왜 강회에 '강습례'라는 명칭을 썼던 것일 까? 그 이유의 하나는 아마도 무성서워에서 개최하고자 한 강회가 經書 講讀과 함께 古禮 習禮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교사회에는 '以禮爲敎' 또는 '敎以禮樂'이라는 禮 敎의 오랜 전통이 존재한다. 무성서원의 강습례에는 여느 서원의 강회보 다 이러한 예교적 포석이 강하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지로 강습례 의 의식절차에는 鄕飮酒義의 정신이 강조되어 있다. 예컨대, <講習禮節 目>에서는, 學任과 講長이 향음주의의 예법에 따라 각각 主人과 賓客으로 서 강당의 동남쪽과 서북쪽에 자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14) 강습례가 연령에 따른 예양을 강조하는 향음주의의 자리이므로 여러 집사와 유생 이 앉고 서는 데 序齒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15)

이와 함께 무성서원의 강습례에는 다른 강회 의절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의식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강당의 북쪽에 남향 으로 虛位를 설치하고, 이 허위에 대하여 瞻拜와 拜讀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다. 보통의 강회에서는 강당의 북쪽에 강장이 남향으로 앉고, 그 앞에 書案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로 <여숙강규 설석도>와 <필암서원 강 좌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lt;講習禮節目>: 一, 學任卽齋中之主也. 講長卽齋中之客也. 固當以禮相敬, 故一依鄉 飲酒義. 主人坐於東南, 賓坐於西北之禮, 以爲班次.

¹⁵⁾ 상동: 一, 長幼之序即五教之一, 況令齡讓之席, 尤當明辨其序. 諸執事諸生各從齒次 立坐, 無或錯亂失序.

〈여숙강규 설석도〉



하지만, 무성서원의 강습례는 강당의 북쪽에 허위를 설치하고 이 허위에 대하여 학임과 강장 이하 여러 집사 및 유생들이 강당 앞뜰에서 瞻拜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강회를 시작한다(뒷쪽의 <자료5-강습례도> 참조). 일반적인 강회에서는 사당에 가 참배한 다음 돌아와 강당 앞뜰에서 相揖

〈필암서원 강좌도〉

新華 特			圖	座	講	
下 等 三 三 下 库 中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紫華		師席		需編
三三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四	いしまではならくか	潜 生	垣 田		會迅	
一	+		三西階		三、作階	按 升

禮를 행하고 승당하여 강을 시작하지만, 강습례에서는 당상의 허위를 향 하여 강회 참석자 모두가 함께 첨배하는 의식으로 강회를 시작하는 것이 다. 아울러, 강습례에서는 강장 이하 승당하여 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강장과 학임이 각각 허위 앞으로 가 절하고 꿇어앉아 책을 읽는 拜讀의

의식을 행한다. 허위 앞에서의 배독은 여타 강회 의절에서는 보기 어려운 의식절차이다. 이처럼 무성서원의 강습례에서는 허위를 설치하고, 이 허 위에 대하여 첨배 및 배독의 의식을 행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 은 강습례가 보통의 강회와는 다른 의례적·상징적 의미를 갖게 만든다.

조선시대의 서원에서 당상에 허위를 설치하고 강회를 진행하는 것과 유사한 사례는 두 군데에서 발견된다. 먼저, 한강 정구(1543-1620)의 <通 讀會儀>를 보면, 강회시에 유사가 先聖先師의 遺像을 강당의 북벽에 설치하고, 강회 참석자 모두 뜰에서 이 유상을 향하여 北面하고 서서 두 번절한 다음, 강당에 올라가 향을 피운 뒤 다시 두 번절하고 나서 유상을 갈무리하고 승당하여 강회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 선성선사의 유상을 설치하는 것은 강습례에서 虛位를 설치하는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통독회 의절에서는 유상을 갈무리한 다음 승당하여 강회를 진행하는 반면, 강습례에서는 끝까지 허위를 둔 채 강회를 진행한다. 또한, 본격적인 進講에 앞서 강장과 학임이 허위 앞에서 拜讀하는 의식절차까지 있다. 통독회에서의 유상 설치보다 강습례에서의 허위 설치가 더욱 큰 의례적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순암 안정복(1712-1791)의 <月朝約會儀>(1786년 작성)에도, 有司가 선 성선사의 紙榜을 북벽에 붙여 놓고 두 번 절한 다음, 다시 齋長이 승당하 여 香案에 세 번 향을 피운 뒤 참석자 모두 두 번 절하는 절차가 있다.¹⁷⁾

^{16) 『}寒岡續集』卷4, <雜者> <通讀會儀>: 是日早朝而會. 講長有司先至 旣會, 有司設先 聖先師遺像於北壁, 率諸生就庭中北面立. 重行西上 再拜. 升堂. 上香. 降. 與在位者 皆再拜. 有司升堂, 藏遺像. (하략)

여기까지는 강습례의 의식절차와 유사하다. 하지만 안정복의 約會에서는 승당한 이후 강회의 주관자인 재장이 북벽 아래 좌정하고 여러 참석자가 동서로 나누어 좌정한 다음 강회를 진행하는 일반적 강회의 의식절차는 따르는 반면, 무성서원의 강습례에서는 여전히 허위가 강당 북쪽의 師席 을 차지하고 강장은 서벽 아래에 書案을 두고 강회를 진행하는 형태를 취 한다. 강회 내내 강회를 주관하는 스승의 위치를 허위가 상징적으로 점하 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무성서원의 강습례 班次에는 향음주레의 禮讓 및 序齒의 정신 이 반영되어 있다. 강습례가 경서 강독이라는 강회의 일반적 의미와 함께 고례 습례라는 특별한 예교적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무성서워의 강습례에서는 강당의 북쪽에 남향으로 虛位를 설 치하고 이에 대한 첨배 및 배독 의식을 거행하며, 강회 내내 허위가 사석 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강습례의 의식절차는 서원의 양대 기능이 라 할 수 있는 祭享과 講學을 의례적으로 통합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 다. 무성서원의 원유들이 자신들의 강회에 이전까지 사용된 전례가 없는 '강습례'라는 특별한 명칭을 부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차워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4. 맺음말

지금까지 1873년부터 거행된 무성서원의 강습례에 대하여 그 자료와 함께 시행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강습례에

所講書, 爛熟商確, 或有未達者, 就問于齋長. 若日力稍長, 或投壺或習射, 務使威儀 齊整, 母致喧雜款治而罷. 日晡乃退, 罷時更定後朔講儀. (하략)

대한 실체적 이해에 어느 정도 접근하였지만, 자료와 검토의 제한으로 인하여 강습례의 전모를 소상히 밝히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자료는 講生의 성명과 강한 책의 이름, 문답한 文義 등을 적어놓은 것으로 알려진 講案(또는 講經錄)이다. 강습례를 비롯한 강회는 말 그대로 강학 모임이므로, 강학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강안 또는 강경록은 강회 관련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이다. 이들 자료가 발굴・검토된다면 무성서원의 강습례에 대한보다 진전된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였지만, 향후 무성서원의 강습례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무성서원의 강습례가 시작된 1873년은 서원 철폐가 마무리된 시점으로서, 강습례는 존치된 서원이 이후 어떻게 서원교육을 전개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의 하나이다. 아울러, 강습례가 그 명칭이나 의식절차에 있어 조선시대 서원 강회의 다양성과 시대적 변용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 후기 서원의 강회 전통 속에서 강습례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해 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이와 함께, 강습례가 집중적으로 개최된시기가 조선이 쇄국에서 개항으로 전환하고, 전통교육이 근대교육으로 이행하며, 국가적・민족적 위기가 심화되는 시점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성서원의 강습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전통적 교육세력이 이에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무성서원의 강습례는 국가적・민족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교육이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이러한 여러문제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武城書院誌』
- 『寒岡續集』
- 『順畚集』
- 『書院誌叢書』(아름출판사 영인본)
- 기타 국립중앙도서관 고서 D/B 수록 書院誌
- 김대식, 『조선후기 화서학파의 門人敎育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 박종배、『조선시대 학교의례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회」, 교육사학회, 『교육사 학연구』제19집 제2호, 2009, pp.59~83.
- _____, 「學規에 나타난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이념과 실제」. 국민대 한국 학연구소. 『한국학논총』 제33집, 2010, pp.43~73.
- 정만조, 『조선시대 서워 연구』, 집문당, 1997.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5.

中文摘要

關于十九世紀末武城書院講習禮的一考察

朴 鍾 培*

本論文主要以記載于『武城書院志』里的《甲乙記事》、《講習 禮節日》、《講習禮執事》、《笏記》、《講習禮圖》 等相關資料 爲中心。對19世紀末期在武城書院召開的講習禮進行了探究。從1873 年到1880年間,武城書院每年都在3月3日和9月9日召開講習禮,但是 從1891年以后就間斷地召開講習禮。武城書院的講習禮基本根据鄉飲 酒義的禮節來定班次. 大体以陳設-瞻拜-相揖-升堂-讀規-拜讀-淮講-禮畢的順序來進行。1873年武城書院在首次召開的講習禮上。 說明幷 解釋了關于1871年全國撤除書院的措施和辛未洋擾的歷史背景。武城 書院的講習禮可以說是朝鮮時代書院講會的一種。但從召開的日期爲 '3月3日'和'9月9日'、'講習禮'的名稱、虚位的陳設和向往虛僞的膽 拜、在虛偽面前拜讀等幾個儀式程序中可以看出武城書院的講習禮與 朝鮮時代的書院講會相比具有獨特的一面。武城書院的講習禮是以經 書講讀爲主而展開的集体講學活動。旣包含了朝鮮時期書院講會的一 般意義 又有以'古禮習禮'追求禮敎的特殊意義。今後還要對武城書 院的講習禮。包括'撤除書院'和'帝國主義列强侵入'、'傳統教育的危 機等歷史背景的特徵和意義。進行多方面的研究和討論。

關鍵詞: 武城書院, 講習禮, 講會, 講習禮節日, 執事, 笏記, 講習禮圖

^{*} 東國大-首爾

魯岡書院 資料의 類型과 性格

이 해 준*

- 1. 머리말
- 2. 創建 過程
 - 1) 創建 通文
- 2) 營建時 扶助
- 3) 位牌 奉安 儒會
- 4) 學規 制定
- 3. 賜額과 文集 刊行
 - 1) '魯岡' 사액과 致祭 2) 祭享人物 文集刊行
- 4. 上疏와 重修記錄
 - 1) 上疏活動
- 2) 書院重修
- 3) 壬寅漕變(1902년)
- 5. 맺음말

국문요약

본고는 서원의 창건과 변천사에 관련된 자료 유형과 그 성격을 정리한 事例로써, 그 대상을 호서지역 소론계 首院이었던 魯岡書院으로 한 것이 다. 서워자료는 건축물과 유적자료를 포함하여 관찬사료, 고문서와 문집 류 자료, 금석 현판기문, 일화 전설 등등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전승되 고 있는데 본고는 노강서원 자료 중에서 ① 창건과정 ② 賜額과 致祭, 文 集 간행 ③ 上疏와 書院 重修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자 료 이외에도 서원소장된 자료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논의를 하

투고일: 2011년 11월 7일 심사일: 2011년 11월 7일

심사확정일: 2011년 11월 25일

^{*} 공주대 사학과, 교수

154 韓國書院學報 1

고자 한다.

魯岡書院은 호서지역 소론계 거점으로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 같은 호서지역의 서원건립 활동과 추이를 살피는 과정에서 주목 대상이다. 즉 노-소론의 分岐 과정에서 발생한 懷尼是非나 家禮源流 등의 사건과 관련되며, 그 이론의 공급처이자 門人・後學들의 결집처가 바로 노강서원이었다. 노강서원의 창건과 賜額, 중수, 祭享人物들의 문집이 발간되고 보관된 것, 그리고 당쟁의 와중에서 벌어진 賜額과 撤額, 소장되었던 문집 목판의 毀板, 제향인물의 削奪과 復官 등등은 복잡다단했던 호서지역 서원의 정치사적 변천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노강서원(魯岡書院) 소론계(少論系) 노강서원학규(魯岡書院 學規) 문집간행(文集刊行) 서원중수(書院重修) 상소활동(上疏活動)

1. 머리말

본고는 서원의 창건과 변천사에 관련된 자료 유형과 그 성격을 정리한 사례로써. 그 대상을 호서지역 소론계 首院이었던 魯岡書院으로 한 것이 다. 서워자료는 건축물과 유적자료를 포함하여 관찬사료, 고문서와 문집 류 자료, 금석·현판기문, 일화·전설 등등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전승 되고 있으며」) 내용별로는 ① 창건과 변천 자료 ② 교육과 제향의례 자료 ③ 조직과 재정운영자료 ④ 제향인물 관련자료 ⑤ 향촌사회 관련자료 등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워마다 전승 자료의 내용과 성 격이 차이가 있으므로 본고에서 다루는 노강서원의 경우는 그 중 한 사례 로 파악할 수 있다.

호서지역은 임진-병자의 양란에 많은 충절인물을 배출하였고, 예학을 주도했던 김장생과 김집, 그리고 그 제자들로 대표되는 기라성 같은 서인 계 인물들의 주 활동무대였다. 그러나 학문 • 혈연적 바탕 위에서 맺어졌 던 호서예학, 서인계 학맥은 17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경서에 대한 견해, 주자학의 해석에 관한 이견, 그리고 예론 등 현실인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는데, 이는 서원과 사우의 건립활동으로 반영되어 나타났다.2) 魯岡書院은 호서지역 소론계 서워의 首院으로서 이 같은 호서

¹⁾ 서원 자료는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연구』(2008, 경인문화사, pp.238~241)의 분류체계, 그리고 이해준 외, 『서원 보존 정비 관리방안 연구』(2010, 문화재청, pp.29~30)에서도 유형별, 내용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바 있다.

²⁾ 全用字、「湖西 書院 小考」(I) 『湖西史學』21·22합집、1994: 「湖西書院 小考」(II)、 『重山鄭德基博士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96 ; 「호서사림의 형성에 대한 연구 -16-17세기 호서 사족과 서원의 동향을 중심으로」,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94; 「충남지역 서원·사우의 건립추이와 사족동향」、 『충남의 서원·사우』、 충청남도、 1999.

지역 서원의 건립 활동과 추이를 살피는 과정에서 매우 주목하여야 할 대 상이다. 즉 노-소가 분기되는 숙종대 후반 이후에는 우암 송시열로 대표되 는 서인 노론계와 명재 윤증으로 대표되는 소론계가 각축하는 상황이 되 고, 노강서원이 바로 소론계의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 다.3)

1674년(숙종 즉위)에 창건된 노강서원은 1682년(숙종 8)에 사액을 받았고, 창건 당시에는 尹煌을 주향으로 尹宣擧를 배향하다가, 사액과 더불어 尹文擧가 추배되었다. 1723년(경종 3)에는 尹拯까지 추배하여 모두 4위를 제향하게 되었다. 학맥으로 보면 八松 尹煌(1572-1639)이 성혼의 문인이고 魯西 尹宣擧(1610-1669)는 김장생의 문인이자 忠淸五賢 중 1인이다. 그리고 明齋 尹拯(1629-1714)은 명실상부 소론의 영수로서 이들은 노소론의 분기 과정에서 발생한 懷尼是非나 家禮源流 등의 사건과 관련된다. 그리고 바로 그 이론의 공급처이자 문인・후학들의 결집처가 노강서원이었다. 노강서원의 창건과 연액, 중수, 제향인물들의 문집이 발간되고 보관된것, 그리고 당쟁의 와중에서 벌어진 사액과 철액, 소장되었던 문집 목판의 훼판, 제향인물의 삭탈과 복관 등등은 복잡다단했던 호서지역 서원의 정치사적 변천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노강서원의 자료 중에서 ① 창건과정 ② 사액과 치제, 문집 간행 ③ 상소와 서원 중수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외의 다양한 자료들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로 논의하고자 한다.

³⁾ 조선후기 호서지역의 서원건립과 활동 추이를 요약하여 보면 ① 1690년대와 1710-1720년대 노론계 서원의 주도권(우암 송시열 제향) 강화, ② 노강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계 서원의 결속과 비노론계의 연계, ③ 비노론계 우세 지역에 대한노론계의 공략으로 서원을 활용하는 등의 큰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이해준, 「호서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국학연구』, 11집 한국국학진흥원, 2007).

2. 創建 過程

1) 創建 通文

노강서원의 창건(1674)은 호서지역에서 노·소론계 서원으로 쌍벽을 이루었던 돈암서워 창건(1634) 보다 약 40년이 늦다. 사계 김장생을 주향 으로 하는 연산 돈암서원은 1632년(인조 10) 문인들의 주도로 충청도 20여 개 지역 사람들이 발의하여 건립되었다. 노강서원의 창건과정도 돈암서원 과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데, 당시 호서지역은 물론 전국 서인계 사족들의 지원과 참여로 이루어졌다. 창건 주역은 현직관료 6인, 전직관료 9인, 유 학 4인, 생원 4인이었는데 현직관료 중에는 천안 군수, 니산 현감이 포함 되고 전직관료로는 전군수 윤전, 김정망, 임위, 송준길, 송시열, 이유태 등 이 참가하고 있었다.4)

우선 서원의 창건을 발의한 인물들은 金壽恒을 비롯하여, 영양부원군 閔維重、 みくりもつ 金萬基、 朴世堅、 呂聖齊、 李選、 金萬重、 中翼相、 趙師錫、 鄭維岳, 趙根 등 당대의 명상 명현들이었다. 특히 노강서워의 營建文 (1672)은 金壽恒(1629-1689)이 직접 지었다. 그는 김상헌의 손자이자 송시 열과 동시대에 활약한 서인의 중진이며, 훗날 노론에 가담하여 윤증 등을 공박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강서원 건립 당시는 노·소론의 갈 등이 첨예화되기 이전이므로 김수항이 영건문을 썼던 것이다. 한편 金萬 基(1633~1687)는 숙종의 장인으로 광산김씨 金槃의 손자이며 노강서원 이 창건되던 1674년 숙종이 즉위하자 영돈령부사로 승진되고 광성부원군

⁴⁾ 李娟俶、「遯巖書院의 建立과 性格」、『우강권태원교수정년기념논총』、동 간행위원 회. 1994.

에 봉해졌다. 魯岡書院營建通文(1672)에서 金壽恒은 팔송 윤황과 노서 윤 선거의 도학과 행적을 극찬 칭송하며, '八松 선생이 세상을 뜨신 지가 자 못 이제 30년이 되어 간다. 사상 세우는 일은 시작하였지만 도로 잠잠했던 것은 뜻은 있으나 시기를 기다린 까닭이었다. 이제 魯西 선생이 후학들을 버린 지가 1년이 넘었다. ··· 높은 산과 큰 길처럼 사모하는 생각을 기댈 곳이 없어 이에 뜻을 같이하는 선비들과 힘을 합쳐 모의하여 여러 노선생 들께 질정하니 의론도 역시 여러 사람들과 같았다'5)고 하면서 창건의 과 정을 밝히고 통문을 발송하였다.6) 창건시 통문은 『노강서원지』에 수록된 것처럼 전국적으로 보내졌는데, 지역별로

경기도, 경상도: 趙 直講 傳簡, 呂 參議 收合

충청도, 황해도 : 鄭 持平 次知

전라도:全羅監司 次知

평안도, 강원도 : 趙 正郞 次知

등으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었으며, 魯岡書院「本院營建時扶助錄」에는 '京 有司 鄭維岳 收送', '京有司 所送' 등의 기록이 보여 별도의 유사도 분임되 었음을 추측하게 한다.7)

2) 營建時 扶助

이러한 모습은 노강서원 건립시의 扶助錄(1675)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5) 『}魯西先生遺稿』附錄 下, 雜著「魯岡書院營建通文」(金壽恒 撰): ··· 八松先生之下世 殆將三紀于茲矣 建祠之學 既始而還寢者 意固有在 而時亦有待 今魯西先生之棄後學 亦有年矣 土林安放之痛 愈久而愈切 無以寓其高山景行之思 肆與同志之士 合謀協圖 質之諸老先生 論議亦既僉同….

⁶⁾ 노강서원 창건시기와 관련하여 후일 우암 송시열이 너무 빠르다고 하였다는 비평에 대한 우암의 답변이 『宋子大全』부록 제14권 「語錄」(李喜朝의 기록)에 보인다.

^{7) 『}魯岡書院誌』 23、「本院營建時扶助錄」.

노강서원의「本院營建時扶助錄」8)에는 전국 각지의 지방관과 향교. 서원 · 사우, 유림, 鄕約 및 개인, 京有司 등 약 200여 개소에서 받은 쌀과 종이, 붓. 베. 소금, 생선. 바둑판, 솥 등 다양한 물목과 그 수량이 세세하게 기록 되어 있다. 전체 부조자를 보면, 지방관이 가장 많았고, 전국의 36개 향교 와 24개 서원, 각지의 유림들의 부조가 ½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			
구 분	지 역	부조한 서원, 사우 명칭			
書 院 (24개소)	충청도(10)	회덕 숭현, 홍산 동봉, 공주 충현, 공주 창강, 연산 돈암, 서천 건임 한산 (문헌), 옥천 (창주), 목천 (도동), 연기 (봉암)			
	타지역(14)	담양 의암, 능주 죽수, 남평 봉산, 여산 죽림, 광주 월봉, 광주 포충사, 익산 화양, 김제 백석, 전주 화산, 남원, 석실서원, 해주, 임괴, 장성			
鄕 校 (36개소)	충청도(10)	연기, 온양, 연산, 임천, 전의, 석성, 공주, 한산, 홍주, 목천			
	타지역(26)	옥구, 여산, 능주, 용안, 함열, 홍덕, 광주, 영광, 태인, 보성, 함평, 고부, 전주, 남원, 임실, 부안, 향교, 진산, 김제, 금산, 나주, 전주, 金山, 기장, 강진, 장성, 임피			

〈표 1〉노강서원 영건시 부조록(서원·사우 및 향교)

한편,「本院營建時扶助錄」에는 '本邑鄕中收合'이라 하여 노성현에서 각기 분담하여 수합한 물목이 보이는데 朴尙魯, 楊汝翊, 朴年遠, 尹採, 愼 爾明、洪信道、南大夏、金重昌、金昊成、李時謙、崔日周 등이 수합하는 일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鄉約:東面鄉約,五岡鄉約,廣石鄉約,塘北鄉約,豆寺鄉約,素沙鄉約,東 西上里鄉約, 得尹鄉約, 長久洞上里鄉約, 禾谷鄉約

書堂: 鵲川書堂 東面書堂

등 노성 지역의 10개 향약과 2개 서당, 그리고 노성향교 유생, 豆寺 지역

^{8) 『}魯岡書院誌』 권3, 「本院營建時扶助錄」 本邑鄉中收合.

유림들도 함께 부조하고 있다. 이밖에 개인자격으로 부조한 공주진사 朴慶來, 보령 金汝南, 한산 생원 柳千吉 등은 그 연고가 주목된다. 이러한 서원의 창건시와 관계된 자료는 당시 향촌사회의 조직과 구성, 나아가 연대한 지역범위와 주요 활동인물까지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이다.

3) 位牌 奉安 儒會

이렇게 노강서원은 호서지역과 노성의 사족들이 주도하고, 전국적인 지원과 협조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모아 1674년 서원을 건립하였고, 이듬해인 1675년 3월 八松 尹煌과 魯西 尹宣舉 양위의 위패를 봉안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奉安 祭文은 南九萬이, 春秋享祝文과 魯岡書院上樑文9은 朴世采가 찬했다. 한편 노강서원은 이밖에도 창건당시의 관련 자료를 비교적 잘 남겼는데, 앞에 소개한 부조록 외에 봉안시 유회록[時到記]이라든 가, 봉안시 執事錄 등이 그것이다.

1675년(숙종 1) 노강서원 봉안시 참여한 내외인사들의 기록(봉안시 유회록, 1675년)은 그들의 지역범위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다음 <표 2>는 노강서원 봉안시 유회록(1675)과 그로부터 약 40년 전인 돈암서원 봉안시 참여록(1635)을 비교하여 본 것이다.

40년의 시차를 감안 하더라도 이 표는 흔히 호서지역 노론과 소론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일컬어지는 두 서원의 봉안에 참여한 인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표에서 보듯 당시만 해도 두 서원 사이에서 생각만큼의 대립과 분열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시기까지는 두 세력이상당한 동반 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있다.10)

^{9) 『}南溪集』卷70, 上樑文 魯岡書院上樑文(癸丑 三月七日).

¹⁰⁾ 이정우, 「17-18세기 재지 노소론의 분쟁과 서원건립의 성격」, 『진단학보』 88집, 진단학회, 1999. 그러나 이 글에서는 노론과 소론, 광산김씨와 파평윤씨의 관계를 대립적 시각으로 무리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돈안서워 노강서워 돈암서워 노강서워 거주지역 거주지역 봉안시(1635) 봉안시(1675) 봉안시(1635) 봉안시(1675) 니산 112 17 진천 공주 20 31 전의 1 청주목 연산 보은 31 20 1 은진 황가 16 1 회덕 12 3 금산 1 5 2 진잠 진산 1 공주목 연기 익산 4 10 1 부여 5 6 고부 1 임천 전주목 용아 1 6 1 _ 석성 10 진안 1 1 한산 전주 1 10 1 홍산 여산 1 1 6 12 홍주 4 고산 6 정산 5 남평 1 1 덕산 창평 1 홋주목 청양 2 1 光州 2 결성 1 기 타 덕흥 1 보령 1 서울 1 14 서산 1 廣州 1 옥천 2 미상 5 4 청주목

〈표 2〉 돈암서원. 노강서원 봉안시 참석자 거주지별 분포

다만 이 두 자료의 시차를 염두에 두고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작은 변 화의 분위기도 엿볼 수는 있다. 즉 건립지인 노성, 연산과 당시 사족활동 권인 공주를 논외로 할 경우, 노강서원 봉안시에 임천, 석성, 연기, 홍주, 정산, 금산, 여산 지역 인물이 증가된 것과, 회덕, 진잠, 은진, 전주지역이 감소된 것이 확인된다. 물론 이 같은 변화는 아주 미미한 것이어서 크게

계

핚

164

258

영동

2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이후 노-소론 간의 대립에 연맥 되어질 가능성을 예견할 수는 있다. 한편 당시 노강서원의 창건시에 홍주목의 참 여지역이 확대(2지역에서 7지역, 15명)된 반면에, 청주목의 경우 참여지역이 오히려 감소(5지역에서 1지역)하고 참여원도 3명으로 줄어든 것도 유의할 부분이다. 전라도와 기타 지역은 40명으로 비슷한 비중이다.

4) 學規 制定

한편 노강서원의 창건과 함께 명재 윤증은 47세의 나이로 魯岡書院 學 規와 魯岡書院 齋規를 지었다.¹¹⁾

『魯岡書院 學規』에는 노강서원의 교육목표와 강학,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은 현재 노강서원 강당에 게판된 2개의 현판과, 명재 고택에 소장되었던 成冊文書로 남아 있다.12)

노강서원 學規에서 특히 주목되는 사항은 入齋 자격에서 '勿拘貴賤'과 '庶類凡民 不必取捨'라는 규정이다. 이로서 적어도 노강서원에는 입학의 자격을 개방하려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며, 입학 시에는 보증인 형식의 추천자로 유생 1인을 保擧라 하여 기록해 두었다. 입학 후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또 노강서원은 다른 서원처럼 외부 원장의 영입이 아닌 '齋中年長有識者'를 추대하는 점도 특이하며,13) 이 때 학술이 우수한 1인을 추대하여 掌議로, 그리고 2인

^{11) 『}명재선생연보』 숙종 1(1675) 을묘 47세 3월.

¹²⁾ 원래 성책문서를 보면 學規는 모두 21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제11조는 강당의 學規 현판에, 그리고 제6조-제17조는 강당의 讀書 현판으로 남아 있다. 나머지 제18조-제21조는 성책문서에만 남아 전한다.

^{13) 『}노강서원지』를 보면 권4「역대제임안」에서 초창기에는 원장의 명단이 보이지 않고, 중간에 와서 장의를 노성현감이나 중앙의 고관이 맡는 경우가 보인다. 그러 다가 신축년(1781년, 정조 5)부터 영상 李相蹟, 임인년(1782년) 우의정 鄭元容, 무신년(1788년) 영의정 정원용, 신해년(1791년) 영부사 정원용 등으로 일시 바뀌었음을 볼 수 있다.

의 有司와 1인의 直月을 두고 있다. 매월 삭망에 행하는 사우 참배의례와 독서 강학의 방식, 재생의 일상생활 규범 등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14) 그리고 善惡籍을 비치하여 재생들의 활동을 모두 기록하도록 하 고 문제가 있으면 黜齋도 하였을 정도로 구체적 이기도 하였다.

이 외에「明齋先生所定齋規」는 모두 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노 강서원 강당에 계판된 것은 1688년(숙종 14)에 後學 李養源이 쓴 것이다. 노강서원 학규를 참조하라는 부기가 보여 노강서원학규와 연계할 자료이 다. 1조에는 서워에 입학하는 유생의 자격과 준비사항을 적고 2조에는 독 서할 서책과 평가방식을 3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1등은 소학・가례・심경・근사록・程朱 제서로 通讀과 講論이고 2등은 四書三 經으로 背誦. 令熟. 3등은 史書와 子部로 통독과 배송 등이다. 3조에는 各 面에 直月 2인을 두어 성적과 활동을 기록하도록 하고 4조는 齋會時의 규 정, 5조는 考講에 5-6명의 鄕中耆老들을 위촉한다는 내용 등이다.

[자료] 魯岡書院齋規 (尹拯)15)

- 一,一鄉儒生年三十五歲以下 有志向學者 列名于籍名下 各懸所業書冊 所當 讀之書 依學規所載 別具下條 朔望來會之日 考其一月所讀 課其勤慢 而 勉戒之 庶乎各惜光陰 盡讀所當讀之書 自有彬彬之效矣 三十五歲以上 自願入籍課讀者聽
- 一、學規曰 讀小學,家禮及心經,近思錄,四書,六經聖賢諸書 循環不輟 周而復始 講論旨義 務在結究 溫繹前讀 以驗生熟 又以經史子集 隨其多 少 論難授受 期於涌貫 或交相課誦 以取相長之為云云 今依此規 分爲三 等 讀小學,家禮,心經,近思錄及程,朱諸書者 爲一等 讀四書三經者 爲二等 讀史子者 爲三等 一等則通讀講論 二等則背誦令熟 三等或通讀 或背誦隨官

¹⁴⁾ 예컨대 수업 중 잡담, 식사시의 편식과 포식, 복식, 낙서금지 등등 세세한 규정까지 정하고 있어 흥미롭다.

^{15) 『}明齋先生遺稿』卷30 雜著.

164 韓國書院學報 1

- 一,各面各出直月二人 使之主管名籍 朔望之會 各率所掌以來 如有讀誦不勤 來會不齊者 則並責直月
- 一,一日齊會則考課不精 分面爲二 一朔一望 當日蓐食來會 焚香後 因爲考 課 自院中設點心而罷 四孟朔則擇一日 合面俱會 著爲恒式
- 一. 考試之員以鄉中耆儒先進五六員齋任臨時具書以請

3. 賜額과 文集 刊行

1) '魯岡' 사액과 致祭

노강서원 창건 이후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사액이다. 1682년(숙종 8) 趙得重, 李師吉, 羅良佐, 金昌協 등이 5도 유생들과 함께 청액소를 올리고, 양대신이 이를 계청하여 숙종의 특명으로 魯岡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이 청액소에는 石湖 尹文擧의 추배도 함께 건의하여 허락을 받았는데, 당시의 청액상소문은 전해지지 않고 다만 당시 숙종이 내린 御製 賜額致祭文(林泳 찬)만이 전하고 있다.16) 사액치제시 예관은 예조정랑 李立中이었다.

'魯岡'이란 사액과 함께 석호 윤문거를 추배하게 되자 노강서원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그 자료가 「延額追配時 扶助錄」으로 남아 전한다. 당시 부조는 충청수사 閔晟을 필두로 각지의 지방관과 향교, 서원에서 창건시와 비슷하게 하였는데 특히 호서지역의 참여가 아주 많다. 당시 충청감사 尹敬敎는 八松 尹煌의 증손으로, 헌납으로서 許積을 단핵하다 갑산에 유배된 후 1681년(숙종 7)에 충청감사로 부임하였다. 바로 이때에 노강서원의 사액이 이루어 졌고 다종다양한 물품을 지원하

^{16) 『}石湖先生遺稿』卷8 附錄 下,「魯岡書院 賜額祭文(林泳 製進, 壬戌四月)」.

고 있다.

그런데 노강서워 사액 시기는 서인계 내부에서 서서히 대립각이 나타 나던 시기였다. 1659년 예송과 우암 송시열의 노서 유선거 묘지명 찬술문 제가 복합되어 회니시비가 표면화되기 직전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기록에서 그러한 모습은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사액 당시 부조한 서원 은 모두 18개소인데, 서원 창건시의 부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17) 충청 도의 경우 회덕의 숭현서원과 공주 충현서원, 연산 돈암서원, 옥천 창주서 원, 목천 도동서원, 연기 봉암서원은 서원을 창건할 때와 사액 받을 때 모 두 부조 물목을 보내왔으며, 문의 노봉서원과 청주 신항서원, 부여 의열 사, 보령과 영동의 서원이 새로이 부조명단에 추가되었다. 한편 창건당시 부조 물목을 보냈었던 홍산 동봉서원과 공주 창강서원, 서천 건암서원과 한산의 문헌서원은 사액시에는 부조를 하지 않았다.18) 타 지역의 서원으 로는 여산 죽림서원, 전주 화암서원, 광주 월봉서원, 광주 포충사, 영광 용 계서원, 용인 심곡서원, 정주 봉명서원 등이 기록되었다.

한편 이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1709년(숙종 35)에는 李世瑾의 청으로 팔송 유황과 노서 유선거에 대한 증직과 시호가 결정되고, 2년 뒤인 1711 년(숙종 37) 6월 16일(갑술)에 '贈 領議政 尹煌에게 文正, 贈 議政 尹宣擧 에게 文敬'이라 시호를 내리는 것으로 실록에 기록된다.19)

¹⁷⁾ 혀물 부조의 내용에 대하여는 박연숙의 분석표가 참고가 된다(박연숙, 「조선후기 의 서원경제에 대한 일고찰 -魯岡書院의 재정구조분석을 중심으로-1, 전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¹⁸⁾ 한편 노강서워 자료 중 다른 서워에 부조한 내용이 수록되「應求致賻記」가 있어 참조가 된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노강서원 자료 중 『有司便覽』 應求致賻記 (년대불명)가 그것으로 1682년부터 기록되었고, '院中雜錄'이라고도 적혀 있다. 이 자료에는 예산 덕잠서원, 홍주 노은서원, 용계서원, 연산 구산서원, 서천 명곡(건 암)서원, 석성 봉호서원, 부여 의열사, 한산 문헌서원, 임천 칠산서원 등의 호서지 역과 전라도 영광의 용암서원, 무주의 풍계서원, 경기 교하의 신곡서원과 같이 대부분 소론계 서원들이 기록되어 있다.

¹⁹⁾ 한편 『숙종실록』1707년(숙종 33) 9월 2일(신해)조에는 충청도 진사 李萬誠 등이 상소하여, 尹烇과 尹元擧, 尹舜擧를 尼山의 尹煌 書院(노강서원)에 추향할 것을 청하자 예조로 논의하도록 내려 보내는 기사가 보여 주목된다. 그런데 아마도 이

그러나 노-소의 대립기에 회니시비와 가례원류 사건이 연속되면서 그 여파는 곧바로 노강서원에 미쳐왔다. 1716년(숙종 42) 윤선거·윤증 부자가 추탈을 당하고, 윤선거의 문집이 毁板되었으며, 노강서원의 사액마저 철거되었다. 이처럼 노강서원에 대한 노론측의 공세가 극심했던 시기에, 노성에서 또 하나 이와 관련됨직한 일이 벌어진다. 명재 윤증으로 대표되는 소론의 세력 거점인 노성에 1716년(숙종 42) 궐리사를 창건한 것이다. 궐리사는 공자의 향리인 闕里村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1687년(숙종 13) 우암 송시열이 金壽恒과 함께 이곳에 공자의 祠宇 건립을 추진하다가 제주도로 귀양가 賜死됨으로 중단되었었다. 그러다가 30여 년이 지나 우암의 유지를 이은 제자 權尚夏, 金萬俊, 李健命, 李頤命, 金昌集 등이 중심이 되어 궐리사 건립을 재추진하고, 館學에서 공자 영정을 모셔다 봉안하기에 이른 것이다.20)

그러나 6년 뒤인 1722년(경종 2) 신임사화로 소론이 재집권하면서 노론 4대신이 출척되고, 이를 계기로 이 해 7월 4일에 관학 유생 黃昱과 兩湖 유생 金壽龜 등이 윤선거 부자의 伸寃과 復爵, 復諡를 상소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해 8월 7일에 비변사가 尹宣擧・尹拯의 官爵과 贈諡회복, 그리고 院額을 다시 선액하고 문집도 간행하도록 청하였다. 이를 경종이 윤허하여 尹宣擧・尹拯의 관작과 文成 시호가 복구되었으며,21) 1723년(경종 3) 1월 18일에는 승지를 보내어 윤선거와 윤증에게 致祭할 것을 명하였다. 이와같이 노강서원은 제향인물 모두가 시호를 받았고, 다음 표에서 보듯이 역대 군왕의 사제문과 예관치제가 이어졌던 호서지역의 대표적 서원이었다.

때에 일이 성사되지 않아서였는지 1710년(숙종 36) 연산 구산서원에 윤전을 추향 하면서 주향으로 삼고 윤순거를 추배하였다.

²⁰⁾ 이는 노-소 분당이후 노론세력의 소론 견제책으로 당시 노론세력의 핵심인물들이 대거 참여하여 추진한 것이었다(고수연, 「18세기초 호서지역 서원의 당파적 성격」、 『역사와 담론』 29집, 호서사학회, 2000).

^{21) 『}朝鮮王朝實錄』 景宗 2년(1722) 7월 4일(정해).

구 분	관련인물	시호	생몰년	년 대	왕 (찬자)	비고(예관)
사액 치제문	노강서원			1682년 4월	숙종 (林 泳)	예조정랑 李立中
				1723년	경종(복액)	우승지 朴熙晋
	八松 尹 煌	文正	1572-1639	1711년	영조 (徐命天)	예조좌랑 崔晸
				1796년 5월	정조 어제시	우부승지 尹光顔
치제문				1798년	정조 어제	
				1816년	순조 (安 策)	면천군수 李勉心
				1902년	고종 (李能華)	석성현감 李用基
	石湖 尹文舉	忠敬	1606-1672	1757년 2월	영조 (尹東昇)	예조정랑 郭聖濟
				1816년 6월	순조 (安 策)	괴산군수 吳鼎秀
	魯西 尹宣舉	文敬	1610-1669	1682년	숙종 (崔奎瑞)	
				1723년	경종 (鄭壽期)	복관치제
	明齋 尹 拯	文成	1629-1714	숙종대	숙종 (宋徵殷)	
				숙종대	왕세자	
				1723년	경종 (趙泰億)	

〈표 3〉 노강서원과 제향인물 賜祭文(致祭文)

2) 祭享人物 文集刊行

노강서원은 제향인물의 문집을 편찬하고 발간하며, 그 판각을 보관하 였다. 『魯西遺稿』는 尹拯이 편찬한 것으로 1712년 6월 魯岡書院에서 목판 으로 간행되었다. 이 목파은 1716년의 丙申處分으로 書院 賜額의 철거와 함께 毁板된 것으로도 유명하다.

회니시비와 관련 앞에서 잠시 거론했던 노서 윤선거의 문집 毁板22)과 정은 1716년(숙종 42) 申球가 윤선거와 윤증의 문집 중 孝宗을 무함한 내 용이 있다며 일기와 편지에서 몇몇 부분을 발췌하여 상소를 올린 것에서 시작되었다. 문제가 되는 글은 『魯西遺稿』 續集 권1 答權思誠으로23) 이는

²²⁾ 김향숙, 「노서유고의 간행과 훼판에 관한 일고찰」, 『고인쇄문화』 15, 청주고인쇄박 물관, 2008.

결국 노론측의 맹렬한 공격 빌미가 되었다. 『明齋遺稿』에서 문제된 부분은 회니시비와 관련된 書를 따로 편집한 別集 3卷 부분이었다.24) 이는 先人을 모독한 것이라 하여 윤증의 생전에도 논란이 많았던 글들이었다.

그리하여 이해 8월 24일 좌의정 金昌集이 '윤선거의 문집의 목판을 헐어 없애게 하여 시비를 밝히는 뜻을 보이고, 그 부당함을 상소한 진사 李 弘躋를 태인현에 정배시키라'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당시 윤선거가 충청의 山林이자, 아들 윤증은 少論의 영수로서 명성이 높았던 만큼 문집의 훼판에 대한 士林의 반발도 강하였다.25) 그러나 숙종의 완강함은 더하여 "윤선거의 문집의 판본을 없애라고 하교한 지 오래 되었는데 오히려 거행하지 않으니, 매우 놀랍다. 시비가 정하여졌으므로 단연코 고칠 수 없으니, 곧 판본을 헌 뒤에 계문하도록 本道에 분부하라."는 별도의 지시까지 내리고 있다.

또 충청도 관찰사 李世勉과 병조참판 李大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숙종은 이를 엄하게 책망하고 결국 1717년(숙종 43) 5월 29일에 숙종은 동부 승지 金普澤의 상소를 받아들여 尹宣擧・尹拯 부자의 관작까지 추탈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718년(숙종 44) 3월 9일에는 결국 서원의 훼철까지 단행하였다. 그러나 1719년(숙종 45) 사헌부에서 '문집의 판본을 모두 부수게 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볼 때, 당시실제로는 문제시되던 일부분의 판목만 훼손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존되었음을 알 수 있다.

^{23)『}魯西遺稿』續集 권1「答權思誠」; '聖上若察愚衷 俾作今日之杜擧 則未必無補於 世教.

^{24) 『}明齋先生遺稿』別卷 3 書 擬與懷川書,答羅顯道 辛酉;擬與懷川書는 일명 辛酉擬書로 宋時烈에게 '王覇竝用 義利雙行'이라 언급한 부분과, 羅良佐에게 답한 편지에서 부친의 江都事를 '栗谷則猶不免眞有入山之失, 而先人之不死, 則初無可死之義'라 언급한 부분 등이다.

²⁵⁾ 판부사 趙相愚는 9월 4일 윤선거의 문집 板本을 혈라는 명을 거두고 상소에 대한 금령을 풀기를 청하였다. 9월 8일에 판중추부사 徐宗泰 역시 申球가 무함하여 법을 어긴 죄를 다스리고 尹宣擧의 문집 판본을 혈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다.

『石湖先生遺稿』는 1712년 6월 노서유고가 발간된 직후 魯岡書院의 院 儒들에 의해 편찬 작업이 추진되다가(이때 尹文擧의 문집도 추진) 1714년 尹拯이 졸한 후 院儒들이 유증의 潰稿 간행에 주력하게 되자 일시 중단되 었다 26)

『明齋遺稿』는 1732년에 발간된 후, 族曾孫 尹光紹에 의하여 1749년 『明齋先生年譜』가 간행되었다. 그리고 1779년(정조 3)에는 尹光紹가 魯岡 書院에서『明齋先生言行錄』을 추가로 간행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 말까 지 노강서원에는 所藏冊版으로 팔송유사 80판, 노서유고 538판, 명재년보 (부록 후록) 합 117판, 명재언행록 41판, 의례문답 158판, 우계속집 75판, 필적 58판, 삼은통고 40판, 강목 400판 등을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 진다

4. 上疏의 重修記錄

1) 上疏活動

노강서원 유생들이 조선후기의 민감한 정치적 상황에 대처하고 참여 • 결집하는 적극적인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27) 우선 그 결집 양상 의 대표적인 사례는 1769년(영조 45) 朴世采의 文廟黜享 상소로 빚어진 격렬한 찬반 논쟁에의 참여와, 1791년(정조 15)과 1878년(고종 15)의 서원 중수시, 그리고 1855년(철종 6)의 師門辨誣疏 과정에서도 엿보인다.

²⁶⁾ 그후 『石湖先生遺稿』는 1816년(순조 16)-1834년(순조 34) 어간에 노강서원에서 院 儒들의 주도로 발간되었다.

²⁷⁾ 이러한 연계망의 실체를 보여주는 1721-1894년의 尋院錄 時到記, 瞻拜錄 7책이 노강서원에 전해진다.

1769년(영조 45)의 朴世采의 文廟黜享 논쟁에서 영조는 소론의 주장에 지지를 보냈는데, 이때 노강서원 유생들도 서울에 입성하여 상소를 올렸고, 이에 참여한 여러 유생의 명단은 「己丑疏行時 京儒訪問錄」으로 남겨놓고 있다.28) 그리고 당시에는 到京儒生 梁舜廸 외 10인, 洛中儒生 尹東啓외 49인 등이 이 伏閣 上疏에 참여하였다. 한편 노강서원에는 趾泉楔라는 명재 윤증의 문인계가 조직되었는데 이 조직이 1759년(영조 35)에 중수, 재조직되었으며29) 己丑 疏行에 이들의 참여 지원도 큰 몫을 하였다.

그후 정조가 즉위한 1776년 4월 18일 유생 李明徽이 宋時烈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대하여 사학 유생 沈有鎭 등 노론 측은 상소의 내용이 尹宣擧 부자의 글에 근거한다고 하여 숙종 병신년의 처분에 따라처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때 정조는 이미 지난 병신년(1716년)에 처분이 있었던 사안이라 하여 미루었으나, 다음 달인 5월 22일(임진)에는 윤선거·윤증의 관작을 추탈하고 문집 훼판과 사액 철거를 명하였다. 그리하여 또 한 번의 丙申處分이 내려졌던 것이다.30) 그러나 2차 병신처분은 1782년 정조에 의해 尹宣擧 부자의 관작은 곧 회복되었다.

소론계의 연계망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되는 상소활동 자료가 1855 년(철종 6)의 伏閣上疏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 사건은 幼學 黃奎默, 吳爀 등 노론측 팔도유생 3,416인이 병신년의 處分에 따라 尹宣擧, 尹拯 부자의官爵을 追削하고, 시호도 금하며, 祠院도 철훼할 것을 주장한 것³¹)으로 이로서 윤선거 부자의 문집은 다시 한 번 殷板의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철종이 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윤선거 부자는 처벌에 연루되지 않았다. 이에 상소에 대해 찬동하는 쪽과 그 반대편이 번갈아 상소를 올리고 伏閣하며 격렬한 갈등 양상을 보였다.

^{28) 『}魯岡書院誌』 23, 己丑疏行時 京儒訪問錄.

^{29) 『}魯岡書院誌』 권3. 趾泉稧 己卯十月 重修座目.

^{30) 『}正祖實錄』1년 5월 22일(임진);追奪故執義尹宣舉、故右議政尹拯官爵,毁其文集,撤其祠額.

^{31) 『}哲宗實錄』 6년 8월 2일(임진) 및 8월 8일(무술).

노강서원의 유생들도 이때 12월 2일부터 약 1개월간 伏閣 상소로 반대 를 하였는데, 참여한 유생들의 명단과 활동상황이 『노강서원지』에 수록 되어 있다.「師門辨誣疏疏任」자료를 보면 疏頭는 유학 李鐘甲이었고 掌 議와 疏色, 製疏, 擇疏, 寫疏, 奉疏, 讀疏, 讀批, 陪疏 등 86인의 유생이 철 저하게 疏廳의 임무를 분담하고 있다.

그리고 「疏廳時 問遺錄」이라 하여 소청 시 소요된 물재를 출연한 내 용이 적혀있고,「伏閤時到記」와「伏閤時問遺錄」도 있다. 이때 판서 徐念 淳, 李敦榮 등의 물력부조와 노강서원의 지원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참가자의 거주지가 부기되어 있어 지역별 방문자의 통계를 알 수 있다. 이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도(41인): 공주(5), 노성(4), 당진(2), 대흥(1), 덕산(1), 면천(2), 보은(1), 부여(1), 연산(2), 영동(1), 예산(2), 음성(2), 임천(1), 정산 (1), 진잠(2), 진천(2), 청양(1), 충주(7), 홍주(2), 황간(1)

전라도(21인): 고창(2), 광주(1), 나주(4), 남원(6), 고산(1), 영광(1), 익산(2), 장성(1), 전주(1), 흥덕(2)

기 타(20인): 서울(3), 교하(1), 파주(4), 경주(3), 안동(4), 평산(1), 강릉(1), 춘천(1), 금천(1), 백천(1)

등이다.

2) 書院重修

한편 노강서원의 창건이후 중수기록은 매우 소략하여 연혁 중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노강서원지』 「역대중수부조록」에는 '경술년(1790) 12 월 발의하여 신해년(1791) 봄에 중수하였다'라는 주기가 있어 창건 후 120 년이 지난 1791년(정조 15)에 한차례 중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시 80여 년이 지난 1878년(고종 15)년에도 중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중수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부조록이 매우 충실하여 자료로써 가치가 크다.

1791년(정조 15) 중수시의 부조록에는 경상감사 이조원 이하 전국 각지의 지방관과 향교, 서원·사우, 별청, 문중, 종계, 동족마을의 유사, 생원진사, 유생, 개인 등 약 320여 처에서 米, 紙, 錢 등을 부조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부조 총액은 錢文 1,931냥이며, 백미 100석과 기타 물목의부조였다.32) 구체적으로는 전국 각지 수령들의 부조(130건)가 전체 錢文부조의 70%인 1,300여 량을 차지하고 있고, 호서지역의 소론계 가문에서 310량, 윤씨가에서 200량 정도를 부조하고 있다. 穀數는 노성현 사람이 20석, 윤씨들이 80여 석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물량보다 더 주목되는 것이 과거와 같은 서원, 향교의 부조는 거의 보이지 않고, 대신 소론계 가문 간의 부조가 일반화 되고 있 다는 점이다. 예컨대 隣近邑知舊土林(18건)이라 하여 임천 남산조씨(林川 郡 南山面 豊陽趙氏), 홍주 동계이씨(洪州 洪天面 東溪里), 공주 의랑이씨 (公州 儀郞面 全州李氏) 등등으로 표기되는 소론계 가문의 부조가 있으며, 그 지역분포도 과거처럼 도계를 넘기 보다는 임천, 홍주, 공주, 석성, 홍산, 연산, 진잠, 정산, 은진 등의 인접 고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본읍 사림의 경우(30건)에도 전처럼 鄕約이나 洞契는 보이지 않고 소론계 타성가문이 주이며, 윤씨들이 주도권을 지니고 있는 구산서원과 유봉영당, 두사별청, 덕포공 별청 등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윤씨 종중에서 수합한 부조(48건)는 총 200여 량, 80여 석에 달하는데, 대종계와 소종계, 각 계파별, 그리고 동족마을별 조직을 통하여 수합되고 있다. 「尹氏宗中所收」라는 부분을 보면 병사대종계, 구동대종계, 義倉, 宗學, 갈산・내촌・광성・당진공・후촌공 종계, 괴곡별청 등이 보이고 있다.

³²⁾ 부조록의 첫머리에 당시 물가가 백미 20두가 1석이고 1석을 돈으로 환산하면 3냥 4전이라 밝혀져 있다. 그리고 지방수령들의 물목 부조는 대개가 백지, 장지였다.

한편 1878년(고종 15)의 중수기록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않는데. 『魯岡 書院誌』刊3에 수록된「湖右繡衣 李建昌 本道別邑求請」과「完伯李敦相 湖南別邑求請, 條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때의 중수가 주목되는 특별한 이유는 1871년의 전국적인 서원훼철에서 노강서원이 살아남고, 또한 이처 럼 대대적인 중수를 통하여 그 위세를 자랑하고 있다는 점과, 당시 중수를 지원한 이건창과 이돈상의 사회적 명망과 지위 때문이다.

고종대의 중수에는 충청도에서 청주, 은진, 회덕, 전의, 한산, 청안, 청 산, 황간 등 8개 고을의 수령들과 전라도에서 감사, 병사, 영광, 해남, 무장 고을과 용담, 곡성 등 24개 향교가 부조하였다. 한편 이 부조록에는 노성 일원의 別廳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杜寺, 陽化, 彌堂, 盤 湖, 素谷, 陶谷, 咸恩別廳 등이 그것으로 모두가 파평유씨 소종계의 재실 이거나, 인연이 있는 인척 성씨들의 재실로 문중 결속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3) 千寅漕變(1902년)

한편 1902년(고종 39)에는 노강서워의 유황과 유문거의 위패가 도적맞 는 변고가 발생하였다. 조정논의로 까지 비화된 이 사건은 노강서워을 둘 러싼 갈등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고종실록』 39년(1902, 광무 6) 9월 7일자 기사에는 노강서워의 위패를 절도한 죄인을 붙잡아 엄하게 조 사하여 처리할 것 등을 청하는 장례원 경 이원일의 계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원일은 魯岡書院 유생들이 올린 사건 전말보고를 노성군수 閱尙鎬가 충청남도 관찰사 洪承憲에게 보고한 것이었다. 고종은 이때 특별히 '賜主 材木'하고 아울러 석성현감 李用基를 예관으로 파견하여 치제하였다(치 제문은 지제교 李能華 찬).

당시의 기록은 노강서원에 『壬寅事實』이란 책자로 상세히 정리되어

남아 있다. 「魯岡書院 遭變事實」이라 내제가 붙은 이 책자에는 이해 7월 20일 전 감역 趙秉鼎을 필두로 69명이 모여 회동한 사실과 문성공 위판 이안시 집사기, 이안시 축문, 노성 유림, 공주・연산・진잠・부여・석성・은진향교, 돈암서원에 보내는 통문, 그리고 본읍에 이안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요청하는 求請通文, 그런가하면 태학답통, 장예원 주본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해 10월에 봉안이 완료되며 이 과정의 참여 인명록과 鳩財錄이 첨부되어 있다. 한편 구 위판의 매안은 그 후 10여 년이지난 1911년에야 이루어지는데, 잃어버린 구 위판은 본손인 尹啓炳이 계룡산 암혈에서 찾아 왔다고 한다.33)

5. 맺음말

이상에서 호서지역의 소론계 서원의 首院이었던 魯岡書院을 대상으로 창건과 변천사에 관련되는 전승 자료의 유형과 그 성격을 정리하였다.

주지하듯 호서지역에서 魯岡書院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호서 예학, 서인계 학맥이 17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자, 魯岡書院은 호서지역 소론계 서원의 首院으로써 懷尼是非나 家禮源流 사건에 휘말렸고 결국 그 이론의 공급처이자 문인 후학들의 결집처가 되었다. 이는 노강서원에서 제향인물들의 문집이 발간되었고 보관되었던 사실, 창건, 연액, 중수, 기타 복합상소 등 노강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각

³³⁾ 이후 1920년 중수통문(韓珽錫 등)에서 보는 중수사실이나 6.25로 인한 피해를 기록 한 『경신사실』, 그리고 최근의 중수와 변천사를 합한 노강서원 근현대사 변화에 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다.

종의 정치적 활동과 관련 자료를 통해서 그 자취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특히 본고에서는 노강서원 자료 중에서 ① 창건과정 ② 사액과 문집 간행 ③ 상소와 서워 중수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실 이들 자료 이외에도 관련 자료가 상당부분 남아 전해지지만, 우선적으로 창건, 연혁, 변천사와 관련되는 부분만을 살핀 셈이다. 예컨대 瞻拜錄(時到記, 尋院錄)같은 서원 참배 인사들의 기록이라든가, 서원 운영의 실제를 보여 주는 完文, 그리고 用下記와 傳掌記, 賭租記 같은 사회경제사 자료 등도 다수가 확인된다. 이들 자료를 활용한 19세기 후반이후의 노강서원의 사 회경제사 자료, 운영과 조직관련 내용들은 별도의 글로 후속, 보완하고자 하다.

참고문헌

박연숙, 「조선후기의 서원경제에 대한 일고찰 -魯岡書院의 재정구조분석 을 중심으로-L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1989. 이해준 외.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17-18세기 서원의 당파적 성격」,『창해 박병국교수정년기념사 학논총』, 1994. , 『충남지방 서원자료의 성격」, 『충남의 서원・사우』, 1999. ____, 「명재 윤증가와 시남 유계의 교유」、『유학연구』15집、 충남대 유 학연구소, 2007. , 「호서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국학연구』11집, 한국국학진흥원, 2007. ____, 「호서사림의 유회활동과 동학사」, 『웅진문화』 22집. 공주향토문 화연구회. 2009. , 「유교문화 자원화를 위한 연구방법론」, 『충청학과 충청문화』9 권,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9. 외. 『서워보존ㆍ정비 관리방안 연구』, 문화재청. 2010. , 「호서 3대 명가의 모듬살이와 전통」, 『충남의 민속문화』, 충청남 도, 국립민속박물관, 2010. , 『조선후기 문중서원연구』, 경인문화사, 2008. 전용우, 「호서 서워 소고(I)」, 『호서사학』 21·22합집, 1994. 이연숙, 「돈암서원의 건립과 성격」, 『우강권태원교수정년기념논총』, 동 간행위원회, 1994. 전용우, 『호서사림 형성에 대한 연구』 충남대박사학위논문, 1994. 이정우, 「17-18세기 재지 노소론의 분쟁과 서원건립의 성격」, 『진단학보』 88집, 진단학회, 1999.

고수연, 「18세기 초 호서지역 서원의 당파적 성격」, 『호서사학』 29집,

2000.

- 김향숙, 「노서유고의 간행과 훼판에 관한 일고찰」, 『고인쇄문화』 15, 청주 고인쇄박물관, 2008.
- 황의동, 『기호유학 연구』, 서광사, 2009.
- 한기범, 「기호학파의 예학 경향과 예 문화 전개」, 『충청학과 충청문화』 9 권,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Type and Nature of the Materials of Nogang Memorial Hall

Lee. Hae-Jun*

This study presents an examination of the data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changing history of memorial halls in terms of types of materials and nature. Its concrete object of examination was Nogang Memorial Hall, which was the home to the Soron family in the Hoseo region. Data about memorial halls have been passed down in various formats and contents including historical data published by public agencies including the buildings and relics, old documents and anthologies, epigraphs on tablets, and episodes and myths. The study focused on ① the construction process, ② Sa-aek, Chije, and publication of anthologies and ③ appeals to the king and remodeling of the memorial hall of the data about Nogang Memorial Hall. In addition to those data, there are other data housed in the memorial hall and to be discussed separately.

Since Nogang Memorial Hall served as the base of the Soron family in the Hoseo region, an examination of its construction activities and changes will offer some hints at those of other memorial halls in the region. Nogang Memorial Hall was the source of the theories that contributed to such events

^{*} Kongju National University

in the separation process between Noron and Soron as Hoinishibi and Garyewonryu and the gathering place of the literary figures and younger scholars. The construction, Sa-aek, remodeling and public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anthologies of the local figures of Nogang Memorial Hall, the Sa-aek and Cheolaek in the middle of party strifes, damage to the printing blocks of the anthologies housed in the memorial hall, and removal and restoration of local figures in the government office all symbolically show the complicated political changes of the memorial halls in the Hoseo region.

Key words: Nogang Memorial Hall, Soron family, Hakgyu of Nogang Memorial Hall, publication of anthology, remodeling of the memorial hall, activities of presenting appeals to the king.

王陽明 書院講學의 理念과 實際*

이 우 진**

- 1. 머리말
- 2. 陽明과 관계된 書院들
- 3. 陽明 書院講學의 理念
- 4. 陽明 書院講學의 實際
- 5. 맺음말

국문요약

이 글은 양명과 관련된 서원을 조사하고, 그의 서원강학활동을 탐구하여, 양명 서원강학의 이념과 실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탐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양명과 관련된 서원들은 龍岡書院・貴陽書院・濂溪書院・白鹿洞書院・藉山書院・萬松書院・敷文書院이다. 그는 이 서원들을 철저히 강학을 위한 기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양명 서원강학의 주 내용은 心學이다. 그의 서원강학이념의 중심에는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본래적 도덕성[良知心體]만 발견하고 확인하면, 모든 인간은 聖人이라는 교육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이 놓

투고일: 2011년 11월 7일

심사일: **20**11년 11월 7일

심사확정일: 2011년 11월 25일

^{*} 이 글은 "拙稿, 「王陽明 工夫論의 敎育學的 解釋」(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博士學位論文, 2011)의 VI-1. 陽明의 講學活動: 敎育의 理念과 實際"를 바탕으로 하여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학 박사

182 韓國書院學報 1

여있었다. 곧 인간 내면에 담겨져 있는 도덕적 완성태[中:良知良能]에 확신을 바탕으로, 이 지점에 집중하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므로 경전 강학의 중심처는 良知心體였다. 마지막으로 양명 서원강학의 실제적 모습은「敎條示龍場諸生」에서 살펴볼 수 있듯, 立志・勤學・改過・責善의 네 단계를 가르침의 조목으로 규정한다. 특히 양명은 서로가 살피고 격려해야 주어야, 학문이 크게 성취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 조목들에서 볼 수 있듯, <학습자의 자발성에 호소하는 교육이야 말로 참된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주제어: 講學, 改過, 敎條示龍場諸生, 勤學, 書院, 心學, 良知, 立志, 責善

1. 머리말

양명학이 그 짧은 기간에 중국 전역에서 그토록 번성할 수 있었던 이 유는, 양명을 비롯한 그 후학들이 중국 전역에서 주도적으로 講會를 창립 하고 참여하면서 양명학을 전파했기 때문이었다. 講會라 講學의 모임이 다. 明代 강학은 서원의 일상적인 강학, 친구들의 부정기적인 강학, 지방 의 대중을 교화하는 향약과 같은 사회적 강학 등의 여러 형식을 띠고 있었 다.!) 양명은 이와 같은 여러 형식의 강학활동에서 서워 강학활동을 적극 적으로 창립ㆍ운영하였다. 역사적으로 양명과 그의 제자들은 명대에 서워 제도를 건립ㆍ부흥시키고 가장 열정적인 서워강학활동을 시행한 인물들 로 평가되고 있다.2) 양명이 이토록 서원강학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은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이었다. 여기서 학문적 성장은 지적 차 원이 아니라, 인간의 <자신의 내면적 본래성을 회복[復其性]>하는 덕의 차원이었다. 양명은 가르침[敎]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성장 이 필수적이고, 학문적 성장을 위해서는 가르침이 반드시 요청되었다고 파악했다. 곧 그는 가르침과 배움[敎學]은 二元的 構造가 아닌 <성인됨의 길을 가기 위한 통일체>이다.3)

¹⁾ 呂妙芬, 『陽明學士人社群: 歴史・思想與實踐』,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臺北, 2003, p.73.

²⁾ 丁淳睦, 『中國書院制度』, 文音社: 서울, 1990, pp.54~57; John Meskill, Academies in Ming China: a historical essay(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by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82) pp.84~85; 呂妙芬, 앞의 책, p.99.

³⁾ 王守仁 撰,『王陽明全集』7권「別王純甫序」(40세, 辛未: 1511)"敬問敎何以哉?" 陽明子曰: '其學乎! 盡吾之所以學者而敎行焉耳'曰: '學何以哉?'曰: '其敎乎! 盡吾 之所以教者而學成焉耳. …… 夫教, 以復其性而已.""<이 計 ひきす 『王陽明全集』 으 로 표기한다>

이 글은 양명의 서원강학활동을 탐구하여, 그가 지니고 있던 서원교육의 이념이 무엇이고, 그 서원강학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양명이 관계한 서원을 간략하게 탐색해 보도록하겠다. 다음으로 그 서원교육의 이념과 실제를 탐구하고, 그것이 어떠한의미를 지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2. 陽明과 과계된 書院들

양명이 관계한 서원은 龍岡書院・貴陽書院・濂溪書院・白鹿洞書院 ・稽山書院・萬松書院・敷文書院이다. 이는 양명이 관계한 시간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먼저 龍岡書院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書院은 양명이 龍場에서 <성인의 도는 나의 본성만으로도 자족되어 있기에, 외계의 사물에서 理를 구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4) 37세에 설립한 서원이다. 그가 주자학에서 규정한 格物致知의 의미를 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관심을 집중하였던 일이 교육활동이라는 점은 중요한의미를 지닌다.5) 이는 양명이 <유가적 성인됨의 길이 바로 교육사업과 불

^{4) 『}王陽明全集』33권「年譜」(一) (37세, 戊辰: 1508) "忽中夜大悟格物致知之旨, …… 聖人之道吾性自足, 向之求理於事物者誤也." <「年譜」는 『王陽明全集』의 33-35권 으로 세 권으로 나누어져있다. 1권은 양명의 탄생에서부터 47세(戊寅)시기까지, 2권은 48세(己卯)부터 50세(辛巳)까지, 3권은 51세(壬午) 이후를 나타낸다. 이하 간 단히「年譜」(권수) (○세, 六十甲子: 西曆)로 표기한다.>

⁵⁾ 뚜웨이밍에 따르면, "용장에서 양명이 교육에 열중한 것은 그의 책임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인간이 자기노력을 믿을 수 있다는 자신의 기본적인 신념을 실현했다는 증거이다. 이는 또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양명의 내적인 모색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용장에서 양명이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유도를 전하는데 바친 헌신은 다른 모든 관심을 넘어섰다. 비록 양명의 활동은 다양했지만 주된

가분의 일>이라고 생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龍場悟道는 사실상 <성인 됨의 길의 탐색>이기 때문이다. 그는 참된 儒道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후대에게 반드시 전해야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다. 하지만 그가 서워 강학활동에 전념한 것은 오직 道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은 아니었 다. 양명에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가장 커다란 기쁨이었기 때문이었다. 龍場은 워낙 음습한 지역이라. 토굴 속에 살 수 없어 벌목하여 寅賓堂, 何陋軒, 君子亭, 玩易窩와 작은 집을 지었다. 여러 학생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곳에 모여 龍岡書院이라 이름하기를 청하여 서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이곳에서 멀리 찾아온 제자들뿐만 아니라, 인 근 지역의 자제들을 모아서 가르침을 펼쳤다. 멀리서 와서 겨우 삼일을 묵고 떠나는 제자들에게 아무런 고마움도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었지만, 그는 제자들과 함께 있어 참으로 행복해했다. 부귀와 명예 도 바라지 않았지만, 그는 제자들과 함께 道를 논의하고 싶어 했다.7) 이와 같은 강학에 대한 양명의 열망은 <용장제생에게 보이는 가르침의 조목들 [「敎條示龍場諸生」]>으로 표현된다. 이 조목들은 양명의 서워강학활동의 구체적인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貴陽書院은 提學副使 席書와 관련이 깊다. 席書가 양명에게 '주희와 육상산의 같고 다름[朱陸同異]'를 질문하였을 때, 양명은 龍場悟道의 직접 적인 결과인 知行合一을 설파했다. 8) 席書는 몇 차례의 왕래 끝에 知行合

관심은 교육의 영역, 즉 자신의 표현을 빌린다면 講習에 있었다." <Tu wei-ming(杜 維明), 권미숙 옮김, 『한 젊은 유학자의 초상- 靑年 王陽明』, 서울: 통나무, 2006, pp.207~208>.

^{6) 『}年譜』(一) (37세, 戊辰: 1508) 春至龍場 … 以所居湫濕, 乃伐木構龍岡書院及寅賓堂 ・何陋軒・君子亭・玩易窩以居之:、『王陽明全集』19刊「龍岡新構」"諸夷以予穴 居頗陰濕、請構小廬、欣然趨事、不月而成、諸生聞之、亦皆來集、請名龍岡書院、"

^{7) 『}王陽明全集』19刊「諸生」"人生多離別, 佳會難再遇. 如何百里來, 三宿便辭去? 有 琴不肯彈, 有酒不肯御. 遠陟見深情, 寧予有弗顧? 洞雲還自栖, 溪月誰同步? 不念南 寺時, 寒江雪將暮? 不記西園日, 桃花夾川路? 相去倏幾月, 秋風落高樹. 富貴猶塵沙, 浮名亦飛絮, 嗟我二三子, 吾道有眞趣, 胡不携書來, 茆堂好同住."

⁸⁾ 知行合一에 대해서는 "拙稿, Ⅲ-4. 知行合一의 工夫論"을 참조 바람.

一의 의미를 깨닫고 貴陽書院을 수리 복원한 다음, 몸소 貴陽의 諸生을 이끌고 양명을 스승으로 모시는 禮를 행했다. 곧 席書는 양명을 귀양서원으로 초빙하여 강학을 주관하도록 하였는 데, 이때 양명은 38세였다.》

濂溪書院은 양명이 47세 되던 해, 贛州에 머물면서 三浰의 반란군을 평정한 공로로 都察院右副都御史에 올랐을 때 설립한 서원이다. 양명은 바쁜 군사적 업무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학자들과 講學하였다. 처음에는 학자들이 활쏘기 연습장[射圃]에서 머물렀는데, 사방의 학자들이 폭주하여 이 장소로는 수용 불가능하여, 그해 9월에 濂溪書院을 수리하여 거주케 하였다.10)

白鹿洞書院은 朱熹가 重修하고「白鹿洞書院揭示」를 통해 자신의 교육론을 펼친 장소로 유명한 곳이다. 양명은 이 서원에서 朱熹의 工夫論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致良知의 공부론을 강학주제로 삼는다. 동일한 장소에서 신유학의 두 거장들은 각기 다른 교육론을 설파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롭다. 양명이 50세 되던 해, 江西 南昌을 떠나기 전에 同門들과 오랫동안 시간을 갖고자 했다. 다행히 제자 蔡宗袞이 南康府學의 教授로, 白鹿洞書院의 院主를 맡고 있어서 이러한 모임을 가능케 했다. 양명이 제자들과 이러한 강학모임을 갖고자 한 것은, 바로 자신이 깨달은 良知學을 함께 밝히고자 했던 것이다.11)

^{9) 『}年譜』(一) (38세, 己巳: 1509) "**提學副使席書聘主貴陽書院**. …… 始席元山書提督學政, 問朱陸同異之辨. 先生不語朱陸之學, 而告之以其所悟. 書懷疑而去, 明日復來, 舉知行本體證之五經諸子, 漸有省. 往復數四, 豁然大悟, …… 脩葺書院, 身率貴陽諸生, 以所事師禮事."

^{10) 『}年譜』(一) (47세, 戊寅: 1518) "**九月, 脩濂溪書院**. 四方學者輻輳, 始寓射圃, 至不能容. 乃脩濂溪書院居之.

^{11) 『}年譜』(二) (50세, 辛巳: 1521) "**五月, 集門人於白鹿洞**. 是月, 先生有歸志, 欲同門久聚, 共明***此學**. ····· 時蔡宗袞爲南康府敎授, 主白鹿洞事." <여기서 此學이란 陽明이 깨달은 致良知 즉 良知學을 말한다. 『年譜』에는 양명이 致良知를 50세에 깨달은 것으로 말하나, 사실상 49세 6월말에서 8월 사이이다. 이 치양지 제창 시기에 대한 논의와 치양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拙稿, Ⅳ. 致良知의 工夫論"을 참조 바람>.

稽山書院은 양명이 53세 되던 해. 문인들이 전국에서 모여 나날이 늘 어나 무려 삼백여명이나 되어 열게 된 서원이다. 이 시기에는 학생들 스스 로가 강습하고 감독하도록 하였다. 양명이 강학을 직접 할 때에는, 그 내 용으로 『大學』의 萬物同體論을 시작으로 해서, 학생들 각자가 本性을 구 하여 致良知로서 止於至善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 언급하였다.12) 곧 그의 완숙한 사상이 이 서워강학에서 펼쳐지게 된 것이다. 특히 稽山書院을 再 開한 다음 해 작성한「稽山書院尊經閣記」에는 양명의 강학 이념을 구체 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記文은 그가 <經典講學>을 시행할 때, 어떠한 사유를 기반으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이다.

萬松書院은 양명 54세 越에 거주할 때, 提學僉事 萬潮와 監察御史 潘 倣이 새롭게 설립한 서원이다. 이 때 양명은 記文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아 써주게 된다.13) 이「萬松書院記」에 양명은 서원이 어떠한 강학을 해야하 는가를 기록하였다. 그렇기에 이 記文은 陽明 書院강학의 이념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敷文書院은, 양명이 57세 되던 해 사은・전주 지역을 평정 하였음 때. 南寧 지역의 <사회적 교화책>으로 교사와 학생들을 깨우치고 분발시키고자 하는 뜻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이었다. 그는 "理學이 밝지 않 고 인심이 함닉되어, 선비의 습관이 날로 교활해지고 風敎가 진작되지 않 는다"고 생각하여,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각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모아 놓고 강학하였다. 또 궁벽한 시골은 자신이 직접 가기 어려웠기에 원래 監察御史降을 하던 이를 학교의 主敎로 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敷文書 院의 주교는 자신의 제자인 季本으로 삼았다.14)

^{12) 『}年譜』(三) (53세, 甲申: 1524) "正月. 門人日進. …… 於是闢稽山書院, 聚八邑彦士, 身率講習以督之. …… 蓋環坐而聽者三百餘人. 先生臨之, 只發大學萬物同體之旨, 使人各求本性, 致極良知以*止於至善, 功夫有得, 則因方設教." <『王陽明全集』에는 *至於至善으로 되어 있으나、『四庫全書』 판본을 바탕으로 止於至善으로 바로잡 음.>

^{13) 『}年譜』(三) (54세, 乙酉: 1525) "四月, …… 提學僉事萬潮與監察御史潘倣拓新萬松 書院於省城南, 取試士之未盡錄者廩餼之, 咸以記請先生皆爲作記."

양명이 관계한 서원들은 조선의 서원들과는 차별점을 지니고 있다. 이 서원들은 조선의 서원들에서 발견되는 前學後廟의 특징을 발견할 수 없 다. 조선의 서원들은 前學後廟의 공간배치를 통해 이념적으로 學의 세계 와 道의 세계를 표상하고 있다. 즉 강학공간이 學의 세계에 관여하고 있다 면, 道統的 세계에 몸담고 있는 제향공간은 道의 세계를 표상한다.15) 하지 만 양명은 서원을 강학을 위한 공간만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3. 陽明 書院講學의 理念

양명은 주자학적 공부론에 좌절하고 老佛의 초월을 지향하고자 했을 때, 陽明洞에서 儒家 공부론에 대한 실존적인 확신을 하게 된다. 그가 儒家로 복귀하였을 때, 儒者로서 공식적으로 시행한 일은 바로 교육활동이었다. 양명은 知友 湛若水와 함께 聖學을 제창하면서,16) 제자들을 최초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17) 그는 화려한 문장의 수식이나 雜學多識 그리고 科學 공부가 아닌, 성인됨의 자기 수양의 길이 진정한 유가의 공부임을 제자들에게 보이고자 하였다. 이는 구태의연하고 수동적이면서도 폐쇄적

^{14) 『}年譜』(三) (57세, 乙酉: 1528) "六月, 興南寧學校. 先生謂: '理學不明人心陷溺 是以 土習日偷, 風教不振. 日與各學師生朝夕開講, 已覺漸有奮發之志. 又恐窮鄉僻邑, 不 能身至其地, 委原任監察御史降合浦縣丞陳逅主教靈山諸縣, 原任監察御史降揭陽 縣主簿季本主教敷文書院."

¹⁵⁾ 丁淳佑,「한국의 전통시대 교육공간의 구성 원리」,『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서원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국가브랜드위원회・문화재청, 2011, pp.64~65.

^{16) 「}年譜」(一) (34세, 乙丑: 1505) "惟甘泉湛先生若水時爲翰林庶吉士, 一見定交, 共以倡明聖學爲事." 참고로 湛若水가 쓴「陽明先生墓誌銘」에는 양명과 처음 사귀게 된 시기를 양명 35세(丙寅)로 기술하고 있다.

^{17) 「}年譜」(一) (34세, 乙丑: 1505) "在京師. 是年先生門人始進."

인 당시 유학을, 양명이 믿고 있던 본래의 유학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노력 이었다. 그는 본원의 유학이란 성인됨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과거에 합격하여 이름을 날리거나 출세가도를 달리는 일은 결코 유학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암기력과 문장표현력을 늘리는 기능적 차원의 일에 불과한 것이었다. 유학은 자기 실존적인 영역이다. 자기 스스 로가 지금 이대로의 삶의 껍데기에 둘러싸여 있지 않고, 좀 더 의미있고 가치로운 존재로 탈각하는 활동인 것이다. 곧 자신의 몸과 마음의 전 존재 를 본원적 또는 초월적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는 학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은 身心之學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18) 이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자면 聖學이다. 하지만 양명의 이러한 교육행위는 당시 지식인들에 게 그가 유명해지고 싶어 기이한 이론을 세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는 이러한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講學에 전념하였다. 양명은 제자 들에게 무엇보다 <聖人됨의 뜻을 반드시 확립해야 할 것[立志]>을 강력하 게 주문했다.19) 이는 바로 양명의 교육활동은 그 시작부터 <聖人됨을 교 육목적으로 삼았음>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양명은 <학교는 成德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파악했다. 어떤 학생은 禮樂에 뛰어나고 어떤 학생은 政敎에 뛰어나며 어떤 학생은 토지 농업에 뛰어나다. 이처럼 그 재능에 있어서 모든 학습자들은 차이를 보이 지만, 그 목적은 모두 동일하게 <德의 성취>에 있어야 한다고 양명은 생 각했다.20) 그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마저도 덕의 결과로서 이해한 다. 천부적인 덕을 완전하게 실현한 인물[君子]이 된다면, 어떠한 전문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다 해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君子는 내면의 天理에

¹⁸⁾ 뚜 웨이밍은 이 心身之學을 "외적으로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부로 부터 삶의 길을 변형시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Tu wei-ming, 앞의 책, p.147).

^{19) 「}年譜」(一) (34세, 乙丑: 1505) "是年先生門人始進. 學者溺於詞章記誦, 不復知有身 心之學. 先生首倡言之, 使人先立必爲聖人之志. …… 至是專志授徒講學. 然師友之 道久廢,咸目以爲立異好名."

^{20) 『}傳習錄』中刊, 142조목"學校之中、惟以成德爲事, 而才能之異, 或有長於禮樂, 長於 政教、長於水土播植者、則就其成德、而因使益精其能於學校之中."

純一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자 하여, 그 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예를 획득할 수 있다. 곧 양명은 전문적 지식과 기예의 획득도 중요하게 보지만지만, 내면적 도덕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을 더 우위에 놓았던 것이다.²¹⁾ 그는 당시의 교육이 도덕적 측면을 배제하고, 전문적 지식과 기능만을 추구하는 당대의 교육적 현실에 대해 심각하게 비판하였다.²²⁾ 이처럼 그는 학교교육을 <成德 즉 성인됨의 문제>와 한정시켜 연결하였다. 그는 「重修山陰縣學記」에서 학교가 가르쳐야 할 학문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와 같이 기술한다:

聖人의 학문은 心學이다. 그 마음을 다하는 것을 배울 뿐이다. 요ㆍ순ㆍ

²¹⁾ 내면적 덕과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양명의 생각은 다음의 언급에서 확인할수 있다: "사람은 각각의 자질에 따라 성취해야 하는 것으로, 자질은 그가 이룰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變의 음악적 기예나 稷의 과종 기술은 그의 타고난 자질과 성품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또한 다만 그의 心體가 天理에 純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운용처가 모두 天理를 따라 발하여 나온 뒤라야 그것을 才能이라고 하는 것이다. 天理에 純一한 경지에 도달한다면 또한 그릇과 같이오직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夔와 稷에게 그 기예를 바꾸어 행하게 했더라도 또한 당연히 잘할수 있었을 것이다." (『傳習錄』上권, 67조목 "人要隨才成就. 才是其所能爲, 如變之樂, 稷之種. 是他資性合下便如此. 成就之者, 亦只是要他心體純乎天理. 其運用處, 皆從天理上發來, 然後謂之才. 到得純乎天理處, 亦能不器. 使變稷易藝而爲, 當亦能之.")

²²⁾ 당시 교육현실에 대한 양명의 비판은 다음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記誦의 광대함은 오만함을 기르는 역할을 하고, 지식의 많음은 惡을 행하는 도움을 줄 뿐이며, 넓은 見聞은 수많은 논변에 가담하게 할 뿐이고, 풍부한 작문능력은 거짓을 꾸미는 데 적합할 뿐이다. 따라서 皐[형법담당]와 變[음악담당], 稷[농사담당]과 契[교육담당]같은 인물들조차도 겸할 수 없었던 지식들과 기예들을, 지금은 처음 배우는 어린 학생들조차도 모두 그 학설에 통하고 그 기예를 획득하고자 한다. '나는다른 사람들과 함께 천하의 일을 다 이루고자 한다'고 구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도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사적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것에 있다." (『傳習錄』中권, 143조목 "記誦之廣, 適以長其敖也. 知識之多, 適以行其惡也. 聞見之博, 適以肆其辦也. 辭章之富, 適以飾其僞也. 是以皐變稷契所不能兼之事, 而今之初學小生, 皆欲通其說, 究其術. 其稱名僭號, 未嘗不曰吾欲以共成天下之務. 而其誠心實意之所在, 以爲不如是, 則無以濟其私而滿其欲也。")

우가 (道를) 주고받으며 이렇게 말했다: "人心은 위태롭고 道心은 은미하 니, 오직 精一하여 진실로 그 中음 잡음 수 있다." 道心이란 본성을 따르는 것[率性]을 일컫는 것이요, 人欲이 섞이지 않은 것이다. 소리도 없고 냄새 도 없으며, 지극히 은미하나 드러나는 것으로, 誠의 근원이다. 人心은 곧 인욕이 섞여 위태로운 것으로, 거짓의 단초이다. …… 道心에 한결같으면, 그것을 보존함에 中이 아님이 없으니, 發하여 和가 아님이 없다. 이러한 까 닭에 道心을 따르면 父子에게 발함에 親하지 않음이 없고, 君臣에게 발함 에 義가 아님이 없고, 夫婦・長幼・朋友에게 발함에, 분별[別]・차례[序]・ 믿음[信]이 아님이 없다. 이를 中節之和라 하니, 천하의 達道이다.23)

이와 같이 학교교육의 主 內容은 心學과 明倫이 되어야 한다. 물론 양 명은 학교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서원 교육의 내용도 동일하게 생각하 고 있었다. 「萬松書院記」에 살펴 볼 수 있듯이, 양명은 <당시의 학교가 그 건물의 이름만 明倫을 내세울 뿐, 사실상 스승과 제자가 과거시험을 중심 으로 하는 記誦辭章에 치달리고 이익과 손해만을 계산하는[得喪] 학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가 보기에, 이러한 교육은 三代의 뜻이 아 니며, 선비들이 그 본래의 마음을 잃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원은 이러한 당대 학교교육의 병폐를 치료하는 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치료법은 바로 옛 성현의 학문인 明倫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24) 양 명은 明倫을 이와 같이 설명한다:

^{23) 『}王陽明全集』7권「重修山陰縣學記」(54세, 乙酉: 1525) "夫聖人之學, 心學也. 學以 求盡其心而已. 堯・舜・禹之相授受曰: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道心者, 率性之謂, 而未雜於人. 無聲無臭, 至微而顯, 誠之源也. 人心, 則雜於人而危 矣, 僞之端矣. …… 一於道心, 則存之無不中, 而發之無不和. 是故率是道心而發之 於父子也無不親; 發之於君臣也無不義; 發之於夫婦・長幼・朋友也無不別・無不 序・無不信; 是謂中節之和, 天下之達道也."

^{24) 『}王陽明全集』7刊「萬松書院記」(54세, 乙酉: 1525) "夫三代之學, 皆所以明人倫; 今之學宮皆以<明倫>名堂, 則其所以立學者, 固未嘗非三代意也. 然自科學之業盛, 士皆馳鶩於記誦辭章、而功利得喪分惑其心、於是師之所教、弟子之所學者、遂不復 知有明倫之意矣. 懷世道之憂者思挽而復之, 卒亦未知所措其力. …… 今書院之設 固亦此類也歟? …… 是固期我以古聖賢之學也. 古聖賢之學、明倫而已."

堯舜이 서로 (道를) 주고받으며 이렇게 말했다: "人心은 위태롭고 道心은 은미하니, 오직 精一하여 진실로 그 中을 잡을 수 있다." 이것이 인륜을 밝히는[明倫] 학문이다. 道心이란 본성을 따르는 것[率性]을 일컫는 것이요, 人心이라 거짓[爲]이다. 人爲에 섞이지 않고 따르는 것은 道心이요 그것을 發用하는 것이니, 그 情으로 말하면 喜怒哀樂이 되고, 그 일[事]로 말하면中節之和가 되어, 三千三百 經曲의 禮가 된다. 그 인륜[倫]으로 말하면 父子의 친함이요, 君臣의 義요, 夫婦의 분별이요, 長幼의 차례요, 朋友의 믿음이니, 天・地・人 三才의 道가 이를 다한다. 舜이 契을 司徒로 임명하여천하에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이 (人倫)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진실로 천하 고금의 성현과 어리석은 이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혹 어둡게 됨은 物欲이 그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中에는 갖추지 않은 바가 있다고 생각하여, 外物에서 빌려 구할 필요가 없다. 이는 진실로 이른바 사려하지 않아도 아는 그 良知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 良能이다.25)

이 언급에서 볼 수 있듯, 양명은 <人倫과 禮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 귀속>시키고 있다. 그는 마음에 거짓이 없고 순수함을 유지하게 되면, 일 상적 禮儀節目은 모두 절도에 맞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 근간 은 바로 인간이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良知良能에 대한 확신>이었다. 이 良知良能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수많은 도덕적 실천을 위한 근간으로 작용한다. 주자학에서 요청하는 대로, 독서와 강학을 통해 올바 른 예의절목들을 학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주해야 할 그 수많은 예의절목들을 어느 세

²⁵⁾ 社会 平 "堯·舜之相授受曰:'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斯明倫之學矣. 道心也者,率性之謂也,人心則偽矣.不雜於人偽,率是道心而發之於用也,以言其情則爲喜怒哀樂;以言其事則爲中節之和,爲三千三百經曲之禮;以言其倫則爲父子之親,君臣之義,夫婦之別,長幼之序,朋友之信;而三才之道盡此矣.舜使契爲司徒以教天下者,教之以此也.是固天下古今聖愚之所同具,其或昧焉者,物欲蔽之.非其中之所有不備,而假求之於外者也.是固所謂不慮而知,其良知也;不學而能,其良能也."

월에 다 궁구할 수 있다 말인가? 양명이 보기에, 이러한 외적 탐구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인간 내면에 담겨져 있는 도덕적 완성태[中: 良知良能]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그는 우리에게 담겨진 천부적 도덕성을 확신하 고, 이 지점에 집중하기를 요청한다. 그러므로 그의 講學은 경전 내용의 이해와 지식 획득의 차원이 아니라, <본래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物欲을 제거하는 것>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바로 양명 강학의 중심처는 心學 의 지점이다. 이 경전강학에 대한 양명의 이념은 「稽山書院尊經閣記」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그는 말한다:

- 1) <經은 常道이다.> · · · · 그 常道가 하늘[天]에 있는 것을 命이라 하고, 그 사람[人]에게 부여된 것을 본성[性]이라 하고, 그 몸[身]을 주재하는 것을 마음[心]이라 한다. 心・性・命은 하나이다. 사람과 사물[人物]을 관통하 고, 四海에 도달하며, 天地에 가득차고, 古今에 걸친 것으로, 어느 곳에 도 갖추어두지 않은 적이 없으며, 어느 곳에도 똑같지 않은 적이 없어서 혹 변한 적도 없기에, 常道이다. 그 (常道가) 감응하는 것이 惻隱이 되고, 羞惡가 되고, 辭讓이 되고, 是非가 된다. 그것들이 사사물물에 드러나면 父子의 친합이 되고, 君臣의 義가 되며, 夫婦의 구별이 되고, 長幼의 차 례가 되며, 朋友의 믿음이 된다. ……
- 2) <六經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常道이다.> 그러므로 『易』은 내 마음의 陰陽消息을 뜻하고, 『書』는 내 마음의 紀綱과 政事를 뜻하며, 『詩』는 내 마음의 노래[歌詠]와 性情을 뜻하고, 『禮』는 내 마음의 조리 와 절문을 뜻하고, 『樂』은 내 마음의 기쁨과 和平을 뜻하며, 『春秋』는 내 마음의 진실과 거짓[誠僞] · 삿됨과 올바름[邪正]을 뜻한다. ……
- 3) 옛날 성인께서 人極을 붙잡고 후세를 근심하여 『六經』을 저술하신 것 은, 비유하자면 이와 같다: "부유한 집안의 아비와 할아버지가 그 산업 과 창고에 저장해 둔 것을 자손에게 전해준 것이 혹 잃어버리고 산실되 어 마침내 곤궁하여 자신도 보전하지 못할까 걱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들 은 집안에 있는 재산목록을 기록하여 자손에게 넘겨주어 대대로 그 산 업과 저장물의 누적된 것을 지켜 누리고 사용하여 곤궁한 생활에 대한

걱정을 시키지 않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六經』은 내 마음의 재산목록이요, 『六經』의 내용은 내 마음에 구비되어 있다. 이는 마치 산업과 창고에 저장해 둔 것의 내용이 형형색색으로 그 집안에 갖추어 보존되어 있는 것과 같은데, 그 기록해 둔 것은 다만 명칭과 형상[名狀]과 수량[數目]일 뿐이다. 그런데 세상의 학자들은 『육경』의 내용을 내 마음에서 구할 줄을 모르고 〈④: 한갓 그림자와 메아리와 같은 모호한 사이에서 찾고 말단적인 문장의 의미에 이끌려서> 옹졸하게 그것만을 『육경』으로 생각한다. 이는 부유한 집안의 자손이 그 창고에 보관된 것과 산업의 내용물을 지키고 살피는데 힘쓰지 아니하고 날마다 잊어버리고 산실하여 거지가 되었어도, 오히려 시끄럽게 그 재산목록을 가리키면서 "이것이우리 창고에 저장해 놓은 것이다"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무엇이 이와다르겠는가? ……

4) 오호라! 세상의 학자들이 나의 설을 깨달아서, <이 (常道)를 자신의 마음에서 구하면, 이 또한 經을 존중하는 이유를 아는 것에 가깝지 아니하겠는가?>26)

양명은 이 記文에서 經이 <經書로서의 經>과 <常道로서의 經>이란 중 충적 개념을 지닌 단어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교육적 논리를 펼쳐나간다.

^{26) 『}王陽明全集』7刊「稽山書院傳經閣記」"經,常道也. 其在於天謂之命,其賦於人謂之性,其主於身謂之心. 心也,性也,命也,一也. 通人物,達四海,塞天地,亘古今,無有乎弗具,無有乎弗同,無有乎或變者也,是常道也. 其應乎感也,則爲惻隱,爲羞惡,爲辭讓,爲是非;其見於事也,則爲父子之親,爲君臣之義,爲夫婦之別,爲長幼之序,爲朋友之信. …… 六經者非他,吾心之常道也. 故易也者,志吾心之陰陽消息者也;書也者,志吾心之紀綱政事者也;詩也者,志吾心之歌詠性情者也;禮也者,志吾心之條理節文者也;樂也者,志吾心之欣喜和平者也;春秋也者,志吾心之誠僞邪正者也. …… 蓋昔者聖人之扶人極,憂後世,而述六經也,猶之富家者之父祖慮其產業庫藏之積,其子孫者或至於遺忘散失,卒困窮而無以自全也,而記籍其家之所有以貽之,使之世守其產業庫藏之積而享用焉,以免於困窮之患. 故六經者,吾心之記籍也,而六經之實則具於吾心;猶之産業庫藏之實積,種種色色,具存於其家. 其記籍者,特名狀數目而已. 而世之學者,不知求六經之實於吾心,而徒考索於影響之間,牽制於文義之末,硜徑然以爲是六經矣. 是猶富家之子孫不務守視享用其産業庫藏之實積,日遺忘散失,至於窶人匄夫,而猶囂囂然指其記籍曰:'斯吾產業庫藏之債也.'何以異於是! …… 嗚呼! 世之學者得吾說而求諸其心焉,其亦庶乎知所以爲尊經也矣.

그는 먼저 1)에서 <常道로서의 經>에 주목한다. 經은 대상적・공간적・시 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불변의 진리[常道]이다. 양명은 이 불변의 진리에 속하는 것들로, 心・性・命과 四端 그리고 人倫을 들고 있다. 이제 2)에서 양명은 經의 의미를 經書로 전환한다. 곧 經書가 常道임을 말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의 축자영감설처럼27), 經書가 성인이 작성한 불변의 진리이기 에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는 경전근본주의가 아니다. 양명이 생각하기 에, <經書가 常道인 이유는, 經書가 '常道인 내 마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 문>이다. 그가 설명하고 있듯이, 『易』・『書』・『詩』・『禮』・『樂』・『春 秋』의 경전들은 <내 마음의 실상을 각기 다른 각도에서 그려내고 있다.> 1)에서 볼 수 있듯 마음은 常道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그려내고 있는 이 『六經』은 常道일 수밖에 없다. 양명에게 『四書五經』은 이 마음의 본체[心體]를 말한 데 불과하다.28) 성인이 경전을 작성한 이유는 3)에서 제시된 비유에서 볼 수 있듯, 부유한 집안의 조상이 그 후손들이 집안의 재산을 지킬 수 없을까 걱정되기에, 그 재산목록을 기록하여서 집안의 재 산을 잘 보존하기를 요청했던 것과 같다. 곧 성인은 경전이라는 재산목록 을 통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무진장한 보물의 <本心[心體: 良知]을 잃 지 않고 잘 보존하기를 요청했던 것>이다. 때문에 양명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성인께서 經典을 서술한 까닭은 단지 사람의 마음을 바로 잡고 자 하신 것으로, 단지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고자[存天理去人欲]

²⁷⁾ 逐字靈感說[Biblical inspiration]은, 디모데후서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구절에 바탕하여, 성경의 글자 하나 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 었기 때문에 단 한글자도 틀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논리이다.

²⁸⁾ 양명은 『四書五經』을 이와 같이 표현한다: "반드시 마음의 본체[心體]에서 공부해 야만 한다. 이해되지 않아서 실행할 수 없다면, 반드시 돌이켜 자기 마음에서 체득 해야 한다. 그러면 곧 통할 수 있게 된다. 생각건대 『四書五經』은 이 마음의 본체를 말한 데 불과하다. 이 마음의 본체가 곧 이른바 道心이다. 마음의 본체가 밝게 되면 곧 도가 밝게 되는 것으로, 이는 둘로 나눌 수 없다. 이것이 학문의 두뇌처이 다."(『傳習錄』上刊、31조목"須於心體上用功. 凡明不得、行不去、須反在自心上體 當, 即可通. 蓋四書五經, 不過說這心體. 這心體即所謂道心. 體明即是道明. 更無二. 此是爲學頭腦處.)

하신 것이다.29)" 곧『四書五經』의 의의는 存天理去人欲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30) 그런데도 세상의 학자들이 經典의 眞髓를 마음에서 구하지 않는다. 특히 ⑥에서 언급하는 <한갓 그림자와 메아리와 같은 모호한 사이에서 찾고 文義의 말엽에 이끌리는 것>이라 표현한 양명의 언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바로 주희와 정현에 대한 비판으로, 양명은 天泉橋에서 제생들에게 이와 같이 詩를 읊은 바 있다:

그림자와 메아리를 좆기에 朱仲晦[주희]는 여전히 의심스럽고, 지리멸렬하기에 鄭康成[정현]은 부끄럽게 만든다.31)

이 두 사람의 공부 방식은 보물을 잃어버리고서 재산목록을 펼쳐 보이며 "나는 부자다"라 소리치는 것과 같다고 양명은 판단했다. 그는 4)에서 <경을 높이는 법[尊經]>을 이야기한다. 그 법은 다름 아닌『六經』의 본질인 나의 마음에서 常道를 구하는 것이다. 聖賢이 글을 통해 나타낸 것은 마치 초상화를 그려서 인물의 정신을 전하는 것과 같다. 곧 초상화가 인물의 대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 그림에 의거해서 인물의 본모습을 탐구하게 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인물의 정신이나 기분, 말하고 웃는 모양이나 행동은 결코 전할 수 없는 부분이다.32) 초상화는 초상화일 뿐, 인물 자체가 아니다. 경전도 마찬가지다. 경전에 제시된 것은 사실상 내 心體의 재산목록이다. 그 경전을 탐색하는 것은 나의 心體를 발견하고, 그것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기약하는 것이다. 경전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고 이를 악기하고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진정

^{29) 『}傳習錄』上刊, 11조목"聖人述六經, 只是要正人心, 只是要存天理去人欲."

^{30) 『}王陽明全集』7·司 「示弟立志說」(44세, 乙亥: 1515) "若五經·四書是已. 吾惟欲去吾之人欲, 存吾之天理, 而不得其方, 是以求之於此."

^{31) 『}王陽明全集』20·司「月夜二首」<與諸生歌于天泉橋> "影響尚疑朱仲晦, 支離羞作 鄭康成."

^{32) 『}傳習錄』上刊, 20조목"先生曰, 人心天理渾然. 聖賢筆之書, 如寫眞傳神, 不過示人以形狀大略, 使之因此而討求其眞耳. 其精神意氣, 言笑動止, 故有所不能傳也."

중요한 것은 그 경전을 통해 去人欲存天理의 방법을 획득하여, 자신의 내 면적 본래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전 강학의 중심처는 心體일 수밖에 없다.

글을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문자의 표면적 의미에만 천착하기 때 문이다. 반드시 마음의 본체[心體]에서 공부해야 한다. 경전 내용이 이해되 지 않아서 실행할 수 없다면 반드시 돌이켜서 자기 마음에서 체득해야 한 다. 이것이 학문의 두뇌로, 그때서야 비로소 경전의 의미가 통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四書五經』은 이 마음의 본체를 말한 것이며, 이 마음의 본 체가 바로 道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인하지 않으면 마음과 천리가 혼 연히 하나가 되는 성인의 경지를 결코 파악할 수 없다.33)

물론 경전에 담겨있는 <마음의 본체[心體: 道心]와 存天理去人欲의 방 법>을 체인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있어야 한다. 양명 이 표현한 대로, 기필코 성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몽둥이로 한 대 내려 치면 몽둥이 자국이 남고, 손바닥으로 한 대 내려치면 손바닥 만한 핏자국 이 생기도록> 시시각각 절실하게 힘써야, 경전 구절의 본 의미를 알고 거 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34) 여기 <경전을 공부할 때 몽둥이로 한 대 내 려치면 몽둥이 자국이 남고. 손바닥으로 한 대 내려치면 손바닥만한 핏자 국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는 양명의 표현은, 분명 주희의 표현에서 빌려 왔을 것이다.35) 하지만 그 표현은 같더라도 그 지향점은 극히 다르다. 주 희의 공부론이 지향하는 지점은, 경전과 같은 객관적 지식의 섭렵을 통해

^{33) 『}傳習錄』上刊, 31조목"問, 看書不能明. 如何. 先生曰, 此只是在文義上穿求. 故不 明. 如此, 又不如爲舊時學問. 他到看得多, 解得去. 只是他爲學, 雖極解得明曉, 亦終 身無得. 須於心體上用功. 凡明不得, 行不去, 須反在自心上體當, 卽可通. 蓋四書五 經、不過說這心體. 這心體即所謂道心. 體明即是道明. 更無二. 此是爲學頭腦處."

^{34) 『}傳習錄』下刊, 331조목 "先生曰, 諸公在此, 務要立箇必爲聖人之心. 時時刻刻, 須是 一棒一條痕, 一摑一掌血, 方能聽吾說話, 句句得力."

^{35)『}朱子語類』10권, "須是一棒一條痕! 一摑一掌血! 看人文字, 要當如此, 豈可忽略!"

온전한 행위와 파단을 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양명의 언급은 경전을 통해, 시비판단의 근원처인 자신의 본심[良知]을 발견하고 이것이 현실에서 드러나 올바른 인간이 되는 것을 요청한다. 때문에 주자학에서 <객관적 物理의 온전한 이해>를 의미했던 格物의 의미를, 양명은 格意[意 를 바로잡음]로 변화시켰던 것이다.36) 이는 格物의 의미가 지식의 축적에 서 인욕의 감손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주자학에서도 경전의 탐구를 통해 <인욕의 감손과 본심의 회복>을 추구하지만, 그 공부는 경전 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학습자의 무조건적인 추종에 있다. 반면 양명은 경전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학습자의 무조건적인 추종을 요구하지 않는 다. 그가 신뢰하고 추종해야 할 지점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本心[良知: 心 體[이다. 그는 지식과 재능의 측면에서 성인을 추구하는 것을 거부한다. 성인되는 근본이 良知天理에 순수한 것임을 모르고, 오히려 지식과 재능 의 측면에서만 성인을 추구한다면, 헛되이 정력을 낭비하여 서책을 연구 하고 명칭과 기물을 고증하며 형체와 흔적을 모방할 뿐이라고 양명은 경 고한다. 그는 지식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인욕은 재주와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리는 더욱 더 가려진다고 파악한다. 곧 지식과 人欲은 비례하 며, 재주와 능력은 天理에 반비례한다.

덕성을 함양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부족함을 보게 되지만 날마다 넉넉해질 것이고, 지식과 견문을 추구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지식이 늘어남을 보게 되지만 날마다 부족해지게 된다.37)

이처럼 양명은 <진정한 공부를 나날이 줄어드는 감손의 차원으로 파

³⁶⁾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拙稿, Ⅲ-3. 工夫의 차원: 格物의 새로운 지평"을 참조 바람.

^{37) 『}傳習錄』上刊,116圣목"因論,先生之門,某人在涵養上用功,某人在識見上用功. 先生曰,專涵養者,日見其不足.專識見者,日見其有餘.日不足者日有餘矣.日有餘 者日不足矣."

악하지, 나날이 늘어가는 축적의 차원으로 파악하지 않는다.>38) 그의 강 학이념은 근원적으로 心學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경전은 이 本心[良知]의 표현이며, 本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도구이다. 양명에게 경전은 결코 시비선악의 판단근거가 아니다. 진리의 근원처는 마음일 뿐 이다. 이러한 사실은, 양명이 강학을 시행할 때에 어떠한 형태를 띠었는지 를 알게 해준다. <경전이 心體의 목록이며 心體를 보존할 수 있는 存天理 去人欲의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평가하는 것을 볼 때, 그가 결코 강학에 서 경전을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경 전은 어디까지나 내면의 덕성[良知: 本心]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 서이다. 그의 강학의 목표 지점은 경전이 아닌 心體인 것이다. 다시 말해, 그의 서원강학 이념에는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본래적 도덕성[良知心體] 만 발견하고 확인하면, 모든 인간은 聖人이라는 교육목표에 도달할 수 있 다>는 믿음이 놓여있다.

4. 陽明 書院講學의 實際

양명 서원강학의 실제적 모습은 「敎條示龍場諸生」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가르침의 조목[敎條]을 立志・勤學・改過・責善의 네 가지로 규정 하고, 제자들이 이 일들을 바탕으로 서로가 살피고 격려해야 주어야, 학문 이 크게 성취될 것이라고 요청했다.39) 이 네 가지 조목은 양명 서원강학의

^{38) 『}傳習錄』上刊, 99조목"後世不知作聖之本, 是純乎天理, 卻專去知識才能上求聖人. 以爲、聖人無所不知、無所不能. 我須是將聖人許多知識才能、逐一理會始得. 故不務 去天理上着工夫, 徒弊精竭力, 從冊子上鑽研, 名物上考索, 形迹上比擬. 知識愈廣, 而人欲愈滋, 才力愈多, 而天理愈蔽. …… 先生又曰, 吾辈用功, 只求日减不求日增." 39) 『王陽明全集』26刊,「教條示龍場諸生」"諸生相從於此,甚盛. 恐無能爲助也,以四

방법론이 혼자하는 공부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부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문은 결코 혼자 이루기 어렵다. 서로가 서 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때 그 효과는 배가 된다. 특히 明倫과 成德을 이 룩하고자 하는 양명 서원 강학의 이념에서, 붕우와 사제간의 관계맺음을 통해 학문의 성장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는 심지어 무리를 떠나 혼자 공부하려는 것은 아직 게으름과 타성에서 벗어 나지 못한 것이며, 모였을 때는 강습을 하기를 요청했다. 양명은 말한다:

대개 우리들의 習染이 이미 오래되어, 반드시 벗들이 서로 옆에서 도와 줘야만 한다. 무리를 떠나 혼자 기거하려는 것은 곧 게으름과 타성에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여러 제군들이 함께 머무름에 있어서는, 항상 강습을 하는 것이 좋다.40)

양명은 공부의 시작점을 立志로 규정한다. 立志는 학문의 목표를 설정하고 명료화하는 일이자, 주체로 하여금 학문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강화하는 과정이다.41) 그는 학문의 길을 나서는 학생들에게 입지를 통해 자신이 이 학문을 왜 하는가에 대하여 실존적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요청한다.

뜻[志]이 확립되지 않으면 천하의 어떤 일도 성사시킬 수 없기에,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지녔다고 할지라도, 뜻이 근본으로 자리하지 않음이 없다. 지금의 학자들이 (공부를) 오랫동안 하지 않고 나태하며 세월을 허비하여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음은 모두 뜻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되겠다고 뜻을 확립하면, 곧 성인이 되고, 현인이 되겠다고 뜻을 확립하면 현인이 된다. 뜻이 확립되지 않으면 배에 키가 없고 말에 재

事相規,聊以答諸生之意:一日立志;二日勤學;三日改過;四日責善.其愼聽,毋忽!"

^{40) 『}王陽明全集』21刊,「與黃誠甫」(二) (53세, 甲申: 1524) "大抵吾人習染已久, 須得朋友相挾持. 離群索居, 卽未免隳惰. 諸公旣同在留都, 當時時講習爲佳也."

⁴¹⁾ 양명의 立志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拙稿, VI-2. 立志의 교육론"을 참조 바람.

갈이 없는 것과 같아서 이리저리 떠돌 뿐이어서 끝내 또한 어디로 가겠는 가? ······ 諸生이 이를 염두한다면, 또한 뜻을 확립해야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42)

立志는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목적의식의 확립이다. 목적의식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지녔더라도 어떠한 일도 이루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성취해야 한다는 주체의 내적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지는 주체가 내적 동기를 확립하는 일>이다. 내적 동기와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면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위 언급에서 볼 수 있듯, 양명이 학생들에게 제안하는 공부의 목적은, 결코 <명예나 출세와 같은 외재적 목적>이 아니다. 그가 요청하는 공부의 목적은 지의 목적은 <더 의미로운 존재[성인・현인]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내재적목적>이다. 성인・현인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은 어느 순간 달성되어 끝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과정이다. 그렇기에 이 立志의 공부는 필연적으로 勤學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양명은 勤學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미 군자가 되기로 뜻을 세웠다면, 스스로 학문에 종사해야만 한다. 학문을 부지런히 하지 않음은, 필히 그 뜻이 오히려 굳건하지 않음이다. 나를따라 교유하려는 사람은 총명하고 기민한 사람을 높이 사지 않고, 근면하고 겸손한 이를 높이 산다. 제생은 주위 동료들을 관찰해 보라. 진실로 겸손하고 자제력이 있지만, 무능하다고 자처하여, 뜻을 굳건히 하고 힘써 행하며, 부지런히 배우고 묻기를 좋아하며, 다른 사람의 선을 칭송하지만 자신의 과실을 허물로 삼고, 사람의 장점을 따르지만 자기의 단점을 밝히고, 충성스럽고 믿음직하며 화락하고 평이하여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

^{42) 『}王陽明全集』26刊,「教條示龍場諸生」<立志>"志不立,天下無可成之事,雖百工技藝,未有不本於志者. 今學者曠廢隳惰,玩歲愒時,而百無所成,皆由於志之未立耳.故立志而聖,則聖矣;立志而賢,則賢矣.志不立,如無舵之舟,無銜之馬,漂蕩奔逸,終亦何所底乎? ····· 諸生念此,亦可以知所立志矣."

202 韓國書院學報 1

은, 그 사람의 자질이 비록 매우 노둔하다고 해도, 동료들이 그를 칭송하고 사모하지 않겠는가? …… 제생은 이를 살펴, 또한 배움에 좋사해야 함을 알 것이다.43)

입지는 분명 공부의 첫 출발점이지만, 그것은 주체의 목적의식과 삶의 방향성의 확립이기에 나머지 모든 단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목적의식이 강렬하다면 그 어떤 과정적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이를 이겨낼 수 있다. 양명의 표현대로, 勤學하지 못함은 立志가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문의 목적이 이상적 인격의 단계에 오르는 것이기에, 이는 덕성의 문제이지 재능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양명은 <재능 있는 사람보다 덕 있는 사람을 높이 산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과실은 있는 법이다. 하지만 덕 있는 이는 자신의 과실을 고치고 남의 장점을 취하여 이를 극복해간다. 덕은 없지만 재능은 뛰어난 이는 과실을 감추려 하지만, 재능은 노둔해도 덕이 있는 이는 자신의 과실을 허물로 삼아 이를 밝힌다. 이 작은 차이가 의미로운 존재로 전환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대 기점이다. 그래서 양명은 세 번째로 改過를 말한다:

過失이란 위대한 현인[大賢]이라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끝내 위대한 현인이 위대한 현인일 수 있는 것은 그 과실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실이 없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과실을 고칠 수 있음을 귀하게 여긴다. 諸生은 또한 평소에 廉恥忠信한 행동을 하지 못함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 또한 효도하고 우애하는 일에 인색하고, 교활하게 속이고 야박하게 하는 습관에 빠져버린 자가 있는가? 諸生들은 자못 이 지경에이르지는 않았다. 불행하게도 혹 이런 점이 있다하더라도 모두 그 알지 못

⁴³⁾ 같은 买 <動學> "已立志爲君子,自當從事於學. 凡學之不勤,必其志之尚未篤也.從 吾遊者,不以聰慧警捷爲高,而以勤確謙抑爲上. 諸生試觀儕輩之中. …… 苟有謙默 自持,無能自處, 篤志力行, 勤學好問,稱人之善,而咎己之失,從人之長,而明己之短, 忠信樂易,表裏一致者,使其人資稟雖甚魯鈍,儕輩之中,有弗稱慕之者乎? …… 諸 生觀此,亦可以知所從事於學矣."

하는 사이에 잘못 들어선 것이니, <평소 師友의 강습과 규칙이 없었기 때문>이다. 諸生은 안으로 성찰하여[內省] 만일 이러한 잘못에 가까운 적이 있었다면, 진실로 또한 스스로 뉘우치고 허물을 고치는 고통이 있어야만한다. 그러나 또한 이로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겨서 드디어 허물을 고치고 선을 행하려는 마음에 의기소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하루아침에깨끗이 舊習을 씻어버릴 수 있다면, 비록 옛날에 도적이었다고 하더라도오늘은 군자가 되는 데 害가 되지 않는다. 만약 말하기를 내가 옛부터 이미이와 같았다고만 한다면, 지금 허물을 고치고 선을 따르려고 하지만, 장차누가 나를 믿겠으며, 또 예전의 허물에 대해서도 속죄할 수 없을 것이다.44)

양명이 높이 사는 것은 過失이 없었느냐가 아니라, <과실을 고치고자하는 태도>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과실은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大賢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가 위대한 것은 그 잘못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명은 학생들에게 과실을 숨기지 말고 스스로 고치기를 요청한다. 곧 모든 인간은 교육을 통해 변화가능하다는 점을 굳건하게 믿고 있다. 자신의 과실은 사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일이다. 따라서 改過는 외부의 강제적 교정이 아니라, 스스로 성찰하여 자발적인 교정이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다. 양명은 이 부분에 집중한다. 하지만 스스로 성찰함에 자신의 과실이 너무도 부끄러워 자포자기할 수도 있다. 여기서 양명은 인간의 존재의 변환은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지금 의미로운 존재[君子]가 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말한다. 改過의 본질은 <스스로 수치스러워 하는 게 아니라, 善을 따르는 마음을 지니는 것>에 있다. 곧 잘못은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⁴⁴⁾ 같은 买 <改過>"夫過者,自大賢所不免,然不害其卒爲大賢者,爲其能改也.故不貴於無過,而貴於能改過.諸生自思平日亦有缺於廉恥忠信之行者乎?…… 亦有薄於孝友之道,陷於狡詐偸刻之習者乎?諸生殆不至於此.不幸或有之,皆其不知而誤蹈,素無師友之講習規飭也.諸生試內省,萬一有近於是者,固亦不可以不痛自悔咎.然亦不當以此自歉,遂餒於改過從善之心.但能一旦脫然洗滌舊染,雖昔爲寇盜,今日不害爲君子矣.若曰吾昔已如此,今雖改過而從善,將人不信我,且無贖於前過."

성찰하여 자신을 좀 더 善한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네 번째는 <벗들이 서로 善을 행하도록 권면하는 責善>이 놓이게 된다.

責善이란 朋友의 道로, 서로가 충고하여 선도하는 것이다. (충고를 함에) 그 충심과 사랑이 (마음이) 가득하고, 그 (표현이) 완곡함을 다해야, 저 사람이 그것을 듣고 따르도록 하고 과실을 풀어 고치도록 할 수 있으니, 감동은 있어도 분노하는 바가 없도록 해야, 善이 될 수 있다. …… 나는 道에 있어 깨달은 바가 없어서, 그 학문은 거칠고 서투르다. 제생들이 이토록 나를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매일 밤에 스스로 생각할 때마다 惡조차 벗어날 수 없는데, 하물며 작은 과실에서 벗어나겠는가? 사람들은 스승을 섬김에 범해서도 안 되고 잘못을 감싸도 안 된다고 말하지만, 스승에게 잘못을 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스승에게 간하는 도는, 솔직하되 스승을 범하는 데 이르러서는 안 된고, 완곡하되 잘못을 감싸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제생들이 그렇게 해야) 내가 옳은 경우 내가 왜 옳은지를 알게 해주며, 내가 틀렸을 경우 잘못을 제거하게 만들 것이다. 대개 교학상장이다. 諸生은 責善하되 나 (양명)부터 시작하도록 해라.45)

責善의 기술은 친구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가득하고 온화해야 한다. 그래야 그 지적 받은 이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을 고치게 된다. 責善을 통해 삶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서로가 알려 준다. 유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책선은 그 관계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의미를 제공해 준다. 여기서 양명은 제생들에게 책선의 범위를, 친구를 넘어 스승의 자리를 맡고 있는 자신에

⁴⁵⁾ 같은 곳, <責善>"責善, 朋友之道, 然須忠告而善道之. 悉其忠愛, 致其婉曲, 使彼聞之而可從, 繹之而可改, 有所感而無所怒, 乃爲善耳. …… 某於道未有所得, 其學鹵莽耳. 謬爲諸生相從於此, 每終夜以思, 惡且未免, 況於過乎? 人謂事師無犯無隱, 而遂謂師無可諫, 非也. 諫師之道, 直不至於犯, 而婉不至於隱耳. 使吾而是也, 因得以明其是; 吾而非也, 因得以去其非: 蓋敎學相長也. 諸生責善, 當自吾始"

게 까지 확장되기를 요청한다. 흥미롭게도 그 이유를 敎學相長이라고 말하고 있다. 양명에게 敎學은 성인됨을 향한 통일체이다. 그가 교육활동에 이렇게 열정적이었던 것은 자신이 聖人되기 위함의 하나의 발판이었다. 어떤 면에서 그의 교육활동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측면에서 해석할수도 있다. 하지만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의 교육행위는 결코 자기독존적인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는 責善이 보여주고 있듯이, 교육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善으로 이끌어 주는 관계 중심적인 행복을 추구한다. 곧 이는 양명이 구상한 이상적 인간은 자기 독존적인 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과 함께 갈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는 양명이 지향한 강학의 시행방법을 보여준다. 곧 그는 타인과의 관계를 하지 않는 독존적인 명상이나 경전 강독을 강조하지 않는다. 붕우와 사제와 같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어 가면서 서로 서로가 이상적 지점을 향해 나아가길 助力하는 분위기를 만들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제 양명 서원강학의 실제를 정리해보도록 하자. 그가 講學을 강조했던 것은, 인격적 성장을 이루고자 할 때 개인 혼자만의 독자적인 수련과독서보다도, 무리를 지어 서로가 도움을 주고 격려할 때, 그 효과는 더욱크게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기원한다. 양명은 서원강학의 출발점을 무엇보다도, 立志 즉 <주체가 배우고자 하는 내적 동기의 확립>에 두고 있었다. 이는 양명이 교육의 성패요인을, <학습자가 스스로가 교육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겠다는 주체적인 의지를 지녔느냐 지니지 않았느냐>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자기변화를 이루겠다는 굳건한 목적의식이 없다면 그 교육은 성공하기 힘들다. 이는 양명이 바라보는 <교육의 중심점이 교사가 아닌 학습자의 지점>임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재능・역량・정열 등에 달려있지 않다. 그 <성패의기점은 학습자의 목표의식이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놓여있다.> 학습자의 동기와 목표의식이 굳건하다면, 학습자는 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다. 그래서 양명은 강학의 두 번째 조목인 勤學의 전제조건을 立志로 놓고 있는 것이다. 여기 勤學의 조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양명은 <聖人 에 이르는 그 기반을 덕성의 문제이지 재능이나 지식으로 파악하지 않는 다.> 곧 그의 강학교육의 중심처에는 <덕성교육>이 자리하고 있다. 덕성 교육의 방식은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허물을 고치는 것>이다. 그러므 로 양명은 강학의 세 번째 조목으로 改過를 제안한다. 그는 <모든 인간은 교육을 통해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 · 탄생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인간은 결정된 존재가 아니다. 또한 改過는 학습자의 의지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력을 동원하여 교정하는 것이 아니다. 양명은 <학습자 스스로가 성찰 하여 자발적인 교정을 이루도록 요청>한다. 더불어 改過의 본질은 잘못을 교정하여 좀 더 선한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에 있지, 잘못을 꾸짖고 허물을 책망하는 것에 있지 않다. 그렇기에 양명은 改過에 이어, 강학의 마지막 조목인 責善을 요구한다. 그는 학습자들 간에 責善을 행할 때에, 결코 강 압적인 방식이나 잘못을 지적하는 곳에 중점을 두지 말라고 요구한다. 잘 못을 지적 받은 이가 <감동받아 자신의 바로잡을 수 있도록>, 책선하는 자는 <친구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가득하고 온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는 바로 수치를 통한 행동의 교정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명이 생각한 올바른 교육의 지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곧 그는 <학습 자의 자발성에 호소하는 교육이야 말로 참된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파악한 것이다.

5. 맺음말

이 글은 양명과 관련된 서원을 조사하고, 그의 서원강학활동을 탐구하여, 양명 서원강학의 이념과 실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탐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양명과 관련된 서원들은 龍岡書院・貴陽書院・濂溪書院・白鹿洞書院・稽山書院・萬松書院・敷文書院이다. 그는 이 서원들을 철저히 강학을 위한 기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양명이 관계한 서원들은 조선의 서원들과는 차별점을 지니고 있었다. 學과 廟를 함께 유지하고 있던 조선의 서원들과는 달리, 양명과 관련된 서원들은 철저히 學의 요소만을 띠고 있었다.

다음으로 양명 서원강학의 이념에서 볼 수 있듯, 그의 서원강학의 주내용은 心學이었다. 물론 양명은 明倫을 강학의 내용으로 강조하지만, 그는 明倫의 문제를 心學의 문제로 귀속시켰기 때문에, 강학의 주 내용은 心學이라고 할 수 있다. 양명은 인간 내면에 담겨져 있는 도덕적 완성태[中: 良知良能]에 확신을 바탕으로, 이 지점에 집중하기를 요청하였다. 곧 그의 서원강학은 경전 내용의 이해와 지식 획득의 차원이 아니라, <본래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物欲을 제거하는 것>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또한 양명은 성인의 경전을 마음의 본체[心體]를 말한 데 불과한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경전중심주의를 벗어나고 있다. 그에게 경전의 의의는 存天理去人欲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양명이 중요시 여긴 지점은, 경전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고 이를 암기하고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전을 통해 去人欲存天理의 방법을 획득하여 자신의 내면적 본래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경전 강학의 중심처는 良知心體였

다. 곧 양명은 시비판단의 근원처인 자신의 본심[良知]을 발견하고 이것이 현실에서 드러나 올바른 인간이 되는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그는 주자학에서 요청하듯 경전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학습자의 무조건적인 추종을 거부하고, 本心[良知: 心體]에 대한 따르기를 요청한다. 양명은지식과 재능의 측면에서 성인을 추구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는 지식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인욕은 재주와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천리는 더욱더 가려진다고 파악한다. 이처럼 양명 서원강학이념의 중심에는 <인간이소유하고 있는 본래적 도덕성[良知心體]만 발견하고 확인하면, 모든 인간은 聖人이라는 교육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이 놓여있었다.

마지막으로 양명 서워강학의 실제적 모습을 「敎條示龍場諸生」을 통 해 살펴보았다. 그는 가르침의 조목[教條]을 立志・勤學・改過・責善의 네 가지로 규정하고, 제자들이 이 일들을 바탕으로 서로가 살피고 격려해 야 주어야, 학문이 크게 성취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양명은 붕우와 사제간 의 관계맺음을 통해 학문의 성장을 추구하려고 했다. 그는 심지어 무리를 떠나 혼자 공부하려는 것은 아직 게으름과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며, 모였을 때는 강습을 하기를 요청했다. 그는 강학교육의 첫 시작점을 立志로 규정하였다. 立志는 학문의 목표를 설정하고 명료화하는 일이자, 주체로 하여금 학문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강화하는 과정이다. 이는 양명 이 교육의 성패요인을, <학습자가 스스로가 교육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 겠다는 주체적인 의지를 지녔느냐 지니지 않았느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양명은 두 번째 단계로 勤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곳에서 서원강학의 본질이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닌 덕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임을 밝힌다. 곧 그의 강학교육의 중심처에는 <덕성교육>이 자리하고 있다. 양명은 세 번째 단계를 改過로 규정하면서, 학생들에게 과실을 숨기지 말고 스스로 고치기를 요청한다. 곧 그는 <학습자 스스로가 성찰하여 자발적인 교정을 이루도록 요청>한다. 특히 이 점은 양명이 지닌 교육적 신념 즉 모든 인간 은 교육을 통해 변화가능하다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로

양명은 責善을 제안하는데, 여기에서 양명이 교육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善으로 이끌어 주는 관계 중심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음 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붕우와 사제와 같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어 가면 서 서로 서로가 이상적 지점을 향해 나아가길 助力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그는 학습자들 간에 責善을 행할 때에, 결코 강압 적인 방식이나 잘못을 지적하는 곳에 중점을 두지 말라고 요구한다. 이는 바로 수치를 통한 행동의 교정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바 로잡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라>는 것이다. 곧 양명은 <학습자의 자발성 에 호소하는 교육이야 말로 참된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파악한다.

참고문헌

『王陽明全集』

『朱子語類』

- 呂妙芬, 『陽明學士人社群: 歷史·思想與實踐』,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臺北. 2003.
- 李愚辰,「王陽明 工夫論의 教育學的 解釋」,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 院 博士學位論文、2011.
- 丁淳睦、『中國書院制度』、文音社: 서울、1990.
- 丁淳佑, 『공부의 발견』, 현암사: 서울, 2007.
- Tu wei-ming(杜維明), 권미숙 옮김, 『한 젊은 유학자의 초상- 靑年 王陽明』, 서울: 통나무, 2006.
- 丁淳佑, 「한국의 전통시대 교육공간의 구성 원리」,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서원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국가브랜드위원 회·문화재청. 2011).

Abstract

Wang Yang-ming's idea and practice of academy education.

Lee. U-Jin

This thesis investigated Wang Yang-Ming's academies, his educational activities in there, and philosophy and reality in his academical education. Through these explorations, w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academies were related to Wang like these: Longgang-academy(龍岡書院), Guiyang-academy(貴陽書院), lianxi-academy(濂溪書院), Bailudong-academy (白鹿洞書院), Jishan-academy(稽山書院), Wansong-academy(萬松書院), and Fuwen-academy(敷文書院). Wang used these academies with only the educational purpose. Secondly, Wang's major contents in academical education were the study of mind(心學). There is the belief in center of his academical education that if one discover and realize the innate morality, he will become a Sage. In other words, he had the confidence that all men had the perfection of morality, and he focused on that. So, the center of his reading education was the innate morality[良知心體]. finally, Wang's realistic activities in academical education were presented at Articles of teaching students in Longchang province(教條示龍塲諸生龍場). He suggested Articles of teaching students as the establishment of goal(立志), the encouragement of study(勸學), the rectification of errors(改過), and the

212 韓國書院學報 1

recommendation of good deeds(責善). Especially, Wang emphasized the cooperative spirit. He comprehend the education in the true sense as the education appealed to the learner's spontaneousness.

Key Words: Academy, Articles of teaching students in Longchang province, Education, Innate morality, Study of mind, The encouragement of study, The establishment of goal, The recommendation of good deeds, The rectification of errors.t

[시평]

서원연구의 현재적 의의와 향후과제

김인절*

- 1. 한국서워학회의 출범
- 2. 서원 연구의 현대적 의의
- 3. 향촌사회와 서원, 그리고 현대사회의 문화, 지성사
- 4. 연구 성과의 대중화와 연구 활성화 방안
 - 1) 연구 성과의 대중화
 - 2) 현존 서원을 활용한 전통문화 이해 증진

1. 한국서원학회의 출범

2006년 한국서원학회(이하 서원학회로 약함)가 출범한 이후 다양한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서 그간 꾸준히 닦아온 학술적 연구의 성과들을 모아 드디어 학회지를 창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학회의 출범이 남달랐던 만큼 이 학회지 역시 서원학회의 취지를 살려 연구자와 서원 관계자 및 일반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좋은 다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될 창립 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해보고서원학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214 韓國書院學報 1

서원학회의 목적은 창립취지문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종합적인 서원연구에 목표를 두고, 각 분야별 참신한 연구방법의 모색과 자료의 발 굴 및 공유를 통하여 서원 연구를 활성화 하며 이를 총합하고자 한다. 나 아가 이들 연구결과를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 과 공유함으로써 한국 현대문화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전자, 즉 서원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이라든가 자료와 관련한 문제에 관한 의견 개진의 과제는 학회지에 실린 여러 글들이 대신하고 있는 만큼, 필자 는 후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원학회의 향후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한국 현대문화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서원 연구의 현대적 의의를 찾아 나서는 것이 되겠고, 그 방법은 연구 결과를 대중적으로 공유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러한 노력은 역으로 서원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 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2. 서원 연구의 현대적 의의

서원학회가 출범하게 된 것은 지난 30여 년간 축적되어 온 서원 연구의 성과, 즉 많은 연구 업적과 관련 자료의 축적 및 연구자의 증대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보다 중요하게는 서원 연구의 현대적 의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대는 기존 서원연구가 가지고 있는 연구사적 의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서원학회의 활동 역시 지금까지의 연구사적 전통에서 출발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연구사적으로 보아 한국 학계에서의 서원 연구는 식민사관에 의해 왜

곡된 한국사상을 바로잡는다는 의의와 동시에, 당시 한국 사회 정치문화의 빈곤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모색한다는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정력적인 초기 연구들에 의해 당쟁의 소굴로 평가되어 기피의 대상이 되었던 서원을 조선 공론정치(붕당정치)의 기반으로서, 그리고 아직까지 크게 인식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선 전통문화의 상징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의의가 그간 우리 사회 내에서 충분히 공유되고 있는지 따져본다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된다.

이제 서원학회는 위와 같은 연구사적 전통을 이어 서원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대 정치문화 발전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더 밀고 나갈필요가 있다.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가 건강한 현대문화의 건설과 연결될수 있어야 한다는 1960년대 이래 초창기 인식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서원 연구의 현대적 의의 가운데 제일 먼저 꼽아야 할 것도 바로 현대 정치문화 발전에의 기여라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서원 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정치사적 차원으로부터 사상, 문화사적 차원으로 더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등등의 요구가 있을수 있고 또 그 밖에도 많은 문제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기되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으로 많은 방법론적 고민과 자료의 축적이 있어야 하겠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서원 연구가 갖는 정치사적 의미가 흐려져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현대적 의의 가운데 다른 하나로는 서원 연구가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들고 싶다. 이른바 세계화란 물결 앞에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무한경쟁의 논리에 휩쓸리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역으로 우리 국가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극복할 구심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서원 연구가 일정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이 때 서원 연구

가 단순히 전통문화 '미화' 일변도로 나아가서 안 될 것이다.

다른 분야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가 서원 연구자들에게 부과하는 임무를 자임한다는 의지 천명이 중요하고, 우리의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전통문화 전반과의 관련 문제에 천착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단순한 연구 성과의 보급차원을 넘는 서원학회의 적극적 활동이 요청된다.

3. 향촌사회와 서원, 그리고 현대사회의 문화, 지성사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에서 서원은 1543년(중종 38) 주세붕에 의해 백운동서원이 창건되며 처음 출현하였고, 1549년(명종 4) 이황에 의해 소 수서원으로 사액받으면서 국가에 의해 공인된 이래 향혼사회에서 사림세 가 강화 과정에서 향안・향규・향약 등 사족들이 마련해왔던 기존의 향 촌조직과 함께 사족 내에서도 고도를 익히며 그것의 실천을 통해 삼대지 치를 추구하는 유자 집단인 사람들의 장수처로 본격 발전을 보게 된다.1)

서원의 역사는 조선 역사의 굵은 선 가운데 하나이고, 서원은 사대부 (양반)사회의 정치문화적 지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서원이 향촌사회에서 정신적인 구심체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치자계급으로서 수기치인, 즉 자기 절제의 자세와 그 실천이라 할 것이다. 서원이 향안이나 향회 등 일반 향촌 지배조직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향당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이남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원을 주도하였던 사람들은 향당 운영

¹⁾ 정만조, 「사족의 향촌지배와 서원의 발달」, 『한국사』 31, 국사편찬위원회, 1998.

원리로서의 향약이나 성리학적 유리 실천에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은 적지 않았고, 실제 그 영향력은 곳곳에 반영되고 있었다.

향촌사회의 지배층으로서 조선시대 사족들은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는 일과 함께 현실적으로 지배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지역민들의 복종을 이 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절제와 미덕을 실현해야 하였다. 조선 사대 부들이 추구했던 居家・居郷・居官의 현실적 적용은 중국과는 다른 독특 하고 조선사회가 갖는 큰 특징 가운데 하나라 할 것이다. 2)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자기 절제의 철학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초를 제공하였 던 향촌사회의 공간 가운데 하나가 書院이었으며, 향촌 질서의 특징과 체 제가 전란 속에서도 붕괴되지 않고 17세기 후반, 18세기 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동력도 바로 서원이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서원은 향촌사회 지배층 일반의 정신적 구심체이자 중앙 정계와의 연결 통로가 되어왔기 때문이다

4. 연구 성과의 대중화와 연구 활성화 방안

다음으로 서워문화와 정신의 계승 활용에 대한 논의도 서워학회가 주 도해 주었으면 한다. 이는 인문교육이나, 도덕과 인성교육의 측면도 하나 의 방법이지만, 필자는 보다 적극적이고 지성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싶 다. 고려말 조선초기의 성리학이 '진보적 이데올로기'였듯이, 그리고 지역 의 사족들이 서원을 중심으로 지녔던 '향촌사회의 지도력'을 상기하면서

²⁾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에서 '儒敎的 傳統'의 지속과 단절-향촌 士族의 居鄉觀 변화를 중심으로-」、『韓國史論』50、서울대학교 국사학과、2004.

현대적인 문화 주도층으로서의 역할에 연계시켰으면 한다.

1) 연구 성과의 대중화

서원 연구 성과의 대중화에서 중심 내용은 아무래도 서원의 설립 배경부터 조선시대 수준 높은 정치문화의 산실이었던 서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근대로의 전화기의 서원의 위상 변화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서원의 전 역사를 다양한 차원에서 알기 쉽기 엮어 출판하는 것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최근 대학 초년생의 수준에서 보면 학생들이 생활사나 인물사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우선 인물 중심, 지성사 중심의서원 역사 시리즈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생활사나 지역 문화사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겠고, 그리하여 점차 범위를 넓혀 갈 수 있을 것이다.

출판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순회(연속) 강연회 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어느 경우에든 서원 연구의 의의를 살리고 그것을 실현한다고 하는 실천적 목표와 연결할 수 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 현존 서워을 활용한 전통문화 이해 증진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현재 각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한 서원들을 중심으로 이들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이 속 한 지역사회, 나아가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득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가 는 문제이다.

서원은 한국지성문화의 요람으로 400여 년을 지속 해 온 전통문화유 산이다. 서원은 지역 지성사의 거점으로 인물과 학맥, 그리고 지성문화를

대표하는 유교문화 유산이다. 학문과 학자를 대우하며, 자기 수양과 도덕 적 실천을 목표했던 서원교육의 모습은 과거에도 의미가 있었지만 오히 려 학문토론, 사회교육, 비판과 실천 등이 강조되는 현대와 미래사회에 더 욱 필요한 핵심 덕목으로 더욱 중시될 가능성이 크다. 서워은 교육과 학문 의 전당으로서 한국지성사의 모든 모습을 느끼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 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서원에 전해지는 역사, 건축, 경관, 기록유산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 들(역사, 교육, 제향, 건축, 기록, 경과 등)은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특 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강학, 의례, 도서출판, 문화예술, 정치 등 복합적 문화요소를 잉태했던 내부의 교육공간도 잘 남 아있다. 그런가하면 서원별로 인물, 강학전통, 향약, 의병, 유적, 유물 등등 역사문화사상의 독특한 특징들도 많다. 서원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같은 문화전통과 교육기능을 되살리고, 성리학의 상징경관과 공간을 최대 한 활용하여 현대적인 교육공간으로 거듭난다면 어느 것에도 뒤지지 않 는 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이러한 자원을 매개로 하여 지역사회의 공론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지역사회운동 활성화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의 순서는.

1단계 : 서원을 대상으로 한 학제간 연구 활성화

2단계: 향토사연구자, 초・중등 역사교사들과의 모임 연계

3단계 : 현지 서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등의 단계를 밟는 것이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업들이 각 연구자들의 품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고, 따라 서 모든 평가가 연구업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연 구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220 韓國書院學報 1

곧바로 착수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진척이 더딜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이 같은 사업을 통해서 뒤를 잇는 학문 연구자가 커나갈 수 있고, 연구 성과를 보아줄 독자들을 늘이고 나아가 장래의 연구자들을 배양하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사업을 그대로 방치할수많은 없다고 하겠다.

서원은 조선시대 사대부(양반)사회의 정치문화적 지형을 잘 드러내는 상징적인 공간이며, 서원의 역사는 조선 역사를 엮어 낸 굵은 선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 현대사회의 그 공간과 시간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 우리가 서원을 어떻게 기억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서원이 한국 현대문화를 엮어가는 한국인들을 묶어주는 또 하나의 끈의 굵기와 색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중앙정치에 오염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버팀 목이 될 서원을 생각해 본다.

서워문서와 사회사 연구

정 승 모*

- 1. 서원 연구주제의 유형
- 1) 서원 설립 과정에 대한 연구
- 2) 서원의 기능에 대한 연구
- 3) 서원의 역기능화와 서원 정비에 대한 연구
- 4) 서워의 경제기반에 관한 연구
- 2. 사회사 연구와 서원자료
- 1) 書院誌에 나타난 사회상
- 2) 인적교류와 지역 연망체계를 보여주는 문서들
- 3) 문중관련 문서
- 4) 서원 의례 관련 문서
- 5) 서워 운영에 관한 문서

1. 서워 연구주제의 유형

그동안 서원연구는 당쟁사 연구와 관련한 식민사관의 부정적 역사인 식의 틀에서 벗어나 사족의 향촌지배 방식을 구명하는 차원으로까지 나 아갔다. 1980년대 중반까지 서원 연구는 교육사 주제 중 官學에 대한 私學 으로서의 조선 전기 교육사 연구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주제 또한

^{*} 지역문화연구소장

222 韓國書院學報 1

주로 서원 설립과 관련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서원조직이 조선후기 향 촌사회에서 가졌던 기능과 이를 통한 사족의 지배방식에 관심이 옮겨지 면서 서원연구는 사회사연구의 핵심주제의 하나가 된 것이다. 서원에 소 장된 고문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1) 서워 설립과정에 대한 연구

서원의 설립은 과거를 위한 교육보다는 교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특히 초기 서원의 설립은 퇴계의 서원보급운 동으로 실현되었는데, 그의 교화론이 당시 사람에게 도학적 질서 위에서 사회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로서 서원을 필요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초기 서원 발생의 배경에 대한 설명은 서원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보다는 대부분 중앙 연대기 사료에 의존한 것이다.

17-18세기에 들어오면 서원의 기능이 養育人才의 교육적 기능에서 제향인물 중심의 祀賢의 기능으로 바뀌어 갔는데, 이는 서원 설립의 동기나목적에서도 드러난다. 여기서 賢(人)이란 지방 사림들, 또는 양반들의 先儒나 祖先을 말한다. 이들의 제자나 후손들은 서원이라는 공간에서 이들을 제사지냄으로써 선유를 尊奉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림들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거나 유지하는 효과를 얻을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의 근거는 서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문서를 통해야만 찾을 수 있다.

2) 서원의 기능에 대한 연구

초기 서원은 '士子에 대한 장수와 강학'이 기본적인 기능이었고 '名儒에 대한 尊奉'은 부차적인 기능이었던 데 반해 사우는 祀賢의 기능만을

가졌는데. 17-18세기 濫設現象이 있은 이후 양자 모두 사현이 주가 됨에 따라 그 질적인 차이가 없어져 서로 혼칭되었다. 서원의 기능 중에는 사람 의 중앙정치와 관련된 것과 향촌활동과 관련된 것,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 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중앙에서 사림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벌인 선유들에 대한 문묘종사 운동 이후 지방에 이들을 제향하는 서원이 다수 건립되었 다. 이는 곧 지방에서의 사림, 또는 사족의 입지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 다. 서원의 존재는 향촌주도권과 관련하여 재지사족들에게 官의 간섭을 면하면서 聚會와 결속을 도모할 수 있는 향촌활동의 구심체 같은 것이었 다. 가 될 수 있었다. 또 국가의 賜額에 따라 공적인 기구가 되었을 때 그 기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향약과 서원의 관계에 대해 정만조는 海州鄕約의 立約凡例를 들어 "향약의 입안, 임원의 선출, 향약의 조직, 의식의 거행, 경조자금의 운영· 관리 등을 모두 서원을 통하여 실현하고 있는 것이니 한마디로 향약으로 대변되고 있는 향촌사림의 사회적 활동이 일체 서원을 기반으로 한다는 뜻을 지니는 것이었다.")고 하여 향약시행의 경우에서도 서워이 향약 활 동의 기반과 구심체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서원 문서에 각종「鄕約案」이 발견되는 것은 이러한 현상과 추세의 반영이라 고 볼 수 있다.

17세기 후반 이후의 사람들의 활동은 본격화된 붕당정치와 연계되어 있었다. 그래서 서원의 사회적 기능에 자연히 중앙의 정치적 상황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자기 당 인물을 높이기 위해 중앙에서는 文廟從祀 를, 지방에서는 書院建立을 추진하였으며 향촌에서의 자신들의 입지를 강 화하기 위해 이미 건립된 서워에 대해서는 賜額을 추진하고 중앙의 고위 직 관리를 서원의 院長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사족들은 향내 여론을 수렴

¹⁾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硏究』, 집문당, 1997, p.185.

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중앙에 알렸는데 그 일차 거점으로 서원을 이용하였다. 서원에는 사액을 청하는 「上疏文」과 역대 원장 명단인「先生案」 등이와 관련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다.

지역에 따른 편차는 있지만 시기가 내려올수록 서원은 향약시행보다는 자체적인 활동을 통해 사족들의 재지적인 입지를 마련하는데 일조하였다. 서원 건립 또한 소위 문중서원이라고 하여 점차 문중 결속과 이의유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祖先奉祀와 同族子弟 敎育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 추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서원에서 발견되는 「奉先稧案」과 같은 문중 문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

3) 서원의 역기능화와 서원 정비에 대한 연구

서원의 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담은 연구는 붕당정치의 경향과 향촌사회에서의 家門意識의 浮上이 결과적으로 사림간의 공론과 名分論 자체를 퇴색시켰다고 본다. 이로 인해 肅宗末 英祖代에 이르러 서원은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었고 끝내는 단지 族黨基地로 化하여 대민 작폐의 온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한다.

서원 남설과 관련한 연구도 위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지위보장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사족들은 이제 향안・향규・향약 같은 一鄉 단위의 지배보다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확실한 보장책으로 혈연중심의 族契를 만들어 門中的 결속을 꾀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17세기후반의 향촌사회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서원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문중조직이나 문중권위의 상징으로서 서원・사우조직을 활용하는 현상을 불러일으켰으며 여기서 門中書院의 설립과 성행을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설명 틀에는 '사족지배체제 하의 16세기 서원'과 '사족의 분열과 약

²⁾ 이해준, 「朝鮮後期 서원연구와 향촌사회사」, 『한국사론』 21, 국사편찬위원회, 1991.

화 상황에서의 17-18세기 서원'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 구분의 핵 심은 16세기 서원의 운영주체인 사족은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해 이후 의 사족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6세기 서원이 사족들의 향권 행사의 진원지였다는 해석이 맞는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4) 서워의 경제기반에 관한 연구

서원의 존립과 유지를 가능하게 해 주는 물질적 토대에 대한 연구는 기장 기본적이면서도 활성화되지 않은 분야다. 서워의 경제기반이 초기에 는 토지, 후기에는 納物院生, 除役村 등으로 넘어간다는 견해가 있는데, 후기의 서원에 후손들이 祭田으로 기증한 토지가 추가된 사례가 적지 않 고 서원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전보 다 서원전의 비중이 커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사회사 연구와 서원자료

서원 기능의 변화를 전체 사회현상의 변화와 어떻게 관련지어 설명할 것인가는 서원 연구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에 전체 사회현상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서원의 기능 변화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서원이 존립해 있던 당시 사회에 대한 파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들 은 개별 서원 하나 하나에 대한 정밀한 사례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 비중을 두든 사례연구는 서워경제의 실상은 물론 서원운영의 주체 및 인적구성을 파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

다.

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들은 위에서 지적된 여러 분야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사회사 연구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서원문서에서 설명될 수 있는 사회상을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1) 書院誌에 나타난 사회상

○『眉泉書院誌』(乾卷「事蹟小記」, 1940년,『眉泉書院實記』上卷「事蹟小記」): 전라도 나주지역의 서원들은 중앙집권층의 당파적 이해에 따라 浮沈을 거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의 하나는 復設主張이 지방유림들, 특히 羅州의 南人系 士林들에 의해 주도되어온 반면 훼철은 주로 중앙정계의 서인(또는 노론)계 인사들의 주장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나주의 대표적인 南人系 書院인 眉泉書院이 일시 훼철되었을 때도 이와 같은 力學關係가 작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眉泉書院誌』「事蹟小記」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이 소기에 의하면 景宗 4年인 1724년에 서원의 남설을 막고자 1714년 이후에 창건된 원·사들을 훼철하라는 朝令이 내려졌을 때 眉泉書院이 그 이전에 세워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훼철 당하게 되자 나주 유생들이 그 부당함을 呈訴하였으나 西人系 監司의 계책으로 그대로 시행되었다고 하였다.

○『武城書院院誌』(卷一 上,「書院重修記」): 전라도 태인지역의 武城書院 任員에 대한 記錄은 1875년부터 1935년까지의 것이 제대로 남아 있고 그 이전의 것은 建物重修 등 특별한 행사가 있던 해의 것만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1874년까지의 임원구성은 齋長 1人, 掌議 1인, 色堂 1-2人이며 이외에도 講修齋掌議, 搢紳掌議, 別庫掌議 등의 職名

이 간혹 보인다. 또한 매 기록마다 縣監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院長이라는 직위가 함께 붙는 경우가 있어 현감이 서원운영이나 행사에 관례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68년의 戊辰毀撤令으로 3개소를 제외한 道內의 다른 원・사들의 활 동이 중지되자 무성서원의 조직은 오히려 확대되어 도를 단위로 하게 된 다. 즉, 훼철령 후인 1875년의 任員構成부터 道內掌議라는 직책이 생겼으 며, 1876년부터 1886년까지의 院長은 縣監이었으나 1887년부터는 觀察使 가 院長을 맡고 縣監이 院貳를 맡는 등 院의 格이 올라갔다. 또 1875년부 터 생긴 道內掌議의 出身地는 全羅道 全域에 걸쳐 있었다. 1882년부터는 훼철된 원・사에 設壇하여 享祀하자는 논의가 일어났는데, 갑오농민전쟁 을 거친 후 武城書院은 道書院으로서 '道會所發文'이라는 通文을 전라도 각 향교에 보냄으로써 儒林組織의 復舊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917 년에 작성된 「書院重修記」에는 武城書院을 '道院'으로 表現하였다.

○『磎磵祠誌』의「院中各項規例」와「享祀笏記」: 전라도 나주지역의 磎磵祠 任員組織은 道掌議, 道色掌 각 1人과 掌議, 色掌 각 1人으로 구성 하여 仟期 3年에 再任이 가능케 하였다. 道掌議, 道色掌으로는 道內 儒林 중 年高德望한 者를 택하여 對外的으로 祠宇의 格을 높이고자 하였고. 掌 議. 色掌으로는 鄕中에서 德望敏事한 者를 뽑아 실무를 담당케 하였다. 祭 享行事 등 기타 祠字의 모임에도 나주뿐 아니라 부근 郡에서 참석하여 임 원조직에서처럼 지역단위를 넘어서고 있다. 磎磵祠의 享祀執行節次인 享 祀笏記는 西人(老論)系 中心書院인 遯岩書院儀節을 따르고 있어 西人系 書院 間의 道를 넘어선 連繫의 일면을 보여준다.

2) 인적교류와 지역 연망체계를 보여주는 문서들

○「執網案」: 1798년 이후부터의 기록이 있는 전라도 순천지역의 謙川書院「집강안」을 보면 임원은 원장 1인, 장의 1인, 색장 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798년부터 1805년까지의 원장은 判書 宋煥箕가, 1805년부터 1823년까지의 원장은 判書 金履翼이 각기 맡았다. 그런데 이들은 이 원의장으로 되어 있는 기간에 실제로는 중앙의 관직에 있었고 이들의 출신지도 이 지역이 아니었다. 당시 이 서원에서는 향교가 아닌 서원의 독자적인결정으로 서원의 격을 고려해 멀리 중앙관직에 있는 이들을 추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824년부터는 집강안에 원장의 명칭이 도유사로 바뀌었고 그 직을 향내 유림들이 맡게 되었으며 임기도 1년으로서 연임된 사례도 없었다. 이러한 규칙은 다른 원·사들의 집강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즉 이 이후부터는 각 원·사마다 도유사 1인, 장의 1인, 색장(또는 재임) 2인의 임원 정액을 매년 향내 유림 중에서 교체해 가며 뽑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인선에 분배상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향교에서 이를 주관하게 되었다. 물론 이와 같이 향내에서의 체계적 교환이 가능했던 것은 이미 이 이전에 향권을 장악했던 유림들의 근거처가 특정 원·사가 아닌 향교였다는 점과 원·사 건립또한 대부분이 이러한 향권의 배경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각 원·사의 봉사인물의 관내적 성격 등에 그 요인이 있었다.

○「祭官錄」: 전라도 나주지역의 榮江祠에는 건립 당시부터 1868년 의 毀撤令으로 祭享行事가 중단될 때까지 약 150년간에 걸쳐 祭享行事에 참여했던 자들 중에서 初獻, 亞獻, 終獻, 執禮, 祝의 名單만을 기록한「祭官錄」이 있다. 이것을 祭官의 本質이 명시된 1733년의 기록부터 1852년까지 분석해보면 時代가 내려올수록 本孫과 傍孫들의 祭官參與가 빈번해져 私祠의 性格이 짙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나주에 주로 祠孫 主導의 祠字들이 늘어나는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사손 중심의 사우

들이 많아지면서 이들 간의 인적교환도 점차 활발해져 갔던 것 같다.

○「文集頒布記」: 경상도 안동지역 河回 忠孝堂에 소장되어 있는「文集頒布記」는 1875년에 작성된 것으로 안동 하회 충효당에서 문집을 발간하고 이를 배포한 기록이다. 문집은 서명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1633년에 간행된 바 있는 『西匡先生文集』을 새로 판각하는 데 따른 비용이 들어있지 않아 복간한 것으로 보인다. 印出한 연대는 1865년이며 약 10년에 걸쳐 110개 처에 대한 반포를 끝내고 이와 같은 반포기록을 남겼다. 반포는 병산서원에서 주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집안과 교분이 깊은 타 집안 및 타 문중, 서원 원장 및 원장 역임자, 타 원우 등 영남과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에 망라되어있다. 배포방식은 直送과 傳次, 즉 간접전달방식을 동원하였다. 전차의 경우 가까운 친지나 서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3) 문중관련 문서

○「奉先禊案」: 경상도 경주지역의 龍山書院은 경주 이조 월성 최씨 문중서원으로 소장문서인「奉先禊案」은 1744년에 작성된 것과 1865년에 작성된 것 두 가지가 있다. 1744년 문서는 당시 종손의 高祖인 東亮 (1598-1664)의 자손들로 구성된 堂內禊인 반면 1865년 문서는 월성 최씨 문중문서다. 문서는 1840년 정월 초2일 밤에 지진이 일어나 종가와 관련한 시설들이 훼손되어 1846년에 복구가 이루어지고 1852년에 立石하고 1865년에 새로 계원들을 받아들여 規例를 다시 정한 후 작성한 것이다. 제사일은 기존 기일에서 10월 1일로 옮겼으며 당내를 넘어 1758년 입안과는 달리 입향조를 상위로 모시고 1派 東尹(1591-1627)의 종손이 계의 중심에 자리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네 조목으로 된 문중 규례 외에도 제사 위수의 배정,「位土田餘沓記」,

「八代祖龍巖公墓碣堅時祝文」,「六代祖叅判公墓前床石堅時顯刻」 등이 있다.

○「致祭時日記」: 위의 월성 최씨 문중과 이들이 주도한 용산서원과의 관계는 1816년에 작성된「致祭時日記」에 잘 드러나 있다. 내용은 임금의 명을 받아 용산서원 제향인물 崔震立(1568-1636)을 치제하는 과정을 적었다. 치제절차, 관련 공문, 후손들의 모금 내역을 적은 收合記 등이 있다. 일기작성의 주체는 경주시 府南面(:내남면) 伊助 마을의 월성 최씨다. 고문서는 대종가, 3파 후손가, 龍山書院 등으로 구분된다. 종택의 당호는 忠義堂이다.

용산서원은 1699년(숙종 25)에 경주부윤 이형상이 지방 유림과 함께 건립하였으며, 이듬해에 묘(廟)가 이루어져 위판(位版)을 봉안하였다. 1711년(숙종 37)에 숭렬사우라는 묘액이 내려지면서 경주 유림들에 의해 용산서원이라는 원호가 정해졌다. 용산서원 편액 글씨는 玉洞 李溆가 썼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키고, 병자호란 때 좌영장으로 험천 전투 중진중에서 전사한 佳巖派의 파조 貞武公 潛窩 崔震立의 旌閭碑 비문은 龍州 趙絅이 撰하였다. 최진립은 1755년(영조 31)에 이천보의 건의로 치제되었다. 이조 마을은 원래 최진립 외가인 평해 황씨의 터전이었다.(*「致祭時日記」:『고문서집성』50/51: 慶州 伊助 慶州崔氏・龍山書院篇(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植利冊」: 龍淵書院은 경상도 합천지역 용주면 손목리에 소재하며, 1658년 무술년에 창건되었다. 1662년(현종 3) 지방유림의 공의로 박인 (朴細)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으며, 1714년 (숙종 40) 문동도(文東道)를 추가 배향하였다. 1691년(숙종 17) 사액을 청했으나 실패하였다.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로 훼철되었다가, 그 뒤 유림에 의하여 복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령 박씨 문중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원에서는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향사를 지내고 있으며, 재산으로는 전답 3.500평, 임야 9.000평 등이 있다.

「門中別置植利冊」은 1894년부터 1932년에 이르는 기간에 고령 박씨 문중에서 재산 중 금전을 분배하여 식리를 하고 이를 기록한 치부책이다. 특징적인 사항은 처음 시작 때 이자율을 40%로 하여 보인계 등 다른 계보 다 이자율을 낮추었는데 이것도 辛酉年, 즉 1921년 이후부터 이자율을 30%로 낮추었고 이자 중 일부는 賭租로 받았다. 1900년 이후 常民에게 放 債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1919년에는 금액 923냥 8전 1푼을 常民 8명에게 放債하고 남은 322냥 2전 7푼을 位土 마련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즉 문중 계전이 누적되어 이를 위토구입비로 돌린 것이다.

丁酉年(1897) 11월조에 보면 門中에서 사용한 15냥 4전, 方谷 및 桂洞 松価가 모두 54냥 등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 129냥 3전을 7명에게 분배하 였고, 庚子年(1900) 11월에는 전년도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 및 문중에서 쓰고 남은 32냥 5전 1푼을 합한 145냥 7전에서 扶助, 床石 마련, 宗客 접대 등으로 지출한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 57냥 9전 9푼을 常民 5명에 게 放債하였다. 그리고 己未年(1919) 11월 20일조를 보면 전년도 원금과 이자를 합한 884냥 6전 9푼 및 賭租로 받은 83냥 5전 7푼에서 모임 때 쓴 비용 44냥 4전 5푼을 제하고 남은 금액 923냥 8전 1푼을 常民 8명에게 放 債하고 남은 322냥 2전 7푼을 位土 마련비용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용하기는 甲子年(1924) 11월 20일의 것으로 生財記라 하여 149냥 2전 5푼(畓賭餘在 來), 1399냥 2전 5푼(上財本利 來)와 용하 내 용으로 총 1548냥 5전이 지출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90냥 (田三斗只価)、5は(高靈 玉溪亭 修稧)、10は(丹溪 致一齋文集価)、5は(修稧)、 9냥 7전 5푼(地稅), 10냥(山際 三洲集価), 2냥(龍山齋會費),12냥 4전(蘭稧利 子), 2냥(高靈 客路), 23냥 6전(聚會), 10냥(烏價里山直扶助), 16냥 3전(山林 費), 除合文 404냥 5푼 등이었다.

4) 서원 의례 관련 문서

- ○「享祀帖」,「笏記」등: 서원의 향사는 향촌사회 지배층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다. 경상도 진주 단목의 진양 하씨 고문서(『古文書集成』第47/48卷: 晉州 丹牧 晉陽河氏 滄洲後孫家篇)에「臨川享祀儀帖」이 있다. 19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임천서원 향사 때 필요한 홀기 등을 적은 절첩식 수진본이다. 전체 34면 중 앞뒤 표지 제외하고 모두 32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다. 省牲儀, 行禮(行初獻禮, 行亞獻禮, 行終獻禮, 飮福受胙), 春秋告享文, 陳設圖, 奉安文, (謁祠時)笏記.
- ○「祭物單子」: 龍淵書院「제물단자」는 1778년에서 1790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매년 춘추 향사 때 수령이 보낸 향촉 물목으로 紙, 筆, 墨과香, 燭, 그리고 豕腥의 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단자 중에는 玄酒가 물목으로 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5) 서원 운영에 관한 문서

○「書院節目」: 晉州 丹牧 晉陽 河氏 문중에 소장되어 있는「臨川書院節目」은 1867년에서 1896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임천서원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각 항목별로 절목을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古文書集成』(第48卷: 晉州 丹牧 晉陽河氏 滄洲後孫家篇)에 실려 있다. 이중특기할 사항들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秋收節目]: 서원운영을 위해 마련한 전답을 관리하는 지침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秋收가 끝나면 해당 任員들이 모여 작황을 점검한 후 작년과 비교하며 거두어들일 양을 정한다.

[享祀節目]: 享祀 3일전을 擧就日이라고 하여 그 전날 해당 任員들이

下人을 시켜 서원을 정결하게 한다. 祭酒는 해당 임원이 釀酒하는 과정을 직접 감독한다. 享祀 2일전은 致齋日이라고 하여 해당 임원들은 下人을 시켜 서원 안을 정결하게 한다. 齋員은 의관을 갖추고 作脯할 때는 직접 감독한다. 下人들에게 直領을 입게 하고 씻게 한다. 齋員의 食事는 아침 저녁은 각 7홉, 점심은 5홉으로 하고 下人들과 각처에서 온 노비들에게도 똑같이 지급하는데 오후부터 적용한다. 오후에 향례 때 각자의 역할을 적 은 分榜을 내건다. 分榜 후에는 三獻官은 齋巾服을 입고 齋員들은 儒巾을 쓴다.

享祀 1일전은 正齋日이라고 한다. 外人은 齋로 들어오지 못하고 齋員 은 문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祭酒를 봉할 때는 담당 임원이 직접 참관하여 白紙로 봉한다. 午後에 大祝이 祝을 쓴다. 저녁 후 모두 목욕한다.

향사 당일은 첫닭이 울기 전에 齋員은 머리를 빗고 세수하고 건을 쓰 고 제복을 입은 다음 고지기를 시켜 粥床을 받는다. 番將을 시켜 神門 밖 좌우로 炬火 三柄씩 세우고 안에는 二柄씩 세운다. 祭物을 올릴 때 行步席 을 깐다. 거화는 예가 끝날 때까지 꺼지지 않도록 한다.

[院生節目] : 院生 10명 중에 빈 자리가 있어 새로 들어온 자가 있으면 新例錢 10兩을 내도록 한다.

[奴婢節目] : 봄 가을 향사 때 특히 女婢를 나오게 하는 것은 생산(임 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奴婢의 貢價는 壯奴가 1年에 2兩, 壯婢가 1年에 3兩씩이다. 15세 미만은 奴가 1냥씩, 婢가 1냥 5전씩이다.

[院沓作者節目] : 소작자는 착실한 자를 세우고 미리 벼를 베게하지 말 고 타작 당일에 베게 한다. 볏짚은 반씩 나누고 남은 것이 있으면 말 수를 세어 추가분을 草價로 받는다. 추수당일에 타작한 볏섬은 창고로 바로 넣 고 典有司가 직접 열쇠로 잠근다.(여러 폐단이 많아) 소작인으로 양반을 세우지 않고 五賢子孫 중 本院子孫에게도 소작을 맡기지 않는다.

[養山節目] : 書院의 主山과 案山의 소나무는 일체 가지 하나라도 자르 지 못하게 하며. 一年草는 秋享 때 땔감으로 사용하다. 매년 추햣 때 일일

이 고지기에게 수확물을 받는다.

○「傳與記」: 여기서는 17세기 중반 경에 경상도 안동 병산서원의 서원운영과 관련한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적은 치부책인「傳與記」(『古文書集成』第 20卷: 屛山書院篇)를 예로 든다. 내용은 주로 원곡을 대여하여 받은 이자수입을 통해 원곡이 증가하고 이를 토대로 지출을 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원곡의 증가는 매년 100석 가까이 되고 원곡의 합이 800여석 등으로 규모가 커지면 전답을 구입하였는데, 이 전답에서 나오는 수입이 추가됨으로써 원곡과 이자의 규모가 동반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661년에는 약 568섬이 늘어 전체 원곡 규모가 1,468섬이 된다. 2년 후인 1663년에 병산서원의 운영주체인 하회 풍산 유씨 종중성원간의 完議에 따라 890섬을 蕩蔭하여 원곡이 825섬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종중성원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서의 마지막 기재 해인 1668년 9월 17일에 傳與된 원곡 규모는 1496 石 3升 6合인데 그 안에는 그동안 사들인 전답이 빠져 있다. 1655년 이후로 나타나는 지출 내역의 큰 특징은 전답매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해년, 즉 1647년에 전여받은 元穀은 405섬인데 이중 『징비록』출간과 관련하여 51섬 8말을 지출하여 353섬 7말이 남았다. (이 일대에서는 1石=15斗다.) 2년 후인 1649년에는 학봉집 및 비지문집 발간과 관련하여 魯林書院에 扶助한 지출이 있었다. 『費趾文集』은 南致利(1543-1580)의 문집이고 노림서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송리리에 있었던 서원으로이해, 즉 1649년(인조 27)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남치리의 학문과 덕행을추모하기 위해 창건되어 그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이밖에도 지출 내역에는 유생들의 여비 등을 지원한 경우(疏會儒生役 只上京資裝時盡爲用下), 향사 때(壬辰年-1652년 春秋 享祀) 및 거접하거나 강서하는 유생을 지원한 기록이 있다(接儒生 讀書儒生 凡百徭役計除). 1654년에는 도망노비가 남긴 환자를 대신 납부한 기록도 있다(逃奴姜梅名 還上納). 1655년 이후로 나타나는 지출 내역의 큰 특징은 乙未(1655년) 拾 貳石拾貳斗 畓價, 貳拾陸疋 則畓上餘價, 丁酉(1657년) 貳拾參石陸刀柒合 畓價, 己亥(1659년) 貳拾玖石玖斗伍合壹舍肆里 田畓價 등의 전답매입이다.

휘 보

◈ 한국서원학회 활동보고(2006-2012) ◈

□ 학회 활동 □

1. 주요 연혁

2006. 9. 5 : 한국서원학회 창립준비위원회 1차 모임

2006. 10. 10 : 한국서원학회 창립준비위원회 2차 모임

2006. 11. 23 : 한국서원학회 창립총회(국민대학교), 초대 회장 정만조 교수 선출

2007. 2. 9: 제1회 워크숍(학회 운영 및 사업계획 검토)

2007. 3. 16 : 제1회 연구발표

2007. 4. 20 : 제2회 연구발표

2007. 5. 20 : 제1회 서원답사(경기도 남양주 석실서원)

2007. 6. 29 : 국내학술회의(한국국학진흥원)

"한국 성리학과 지방학 - 조선시대 서원의 지역성과 정치적 성격"

2007. 8. 24 : 제2회 워크숍(화양동서원지 편찬)

: 제2회 서원 답사(충북 화양동서원, 화양구곡, 만동묘)

2007. 10. 23-24 : 국제학술회의(중국 호남성 嶽麓書院) "東亞書院과 儒學"

- 2008. 1 : 제3회 연구발표
- 2008. 3 : 제4회 연구발표
- 2008. 4. 18 : 제5회 연구발표
- 2008. 5. 20 : 제3회 서원답사(경북 성주 천곡서원, 회연서원 등)
- 2008. 7. 25 : 제4회 서원답사 및 지역서원세미나(경북 안동 병산서원)
- 2008. 8.3-8.5 : 국제학술회의 참가(중국 복건성 武夷山) "朱子學과 東亞文化"
- 2009. 4. 20 : 제 6회 연구발표
- 2009. 6. 19-6.20 : 제5회 서원답사 및 지역서원세미나(전북 정읍 무성 서원)
- 2009. 8. 20 : 국제학술회의(국민대학교)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속의 서워"
- 2009. 9. 16 :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검토자문회의(문화재청)
- 2009. 10. 23-24 : 국내학술회의(공주대학교) "숙모전(동학 3사)의 역사 와 문화성격"
- 2009. 10.24 : 제 6회 서원답사(숙모전, 동계사, 충현서원)
- 2010. 2. 10 : 정기총회 및 결산 감사보고, 임원 개선(제2기 이해준 교수 회장 선임)
- 2010. 3. 26 : 제 7회 연구발표 및 학회운영방안 논의
- 2010. 6. 30 : 서원 보존정비방안 워크숍
 - : 제7회 서원답사(전남 필암서원, 월봉서원)
- 2010. 10. 4: 한국서원 세계유산등재 간담회(정만조, 이해준, 정순우, 이상해 회원 참석)
- 2011. 2. 22 : 서원 대표자 심포지움 "서원의 보존과 활용방안"

2011. 4. 16-17 : 제8회 서원답사(충남 논산 돈암서원 외)

2011. 6. 11-12 : 제9회 서원답사(경북 영주 소수서원 외)

2011. 10. 27-29 : 국제학술회의(한국국학진흥원)

"한국 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2011. 11. 5-11.6 : 국제학술회의(중국 호남성 약록서원) "書院文化의 傳承과 開拓"

2011. 12. 12 : 서원 보존관리 워크숍 "한국 서원(문화재) 보존관리의 현황과 과제"

2. 활동

- 1) 학술대회(국제, 국내)
 - ☆ 국내 학술대회 "조선시대 서원의 지역성과 정치적 성격" (2007. 6. 29)
 - 주최 :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서원학회,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 발표주제 :

이해준, 호서지역 서원의 특성과 정치적 성격 조준호, 경기지역 서원의 특성과 정치적 성격 김학수, 영남지역 서원의 특성과 정치적 성격 김문택, 호남지역 서원의 특성과 정치적 성격

- ☆ 국제학술회의 "동아서원과 유학"(2007. 10. 23-10. 24)
- 장소 : 중국 호남성 장사시 嶽麓書院
- 주최 : 악록서원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 발표자 : 박종배, 이근호, 이상해, 이수환, 정만조, 정순우, 조준호
- ☆ 국제학술회의 참가 "주자학과 동아문화"(2008. 8. 3-8. 5)
- 장소 : 중국 복건성 무이산
- 주최 : 주자연구센터,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 발표자 : 정만조, 이해준, 지두환, 정순우, 조준호, 이근호, 김자운 박성종, 김문식, 박종배
- ☆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속의 서원"(2009. 8. 20)
- 주최 : 한국서원학회,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 장소 : 국민대학교

- 발표주제 :

辻本雅史(日本,京都大),「近世日本(1600~1867)における儒學の 學習と儒教的人間形成」

조준호(국민대), 「書院志의 分析을 통해 본 初期 書院의 성격」 胡靑(中國, 江西師范大學), 「淸代鄭之僑鵝湖書院"學規系統"-學術 傾向探析」

李兵(中國, 湖南大學),「對中國古代書院教育科舉化原因的思考」 박종배(東國大),「學規에 나타난 조선시대 書院教育의 이념과 실 제」

朱漢民(中國,湖南大學),「朱熹的書院祭祀:統合道統与釋奠」 方彦壽(中國,武夷山 朱熹研究中心),「儒佛之爭:儒學書院与佛教 寺院-以福建爲例」

지두환(국민대), 「조선후기 書院 儀禮 연구」

鄧洪波(中國、湖南大學)、「由講會而社團:天下東林講學書院」

肖永明(中國, 湖南大學),「論王權對書院的控制-社會控制視角中的歷代書院政策」

Milan G. Hejtmanek(美國, 서울대), 「한국 서원의 정치성과 향촌기 구로서의 성격」

- ☆ 국내학술회의 "숙모전(동학 3사)의 역사와 문화성격"(2009. 10. 23.-10. 24)
- 장소 : 공주대학교 대회의실
- 주최 : 한국서원학회,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공주시
- 발표주제 :

정만조, 「숙종조 사육신 추숭과 서원제향」 최근묵, 「숙모전(동학3사)의 역사적 변천」 이해준. 「호서사림의 유회활동과 동학사」

242 韓國書院學報 1

이규필, 「동학사 숙모전의 문학적 일 고찰」

- 토론 : 이수환(영남대), 성봉현(한중연), 백원철(공주대)

☆ 국제학술회의 "한국 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2011. 10. 27-10. 29)

- 장소 : 안동 한국국학진흥원(27일 도산 병산서원 / 29일 소수서원 답사)
- 주최 : 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재청
- 발표주제 :

Benedict Selfslagh(ICOMOS), 「교육기관의 세계유산적 가치」 西垣 安比古(일본 경도대), 「동양적 사유와 교육환경」 정순우(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시대 한국의 교육제도」 Mark Minton(서울대), 「한국 교육제도의 특징」 이상해(성균관대), 「한국서원과 주변경관」 이해준(공주대), 「한국서원 유・무형문화유산의 특징」

- 지정토론 : Kristi Kovanen, 박종배, 김덕현, 이왕기, 김종석, 이수환
- 패널토론 : "한국 서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 (사회 : 이배용 위원장)

김병일, 김종규, 김봉건, 김인걸, 정만조

☆ 국제학술회의 "서원문화의 전승과 개척"(2011. 11. 5-11. 6)

- 장소 : 중국 호남성 장사시 嶽麓書院

- 주최 : 악록서원, 한국서원학회, 호남대학

- 주제발표 :

김덕현 : 韓國 書院 景觀에 대한 天人合一 思想 解讀

이해준 : 韓國 書院資料의 類型과 性格

정순우 : 朝鮮時代 한 士族 家門의 書院運營 -安東 義城金氏家

를 中心으로-

이수환: 朝鮮後期 安東 鄕吏 權喜學 家門의 社會經濟的 基盤 과 鳳岡影堂 建立

박종배 : 韓國과 中國 書院의 講會 比較

김인걸 : 朝鮮의 書院과 鄕村社會

서정문 : 韓國 書院의 石刻 文化

조준호 : 朝鮮時代 書院 祭享의 實際 - 鄭夢周 書院을 中心으

2) 연구발표회

제1회 연구발표(2007. 3. 16)

로 -

- 장소 : 대우학술재단

- 발제 : 김인걸, 「서원 연구의 현재적 가치와 향후 과제」 정승모, 「서원 문서와 사회사 연구」

제2회 연구발표(2007. 4. 20)

- 장소 : 대우학술재단

- 발제 : 이수환, 「영남지역 서원의 자료 현황과 연구동향」 조준호, 「경기지역 서원문헌DB와 연구동향」

제3회 연구발표(2008. 1)

- 장소 : 대우학술재단

- 발제 : 정순우, 「조선후기 한 지방사족 가문의 서원 의례-桐溪가문 을 중심으로」

제4회 연구발표(2008. 3)

- 장소 : 대우학술재단

244 韓國書院學報 1

- 발제 : 윤상기, 「고문헌과 관련된 서원연구의 동향」 이완우, 「화양동서원 인근의 石刻」

제5회 연구발표(2008. 4. 18)

- 장소 : 대우학술재단

- 발제 : 이해준, 「충청지역 서원연구의 동향과 과제」 안민엽, 「서원발흥기 조선 사림의 서원인식」

제6회 연구발표(2009. 4. 20)

- 장소 : 대우학술재단

- 발제 : 정만조,「파주사족과 서원」 윤진영,「九曲圖와 書院圖로 본 서워의 표상」

제7회 연구발표 및 학회 운영계획 논의(2010. 3. 26)

- 장소 : 대우학술재단

- 발제 : 지두환, 「서원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3) 위크숍

제1회 워크숍 "학회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기획안 검토" (2007. 2. 9)

- 장소 : 국민대학교 교수휴게실(북악관 15층 1501호)

- 참석 : 회장 정만조 외 11명

- 발제 : 이해준, 「서원학회 운영계획안」 조준호, 「서원관련 자료의 정리방안」

- 논의사상 : 1) 서원관련 자료의 정리 방안

2) 학술세미나와 학회지 발간 사업

3) 도서출판과 학회 수익 사업

- 제2회 워크숍 "화양서원 교양총서 발간을 위한 위크숍" (2007. 8. 24)
- 장소 : 청주 화양서원
- 참석자 : 정만조 이상해 정순우 권오영 김성기 외 10명
- 화양동 서원 및 화양구곡 답사

제3회 서원 보존정비 관리방안 워크숍(2010. 6. 30)

- 장소 : 장성 필암서원
- 주제 : "서원 보존·정비 및 활용의 효율적 방안 모색"
- 발제 : 이왕기, 「서원건축의 보존·정비·활용 방안」 김덕현, 「서원 경관의 보존·정비·활용 방안」 이해준, 「서원 문화사 자료정리와 활용방안」
- 토론 : 이해준, 정순우, 이상해, 홍승재, 최영갑, 심승구, 고수연, 정현정, 박성진

제4회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간담회(2010. 10. 4) 세계유산(잠정목록)등재 추진위 구성 등 한국서원학회(정만조, 이해준, 정순우, 이상해 회원) 참석

제5회 서원대표자 심포지움 "서원의 보존과 활용방안" 발표 (2011. 2. 22)

- 장소 : 성균관 유림회관
- 주최 : 한국서원연합회 / 서원학회
- 발제 : 이해준, 「서원기능의 보존과 활용방안」 김덕현, 「서원경관의 보존과 활용방안」 이왕기, 「서원건축의 보존과 활용방안」

제6회 "한국 서원문화재 보존관리의 현황과 과제" 워크숍 (2011. 12. 12)

-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 주최 : 한국서원학회, 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재청

- 발제 : 김영모(한국전통문화학교), 「서원 주변경관의 훼손과 보존 관리 문제」

김철주(문화재청), 「서원 건축물 복원과 건축문화재 보존관리」이왕기(목원대), 「서원 종합정비(계획)의 변천과 과제」이상해(성균관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서원보존관리의 올바른 방향」

4) 지역 서워 세미나와 답사

제1회 서원답사(2007. 5. 20): 경기도 남양주 석실서원 등 제2회 서원답사(2007. 8. 24): 충북 화양동서원, 화양구곡, 만동묘 제3회 서원답사(2008. 5. 20): 경북 성주지역 천곡서원, 회연서원 등 제4회 서원 답사 및 지역서원세미나(2008. 7. 25): 경북 안동 병산서원

- 발제 : 이수환(영남대),「안동지역 사족과 병산서원」 김학수(한국학중앙연구원),「院享論을 통해 본 서애계의 '溪門嫡傳論',

> 박종배(동국대), 「병산서원 교육관계 자료 검토」 조준호(국민대), 「19세기 병산서원의 賜額과정」

제5회 서원 답사 및 지역서원세미나(2009. 6. 19-6. 20) : 전북 정읍 무성서원, 남고서원 등

- 발제 : 송만오(전주대),「井邑 武城書院 所藏古文書의 종류와 내용」 박종배(동국대),「19세기후반 武城書院의 講習禮」 이계형(민주화운동사업회),「泰仁地域 崔益鉉 義兵運動과 武城書院」

- 제6회 서원답사(2009. 10. 24): 충남 공주 숙모전, 동계사, 충현서원 등 제7회 서원답사(2010. 6. 30): 전남 장성 필암서원, 광주 월봉서원 제8회 서원답사(2011. 4. 16-17): 돈암서원(충남 논산), 무성서원(전북 정읍), 필암서원(전남 장성), 남계서원(경남 함양) / 참가: 정만 조, 이상해, 정순우, 이해준 등 19명
- 제9회 서원답사(2011. 6. 11-12): 소수서원(경북 영주), 병산서원(안동), 도산서원(안동), 옥산서원(경주), 도동서원(달성) / 참가: 정만조, 이상해, 정순우, 이해준 등 20명

3. 학회 창립 관련 자료

1) 한국서원학회 창립 취지문(2006. 11. 23)

우리나라의 서원에 대해서는 한국의 역사에서 그것이 차지하였던 중요도 만큼이나 그동안 여러 부문에서 혹은 통시대적으로, 또 달리는 개별 서원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성과가 축 적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그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서원에 대한 종합적 실체와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하고 나아가 오늘날에 있어서의 그 현실적 의미와 활용성을 모색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서원 연구자 여러분의 衆智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참신한 연구방법의 모색과 자료의 발굴 및 共有를 통한 공동작업의 수행은 물론, 연구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토론을 통한 새로운 연구 추진의 동력을 점화해야 할 필요성은 기존 연구의 한계로 말미암은 최근의 서원 연구부진상을 타개해야 할 의무감을 갖는 우리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 識者層들의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수준 높은 知的 欲求에 副應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서원을 연구자들만의 독점 대상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과 이해와 활동을 함께 하는 생활상의 공간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칭 '韓國書院學會'의 창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同學諸賢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은 물론 공감대의 확산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 서원학회발기인 명단 : 58명

권오영(한중연), 김경옥(목포대 연구교수), 김경용(서울대 강사), 김동 전(제주), 김명숙(동덕여대), 김문택(서울시립박물관), 김봉렬(종합예 술대학), 김인걸(서울대), 김학수(한중연), 남권희(경북대), 노대환(동양 대), 박병련(한중연), 박성종(관동대), 박종배(교원대), 박주(대구가톨릭 대), 서정문(국민대), 설석규(한국국학진흥원), 송정숙(부산대), 신승운 (성균관대), 신차균(국민대), 심경호(고려대), 안대회(명지대), 옥영정 (한중연), 우용제(서울대), 유권종(중앙대), 유봉학(한신대), 윤상기(동 의대), 유승상(한국역사문화연구원), 윤희면(전남대), 이규대(강릉대), 이근수(경기대), 이근호(국민대 연구교수), 이상해(성균관대), 이수환 (영남대), 이해준(공주대), 이헌창(성균관대), 이훈상(동아대), 임선빈 (충남발전연구원), 장동표(부산대), 전경목(한중연), 정경주(경성대), 정 낙찬(영남대), 정만조(국민대), 정순우(한중연), 정승모, 정우락(경북 대), 정재걸(대구교대), 정진영(안동대), 조병로(경기대), 조준호(국민대 연구교수), 지두환(국민대), 최재목(영남대), 최진옥(한중연), 최호(율곡 학회연구원), 한용진(고려대), 허권수(경상대), 허남진(서울대), 황금중 (연세대) - 이상 가나다 순

2) 보도기사 - <역사의 창>(2006.12.14)

'한・중・일 書院 국제학술회의' 개최와 韓國書院學會 창립

한국 정신문화의 정수인 서원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와 한국서원학회 창립총회가 2006년 11월 23일 국민대학교에서 있었다. 그간 여러부문에서 이루어져 왔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서원에 대한 종합적 실체를 모색하기 위해 창립한 한국서원학회는 초대 회장에 정만조 교수(국민대)를 선임하였다. 이미 준비단계에서 이해준(공주대)교수를 중심으로 문학, 역사,

철학, 서지학, 미술사, 교육학, 민속학 등 각 分科의 학자 6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한국서원학회의 창립을 준비하였고, 이 날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이다.

한국서원학회는 창립취지문에서 밝혔듯 서원을 주제로 한 '참신한 연구 방법의 모색과 자료의 발굴 및 공유'를 통한 공동작업의 수행과 分科를 망라한 연구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토론을 학회운영의 방침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연구의 성과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서원을 생활상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한국서원학회의 창립은 국제학술회의의 개최와 함께 이루어졌다. 학회의 창립을 보다 뜻깊은 자리로 마련하기 위해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국제학술회의를 기획했고, 국내외의 학자들에게 학회의 창립 을 알렸다.

이날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 참여한 학자들은 한국의 서원 연구자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표적인 서원인 악록서원의 주한민 원장과 등홍파 교수, 일본의 서원 연구자인 난파정남을 초청, 한・중・일 서원의 역사와 향후 서원 연구의 방향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발표되었던 주제는 <중국 서원의 歷程>(주한민, 악록서원 원장), <한국 서원의 역사>(정만조, 국민대교수), <83년 중국의 서원 연구>(등홍파, 악록서원 교수), <한국 초기서원의 교육사적 의의>(정순우, 한국학 중앙연구원 교수, 장서각 관장), <일본의 『서원』연구의 현황과 과제>(난파정남), <한국 서원과 향촌사회>(이해준, 공주대교수)이 발표되었다.

서원은 지방의 학문 문화의 집결처이자 생산지로 기능해왔다. 중국은 당나라 이후 3천여개 서원이 설립되었고, 우리나라에도 1천여개에 달하는 서원이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원과는 형식과 내용이 다르지만 일본도 19세기 에도시대에 서원의 형태로 藩校・塾・寺子室 등이 설립되었다. 발표문에 따르면 중국 서원의 특징은 官學이었거나 혹은 관학의 보조 기구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서원은 관학과는 다른 私學으로써 인격 완

성을 장소로, 때로는 講學과 祭享을 위한 기관이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근대 이전 서원은 이름은 같지만, 그 기능이나 운영 모습이 서로 상이하였음이 이번 학술대회에서 조망되었다. 근대 이전 동아시아 교육과 정신문화축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서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한국 서원의특징 내지는 의미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오늘날 한·중·일 동양 삼국은 학술 문화 교류를 통해 오랫동안 우의를 다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동북공정, 독도문제 등과 같은 문화패권주 의가 대두하여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각국이 처한 국제정치적·외교적 입장에서 파생된 것이지만, 이는 동시에 쌍방의 문화 적 이해가 충분치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

이런 차에 한·중·일 삼국의 공통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書院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를 통해 서로간의 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학회의 창립을 통해 본격적인 교류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동양삼국의 우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3) 韓國書院學會 초대 임원명단

임기 : 2006년 11월 23일~2010년 2월 9일

회 장 : 정만조(국민대)

부 회 장 : 이해준(공주대)

감 사 : 신차균(국민대), 권오영(한중연)

총무이사 : 정순우(한중연) 재무이사 : 조준호(국민대)

연구이사 : 김인걸(서울대), 지두환(국민대), 이수환(영남대), 심경호(고려

대), 김봉렬(종합예술대학), 박종배(교원대), 최영진(성균관대)

기획이사 : 정승모(지역문화연구소)

출판이사 : 옥영정(한중연)

252 韓國書院學報 1

지역이사 : 경기・강원 박성종(관동대) 전라・제주 윤희면(전남대)

경상 이상필(경상대)

간사 : 안민엽

4. 韓國書院學會 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학회는 韓國書院學會라 칭한다.(이하 "학회"라고 약칭한 다)
- 제2조(소재)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필요한 경우 지역 사무실을 둘수 있다.
- 제3조(목적) 학회는 한국 서원의 제분야에 걸친 학문적 연구와 자료발굴 · 정보교환 · 토론등의 학술활동을 벌이며 연구성과의 사회 환원 차 원에서 대중화에 유념함으로써 한국사의 체계화에 기여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학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학술 활동을 한다.
 - 1. 연구논문 발표회
 - 2. 특별 학술 회의 및 세미나
 - 3. 문화 유적 학술 답사
 - 4. 서원지 및 서원자료집 발간
 - 5. 학회지 발간
 - 6. 기타 학문 연구와 회원 친목에 필요한 사업
- 제5조(회원) 학회의 회원은 書院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 다
-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회의나 세미나에서 연구 물을 발표할 수 있으며, 또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를 배부받고 여 기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연구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학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회기 안에 납부해야 한다.

- 제8조(명예회원) 회장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학회의 사업이나 재정에 기여한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함 수 있다.
- 제9조(기록과 문서 보존) 각급 임원은 학회의 모든 활동상황을 소정양식에 의해 기록하고 대내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는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 제10조(시행세칙) 학회의 운영은 본 회칙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우 시행 세칙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과 업무

- 제11조(기구)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기구를 둔다.
 - 1. 총회 2. 평의원회 3. 이사회 4. 편집위원회
- 제12조(임원과 직무)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1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각급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2. 부회장(1인)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2인) : 학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독한다.
 - 4. 평의원(50인 이내) : 평의원회를 구성하고 학회의 주요 업무와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 5. 이사(20인 이내) : 총무, 재무, 연구, 기획, 섭외, 출판, 지역이사로 하고 학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 6. 편집위원(10인 내외) :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을 심사하며, 학회지 외 기타 출판물을 편집한다.
 - 7. 자문위원(무정수): 학회의 회장과 감사를 역임한 회원은 자문위원 으로 위촉하고, 학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 8. 연구윤리위원(15인 이내): 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

재 등 부정한 행위를 심의 처리한다.

-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평 의원의 임기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제14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이사,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절 총회

- 제15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제16조(의결) 모든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중요 안건의 예심) 총회에서 의결할 중요 사안은 평의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다.
- 제18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 2. 평의원의 인준
 - 2. 예산안 및 결산 승인
 - 3. 회칙의 개정과 조직의 개편
 - 4.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절 평의원회

- 제19조(구성과 소집) 평의원회는 50인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을 겸한다. 평의원의 선출은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평의원회는 의장이나 1/3인 이상 평의원의 요구로 소집한다. 모든 사항은 과반수 의원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0조(기능) 평의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 1. 학회의 사업 방향이나 중요 업무를 심의 결정

- 2.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시행 세칙이나 규정의 제정
- 3. 총회에 부의할 중요 안건의 심의

제3절 이사회

- 제21조(구성과 소집)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수 시로 소집한다.
- 제22조(기능) 학회의 사업을 분장하고 추진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집행하다.
- 제23조(업무분장) 이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분장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 이사와 섭외이사를 둘 수 있다.
 - 총무이사 : 학회 조직, 회원 관리, 재산・도서・문서・장부・기록・자료 관리
 - 2. 연구이사 : 연구발표회, 학술회의와 세미나, 유적 답사의 기획과 추진
 - 3. 재무이사 : 재정・회계・기금의 관리, 예산・결의안 작성
 - 4. 기획이사 : 사업계획, 연구프로젝트 수주 및 기획, 학회 발전 방안 연구
 - 5. 출판이사 :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실무 담당
- 제24조(간사) 학회의 연구, 행정, 연락, 도서관리 등의 제반 실무를 위하여 가사를 둘 수 있 다.

제4절 편집위원회

- 제25조(구성과 소집) 평의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출판)이사가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 제26조(기능)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여기 에 게재할 논문과 저작물을 심사한다.
- 제27조(저작물 심사) 학회지 등에 게재할 저작물의 심사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 게 시행한다.

제5절 연구윤리위원회

- 제28조(구성과 소집) 회장, 편집이사 및 연구이사 중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 제29조(기능) 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그 처리를 심의 결정한다.
- 제30조(연구윤리 문제의 처리) 연구윤리 문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제3장 재정

- 제31조(예산 편성) 학회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 및 각종 보조비와 기부금 등으로 편성한다.
- 제32조(수익사업) 학회는 공동 연구비, 공동 저작의 인세나 저작료 기타 학술활동과 관련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학회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사업에서 회원 수익금 중 일부를 헌납받을 수 있다.
- 제33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 제34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2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해 12월 정기 총회 개최전일까지로 한다.
- 제35조(결산보고)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을 수시로 평의원회에 보고하 고, 결산 내역과 사업 실적을 12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6조(기금의 조성과 운영) 학회의 특수 사업 추진이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특수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은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 운영한다.

◈ 편집 규정 ◈

2011년 11월 1일 제정

- 제1조 이 규정은 韓國書院學會의 학회지인 『韓國書院學報』(이하 學報라 약칭함)의 편집 및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학보는 서원 연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한다.
 - ① 研究論文
 - ② 批評論文(說林, 論壇 등을 포함)
 - ③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 제3조(인쇄 및 발행) 학보는 년2회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 ① 인쇄일은 6월 23일, 12월 23일로 한다.
 - ② 발행일은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 제4조(투고 제한) 학보에는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 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 제5조(투고논문 심사) 투고된 논문은 전문가 3인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 제6조(編輯委員會) 학보의 편집과 심사를 위해 학회 내에 編輯委員會를 둔다.
 - ① 編輯委員은 학회 이사로서, 전공분야에 업적이 인정되는 자를 會長이 제청하고,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 ② 編輯委員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총무이사가 맡으며, 편집이사는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편집간사는 보조한다.
 - ④ 編輯委員會는 위원 % 이상의 출석으로 成會하며, 출석위원 %

-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編輯委員會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단 1,2월과 7,8월은 제외한다.
- ⑥ 編輯委員의 위촉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7조(編輯委員會 의결사항) 編輯委員會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심사자 선정
 - ② 심사 확정 논문에 대한 처리
- ③ 학보 내용과 관련된 기획 등 학보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제8조(編輯諮問委員會의 설치와 기능) 學報의 수준 제고를 위해 編輯諮問 委員會를 둔다.
 - ① 編輯諮問委員은 전임 회장을 비롯해 학계의 원로 중진 가운데 회장이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 ② 編輯諮問委員은 20명 내외로 한다.
 - ③ 編輯諮問委員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④ 학보의 편집과 간행에 대해 자문한다.
 - ⑤ 旣 刊行된 학보의 내용에 대해 평가한다.
- 제9조(논문 심사) 투고 논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학자를 위촉하여 심 사한다.
 - ① 審査委員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위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編輯委員도 審査委員으로 위촉될 수 있다.
 - ② 심사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審査委員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0조(논문 심사 절차)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 독창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A), 수정후게재(B), 재심의(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② 게재 판정을 제외한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판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일주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A,A) (A,A,B) : 게재

(A,B,B) (B,B,B) : 수정 후 게재

(A,A,C) (A,A,D) (A,B,C) (A,B,D) : 편집위원 또는 제3자에게 "수 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의뢰

(A,C,C) (B,B,C) (A,C,D) (B,C,C) (B,B,D) (C,C,C) : 수정후 재심사

(A,D,D) (B,C,D) (B,D,D) (C,C,D) (C,D,D) (D,D,D) : 게재불가

- ⑤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하며, 심사위원 전원 수정 후 게재(B) 이상 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원고의 기한) 원고의 투고와 논문게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① 원고의 투고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한다.
 - ②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에 한해 수록하는 것을 워칙으로 한다.
 - ③ 논문에는 저자의 영문이름과 소속 및 지위 등을 명시한다.
 - ④ 공동연구의 경우는 제1저자를 명시한다.
- 제12조(게재료 청구) 학회는 투고 논문이 학보에 게재가 결정되면 투고자 에 대해 소정의 게재료를 청구한다.
- 제13조(知的財産權) 학보에 수록된 원고에 대한 知的財産權은 학회에 귀속하다.
- 제14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 제15조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편집 방침 ◈

본 학회의 편집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일반원칙

- 1. 투고 희망자는 원고작성 요령에 맞추어 혼글로 작성된 논문 파일(참고 문헌, 외국어초록, 주제어 5개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 2. 원고분량은 연구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 비평논문은 100매를 기준으로 한다.
- 3. 본 연구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본문에서는 한문이나 구미 어문을 될 수 있는대로 피하고 필요한 경우 각주에서 달기로 한다.
- 4. 본문 안에서 사료를 인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논문의 본문 중에 저자의 이름 밑에 붙이는 존칭은 일체 생략한다.
- 6. 논문 작성시『조선왕조실록』원문의 각주는 되도록 피한다.
- 7. 장제목은 머리말(혹은 서론, 서언 등)과 맺음말(혹은 결론)을 포함하여 로마자(I, Ⅱ, Ⅲ······)로, 절 제목은 1. 2. 3의 형식으로, 항 제목은 1)
 2) 3)의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 8. 연대 표기는 서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괄호하여 왕대를 부기한다.

보기) 1727년(영조 3)

Ⅱ. 문헌이용

1. 인용방법은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책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쪽수의 순서로 적

262 韓國書院學報 1

는다. 논문의 경우 필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호수, 출판연도, 쪽수의 순서로 적는다.

- 2. 책명과 학술지명은 『』로 표시하고, 논문제목은 「」로 표시한다. 구미 문헌의 경우 책명과 학술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논문제목은 "" 로 표시한다.
- 3. 쪽수를 표시할 때에는 'p.'으로 표시한다.
- 4. 韓國 古典의 경우는 책명, 권수, 몇년, 몇월로 적는다.
- 5. 학술지나 저서의 권수, 호수, 집수, 통권수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 6. 쪽수는 권, 호, 집의 숫자 다음에 쉼표(,)를 찍고, 이어서 쓰되 여러 쪽이 계속 인용될 때는 시작하는 쪽수와 끝나는 쪽수 사이에 물결표 (~)를 쓴다.
- 7. 문장 내용 중 강조는 ''표시하고 인용문일 경우는 ""로 표시한다.
- 8. 앞에 인용한 문항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의 책, 앞의 논문, 위의 책, 위의 논문 등으로 표기한다. 구미문헌의 경우는 Ibid., op.cit를 사용하다.
- 9.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학계의 관행을 따른다. 보기)

『文宗實錄』 권10, 문종 원년(1451) 10월 6일(신미).

李滉,『退溪全書』卷9,上沈方伯.

李海濬, 「조선후기 서원연구와 향촌사회사」, 『한국사론』 21, 1991, p.58 참조.

鄭萬祚,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李海濬, 앞의 논문, 1991.

鄭萬祚, 앞의 책, 1997.

Ⅲ. 참고문헌 작성 및 표기방식

1. 참고문헌은 원칙적으로 본문에서 인용한 저서와 논문으로 한정한다.

- 2. 단행본, 일반논문 순서로 작성하며, 학위논문은 일반논문에 포함시킨다.
- 3. 단행본과 일반논문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한 줄 줄바꿈으로 나눈다.
- 4. 각 논저의 작성언어를 기준으로 한국어 저작과 외국어 저작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5. 배열순서는 한국어 논저의 경우 저자 가나다순으로 하고, 일본인, 중국 인의 이름은 한자의 한국식 발음 가나다순을 기준으로 한다.

Ⅳ. 기타

1. 각주 속에서 인용문을 제시할 경우, 인용문을 겹따옴표("")로 묶어주고, 전거는 그 뒤에 부기한다.

보기)

"待教朴文秀上疏 略曰 前正言羅學川疏有曰 辛丑以後 公道尤喪 大小榜眼 都是形勢 滿朝靑紫 不受人指點者幾人 臣卽癸卯榜也." [『英祖實錄』권2、영조 즉위년(1724) 12월 6일 (을해)]

2. 표의 번호와 제목은 표의 위에, 그림의 번호와 제목은 그림의 아래에 표시하고, 각각 출전을 표시한다.

보기)

<표 1> 조선시대 과거합격자의 차이 (출전 : 『국조문과방목』) <그림 1> 윤두서의 자화상 (출전 : 홍길동, 『한국인의 자화상』, 민창사, 2011)

◈ 연구윤리 규정 ◈

2011년 11월 1일 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韓國書院學會 관련 연구물을 간행함에 있어 연구 윤리를 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기능) 이 규정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제재하는 기능을 갖는다.
-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제1조(목적)와 제2조(기능)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① 연구윤리위원은 편집이사와 연구이사 중에서 10명 내외로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유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 제4조(표절 및 중복게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 ① 타인의 연구결과를 본문이나 주 등에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 ② 이미 타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연구내용을 첨삭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중복게재(자기표절)'로 간주한다.
- 제5조(심의 및 판정) 표절 및 중복게재로 제보된 논문의 심의 및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한다.
- 제6조(제재조치)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 재조치를 행한다.
 - ①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투고를 금지하며, 회원 의 자격을 박탈한다.
 - ② 해당 논문이 이미 학보에 게재된 경우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 제7조(공고)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한국서원학회 회보에 공 지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 보한다.
- 제8조(소명기회)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 제9조(기타) 제4조에 해당하는 표절 및 중복게재 외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고의로 자료나 통계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 ② 학회 명의를 도용하여 연구사업이나 출판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11조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임원명단

고 문 : 정만조(국민대) 회 장 : 이해준(공주대)

부 회 장 : 정순우(한중연) 심경호(고려대), 김봉렬(종합예술대학)

감 사 : 김인걸(서울대), 권오영(한중연)

총무이사 : 조준호(국민대) 재무이사 : 김명숙(동덕여대)

연구이사 : 심경호(고려대), 김봉렬(종합예술대학), 신치균(국민대), 지두환(국민대),

이수환(영남대) 옥영정(한중연), 최영진(성균관대), 정승모(지역문화연구소)

기획이사: 박종배(동국대) 이근호(국민대) 출파이사: 김학수(한중연) 김지운(한중연)

지역이나: 경기・강원 이규대(강릉대) / 전라・제주 윤희면(전남대)

/ 경상 정진영(안동대)

출판이사 : 김학수(한국학중앙연구원) 김자운(한국학중앙연구원)

총무간사: 김선영(국민대) 편집간사: 정현정(공주대)

편집위원

김봉렬(종합(예술(대학)) 박종(배(동국(대))

신치균(국민대), 심경호(고려대)

옥영정(한국학중앙연구원), 이근호(한국학중앙연구원)

())수화(영남대), 정승모(지역문화연구소)

지두환(국민대). 최영진(성균관대)

출파이나 : 김학수(한중연) 김자운(한중연)

편집가사: 정현정(공주대)

韓國書院學報 제1호 값 10,000원

2011년 12월 20일 印刷

2011년 12월 30일 發行

발 행 인 이해준

발 행 처 한국서원학회

발 가 처 민창사

314-701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신관동 182)

이해준 교수 연구실 🕿 041) 850-8417

학회비: 종신회원(60만원), 일반회원(3만원)

기관회원(5만원), 외국회비(\$50)

회비납입계좌

농협 302-0211-1592-21, 이해준(한국서원학회)